



표지 : 『楊州郡邑誌』 收錄

楊州郡地圖

제자 : 白南璫



회암사지 부도 및 쌍사자 석등

여

백

楊州の地名由來



楊州郡

여

백

發 刊 辭



楊州郡은 예로부터 肥沃한 漢江 流域을 토대로 政治·社會·文化 등 각 분야에서 主導的인 役割을 해 온 자랑스런 고장입니다. 祖上의 얼과 燦爛한 文化的 傳統을 이어오고 있는 우리 楊州 고을은 조선시대 이래 한양의 북동쪽에 위치한 地理的 特性으로 人物, 遺物과 遺跡, 地名에 얽힌 많은 傳설을 간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山紫水明하고 人心厚德한 우리 고장의 鄉土 地名이 産業化, 都市化 과정에서 점차 잊혀져 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直視하고 한 마을 생활상의 특성이나 民俗, 自然環境 등에 의해 이름이 붙여진 地名과 그 由來를 調査, 記錄하여 조상의 얼과 애환, 삶이 살아 숨쉬는 歷史의 흔적들이 保存될 수 있도록 『楊州의 地名由來』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未盡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아무쪼록 『楊州의 地名由來』가 地名 研究의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地域 發展의 참고 자료로 珍藏 보존되고, 楊州人의 愛鄉心을 鼓吹시키며 내 고장을 찾고, 알고, 가꾸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楊州의 地名由來』가 發刊되기까지 애써 주신 상임위원 및 관계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感謝드립니다.

1993年 2月

楊州郡守 禹 鍾 五

여

백

祝 刊 辭



우리 고장 楊州는 수도 서울과 함께 국토의 심장부에 위치하면서, 우리 民族의 歷史 發展과 文化 創造의 原動力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산굽이와 더불어 녹녹한 들판, 우람한 밤나무 숲, 향기로운 寺門들과 함께 찬란한 鄉土史와 많은 文化 遺産을 간직하고 있으며, 어디를 가나 돌 하나 풀 한 포기에도 선조의 일이 깃들어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時代의 浮沈하는 歷史 속에서, 온갖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면서 이 땅을 지켜온 위대한 先祖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는 자랑스런 고장입니다.

한 고장의 地名 由來는 그 고장의 歷史를 아는 데 있어서 중요한 資料가 됩니다. 그러나 그 資料가 오랜 세월이 지나면 잊혀지거나 혹은 역사 속에 묻혀 버려 이것을 기록, 보존하지 않는 한 우리들의 주변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고장의 地名과 그 由來에 관한 資料를 한데 모아 後世에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크나큰 責務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 『楊州의 地名由來』가 향토사의 귀중한 史料로 길이 남기를 바라며, 發刊에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의 勞苦에 대하여 敬意와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3年 2月

楊州郡議會 議長 金 惠 漢



「楊州郡地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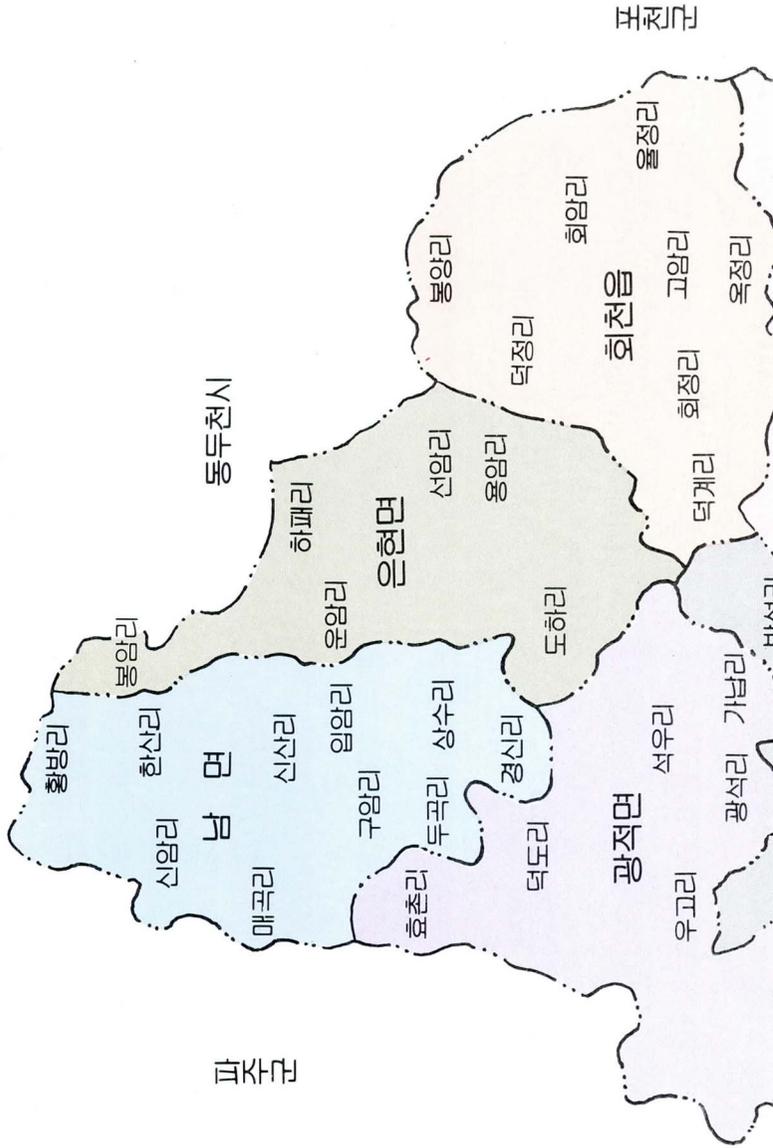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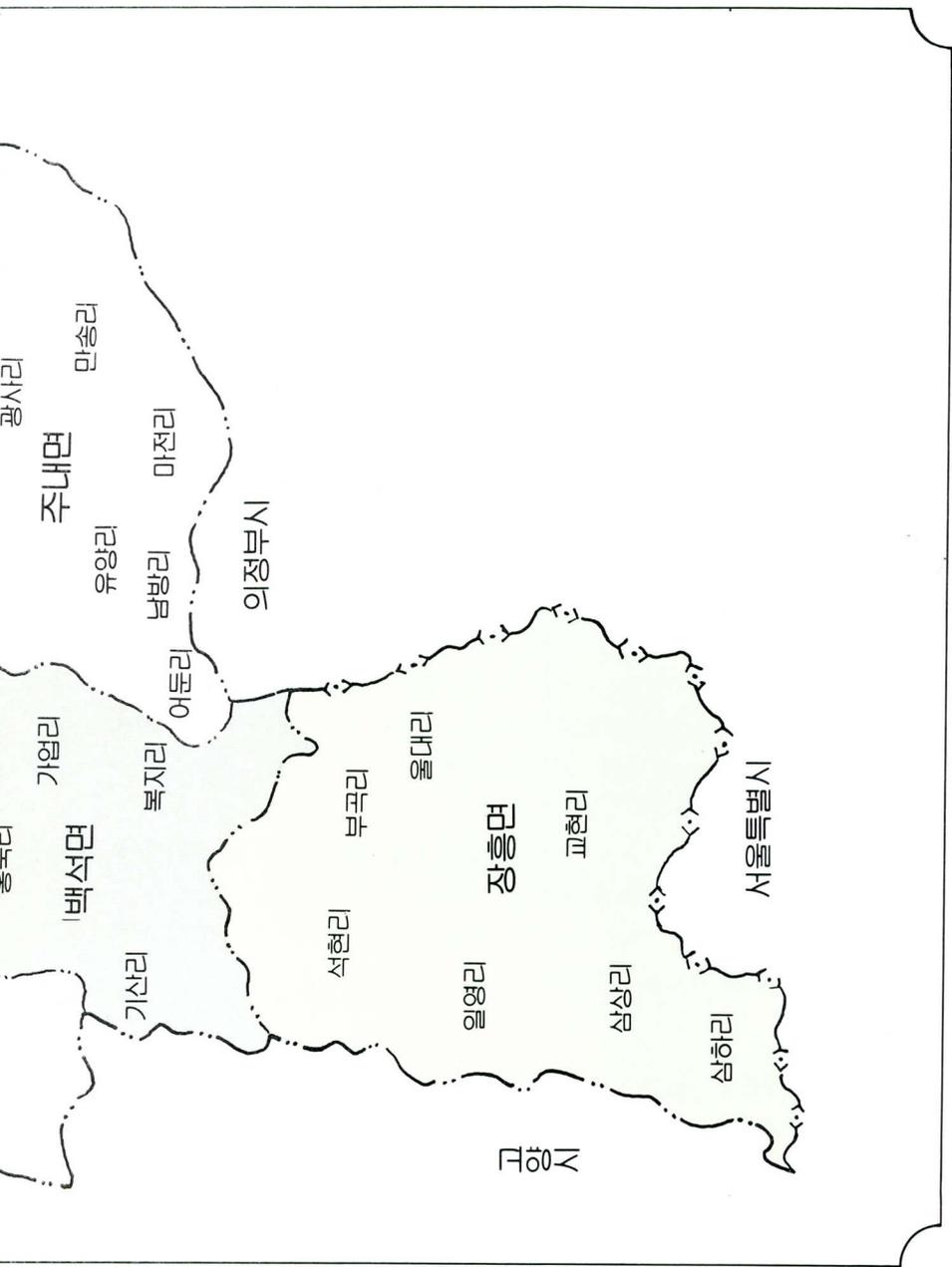
『京畿誌』 收錄 揚州郡地圖

『京畿邑誌』收錄
揚州郡地圖



현 양주군 지도





관서리

주내면

민송리

유양리

마전리

남방리

어둔리

이정부시

기원리

백석면

복지리

기산리

석현리

부곡리

울대리

장흥면

월영리

교현리

삼상리

삼하리

서울특별시

남양주

일러두기

1. 조사 대상

1) 양주군 7개 읍·면의 마을·산·하천·고개·골짜기·들·바위·터 등의 이름과 유래를 조사하였다.

2. 자료 조사

1) 문헌 조사 : 『地名由來集』(경기도, 1978) ; 『楊州郡誌』(양주군, 1978) ; 『한국지명총람』(한글학회, 1985) ; 『楊州郡誌』(양주문화원, 1992) 등 네 권의 문헌을 기본으로 하고, 권말에 수록된 각종 문헌에서 관련 내용을 조사하였다.

2) 현지 조사 : 1991년 2월부터 각 읍·면 사무소 직원들이 각 마을을 방문하여 기본적인 자료를 수집한 후, 1992년 1~2월 4명의 대학생 조사원들이 각 마을을 재차 방문하여, 촌로 및 이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1992년 6월 동두천 교육청과 양주군 내 22개 초·중·고등학교의 협조를 얻어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명유래 설문 조사지 12,450부를 발송하여, 8,715부를 회수하였다. 이 같은 설문 조사는 양주군의 전체 가구수 23,097호(1991년 11월 1일 기준)의 반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를 행한 셈이다.

이어 7~8월 2개월간 조사 책임자 인솔하에 5명의 대학생 조사원들이 다시 각 마을을 방문하여 촌로 및 이장들을 면담하고,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누락된 지명을 조사하였다. 이 같은 조사 과정에서 165명의 주민을 면담하여 자료를 제보받았다.

3. 감수 교열

1) 원고 집필을 완료한 후, 1992년 12월에 양주군청의 감수를 거쳤다. 그리고 1993년 1월에는 각 리 별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지역 원로 55명을 감수위원으로 위촉하고 조사된 원고를 감수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았다.

2) 이어 2명의 교열위원이 원고를 최종적으로 교열하였다.

여

백

차 례

발간사 / 양주군수 우종오

추간사 / 양주군 의회 의장 김혜한

현 양주군 지도 /

양주 고지도 /

일러두기 /

제1장 양주군(楊州郡) 개관	5
제2장 회천읍(檜泉邑)	11
1. 덕정리(德亭里)	13
2. 봉양리(鳳陽里)	19
3. 회암리(檜岩里)	26
4. 율정리(栗亭里)	30
5. 옥정리(玉井里)	35
6. 고암리(高岩里)	40
7. 덕계리(德溪里)	45
8. 회정리(悔亭里)	49
제3장 주내면(州內面)	53
1. 유양리(維楊里)	55
2. 어둔리(於屯里)	65
3. 남방리(南坊里)	70
4. 마전리(麻田里)	74
5. 산북리(山北里)	79
6. 광사리(廣沙里)	83
7. 만송리(晩松里)	88
8. 삼송리(三崇里)	94
9. 고읍리(古邑里)	98

제4장 은현면(隱縣面)	103
1. 용암리(龍岩里)	105
2. 선암리(仙岩里)	113
3. 운암리(雲岩里)	119
4. 봉암리(鳳岩里)	124
5. 하패리(下牌里)	129
6. 도하리(道下里)	136
제5장 남 면(南 面)	145
1. 신산리(莘山里)	147
2. 신암리(神巖里)	152
3. 매곡리(梅谷里)	158
4. 구암리(龜岩里)	160
5. 두곡리(杜谷里)	164
6. 경신리(庚申里)	167
7. 상수리(湘水里)	171
8. 입암리(笠岩里)	176
9. 한산리(閑山里)	180
10. 황방리(篁芳里)	184
제6장 광적면(廣積面)	189
1. 가납리(佳納里)	191
2. 광석리(廣石里)	198
3. 우고리(遇古里)	203
4. 비암리(比岩里)	208
5. 효촌리(孝村里)	214
6. 덕도리(德道里)	222
7. 석우리(石隅里)	229
제7장 백석면(白石面)	235
1. 방성리(防城里)	237
2. 오산리(梧山里)	247

3. 복지리(福池里)	252
4. 가업리(加業里)	259
5. 홍죽리(弘竹里)	265
6. 연곡리(蓮谷里)	270
7. 기산리(基山里)	277
제8장 장흥면(長興面)	281
1. 교현리(橋峴里)	283
2. 울대리(鬱垔里)	288
3. 부곡리(釜谷里)	295
4. 석현리(石峴里)	301
5. 일영리(日迎里)	306
6. 삼상리(三上里)	311
7. 삼하리(三下里)	316

참고문헌 /

자료 제보자 명단 /

편찬위원 /

감수위원 /

집필, 교열, 자료조사원 /

찾아보기 /

후 기 /

여

백

제 1 장

양주군(楊州郡) 개관



양주군청

여

백

양주군은 경기도 36개 시·군의 하나로써, 동으로는 포천군, 서로는 고양시와 파주군, 남으로는 서울시와 의정부시, 북으로는 동두천시와 연천군과 인접하여 있다. 면적은 303.42km²이고, 동서의 길이는 20km이며, 남북의 길이는 30km이다. 대체로 산이 많고 평지가 적으며, 대표적인 산으로는 감악산·칠봉산·불곡산 등이 있으며, 중랑천과 신천, 곡릉천 등이 흐르고 있다.

인구는 1991년 11월 1일 현재 86,050명이며, 교육시설로는 고등학교가 1개, 중학교가 3개, 국민학교가 18개, 유치원과 유아원이 30개가 있다. 1992년 1월 1일 현재 학생 수는 12,660명이다.¹⁾

문화재로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9점, 도지정 문화재가 14점, 향토 유적이 13점이 있으며, 대표적인 것으로는 회암사지 선각왕사비·회암사지 부도·회암사지 쌍사자 석등을 비롯하여 양주별산대놀이와 양주소놀이굿 등이 있다. 이 밖에도 많은 유적과 유물이 있다.

조선시대 양주군은 지금의 양주군만이 아니라 경기도 동두천시·남양주군·구리시·미금시·의정부시·서울시 노원구·중랑구 전부와 경기도 연천군·포천군·고양시·서울시 도봉구·성동구·은평구·송파구 일부를 포괄하는 웅군(雄郡)이었다. 그러나 1945년 이후 군세가 팽창하고 인접해 있는 서울시가 확장됨에 따라, 의정부·남양주 지역 등이 시·군으로 분리 독립되고, 노원구·중랑구·도봉구 지역 등이 서울시에 편입되었다. 그리하여 현재와 같이 1읍 6면으로 구성된 양주로 그 윤곽이 잡힌 것은 1981년 동두천읍을 시로 승격시키고 난 후였다. 이와 같이 복잡한 변천과정을 지닌 양주군의 연혁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²⁾

양주지방에 형성된 최초의 국가는 마한에 소속된 모수국(牟水國)이었다.³⁾ 3세기 후반, 모수국을 포함하여 양주 일대는 한강 유역에서 강성해진 백제의 영향하에 들어갔다.

그 후 475년 고구려 장수왕의 남하정책에 의하여 양주 일대는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다. 고구려는 지금의 양주군 주내면 일대에 매성군(買

1) 楊州郡, 『'92 郡政基本統計』, 1992.

2) 연혁 작성에는 양주문화원, 『양주군지』 상, 「제1편 제1장 연혁」과 「제2편 역사편」에 크게 의존하였다.

3) 양주문화원, 『양주군지』 상, 1992, 105쪽.

省郡)을, 지금의 동두천시와 양주군 은현면 일대에 내을매현(內乙買縣)을 각각 설치하였다.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인 757년(경덕왕 16) 매성군은 내소군(來蘇郡), 내을매현은 사천현(沙川縣)이 되었으며, 다시 고려시대에 들어 매성군은 견주(見州)가 되었다.⁵⁾

그런데 여기서 명확히 해야 할 점은 후삼국시대와⁶⁾ 고려시대의 ‘양주’는 지금의 양주와 별개의 지역이라는 점이다. ‘양주’라는 지명이 사료에 처음 나타나는 후삼국시대의 ‘양주’는 북한산 일대일 것으로 추정되며,⁷⁾ 이 후 고려시대에는 북한산과 그 이남인 서울 일대를 ‘양주’라 지칭하였던 것이다.

고려왕조가 성립되고 983년(성종 2) 지방에 12목이 설치되는데, 양주도 그 중 하나로 포함되었다. 1067년에는 ‘양주’ 즉 지금의 서울에 남경(南京)이 설치되었으며, 1308년 남경은 한양부(漢陽府)로 개편되었다.

그 후 조선왕조가 개창되고 1394년 한양으로 도읍이 정해지자, 다음 해인 1395년(태조 4) 그곳에 살고 있던 주민을 견주로 옮기고, 그곳을 양주군으로 개칭하였다.⁸⁾ 이로써 역사에 나타나는 ‘양주’라는 지명과 지금의 양주지역이 일치하게 되었다. 2년 후 1397년 양주군은 양주부로 승격되었으며,⁹⁾ 1413년(태종 13) 도호부가 되었다가, 1466년(세조 12) 목(牧)으로 승격 되었다. 1506년(중종 1) 치소(治所)를 지금의 주내면

4) 『三國史記』 卷 35, 雜誌 4 地理 2: 『楊州牧邑誌』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邑誌』 京畿道 1, 1985, 4쪽).

5) 『楊州牧邑誌』, 4쪽.

6) “以我太祖 爲精騎大監 伐楊州見州”(『三國史記』 卷 50, 弓裔傳 光化 元年 (898) 春 2月條) 라 한 것에서 ‘양주’라는 지명이 고려 건국 전후한 시기부터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양주문화원, 앞의 책, 126쪽.

8) “改漢陽府 爲漢城府 移其吏民于見州 爲楊州郡”(『太祖實錄』 卷 7, 太祖 4年 6月 戊辰條)

9) “降楊州郡 爲府”(『太祖實錄』 卷 11, 太祖 6年 1月 丁丑條).

한편 『楊州牧邑誌』에는 1394년 지금의 서울 중심부에 조선왕조의 도읍이 정해지자 古楊州의 나머지 지역이 知楊州事로 강등되고 동촌 대동리 즉, 지금의 아차산 남쪽에 府治가 정해졌다가, 1396년에 부치가 구 견주로 옮겨졌다고 하여 실록의 기사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太祖三年定都 漢陽府卽古楊州 以府治于東村大洞里 降爲知楊州事 未幾復降爲府 六年又移府治于見州古址仍稱楊州”)

고읍리에서 불곡산 남쪽인 유양리로 옮겼다.¹⁰⁾

조선 중기인 16세기에 양주에는 32개 면이 있었다. 고주내면(古州內面)·주내면(州內面)·어등산면(於等山面)·별비곡면(別非谷面)·진벌면(榛伐面)·진관면(眞官面)·미곡면(尾谷面)·상도면(上道面)·하도면(下道面)·둔야면(屯夜面)·귀지면(龜旨面)·망우리면(忘憂里面)·해등면(海等面)·광석면(廣石面)·천천면(泉川面)·현내면(縣內面)·산내면(山內面)·영근면(嶺斤面)·회암면(檜岩面)·접동면(接洞面)·건천면(乾川面)·금촌면(金村面)·시북곡면(柴北谷面)·미음면(美音面)·고양주면(古楊州面)·노원면(蘆原面)·백석면(白石面)·석적면(石積面)·신혈면(神穴面)·진담면(陳畓面)·이담면(伊淡面)·청송면(靑松面) 등이 그것이다.¹¹⁾ 이 후 일부 면이 다른 군으로 편입되거나, 다른 군에서 양주군으로 편입되기도 하고, 면의 명칭도 변경되는 등의 변동은 있었지만 그 골격은 대체로 유지되었다.

지역적으로는 인수봉을 기점으로 서울시 우이동·변동·장위동·석관동·이문동·전농동으로 이어지는 선의 북쪽과 동쪽이며, 남쪽으로는 성동구 성수동, 송파구 신천동 등을 포함하였다. 여기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양주군·구리시·미금시·의정부시·동두천시 및 서울시 노원구·중랑구 등의 지역이 포함된다.

양주군의 행정 구역에 대폭적인 개편이 이루어진 것은 1914년 일제가 식민 통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지방행정 구역을 통폐합할 때이다. 이 때 양주군의 32개 면 중 영근면과 고양주면은 각각 연천군과 고양군에 편입되고, 나머지 30개 면은 16개면으로 폐합되었다. 즉, 읍내면과 고주내면이 주내면으로, 회암면·천천면·어등산면이 회천면으로, 묵은면과 현내면이 은현면으로, 광석면과 석적면이 광적면으로, 시북면과 둔야면이 시둔면으로, 별비면과 내동면이 별내면으로, 진벌면과 접동면은 진접면으로, 진관면과 건천면이 진건면으로, 하도면과 상도면이 화도면으로, 와공면과 초부면이 와부면으로, 미음면과 금촌면

10) 金正浩, 『大東地志』, (亞細亞文化社, 53쪽).

11) 『국역신증동국여지승람』 2, (민족문화추진회, 1969, 270-271쪽); 양주문화원, 앞의 책, 9-11쪽.

이 미금면으로, 구지면과 망우리면이 구리면으로, 노원면과 해동촌면이 노해면으로 각각 통합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담면·장흥면·백석면은 그대로 이담면·장흥면·백석면이 되었으며, 파주군 광탄면과 천현외패면, 광주군 동부면, 적성군 남면, 고양군 신혈면 등에서 일부 지역이 양주군에 편입되었다.¹²⁾

이 후 일제시대에는 커다란 변동은 없었고, 다만 1922년 10월 1일 군청사가 주내면 유양리에서 시둔면(현 의정부시)으로 이전하였다. 그리고 1938년 시둔면이 양주면으로 개칭되었으며, 1942년 10월 1일 양주면이 의정부읍으로 승격되었다.

1945년 해방이 되고, 1946년 2월 5일 파주군 남면이 양주군에 편입되었다. 1963년 1월 1일 의정부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분리되고, 노해면의 9개 리와 구리면의 5개 리가 서울특별시에 편입되었다. 동시에 이담면이 동두천읍으로 승격되었으며, 화도면의 3개 리와 진접면의 1개 리 그리고 가평군 외서면의 3개리를 합쳐 수동면을 신설하였다. 이로써 양주군은 1읍 15개 면이 되었다.

1973년 7월 1일 구리면이 읍으로 승격되고, 포천군 포천면 탑동리가 동두천읍에 편입되었다. 그리고 1979년 5월 1일 미금면이 읍으로 승격되었다. 1980년 4월 1일 구리읍·미금읍·진접면·진건면·화도면·수동면·와부면과 별내면 일부가 남양주군으로 신설 분군되어 1읍 7면이 되었다. 1981년 7월 1일 동두천읍이 시로 승격 분리되어 7개 면이 됨에 따라 현재 양주군의 골격이 형성되었다.

그 후 1983년 2월 15일 은현면 상패리가 동두천시로, 백석면 기산리·영장리가 파주군으로 이속되었으며, 1985년 10월 1일 회천면이 회천읍으로 승격하여 현재와 같은 1읍 6면이 되었다. 그리고 1987년 1월 1일 파주군 광탄면 기산리 일부가 다시 양주군으로 편입되었다.

현재 양주군에는 1읍·6면·122개 행정리가 있으며, 군청은 의정부시에 있다.

12) 朝鮮總督府, 『新舊對照 朝鮮全道 府郡面里名稱一覽』, 1917, 123-128쪽.

제 2 장 회천읍(檜泉邑)



회암사지

여

백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천천면(泉川面)의 덕정리(德亭里)·과회리(寡悔里)·둔계리(澗溪里) 전부와 도덕리(道德里)·고장리(高障里) 일부, 어등산면(於等山面)의 1·2·3·4·5리 전부, 회암면(檜岩面) 내회암리(內檜岩里)·송현리(松峴里)·모정리(茅亭里)·귀울리(貴栗里)·옥동리(玉洞里)·냉정리(冷井里)·우산리(牛山里)·마한리(馬汗里) 전부, 고주내면(古州內面)의 삼가대리(三佳垓里) 일부, 이담면(伊淡面) 송라리(松蘿里) 일부를 통합하고, 회암면과 천천면에서 각각 ‘檜’자와 ‘泉’자를 따와서 회천면이라 하였다. 그리고 회정리·덕계리·고암리·회암리·울정리·옥정리·덕정리·봉양리 등 8개 리를 두었으며, 면사무소는 고암리에 설치하였다.¹⁾

1981년 2월 8개 법정리를 17개 행정리로 개편하였다가, 1982년 4월 19개 리로, 1985년 6월 5일 25개 행정리로 늘어 났다. 1985년 10월 1일 회천읍으로 승격되었으며, 1987년 7월 1일 행정리가 28개 리로 증설되었다.

1. 덕정리(德亭里)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어등산면 2·3리 전부와 천천면 덕정리 일부를 통합하여 덕정리라 하였다.

덕정리 지명유래는 다음 세가지이다. ① 옛 천천면 덕정리 언덕에 정자나무가 있었으므로 덕정이·덕쟁이·덕정동이라 하였다. ② 현 덕정역 북방 20m 지점의 낮은 구릉에 정자가 있어 촌로와 유림행객(儒林行客)의 유흥장으로 널리 이용되어 유산정(儒散亭)이라 하였다. 그러나 그 뜻이 적합하지 못하다 하여 ‘덕정’이라 개칭하였으며, 이것이 덕정리로 변하였다. ③ 옛날 독 짓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독쟁이라 하였는데, 한자음으로 덕정으로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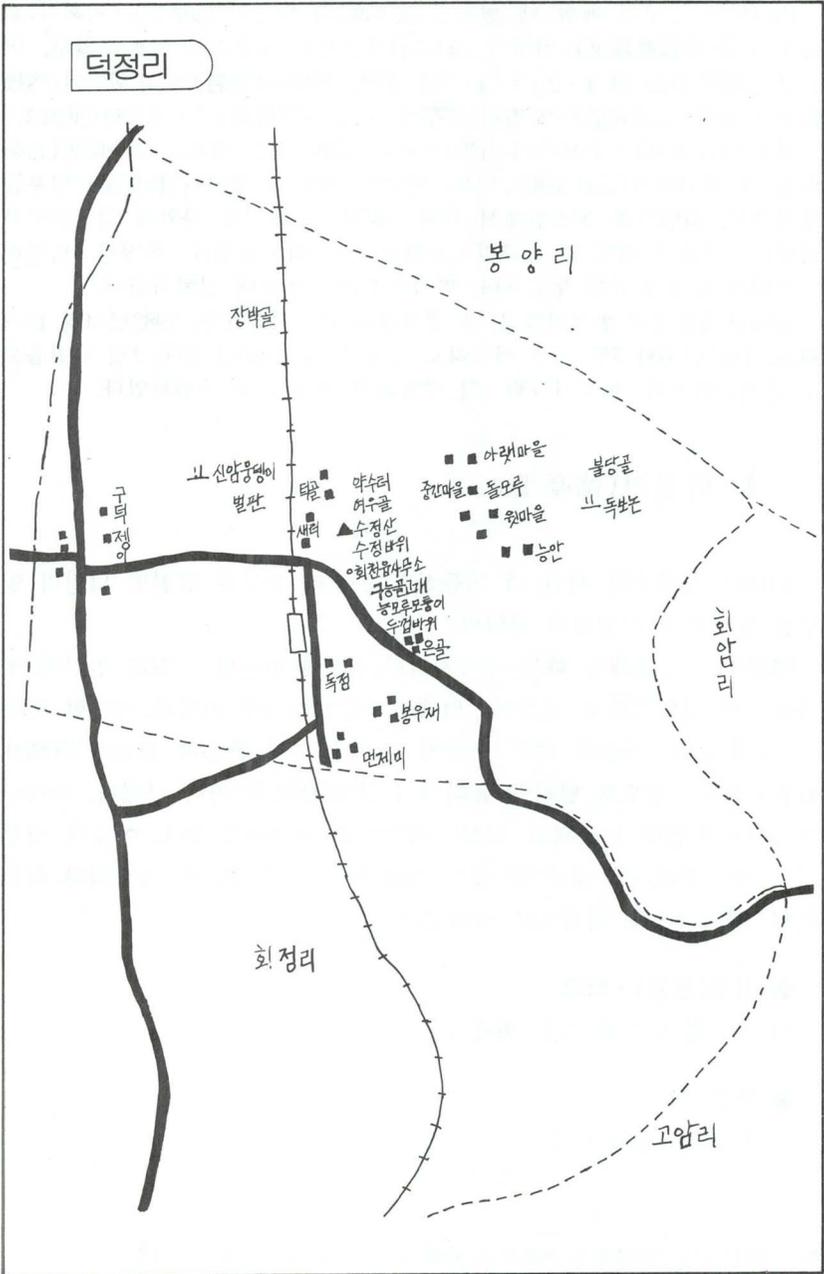
● 기곡(基谷)·턱골

덕정리 북쪽 변에 있는 마을.

● 늑골

덕정 5리에 있는 마을.

1) 朝鮮總督府, 『新舊對照 朝鮮全道 府郡面里洞名稱一覽』, 1917, 123쪽.



● 능안

돌모루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마을.

● 독점

지금의 한국아파트 자리에 있던 마을. 옛날에 천주교 신자들이 향아리를 구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돌모루[石隅洞]·벌모루

덕정리 북동쪽 변에 있는 마을. 모퉁이에 돌이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부락 뒤의 산과 회암천이 마을을 둘러싸고 남동에서 북서로 흐르는데, 산에서 하천까지 구릉이 돌출하여 부락을 감싸주고 있다. 구릉 끝 봉우리가 암석으로 응결되어 있고, 그 모퉁이로 물이 흐른다 하여 한자말로 석우동이라 하며 우리말로 '돌모루'라 불린다.

● 먼제미·원잠동(遠岑洞)

봉우재 남쪽에 있는 마을. 가운데 먼제미와 큰 먼제미 두 개의 마을로 형성되어 있다. 태봉(胎峯)으로부터 남서로 길게 뻗어 내린 지맥이 사람의 손모양으로 형성되어 손가락처럼 생긴 그 사이에 세 부락이 있으니, 북쪽 끝이 봉우재이다. 그리고 그 아래가 가운데 먼제미[間村]·작은 먼제미·안말이고, 남쪽 끝이 큰 먼제미·원잠·넙말이다.

● 봉우재

은골 남쪽에 있는 마을. 봉수대가 있었던 봉화등이라는 구릉 밑에 자리하고 있어 붙은 이름이다.

● 불당골

은골 북동쪽에 있는 마을.

● 새터[新垔]

덕골 남쪽에 있는 마을. 덕정리에 새로 생긴 마을이라 붙은 이름이다.

● 아랫마을

돌모루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마을.

● **윗마을**

돌모루에서 중간마을과 능안 사이에 있는 마을.

● **은골[隱洞]**

마을. 1914년 행정 구역 개편 전에는 어등산면 2리에 속하였으며, 관곡동(寬谷洞)이라 하였다. 지명유래는 다음 두가지이다. ① 숲이 무성해서 어느 학자가 숨어 살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② 조선시대에는 부락 남서편에 봉화(烽火)가 있었다. 필요 시 봉화사(烽火使)가 불을 지르고는 곧 은신(隱身)하였기 때문에 은동이라 부르다가 응골·은골이 되었다.

● **장마당**

현재 대명아파트 근처의 마을. 5일장이 서는 곳이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지금도 장이 선다.

● **중간마을**

돌모루에서 아랫마을과 윗마을 사이의 마을.

○ **개구리바위**

덕정 3리에 있는 뒤터골을 내려다 보고 있는 바위. 개구리 모양이라 하여 생긴 이름이다. 이 바위가 뒤터골을 내려다보며 집어삼키는 형상이라 이 마을에서는 큰 부자가 나질 않는다고 한다.

○ **구 능골고개**

회천읍사무소 동쪽에 있는 고개.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 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 **구 덕정다리·덕정교**

다리.

○ **굿개**

새터 북쪽의 들. 굿개라고도 한다.

○ **능모루 모퉁이**

구능골고개 동쪽에 있는 모퉁이.

○ 능안고개

돌모루 남쪽에 있는 고개. 앞에 능이 있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절이 있었다고 하여 불당고개라고도 한다.

○ 독보논

돌모루 동쪽에 있는 논.

○ 돌모루고개

돌모루에서 덕정리로 가는 고개.

○ 두껍바위

회천읍사무소 동쪽 구능골고개 남쪽에 있는 바위. 모양이 두꺼비같이 생겼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등정골

은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막대울

먼제미 서쪽 경원선 건너편 청담천 사이의 논.

○ 메봉재

턱골 서쪽에 있는 산.

○ 봉우재산

턱골 남쪽에 있는 산. 봉화터가 있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봉화재

지금의 한국아파트 자리에 있던 산. 옛날에 봉화를 올리던 산이었다고 한다.

○ 불당골

돌모루 동쪽에 있는 골짜기.

○ 사발논

덕정 5리에 있는 논. 크기가 작아서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 산골샘

덕정 6리 뒷산에 있는 샘.

○ 성황당

은골 뒷산에 있다. 이곳에서 고을의 평안을 비는 고사를 지냈다고 전해진다. 산을 오르다 보면 바위로 된 길이 있고 그곳에 어린 장사의 발자국이 있다고 전해진다.

○ 수정바위

돌모루 서쪽 수정산에 있는 바위.

○ 수정산

돌모루 서쪽에 있는 산.

○ 신암웅덩이

여촌말 남쪽 기차길 옆에 있는 논. 부근에 신나무와 물웅덩이가 있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 약수터

돌모루 서쪽에 있는 약수터.

○ 여우골

돌모루 서쪽에 있는 골짜기.

○ 장박골

막대울 동쪽에 있는 골짜기.

○ 장자터

덕정 6리에 있는 터. 옛날 부자가 살았는데 재산이 너무 많아 독에 든 재물이 조화를 부려, 그가 살던 집이 흉가가 되었다고 한다. 이 터에서는 깨어진 질그릇, 기와 등이 발견된다고 하며 금으로 만든 독이 지금도 묻혀 있다고 전해진다. 장자모퉁이라고도 불린다.

○ 지장골

장자터 북쪽의 골짜기.

○ 진밭들

긴 밭이 있어 붙여진 들 이름.

○ 징박골

새터 북쪽 덕정 5리 부대 앞의 논.

○ 태봉

은골 북동쪽 회암리와 접한 봉우리.

○ 호랑이바위

덕정 3리 뒷산에 있는 바위. 호랑이가 이곳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전해져서 생긴 이름이다.

2. 봉양리(鳳陽里)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어등산면 4·5리 전부와 이담면 송라리 및 회암면 송현리 일부를 통합하여 봉양리라 하였다. 봉양리란 지명은 봉명조양(鳳鳴朝陽)에서 따온 것이다.

● 거무네미·현암(玄岩)

마을. 주위에 검은 바위가 있어 현암이라 하였고, 우리말로 거무네미라 한다. 예전에 동네 양쪽의 산맥이 울창한 수목으로 뒤덮여 있어, 그 사이로 흐르는 소하천은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검게 보였다고 전해진다.

● 과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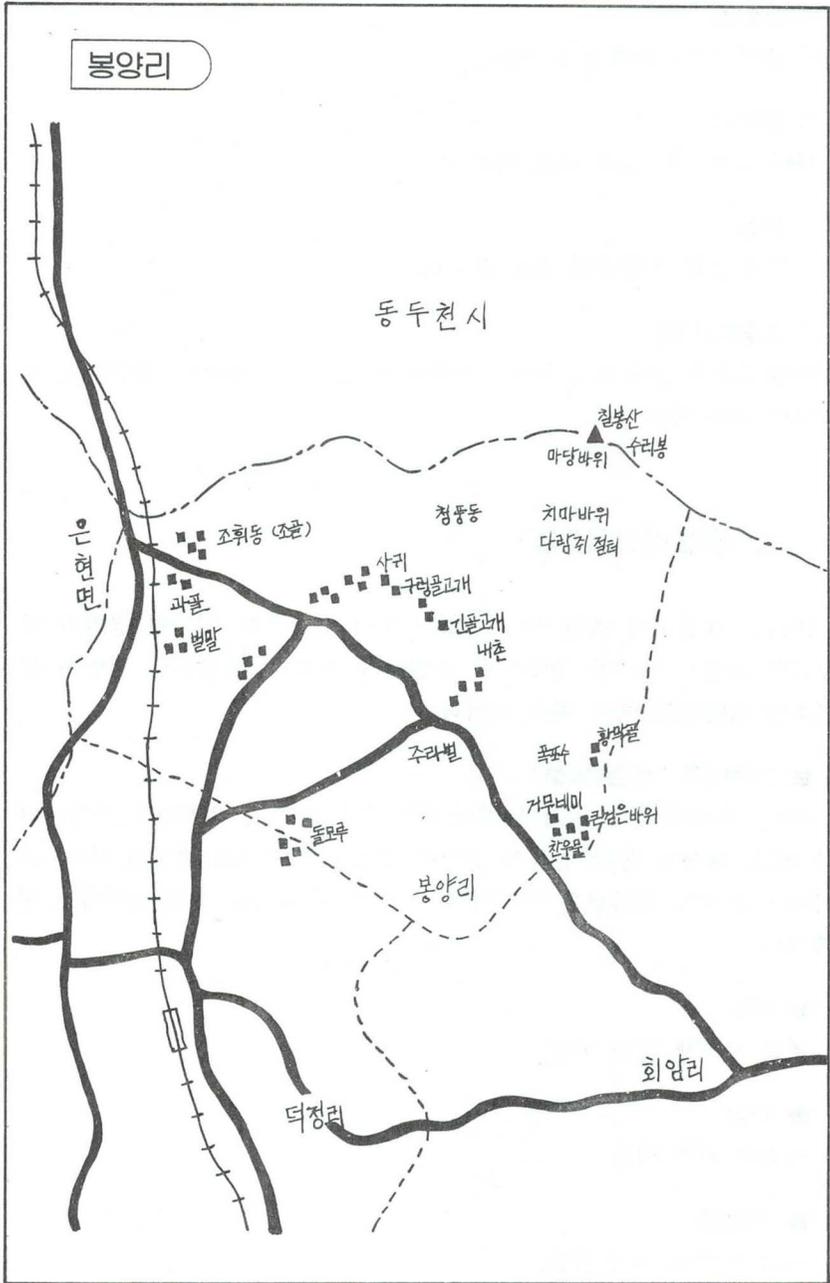
조골 서쪽에 있는 마을.

● 꿩말

사귀의 왼쪽 마을.

● 구렁골

사귀 서쪽에 있는 마을.



● 긴골

내촌동 북서쪽 긴 골짜기에 있는 마을.

● 내촌동(內村洞)

칠봉산 밑에 있는 마을.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어 붙여진 명칭이다. 안골이라고도 한다. 1km 밖에서 보면 민가가 전혀 보이지 않으며, 정방형의 넓은 면적인 마을의 남쪽만이 유일하게 병목형으로 터져 있다. 지금은 남쪽이 개발되어 병목형은 없어지고 40여 개의 공장이 들어섰다.

● 당골말

사귀의 오른쪽 마을. 당곳말이라고도 부른다.

● 돌내개울

현암 남서쪽에 있는 마을. 칠봉산 안쪽에 있는데, 개울에 돌이 많아 붙은 이름이다. 또는 옥수 같은 소하천 물이 회암천으로 흐르면서 S자로 굽이쳐 흐르기 때문에 유래되었다고도 한다.

● 벌말·여촌말(呂村-)

조골 남서쪽에 있는 마을. 벌판에 자리하고 있어 벌말이라 하며, 여씨(呂氏)들이 많이 산다 하여 여촌말이라고도 한다.

● 사귀·사괴(四槐)·사리(四里)

내촌동 북서쪽에 있는 마을. 지명유래는 다음과 같다. ① 괴목(괘나무)이 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② 옛날 창호지를 이곳에서 만든 바 있어 사괴지(四塊紙:창호지)를 따서 사괴동이라 하였다.

● 아랫마을

사귀의 남쪽에 있는 마을.

● 어둔산·어등산

칠봉산 밑의 마을. 어둡다고 하여 어둔산이라고 부르고, ‘어등산’ 밑에 있어 산 이름을 따와 ‘어등산’이라고도 한다.

● 조골·조휘동(朝暉洞)

사귀 북서쪽에 있는 마을. 주위를 누른 듯이 솟아 있는 칠봉산 위로 이른 아침 해가 돋으면 그 햇빛이 유난히 밝아 조휘동이라 하며 조골말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 타래말

사귀 옆에 있는 마을.

● 황막골

현암 북동쪽에 있는 마을. 외따로 있어 황막하다고 하여 생긴 이름이다.

○ 검은바위

내촌동 남쪽에 있는 바위.

○ 구렁골고개

구렁골에서 조골로 가는 고개. 이 고개를 지나가던 사람이 큰 구렁이에게 물려 죽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긴골고개

긴골에서 사귀로 가는 고개.

○ 길내다리

조골 서쪽에 있는 다리.

○ 다람쥐절터

칠봉산 앞 수리봉 정상에 2평 정도의 장방형으로 이루어진 평평한 터. 지금은 절의 흔적은 없고 깨진 기왓장만이 흩어져 있다. 이 곳 노인들은 그 절이 회암사와 비슷한 시기에 창건되었을 것으로 믿고 있다.

○ 당골안

당골말 옆의 커다란 골짜기.

○ 당재

당골안 옆의 고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옛날에 사당이 있었던 곳으로 추측된다.

○ 독송정(獨松亭)

사귀 남쪽에 있었던 정자. 옛날 매우 큰 노송(老松)이 정자 옆에 홀로 있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돌무덤

사귀 은실농장(배밭) 중앙에 있는 약 200여 평의 돌무더기. 아주 옛날 마귀할멈이 칠봉산에서 돌앞산을 건너 뛰다가 앞치마에 담았던 돌이 떨어져 생겼다 한다. 칠봉산의 치마바위와 마귀할멈의 발자국 바위는 이와 관련된 지명이며 돌앞산에도 발자국이 있다 한다.

○ 마당바위

칠봉산에 있는 바위. 마당처럼 넓어서 붙은 이름이다.

○ 말무덤재

사귀 남쪽 산골짜기 바로 밑에 있다. 말을 묻은 곳이라 하여 유래되었다.

○ 방아다리

조골에 있는 다리. 물방앗간이 있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불당골

다람쥐절터 밑의 넓은 터. 회암사 경내의 넓이 만큼이나 큰 옛 절터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은 축대만이 있을 뿐이다.

○ 사기막골

청풍동 윗쪽에 있는 골짜기:

○ 순마지기벌

사귀 앞 벌판. 50두락 정도의 농지가 있던 곳이라 하여 생긴 이름이다.

○ 신검발내

사귀 북쪽에 있는 발.

○ 신내다리·회천교(檜川橋)

회암천에 있는 다리.

○ 신내벌

신내다리 옆에 있는 들.

○ 아차산(峨嵯山)

봉양리와 동두천시 송내동 경계에 있는 높이 299.3m의 산. 칠봉산 서쪽 자락이다.

○ 언두간벌

조골 남쪽에 있는 들.

○ 왜둔지(倭屯地)

내촌동 앞의 밭. 한말 의병들과 왜병(倭兵)들의 접전지라고 한다.

○ 월덕보(月德湫)

내촌동 앞에 있는 약 4만평의 농토.

○ 은독안

현암 남쪽에 있는 들.

○ 은독안보(湫)

은독안에 있는 보.

○ 응개다리

내촌동 남쪽에 있는 다리.

○ 주라벌

옛날 이 곳 마을 사람 가운데 과거 합격자가 귀향할 때 주민들이 주라(朱喇)를 불며 환영한 벌판이다.

○ 찬우물

현암에 있는 우물. 지금도 가장 좋은 물로 이름이 높다.

○ 청풍동(淸風洞)

사귀 북동쪽 칠봉산 밑에 있는 골짜기. 맑고 청아한 바람이 불어서 붙은 이름이다. 지금도 바위에 '淸風洞'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다.

○ 치마바위

칠봉산 중턱에 있는 바위. 바위의 모양이 치마를 펼쳐 놓은 것 같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칠봉산

돌내개울 북동쪽에 있는 산. 회천읍 내촌동 뒷산에서 보면 일곱 봉우리가 있어 생긴 이름이다. 전설에 의하면, 이 산의 원래 이름은 금병산(錦屏山)이었는데, 세조가 말년에 산수를 벗삼아 명산과 대찰을 찾아다니다가 이 산에 올랐다고 한다. 이 후 임금이 오른 산, 즉 어등산(御登山)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²⁾

현재 주민들은 이 산을 천보산(天寶山)이라고도 부른다. 그런데 주내면에도 천보산이라 불리는 산이 있어, 주민들간에 혼란이 일고 있다.

『여지도서』(輿地圖書) 양주편을 보면, 천보산은 회암면에 있는 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칠봉산은 나타나 있지도 않다. 그리고 「대동여지도」에는 어등산 남쪽에 천보산이 기재되어 있고 또 하나의 천보산이 더 남쪽에 표시 되어 있다. 이 두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조선시대부터 천보산은 회천과 주내 두 곳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회천에 있는 어등산과 천보산은 칠봉산의 여러 봉우리 중 특정한 두 봉우리를 이렇게 나누어 불렀을 것으로 추측된다.

칠봉산의 일곱 봉우리는 평이 나르는 모양의 발치봉(發雉峯), 매처럼 생긴 응봉(鷹峯), 깃대 모양의 깃대봉(旗臺峯), 투구같이 생긴 투구봉(鬪具峯), 평을 쫓는 모양의 솔치봉(率雉峯), 그리고 돌봉(突峯)과 석봉(石峯)이다. 이 밖에 작은 봉우리로는 소잔등에 붙은 파리같다고 하여 붙은 파리봉과 갈미봉·뽕봉·수리봉·말봉 등이 있다.

골짜기는 소군곡(召軍谷)·무자곡(無子谷)·청풍곡(淸風谷)·사슴골·두령골·학막골 등이 있으며, 바위는 쪽두리바위·마당바위·농바위·가마바위·장수바위 등이 있다.

2) 「대동여지도」에는 어등산의 한자 표기를 ‘於等山’이라 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이렇게 표기된 것을 보아, 임금이 산에 올라 ‘御登山’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지명 유래 설명은 후대에 만들어진 것일 가능성이 크다.

○ 큰 검은바위

현암 오른쪽에 있는 바위. 바위가 크고 검다 하여 붙은 명칭이다.

○ 큰보

현암 앞에 있는 약 3만 평의 벌판. 큰보(淤) 가운데에 중보(中淤)가 있다.

○ 파리봉

조골 서쪽에 있는 산등성이.

3. 회암리(檜岩里)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회암면 내회암리 전부와 송현리·모정리 일부를 폐합하여 회암리라 하였다.

지명유래는 다음과 같다. ① 옛 회암면의 지역에 회암사가 있어 회암 골 또는 회암동·회암이라 하였다. ② 옛날에 전나무가 많았고 천보산이 응결된 암석으로 되어 있어 회암(檜岩)이라 하였다.

● 가운데말

서재말과 노촌말 사이에 있는 마을.

● 골말

회암리 골짜기에 있는 마을.

● 공수골

회암리에 있는 마을 및 골짜기.

● 내회암동·안회암

천보산 기슭에 있는 마을. 회암리 안쪽에 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며 회암리에서 가장 으뜸되는 마을이다.

● 노촌말

서재말 남쪽에 있는 마을. 노씨가 많이 살고 있어 붙은 이름이다.

● 못말[淵洞]

회암리 서쪽에 있었던 마을. 연못이 있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샘말·못말·골말 등으로 나뉜다.

● 서재말[書齋洞]·송현(松峴)

노촌말 동쪽에 있는 마을. 서당이 있었다. 이 지방은 서당과 학당을 중심으로 향학열이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생긴 이름이다.

○ 가래골

노라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거북이바위

회암사 윗쪽에 있는 바위. 거북이 모양으로 생겨 붙은 이름이다.

○ 거수논

못말에 있는 논.

○ 구랭이모퉁이 산

서재말 남쪽에 있는 산.

○ 구릉(丘陵)

회암리 남서쪽에 있는 언덕. 봉대등(烽大燈)이라고도 불리는데, 봉수대(烽燧臺)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 노라골

내회암동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

○ 노루목골

서재말에 있는 골짜기. 노루가 다니던 길목이라 붙은 이름이다.

○ 독보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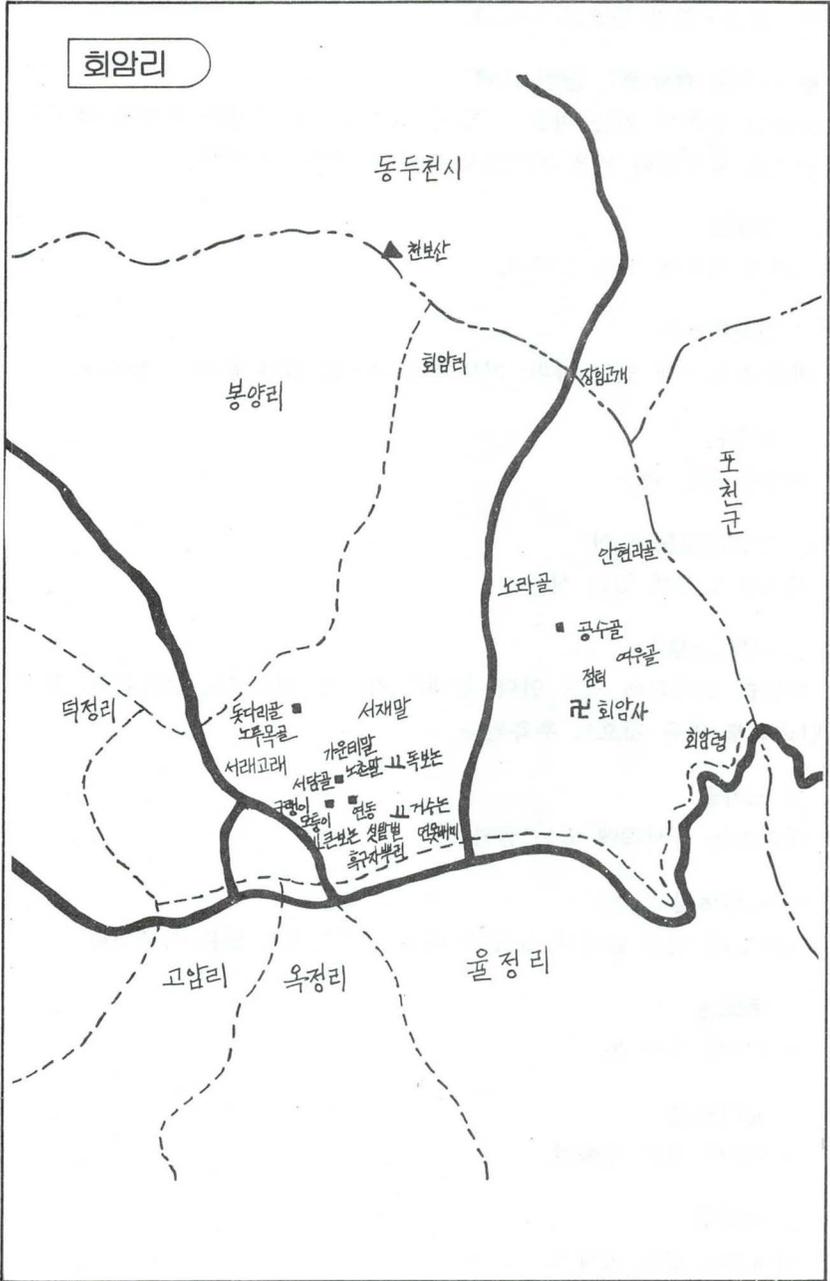
서재말에 있는 논.

○ 돛다리골

서재말에 있는 골짜기.

○ 서담골

서재말에 있는 골짜기.



○ 서재고래

서재말에 있는 논.

○ 선녀탕

선녀들이 목욕하였다고 하여 붙은 명칭이다.

○ 첫발밭

못말에 있는 들.

○ 승래장터

회암사지 입구에 있었던 장터. 회암사 창건 이래 가장 번창했던 때 모정리에 승시(僧市)를 개설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물건 매매의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한다. 승시는 얼마 못 가 중지되었다.

○ 안현리골

내회암동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

○ 어이싸고개

회암령에 있는 고개.

○ 여우골

내회암동 동쪽에 있는 골짜기.

○ 연못배미

못말에 있는 논.

○ 용고개

회암사지 동쪽에 있는 고개.

○ 작은고개

내회암동 동쪽에 있는 고개.

○ 장구배미

서재말에 있는 논.

○ 장림고개

내회암동에서 동두천시 장림으로 넘어가는 고개.

○ 장승모루

회암사가 번성했던 시절 장승이 서 있던 곳이어서 붙은 이름. 지금은 부대가 있다.

○ 점터

내회암동 오른쪽에 있던 터. 토기를 굽던 곳으로 추정되며 지금은 군 부대가 자리하고 있다.

○ 참수물

공수골에 있는 우물.

○ 큰보논

못말과 노촌말 북쪽의 회암천 사이에 있는 논.

○ 회암령(檜岩嶺)

회암리에서 포천군 소흘면으로 가는 고개. 한국전쟁 이후 미군들이 투바위고개라고 이름 붙이기도 하였다.

○ 회암사지

천보산 남쪽에 있는 옛 절터. 이 곳 사람들에게는 빈대가 너무 많아 망한 절로 알려져 있다. 사람들이 가마솥 안에 들어가 팔죽을 쑤 만큼 절의 규모가 컸다고 하며, 당파싸움으로 인하여 소실됐다고도 한다.

○ 흑구자뿌리

못말 남쪽에 있는 모퉁이.

4. 율정리(栗亭里)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회암면 귀울리(貴栗里) 전부와 모정리(茅亭里) 및 고주내면의 삼가대리(三佳垓里) 일부를 병합하고, 귀울리와 모정리에서 각각 한 자씩을 따서 율정리라 하였다.

● 귀루리[貴栗洞]

울정리에서 으뜸되는 마을. 양주밤의 원산지이며, 양주밤은 일찍이 중앙에 진상하던 것으로 유명하다. 귀한 밤이란 뜻에서 귀율리(貴栗里)라 했고 음이 변하여 귀루리가 되었다. 재상밤이라고도 하며 윗마을과 아랫마을로 나뉜다.

● 남산·남산모루

천보국민학교 북쪽에 있는 마을 및 산. 이성계가 도읍을 옮기기 위하여 무학대사·정도전과 함께 소요산을 거쳐 이 곳 지세를 살펴보고 도읍 예정지로 정하였으나, 풍수지리상 강을 끼고 있지 않아 취소되었다고 전해진다.

● 뒷골

모정동 뒤에 있는 마을.

● 모정동(茅亭洞)

귀루리 서쪽에 있는 마을. 동구에 초모(草茅)로 만들어진 정자가 하나 있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상가래

귀루리 남서쪽에 있는 마을.

● 새장골

회암령 바로 밑에 있는 마을과 울정리 동쪽 천보산맥 북쪽 끝에 있는 골짜기. 해방 직후부터 마을이 형성되었다.

● 샛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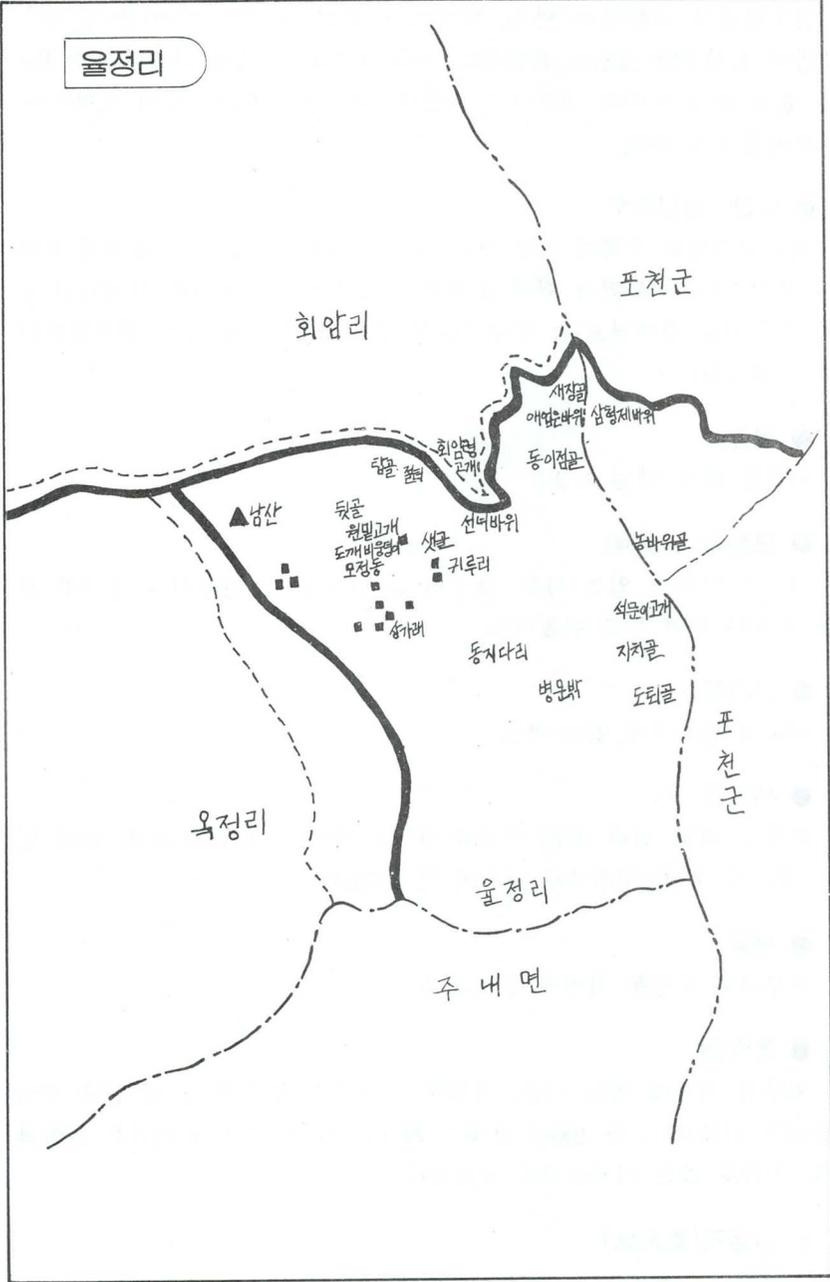
귀루리와 모정동 사이에 있는 마을.

● 쪽박골

귀루리 서쪽에 있는 마을. 지형이 바가지를 엮어 놓은 것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약 400년 전에는 커다란 마을이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지금도 많은 기와조각이 출토된다.

○ 갈궁지(葛宮址)

을정리



울정리 산 2번지 남단 석문령 중간에 있던 터.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백제와 말갈이 전투를 벌일 때 석문성이 있었던 곳이라 한다. 갈궁은 석문성으로 둘러싸여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 후 여기에 절이 들어선 바 있어 울정리 절터라고도 불리며, 지금은 50여 평의 빈 터에 1.2-1.5m 높이의 석원(石垣)이 남아 있다.

○ 귀신우물

아리랑가구 공장 뒤에 있는 우물. 이곳을 지나가던 선비가 이 물을 먹고 귀신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 남산고개

모정본동에서 천보국민학교로 넘어가는 고개.

○ 농바위골

귀루리의 석문령 가운데에 있는 골짜기. 옛날에 절터가 있었다고 한다.

○ 도깨비 웅덩이

모정동 남산 북쪽 끝에 있는 웅덩이. 도깨비가 있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지금은 도로가 되었다.

○ 도독재골

귀루리 윗마을과 아랫마을 중간에 있는 작은 고개의 끝 부분.

○ 도퇴골

농바위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동이점골

새장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동이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동지다리

귀루리 중간을 흐르는 개울에 있는 다리. 동기다리라고도 한다.

○ 병문밖

귀루리의 아랫마을에서 석문령쪽으로 가는 작은 산의 남쪽. 옛날에 군대가 있었다고 한다.

○ 사릉고개

귀투리의 아랫말과 윗말 사이에 있는 야산. 옛날 한 원님이 말을 타고 가던 중 어떤 산소 앞을 무시하고 지나쳤더니 말굽이 떨어지지 않았다. 원님이 말에서 내리자 말굽이 떨어졌다 한다. 그 후 이 무덤을 선비의 무덤, 즉 사릉(士陵)이라 했다 한다.

○ 삼형제바위

울정리 동쪽에는 천보산맥이 포천을 경계로 병풍처럼 펼쳐져 있고, 이곳 북쪽 새장골이라는 골짜기에 있는 바위. 세 개의 바위가 형제처럼 서 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상가래벌

상가래 옆에 있는 들.

○ 석문이고개·석문령(石門嶺)

귀투리 아랫마을에서 포천으로 넘어가는 고개. 돌문이 있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현재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 통행은 불가능하다.

○ 선녀바위

선녀가 내려와서 바위에 고인 물로 목욕을 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앞고래는

쪽박골 북쪽에 있는 논.

○ 애업은바위

동이점골에 있는 바위. 바위의 형태가 아이를 업은 모양으로 생겨 붙은 이름이다.

○ 어하고개(御下-)

울정리 최남단에 있는 고개. 조선조 태조가 무학대사와 함께 회암사 절을 찾을 때 산세를 보기 위해 어등산으로 올라가서 천보산맥을 따라 남쪽으로 20리 쯤 되는 곳에서 내려왔는데, 이곳을 임금이 내려온 곳이라 하여 붙인 이름이다. 마을 사람들은 으악고개로 부르고 있다.

○ 원밑고개

쪽박골 도깨비웅덩이 북쪽에 있는 고개.

○ 지치골

석문령 남쪽에 있는 골짜기.

○ 치마바위

바위의 생김이 치마폭처럼 넓다 하여 붙은 이름.

○ 탑골

이곳은 절터였는데 탑이 있었다고 하여 붙은 골짜기 이름.

5. 옥정리(玉井里)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회암면 옥동리·냉정리·우산리·마한리 전부와 천천면의 고장리 및 고주내면의 삼가대리 일부를 통합하고, 옥동리와 냉정리에서 각 한 자씩을 따서 옥정리라 하였다.

● 널다리골

냉동 북쪽에 있는 마을. 한자말로 판교(板橋)라 하며 너더리골이라고도 부른다. 이 곳 골짜기를 쓰러진 통나무다리로 건너다녔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독박골

독바위 밑에 있는 마을.

● 마라니[馬汗洞]

우산동 남쪽에 있는 마을. 지명유래는 다음 세 가지가 전해지고 있다. ① 조선 태조가 도읍을 정하려고 다니던 중 이 마을에 들렀을 때 말이 땀을 많이 흘렸다 하여 붙여졌다. ② 조선 초기 효령대군이 천보산에 수렵차 필마단창(匹馬單槍)으로 역마를 달릴 때 여기서 말이 땀을 흘렸다 하여 붙인 이름이다. ③ 매초성이 있던 마을로서 675년 신라의 5만 군사와 당나라 20만 대군이 격전을 벌였을 때 신라장군의 천리준마가 싸움에 지쳐 땀을 흘렸다 하여 생긴 이름이다.

옥정리



● 신촌말

마라니 동쪽에 있는 마을. 한국전쟁 이후 마을이 새로 형성되어 붙은 이름이다.

● 양짓말

오리골 가운데에 있는 마을. 양지 바른 곳이라 붙은 이름이다.

● 오리골[玉洞]

넬다리골 북쪽에 있는 마을. 오리가 많았다고 한다. 일설에 의하면 파리봉이란 곳에서 수정을 발굴했으므로 옥동이라 했다고 전해진다.

● 우산동(牛山洞)

옥정리에서 으뜸되는 마을. 우산(牛山) 밑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동네 북서쪽에 독같이 우뚝 솟은 독바위(돌산)가 있어 본래는 웅암동(甕岩洞)으로 불리었다 한다. 조선 중엽 과거이 이곳 풍경에 대해 시 한 수를 읊었는데, “東園에 春草綠하니 小丑大丑이 揮長尾니라”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곳에 소가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 응달말

참수물에 있는 마을. 음지쪽에 있다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 참수물·냉동(冷洞)

우산동 남동쪽에 있는 마을. 서쪽에 찬 우물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 가리나무동산

마라니에 있는 산. 산이 마을을 가로질러 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갈골

마라니 북동쪽 파리봉에 있는 골짜기. 가을에도 물이 마르지 않고 수량이 많다 하여 가을골이라 하였는데 이것이 갈골로 된 것이다.

○ 거칠메

마라니 북서쪽에 있는 산. 무산(茂山)이라고도 한다.

○ 골논

마라니 북서쪽에 있는 논.

○ 네거리

마라니 서쪽에 있는 논. 논에 네 개의 고래가 있어 네골이라 불렀는데 발음이 네거리로 변하였다.

○ 대장간 모퉁이

마라니 남동쪽에 있는 모퉁이. 일제가 침략하기 전까지 대장간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졌다.

○ 더데울

마라니 남동쪽에 있다.

○ 물살메기돌

우산동 어귀에 맞세워져 있는 두 개의 돌. 수혈맥이라고도 한다. 옛날 홍수의 피해가 이곳까지 미친 것을 표시하기 위한 돌이라고 한다.

○ 방축골

우산동 동쪽에 있는 들. 옛날에 방축이 있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버드나무자리

독바위 남쪽에 있는 논. 논 옆에 큰 버드나무가 있어 붙은 이름이다.

○ 번개들

마라니 남쪽에 있는 들. 벌이 넓어 번개 치는 모습이 제일 먼저 보인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사창앞자리

옛날 이곳에서 활을 쏘았다 하여 붙은 논 이름.

○ 상나무자리

논두덕에 향나무가 있었다고 하여 붙은 논 이름. 향나무가 상나무로 발음변화한 것이다.

○ 소무덤

참수물 서쪽에 있다. 소가 일하다 수렁에 빠져 죽었다 하여 붙은 이

름이다.

○ 수낭골

우산동 북쪽에 있는 골짜기. 소도 못 들어갈 정도로 습한 골짜기라서 수렁골이라한 데서 유래된 이름이다. 그 남쪽으로 수낭골 고개도 있다.

○ 솟돌모루

마라니 남쪽에 있는 산모퉁이. 솟돌이 난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쉬골논

마라니 북서쪽에 있는 논.

○ 여수바위(如獸-)

마라니 북서쪽에 있는 바위. 짐승같이 생겨 붙은 이름이다.

○ 옷물

참수물 남서쪽에 있는 우물. 옷이 올랐을 때 이곳 물로 목욕을 하면 낫는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왕기물

우산동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 풍수지리에 의하면 산혈이 왕거미혈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 우산(牛山)

높이 182.3m의 산. 와우형의 명당이 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자작고개

오리골 남쪽에 있는 낮은 고개. 고개 중턱에 자작나무가 있어 붙은 이름이다. 이곳에 서낭당이 있었다고 전한다.

○ 큰다리

우산동에서 마라니로 가는 쪽에 있는 논고래. 그 위로 큰다리가 놓여져 있어 붙은 이름이다.

○ 파리봉

마라니 북서쪽에 있는 봉우리. 옥이 많이 났었다 한다.

6. 고암리(高岩里)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천천면 고장리(高障里)와 어동산면 1리 등 2개 리에서 일부를 각각 떼어 내어 고암리라 하였다.

● 고장아래 · 고장동(高障洞)

청담이 동쪽에 있는 마을. 고장산 밑에 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산봉이 병풍으로 둘러 싸인 것같아 고장동이라고도 한다.

● 가운데말

고장동 가운데 있는 마을.

● 뒷골

엄상골 뒤편에 있는 마을.

● 엄상골[嚴相洞]

고암리에서 가장 큰 마을. 엄상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또는 조선시대에 이정승(李政丞)이란 사람이 살았는데, 그의 기품이 엄하여 엄상동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 웃고장

고장동에 있는 마을. 가장 윗쪽에 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생긴 모양이 달과 같아 달매 또는 달면이라고도 한다.

● 주원터[朱院洞]

엄상골 북동쪽에 있는 마을. 예전에 원이 있었던 동네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또는 옛날 지방 역로의 주막거리여서 주원동(酒院洞)으로 불리었는데, 세월이 흐름에 따라 주원(朱院)으로 변칭되었다고도 한다. 일설에 의하면 ‘좋은터’가 발음변화된 것이라고도 한다.

● 청담이

엄상골 북쪽에 있는 마을. 청담천가에 있어 붙은 이름이다. 아랫고장동이라고도 한다.

○ 가작바위

주원터 동쪽에 있는 바위. 큰 바위들이 무더기로 놓여 있어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 가재우물

주원터 동쪽에 있는 우물. 산 밑의 조그만 샘을 파서 우물을 만들었는데 물이 좋아 가재가 살았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가재우물자리

주원터 동쪽에 있는 논. 가재우물 옆에 있어 붙은 이름이다.

○ 고장산

고암리 남쪽 변에 있는 높이 208m의 산. 일명 태봉산(胎峰山)이다.

○ 핑논

청담이 동쪽에 있는 논. 풍수지리에 따르면 청담이 뒷산은 소가 누워 있는 형태인데 소가 있으면 반드시 핑(소 여물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붙인 이름이라고 한다.

○ 능안골

이곳에 왕릉을 잡았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그러나 실제로 쓰이지는 않았다고 하여 ‘안’자가 붙은 것이다.

○ 독바위[瓮岩山]

엄상골 남동쪽에 있는 산. 독같이 생긴 바위산이라 우리말로 독바위, 한자말로 웅암산으로 불린다. 그리고 돌산·노죽봉이라고도 부른다. 한국전쟁 때 덕정리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군이 밭파작업을 해 산을 훼손시켰을 뿐 아니라, 민간업체의 채석 작업으로 산이 반 이상 없어져 지금은 흉하게 변하였다. 주민 중 일부는 이 봉우리가 훼손되고 있어 부자마을이 빈촌으로 변하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이 산의 위치가 우리나라의 배꼽에 해당된다고 여기고 있다. 한편 천지개벽 때 마귀할머니가 이곳에서 술을 빚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 돌모루

웃고장 북쪽에 있다.

○ 동안독

청담이 동쪽의 청담천 가의 제방.

○ 뒷골

엄상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 뒷골논

주원터 북쪽에 있는 논.

○ 마산골

엄상골 동쪽에 있는 지명.

○ 마우전

청담이와 능안골 사이의 밭. 역마나 군마에게 먹일 것을 재배하던 밭이라고 하여 생긴 이름이다.

○ 말뚝논

주원터 동쪽에 있는 논. 원래 논이 흩어 수렁처럼 되어 있어 무릎까지 빠졌다고 한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가장자리에 말뚝을 박고 논위에 나무를 깔아 흩을 옮겨 메운 논이라 붙은 이름이다.

○ 무래울논

주원터 남쪽에 있는 논. 논바닥으로 물이 많이 스며든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 묵어자빠진논

엄상골 동쪽에 있는 논.

○ 방아다리논

웃고장 북서쪽에 있는 논.

○ 방죽논

주원터 남쪽에 있는 논. 방죽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논이 깊어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 불당골

웃고장 서쪽 고장산에 있는 골짜기. 절터가 있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선샘바지는

주원터 동쪽에 있는 논. 비가 와서 논둑에 고여 있던 물이 이 논으로 스며든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수낭골고개

주원터 남쪽에서 옥정리로 넘어가는 고개.

○ 수령장

안터골 앞의 논. 수령 같은 논이라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 안터골

능안골 남쪽에 있는 마을과 골짜기. 골짜기 안쪽의 터라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왕십리골

청담이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

○ 장자울모퉁이

엄상골 남서쪽에 있는 모퉁이.

○ 장재울

안터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옛날 이곳에 큰 부자가 살았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죄병수들

엄상골 남쪽에 있는 들.

○ 중상골

청담이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

○ 칙박골논

주원터 남서쪽에 있는 논. 칙박골이라는 골짜기에 있어 붙은 이름이다. 지금은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한다.

○ 태봉

안터골 남쪽에 있는 산. 옛날에 왕세자를 낳으면 태를 잘라 사기항아리에 담아 이 봉우리에 묻었다고 하여 유래된 이름이다.

○ 한두끝(寒頭-)

엄상골 북서쪽에 있는 들. 추위가 가장 먼저 찾아온다 하여 추을 ‘寒’자와 머리 ‘頭’자를 쓴다고 한다.

7. 덕계리(德溪里)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천천면 돈계리 전부와 도덕리·고장리·과회리의 각 일부를 통합하고, 도덕리와 돈계리에서 각 한 자씩을 따서 덕계리라 하였다.

● 덕산주택마을

덕산국민학교 밑에 있는 마을. 마개미 골짜기를 매립하여 동네가 형성되었다.

● 도둔이[道德洞]

돈계 남동쪽에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 옛날 반촌(班村)으로 사람들의 행세가 독특하여 가히 도덕군자가 사는 곳이라 하여 도덕동이라 불렀다 한다. 도둔(道屯)이라고도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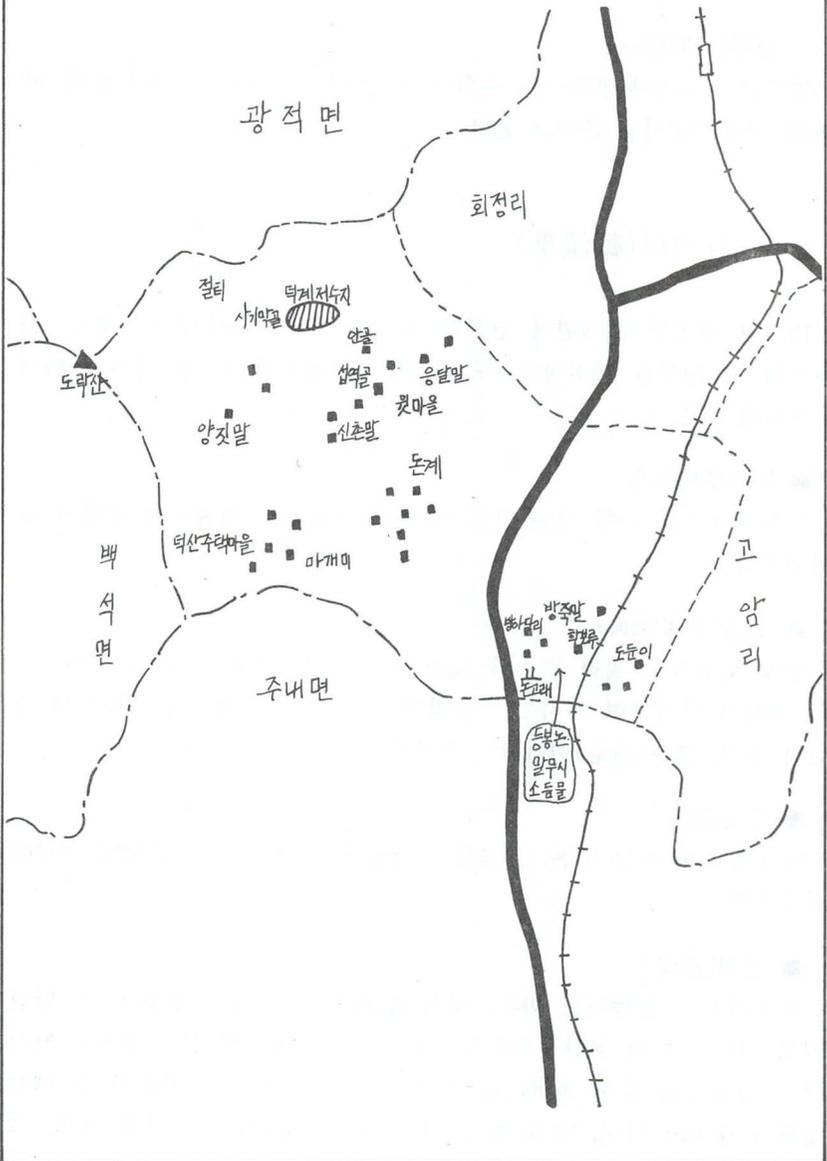
● 도령글터

덕계 7리에 있는 마을. 도령들이 글을 배우던 서당이 있었던 곳이라 전해진다.

● 돈계[遯溪]

덕계리에서 으뜸되는 마을. 뒷산(道納山-옛날지명은 鼻巖山)을 발원으로 하는 하천이 심산유곡으로 흘러오다가, 1km 정도의 지점에서 남서에서 남동으로 급히 물머리를 돌리고 있다. 그래서 바깥에서 볼 때는 상류가 숨겨져 있어, ‘숨어 있는 시내’ 또는 ‘피해있는 시내’라 하며, 그

덕계리



밑에 자리잡은 동네라 하여 둔계[遯溪]라 부른다. 혹자는 이곳에 살던 조선시대 대제학 박율(朴栗)의 호가 둔계(遯溪)여서 여기서 유래되었다고도 한다. 옛날에는 덕계리의 모든 마을을 둔계라 하였다.

● 방죽말[防築洞]

둔계 남쪽에 있는 마을. 조선말 저수지를 만들면서 붙은 이름이며 물막이 또는 방축동이라 하였다.

● 섭역골

안골 너머 덕계 1리에 있는 마을. 최근에 마을이 형성되었다.

● 신촌말

둔계 서쪽에 있는 마을. 지금의 행정구역으로 덕계 2-3리이다. 신씨들이 처음으로 삶의 터전을 잡았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아랫마을이라고도 한다.

● 안골

덕계 1리에 있는 마을. 안쪽에 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양짓말

덕계 2리에 있는 마을. 양지쪽에 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윗마을

양짓말 반대쪽 덕계 1리에 있는 마을. 응달쪽에 있다 하여 응달말이라고도 한다.

● 학보루

방죽말 남쪽에 있는 마을. 산북 2리 샘내와 경계한 이 지역은 나무가 많아서 학들이 봄에 날아와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하여 생긴 이름이다. 합보루라고도 한다.

○ 구정버리

덕계 1-2리에 있는 저수지를 가리키는 지명.

○ 노간짜길

현 아카데미공예사 앞에 있는 길.

○ 논고래

방죽말에 있는 논.

○ 등봉논

방죽말에 있는 논.

○ 마개미

도락산의 동쪽 끝 현재의 신성통상 아랫쪽 논고래. 끝을 막아버린 산에 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마개미고개

마개미에서 둔계쪽으로 넘어가는 고개.

○ 말무시

방죽말에 있는 논고래.

○ 무당너머

된봉산 밑 옷골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

○ 방아다리

마개미 아래에 있는 논고래.

○ 분박골

덕계 2리에 있는 골짜기.

○ 사기막골

덕계저수지 옆에 있는 골짜기. 사기를 굽던 막이 있었다고 전해지며, 지금도 사기조각이 출토된다.

○ 성적골

덕계 2리 사슴목장 위의 산에 있는 골짜기. 한자말로 성주곡(聖主谷)이라 한다.

○ 소듬물

방죽말 앞에 있는 논고래.

○ 앞산

방죽말에 있는 산. 의정부와 동두천을 연결하는 도로쪽에 있다.

○ 앞자리는

방죽말에 있는 논.

○ 약수터

신성통상 윗쪽에 있는 샘.

○ 장터거리

덕계저수지에서 1km 정도 윗쪽에 있는 산.

○ 절터

덕계저수지 위쪽에 있는 절터. 연대 미상의 절터가 있다고 전해지며 지금도 석축이 남아있다.

8. 회정리(悔亭里)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천천면 과회리(寡悔里)와 덕정리(德亭里) 2개 리에서 일부 지역을 떼 내고, 과회리에서 ‘회’자를 덕정리에서 ‘정’자를 따 와서 회정리라 하였다.

● 과골

벌말 북쪽에 있는 마을. 과실이 많이 난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한편 비암산 밑 산소골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도 과골이라 불린다.

● 구 덕정동(舊德亭洞)

조선시대 원산으로 통하는 역로의 주막거리로서 ‘덕정리’라 하였다. 그후 경원철도가 부설되고 지금의 덕정역이 신설되자, 과거의 ‘덕정’ 즉, ‘구 덕정동’이라 불리게 되었다.

● 벌말·평촌[坪村洞]

새골·벌말·과골을 합한 자연부락. 마을 앞에 넓은 들이 있어 붙여진 지명이다. 이곳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전에는 과회리(寡悔里)였

다. 과회리라는 지명과 관련하여 이 마을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옛날 매우 성미가 고약하고 사나운 노인이 있었는데 그 행실이 대단히 불미스러워 같은 마을의 양반들로부터 많은 꾸지람을 들었으나, 별로 뉘우침이 없었다. 그래서 과회리가 되었다 한다.

● 새골

별말과 덕계리 돈계 사이에 있는 마을.

● 탑골[塔洞]

별말과 구 덕정동 사이에 있는 마을. 마을 서쪽에 탑이 있었다고 한다. 옛날 이 마을에 젊은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아기를 낳지 못해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꿈에 도승이 나타나, “마을 뒷산 고개 옆에 탑을 쌓고 치성(致誠)을 하면 반드시 잉태하여 귀동자를 낳을 것이며, 못사람도 덕을 보리라”하자, 탑을 쌓았고 생남 생녀하였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한편 주민 중 일부는 파고다 공원의 탑이 이곳에 있던 탑을 옮겨간 것이라고 믿고 있다.

○ 갈마지(渴馬地)

회정 3리 387번지 일대로서 KBS 송신탑 북쪽 논고래. 목마른 말이 물을 만난 형국의 명당이 있다 하여 붙은 지명이라 한다. 갈매지라고도 한다.

○ 과골 남쪽고래

과골 남동쪽에 있는 논고래.

○ 과골 북쪽고래

과골 북동쪽에 있는 논고래.

○ 낚은잡터

새골 남쪽에 있는 밭.

○ 능너머

별말에서 새골로 넘어가는 골짜기. 밀양박씨인 박이서의 묘가 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묵은노니고개

탐골에서 은현면 용암리로 넘어가는 고개.

○ 붓들은

새골 북서쪽에 있는 논고래. 보(淤)가 있어 붓물로 농사짓는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뽕죽봉

회정리·덕계리·은현면 용암리에 걸쳐 있는 산. 도락산의 지맥이다. 봉우리가 뽕죽하여 붙은 이름이다.

○ 사흘가리

과골에서 동두천으로 가는 국도 건너편에 있는 논.

○ 산소골

비암산 밑 회미기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

○ 셋골말 등생이밭

새골 동쪽에 있는 밭.

○ 슈우논

새골 동쪽에 있는 논.

○ 오백냥뜰논

새골 남쪽에 있는 논.

○ 우묵골

우묵하게 파진 골짜기라서 붙은 이름.

○ 웃골

비암산 밑 가장 좌측에 있는 골짜기.

○ 청베미뜰

과골 동쪽 동두천으로 가는 국도 건너편에 있는 논.

○ 회미기

능너머 부근에 있는 골짜기.

제 3 장 주내면(州內面)



유양리 관아지

여

백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읍내면(邑內面) 동부리(東部里)·남방리(南坊里)·산북리(山北里)·마전리(麻田里)·어둔리(於屯里) 전부, 고주내면(古州內面)이라 하여 광암리(廣岩里)·삽사동(插沙洞)·고읍리(古邑里)·송랑리(松浪里)·회만리(回晩里)·광송리(光崇里) 전부와 삼가대리(三佳岱里) 일부, 천천면 도덕리(道德里)·고장리(高障里) 일부를 통합하여 주내면이라 하였다. 이 때 유양·남방·어둔·산북·마전·광사·만송·고읍·삼송리 등 9개 리를 두었고, 면사무소는 유양리에 설치하였다.¹⁾ 그후 1955년 면사무소는 남방리로 이전하였다.

1. 유양리(維楊里)

1506년(중종 1)부터 양주관아가 있었으므로, 이 일대를 양주읍내 또는 읍내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읍내면 서부리 전부와 동부리·남방리의 각 일부를 통합하여 유양리라 하였다.

유양리란 지명 유래는 다음 두 가지 설이 있다. ① 양주에서 오로지 제일인 곳이라 하여 유양리라 하였다. ② 조선조 초에 이 마을 출신 인물이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가, 중국 유양리를 들렀는데 그곳이 자신의 고향과 매우 흡사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자신의 고향을 유양리로 부르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1922년 전까지는 이곳에 군청이 있었으므로, 구읍(舊邑)이라고도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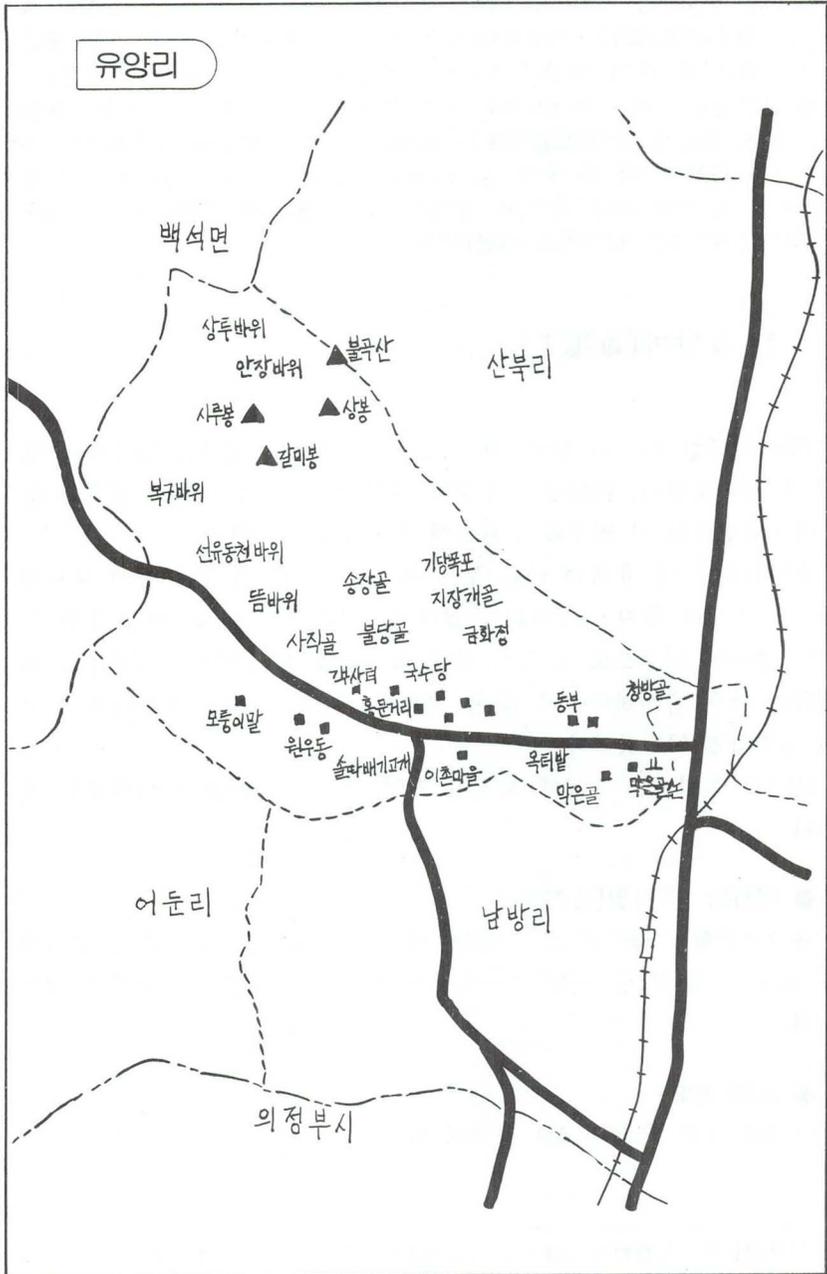
● 객사터·객사말[客門洞]

유양국민학교 북쪽에 있는 마을. 객사마을이라고도 부른다. 조선시대에 이곳을 지나가던 귀빈들의 숙소가 있었던 자리였기에 붙여진 지명이다.

● 동부(東部)

유양리 동쪽, 지금의 5반 지역에 있는 마을.

1) 朝鮮總督府, 『新舊對照 朝鮮全道 府郡面里洞名稱一覽』, 1917, 123쪽.



유양리

백석면

상투바위

안장바위

사루봉

북구바위

선유동천바위

뜸바위

송장골

사작골

모듬이발

원유동

객사터

국수당

홍문거리

솔파배기피개

이촌마을

등부

청방골

옥티밭

막은골

막은굴산

산부리

어둔리

남방리

의정부시

● 막은골

유양리 동쪽 변에 있는 마을. 삼면이 산으로 막혀 있다. 조선조 때 한양으로 가는 길목으로서 양주 고을 목사가 한양에 갈 때 그를 보호하기 위하여 망을 보던 자리라 하여 생긴 이름이라고 한다. 옛날 양주 고을이 살기 좋은 곳으로 소문이 나 곳곳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자 이를 막던 고을이라 붙은 이름이라고도 한다. 이곳에는 집 3채가 외따로 떨어져 있는데 이곳을 작은막은골이라 한다.

● 모퉁이말

평구재 모퉁이에 있는 마을. 모퉁마을이라고도 한다.

● 사직골

사적이 있던 동네라서 붙은 마을 이름.

● 산성마을

옛 성터 자리가 있다 하여 생긴 마을 이름. 지금도 그 일부가 남아 있다.

● 선유동(仙遊洞)

유양리 북서쪽에 있는 마을. 수석의 경치가 아름답다.

● 원골

지금의 2반에 있는 마을.

● 원모루 · 원우동(院隅洞)

원골 서쪽 모퉁이에 있는 마을. 원우동은 ‘원골’과 ‘모퉁이 마을’의 합성어이다.

● 이촌마을

양주별산대 전수회관 남쪽 350번 지방도로 건너 편에 있는 마을. 이 씨 성을 가진 자들이 많이 살아서 붙은 이름이다.

● 지장개골

마을 앞에 지장(지장개)나무가 많아서 붙은 이름이다.

● **핑구말**

핑구재 아래에 있는 마을. 빙고마을이 발음변화된 것으로 추측된다. 조선조 때 관아에서 먹을 음식물을 저장하던 얼음창고가 있었다 하나, 지금은 유양1리 3반 지역에 터만 남아 있다.

● **하마청 거리**

관아가 있었던 마을. 말에서 내려 걸어가야만 하는 거리가 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향교말 · 생깃굴**

유양리 동쪽에 있는 마을. 양주향교가 있다.

● **홍문거리**

동헌터 바로 앞의 거리 및 마을. 옛날 홍문이 있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 **갈미봉**

백화암 서쪽에 있는 봉우리. 갈매기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구렁고개**

막은골 남쪽에 있는 고개.

○ **국수당 · 국사당**

유양국민학교 뒷쪽에 있는 골짜기. 마을 사람들이 모여 굿을 하던 곳으로 지금도 이곳에서 3년마다 굿이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

○ **금화정(金華亭)**

양주향교 남서쪽에 있었던 정자. 금화정은 울울창창한 불곡산의 절경을 배경으로 날아갈 듯 솟아 있어 한 폭의 그림 같았다고 한다. 특히 여름철 비가 온 뒤 폭포수가 떨어지는 광경은 하늘에서 은하수가 쏟아지는 듯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장관이었다. 정자에 올라 남쪽을 바라보면 멀리 도봉산과 삼각산이 우뚝 솟아 하늘을 찌르고, 해질 무렵에는 뉘엿뉘엿 산정에서 내리는 낙조가 난간에 흐르며 산봉우리에 감아도는

구름은 마음의 한가로움을 더하였다고 한다.²⁾ 마을 사람들은 금화장이 라고도 부른다.

○ 기당폭포(妓堂瀑布)

송장골 윗쪽에 있는 길이 약 5m의 폭포. 계단폭포라고도 한다.

○ 기포중영지(譏捕中營址)

유양리 504번지 기포중영이 있었던 터. 양주목사가 중영장을 맡고 300여 명의 장병이 있었다.³⁾

○ 길청지(吉廳址)

매학당 앞쪽 동편 길청이 있었던 터. 길청은 6방의 아전들이 일했던 곳이다.⁴⁾

○ 네거리·사거리

광적면·백석면·의정부시 등으로 갈라지는 길. 네 갈래 길이 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달구지터

달구지꾼이 많이 살았던 곳.

○ 담안밭

기당폭포에서 동쪽에 있는 밭. 담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뜰바위

유양국민학교 서쪽 불곡산 자락에 있는 바위.

○ 막은골논

막은골 동쪽에 있는 논.

○ 말무덤

유양국민학교 북서쪽에 있는 무덤. 임진왜란 때 죽은 말이 묻혔다는

2) 양주문화원, 『양주군지』 하, 1992, 223쪽.

3) 위의 책, 237쪽.

4) 위의 책, 238쪽.

곳이다. 많은 사람들을 문었다고 하여 막무덤이라고도 한다.

○ 망째고개〔望峴〕

유양리 남쪽 변에 있는 고개. 조선조 때 마을 사람들이 신임 사또가 부임해 오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 매학당지(梅鶴堂址)

유양리 507번지에 매학당이 있었던 터. 삼층 석대 위의 높다란 건물로 양주목사가 거처하던 곳이었다.⁵⁾

○ 미력골

유양리와 어둔리 경계에 있는 골짜기. 미륵이 있었다고 전해지며, 미륵골이 변하여 미력골이 되었다.

○ 백화암

유양 1리 원우동 산 40번지에 있는 절. 정확한 창건 연대는 알 수 없으나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898년 신라 도선국사가 이곳에 절을 창건하고 불곡사(佛谷寺)라 칭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이때를 개산(開山)시기로 보기도 한다. 1842년 경 간행된 『양주목읍지』(楊州牧邑誌)에 백화암이란 명칭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 전에 백화암으로 개칭된 것으로 추측된다.⁶⁾ 예전에 중들의 화장터가 있었다고 한다.

○ 병막골(病幕 -)

1920년 경 전염병 환자를 격리 수용했던 곳.

○ 복구바위

계단폭포 밑에 있는 바위. 복고바위라고도 부르며, 이 바위 밑으로 떨어지는 폭포를 비단폭포라 한다. 옛날 피부병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이 폭포물로 치료를 하였다고 한다.

5) 위의 책, 237쪽.

6) 『楊州牧邑誌』(韓國學文獻研究所 編, 『邑誌』京畿道 ①, 1985, 6쪽).

○ 불곡산(佛谷山)

유양리와 산북리 경계에 있으며 높이 360m의 군의 진산(鎭山). 옛날 회양목이 많아서 겨울이 되면 새빨갭게 물든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지금은 회양목이 다 없어져 예전의 모습을 볼 수 없다. 불곡산(佛國山)이라고도 하며 정조가 이곳에 와서 옥류산(玉流山)이란 이름을 붙이기도 하였다.⁷⁾

○ 불당골

양주향교 동쪽에 있는 골짜기. 절이 있었던 곳으로 부처골이라고도 한다.

○ 빈골재산

막은골에 있는 산. 이곳에는 논도 밭도 밭도 없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사직골

유양리 옛 치소에서 서쪽으로 1리 지점. 사재골·새절골이라고도 부른다. 『여지도서』에 “읍내에서 서쪽으로 1리 거리에 사직단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위치가 이곳으로 추정된다. 사직은 토지신(土地神)과 오곡신(五穀神)을 모시고 제사 드리는 곳이다. 옛날 별산대놀이를 탄압하여 못하게 하자 동네 사람들이 이곳에 숨어 별산대놀이를 즐기기도 하였다.

○ 상봉·투구봉

불곡산에 있는 봉우리. 가장 높은 봉우리라 상봉이라 하며 산북리에서 보면 투구와 비슷하다고 하여 투구봉이라고도 한다.

○ 상청다리

양주별산대놀이 전수회관 남쪽에 있었던 다리. 상청이라는 관청으로 통하는 다리라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상투바위

불곡산 정상에서 서쪽에 있는 바위. 바위 모양이 상투 같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7) 『朝鮮寰輿勝覽』, 「楊州郡」, 1937, 1쪽.

○ 선동(仙洞)

유양국민학교 서쪽에 있는 골짜기. 신선이 내려와 놀았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선유동천 바위

유양국민학교 서쪽에 있는 바위. 선녀가 내려와 미역감고 올라갔다 하여 선유동천(仙遊洞天) 네 글자가 새겨져 있다.

○ 성황제단지(城隍祭壇址)

유양리 옛 치소에서 동쪽으로 1리 지점에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터. 『여지도서』에는 “읍내에서 동쪽으로 1리 지점에 성황제단이 있다”는 기록이 있다. 성황은 서낭이라고도 하는데, 토지의 부락(富樂)을 수호하는 신이다.

○ 솔따배기 고개

팽구말에서 모퉁이말로 가는 고개. 이곳에 소나무가 많아 붙은 이름이다.

○ 송장골

양주향교 서쪽에 있는 골짜기. 현재 유양 1리와 남방 1리 경계선에 있다. 옛날 망나니가 죄수의 목을 벤 후 시체를 처리하던 장소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송장골의 위치에 대해서는 이설이 있다. 즉, 옛 포청(捕廳) 앞에 쌍송(雙松)나무가 있어, 이곳에서 죄수를 교수한 뒤 주내 검문소 부근 불곡산 밑 남향 ‘식목소’라는 곳에 매장했는데, 이곳이 송장골이라는 것이다.

○ 승학(乘鶴)

유양리 동쪽에 있으며 버드나무가 줄지어 있었던 들.

○ 승학교(乘鶴橋)

홍문거리에서 남방리로 빠지는 셋길에 있던 돌다리. 다리 위에서 학이 놀았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며 1733년(영조 9)에 세워졌다. 승학교와 관련하여 ‘승학하양주’(乘鶴下楊州)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의 어원을 살

해보면, 은예소설(殷藝小說)에 4인이 모여 각각 자기 소원을 말하였는데 한 사람은 양주지사가 되고 싶다 하고, 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다 하고, 한 사람은 학을 타고 하늘을 날고 싶다 하니, 나머지 한 사람은 허리에 십만 냥을 차고 학을 타고 양주에 내리고 싶다 하여 3인의 소원을 다 겸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유래되어 여러가지 좋은 일을 일신에 갖추려는 욕심에 비유한 말로 양주몽(楊州夢)이라고도 한다.⁸⁾

○ 승학연류

승학교에 있었다는 버드나무 길.

○ 시루봉

불곡산 남쪽에 있는 봉우리.

○ 식목소

현 주내검문소 부근에 있었다. 조선조 때 포도청 앞에 있는 쌍송에서 사형수를 교수한 뒤 이곳에 매장하였다.

○ 안장바위 · 드러앉은 바위

불곡산 남쪽 시루봉 밑에 있는 바위. 안장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약수를 마시고 이 바위에 앉아 기원을 하면 아이를 갖는다고 한다.

○ 어사대비(御射臺碑)

유양리 산 33-1번지에 있는 비. 비가 세워진 곳은 옛 양주 관아터로 1792년(정조 16) 9월, 왕이 행차하여 민정을 살피고 사대(射臺)에서 활을 쏜 후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양주목사였던 이민채가 세운 것이다.⁹⁾

○ 옥터밭

막은골 북쪽에 있는 밭. 감옥이 있던 터라 붙은 이름이다. 지금은 밭으로 변하였다.

8) 양주문화원, 『양주군지』 상, 1992, 1095-1096쪽.

9) 양주문화원, 『양주군지』 하, 1992, 93쪽.

○ 왜골절터

불곡산 중턱 아래에 있던 화장터에서 더 올라가 왼쪽 아래에 있는 절터. 임진왜란 때 왜인이 많이 죽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십여 년 전만 해도 오층석탑이 있었고, 부근에 찬 샘물이 있어 여름이면 인파로 붐볐다고 한다. 법당 자리는 묘지가 되었다.¹⁰⁾

○ 유양팔경(維揚八景)

옛날 양주목사가 유양리의 경치에 탐복하여 중국의 8경을 본떠 지었다고 한다. 일명 양주팔경이라고도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모산성의 해지는 모습으로 산성낙조(山城落照) ② 금화정이 있는 폭포가 절경이라 하여 기당폭포(妓堂瀑布). 일명 양주폭포라고도 한다 ③ 백화암의 새벽 종소리 화암종성(華庵鐘聲) ④ 기당폭포 주변에 신선이 머무렀다 하여 선동자화(仙洞煮花) ⑤ 금화정에서 바라볼 때 민가에서 피어오르는 저녁짓는 연기 금화모연(金華暮烟) ⑥ 승학교와 주변의 어우러진 버드나무 승학연류(乘鶴烟柳) ⑦ 금화정에서 본 도봉산 영봉위에 뜬 초생달 도봉제월(道峰霽月) ⑧ 금화정에서 본 수락 영봉의 아름다운 구름 사이로 뜨는 수락귀운(水落歸雲).

○ 잣나무골

외암동 동쪽에 있는 골짜기. 잣나무가 많았던 곳이라 붙은 이름이다.

○ 지장개골

양주향교 서쪽에 있는 골짜기.

○ 청방골

동부 동쪽에 있는 골짜기.

○ 포청지(捕廳址)·행형장지(行刑場址)

유양리 508번지 부근으로, 조선시대에 범죄자들을 잡아 다스리는 포청과 사형수를 처형하는 곳이었다.¹¹⁾

10) 위의 책, 243쪽.

11) 위의 책, 238쪽.

○ 핑구재·빙고산

빙고가 있었던 산. 겨울철 강에서 얼음을 떠다 이 산의 저장 창고에 보관하여 여름에 썼다고 한다.

2. 어둔리(於屯里)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산성, 간촌, 함촌말을 병합하여 어둔리라 하였다. 임진왜란 때 왜병들이 주둔하였던 곳이므로 애둔지·왜둔치·왜벌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서쪽에 우뚝 솟아 있는 호명산록(虎鳴山麓)에 위치하고 있는 탓에 해지는 시각이 빨라 쉬어 어두워진다고 하여 어둔·어둔마을로 통칭되다가 어둔리로 개칭되었다고도 하며, 조선시대 기와를 만들던 곳이기에 와평동(瓦坪洞)·와평·왓벌이라고도 부른다.

● 간촌(間村)

와평동과 산성동 중간에 있는 마을. 셋마을이라고도 한다.

● 산성동(山城洞)

간촌 북쪽에 있는 마을. 양주산성에 근접한 부락이어서 산성 또는 산성마을이라 불리다가, 일제 때부터 산성동이라 하였다.

● 성재

간촌과 와평동 사이에 있는 마을. 지금의 와평마을과 의정부시 녹양동(버들개) 사이에 성이 있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지금은 방위선 벽으로 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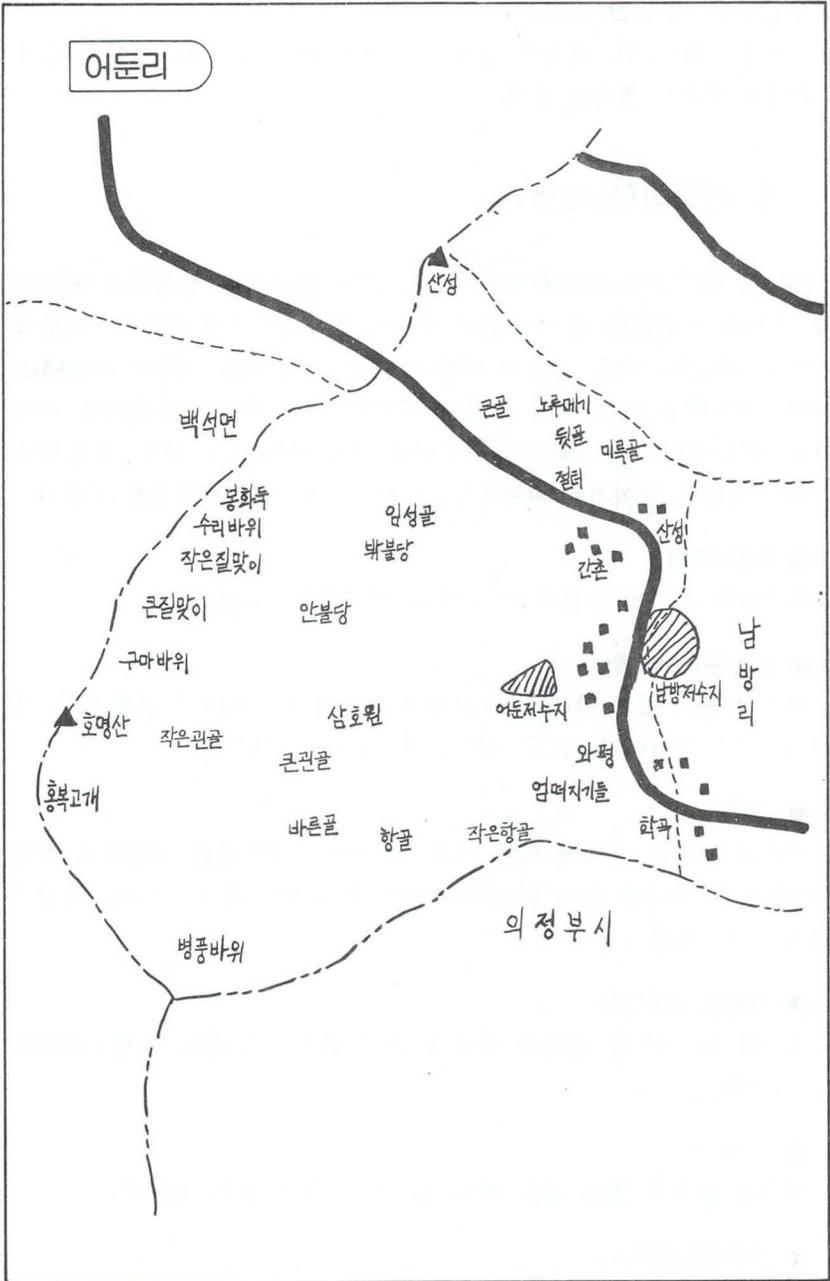
● 와평동(瓦平洞)

조선조 때 기와를 만들던 곳이라 하여 생긴 이름이다. 왓벌·외벌로도 불린다.

● 학곡

와평동 동쪽에 있는 마을. 학이 많았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함촌말(咸村-)



간촌과 산성동 사이에 있는 마을. 함씨가 많이 살았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가운데골

옛 삼호원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

○ 구마바위

호명산 자락 수리바위 남쪽에 있는 바위. 바위 밑에 굴이 있어 구멍 바위라 하였으나 구멍이 구마로 변하였다고 한다.

○ 너러숙바위

와평동 남쪽에 있는 바위. 넓은 바위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노루메기

산성동 북쪽에 있는 골짜기. 노루가 많았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뒷골

산성동에서 가장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

○ 미륵골

어둔리 159번지에 있는 골짜기. 옛날 절이 있었다 한다. 깨어진 미륵 2개가 있어 붙은 이름이다. 깨어진 2개의 미륵 중 하나는 세 동강이 난 미륵인데, 윗몸통은 땅에 누워 있고 하부는 서 있으며 머리는 구렁에 떨어져 있다. 세 동강을 조립하면 길이가 8척, 너비가 4척이 된다. 다른 하나는 두 동강이 되어 있는데 머리와 몸통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것을 조립하면 길이가 7척, 너비가 3척이 된다.

○ 바른골

간촌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

○ 박불당

호명산 자락에 위치한 안불당보다 더 서쪽에 있는 골짜기. 법불당이라고도 한다.

○ 병풍바위

함춘말 북쪽에 있는 바위. 병풍처럼 생겨 붙은 이름이다. 남방저수지 안에 있고 평상시에는 물에 잠겨 있다.

○ 봉화독

밖불당 북서쪽에 있다.

○ 산제터

호명산 자락에 있는 터. 산제사를 지냈다는 자리이다. 산제굴로도 불린다.

○ 삼호원(森湖苑)

어둔리 산 121번지 일대의 유원지. 40만 평의 임야와 3천여 평의 인공호수로 둘러싸여 붙은 이름이다.

○ 수리바위

호명산 자락 봉화독 남쪽에 있는 바위. 옛날부터 수리가 많이 날아와 앉았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수작골

와평동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

○ 시루개

와평동 남쪽에 있는 고개.

○ 안불당

호명산 자락에 있는 골짜기.

○ 엄띠지기

와평동에 있는 들. 낭떠러지가 있다 한다.

○ 여사위

산성동 남서쪽 밑에 있는 들.

○ 임성골

와평동 가운데에 있는 골짜기.

○ 자라바위는

학곡 북동쪽에 있는 논. 자라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서 붙은 이름이다.

○ 작고개

산성동 서쪽에 있는 고개. 백석면 방성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 작은권골

어둔리 가장 서쪽 흥복 방향에 있는 골짜기.

○ 작은 작고개

산성동 남쪽에 있는 고개.

○ 작은길맞이

호명산 자락 수리바위 남쪽에 있는 골짜기. 길맞이고개라고도 하며 소의 길마와 관련된 지명이다.

○ 작은항골

항골에서 좀 더 동쪽에 있는 골짜기.

○ 절터

호명산 자락에 있는 터. 절이 있었다고 한다.

○ 진고개

긴 고개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진등

와평동에서 의정부 방향에 있는 등성이.

○ 참봉산소

간촌에 있는 묘. 참봉의 산소가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큰골

함촌말 서쪽에 있는 골짜기. 골이 커서 붙은 이름이다. 지금은 천주교 한마음 수련장이 되었다.

○ 큰권골

작은편골에서 동쪽에 있는 골짜기.

○ 큰질맞이

작은질맞이에서 남쪽에 있는 골짜기. 소의 길마와 관련된 지명이다.

○ 탐골

산성동 남서쪽에 있는 절터. 탐이 있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학고개

간촌 동쪽에 있는 마을. 예전에 학이 앉았다 가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한섬지기는

산성동 남쪽에 있는 논. 한 섬지기는 2천 평을 뜻하는 것으로 그만큼 넓다하여 붙은 이름이다.

○ 항골

간촌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

○ 흥복고개

흥복에서 어둔리로 넘어가는 고개.

3. 남방리(南坊里)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읍내면 남방리·동부리 2개 리의 일부 지역을 떼 내어 남방리라 하였다. 남방리의 지명 유래는 읍내면의 남쪽 변에 위치한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개울개

목남동에 있는 마을. 근처에 개울이 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남뺨이

목남동 동쪽에 있는 마을.

● 먹적골

목남동의 서쪽에 있는 마을. 잘 먹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옛날 이곳에 서낭당이 있었다.

● **묵남동**

묵적골[墨洞]로 불리다가 일제 중기에 인접 부락인 원남방이를 통합하면서 묵남동으로 개칭하였다.

● **비석거리**

양주목사들의 비석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마을 이름.

● **사삼부대앞**

옛 미군 43부대 앞의 마을. 일제시대에는 일본인의 사과밭이었다. 지금은 한국군이 주둔하고 있다.

● **성너머**

신성말 남서쪽 너머에 있는 마을. 토성 너머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신성말[新城洞]**

남방리에서 으뜸되는 마을. 고려 때 토성(土城)이 있었다 하여 성너머[城隅]로 호칭되다가, 일제 중기에 인접 부락인 새말을 통합하면서 신성동이 되었다.

● **안비석거리**

묵남동 가운데에 있는 마을. 옛 양주목사들의 비석이 있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안비석거리와 바깥비석거리가 있었으나 바깥비석거리는 의정부시로 편입되었다.

● **외마·외암동(外岩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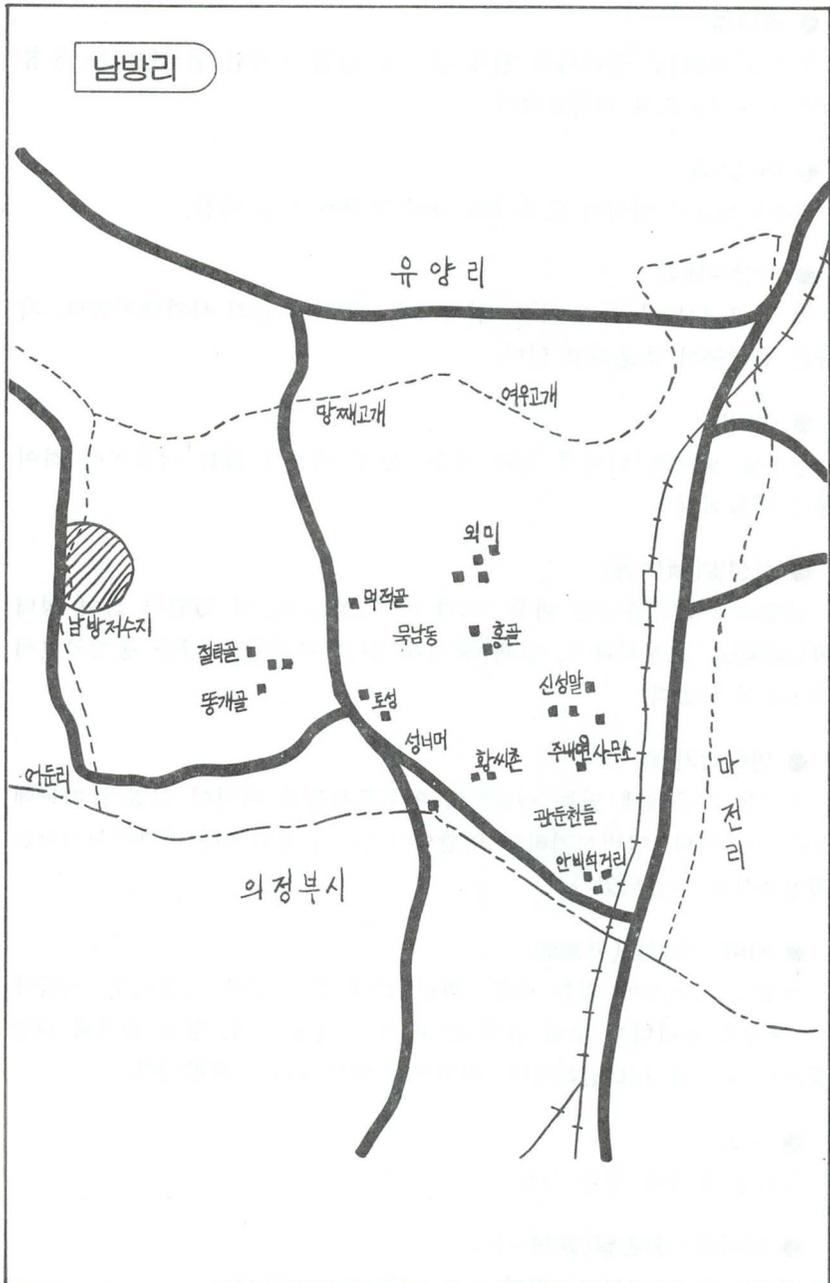
신성말 북서쪽에 있는 마을. 외딴 산이 있어 붙은 이름이다. 처음에는 새골로 불리다가 부락 밖에 큰 바위가 있다 하여, 일제 중기에 외암동으로 고쳐졌다고 전해지며, 예전에는 안말이라고 불리었다.

● **홍골**

묵남동 동쪽에 있는 마을.

● **황씨촌·황촌말(黃村-)**

신성동에서 황씨들이 많이 사는 마을.



○ 관둔천

성너머 동쪽에 있는 들.

○ 까치고개

성너머에서 비석거리로 넘어가는 고개. 옛날 서낭당이 있었다.

○ 남방저수지

묵남동 북서쪽에 있는 저수지. 지금은 낚시터로 이용되고 있다.

○ 냉매산

묵남동 북서쪽에 있는 산. 이곳에 매가 살았다고 하여 매봉이라고도 한다.

○ 뚝개골

남방저수지 서쪽에 있는 골짜기.

○ 비석거리

바깥비석거리에 있는 거리.

○ 삼거리

성너머에서 의정부 본죽양과 비석거리로 갈라지는 길.

○ 심목수다리

방암동 서쪽에 있는 다리. 남방교·심복수·삼목수·아구내다리라고도 한다.

○ 여우고개

외암동에서 유양리로 가는 고개. 여우가 많이 살았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절터골

묵남동 서쪽에 있는 골짜기. 절터가 있었다 하여 생긴 이름이다.

○ 진흙벌

사삼부대 근방에 있는 벌. 비가 오면 땅이 질어서 장화를 신어야만 다닐 수 있어 붙은 이름이다.

○ 쪽도리 웅덩이

옛날 한 새색시가 시집갈 때 이 웅덩이를 지나다가 빠져 죽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토성

성너머 동쪽에 있는 성터. 지금은 없어졌다.

4. 마전리(麻田里)

한말에는 읍내면에 속하였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읍내면 동부리 일부를 병합하였다. 삼밭이 많았던 관계로 삼밭골·삼밭 또는 마전이라 불리었다. 마을 사람들은 마전리란 지명은 산삼 및 삼배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제시대에 마포(麻圃)가 있었다 한다.

● 가는골[細谷]

내촌에서 암매너머 방향에 있는 마을 및 골짜기.

● 각가능

웅달말 동쪽에 있는 마을 및 산. 이곳 산의 형태가 각이 진 모양의 능처럼 생겼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산 이름을 마을 이름으로도 부른다.

● 굴바위

내촌에서 북쪽 굴바위가 있는 마을. 안말 동쪽에 있는 바위도 굴바위라 하는데 굴이 뜯려 있어 붙은 이름이다.

● 내촌(內村)

마전리 안쪽에 있는 마을. 굴바위·가는골·중말·목골·분두골을 합쳐 내촌이라 한다.

● 방암동(芳岩洞)

구석말과 장춘밭골을 통합하여 방암동이라 하였다. 지금은 양짓말·웅달말·장춘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 암매너머[岩梅洞]

내촌 남서쪽 산 너머에 있는 마을. 안말너머로 호칭되다가 발음변화로 암매너머가 되었다.

● 양짓말

방암동 남동쪽에 있는 마을. 양지쪽에 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응달말

내촌 북쪽에 있는 마을. 응달진 곳에 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장춘동

방암동 북쪽 마전 1리의 마을. 장춘밭골이라고도 한다. 장자골·바갈말·부석골을 합쳐 장춘밭골이라 한다.

● 중말

내촌 가운데에 있는 마을. 옛 이름은 중안말이다.

○ 가시목골

가씨 성의 할머니가 이곳에서 살다 죽어 붙은 지명이다.

○ 갈립산(葛立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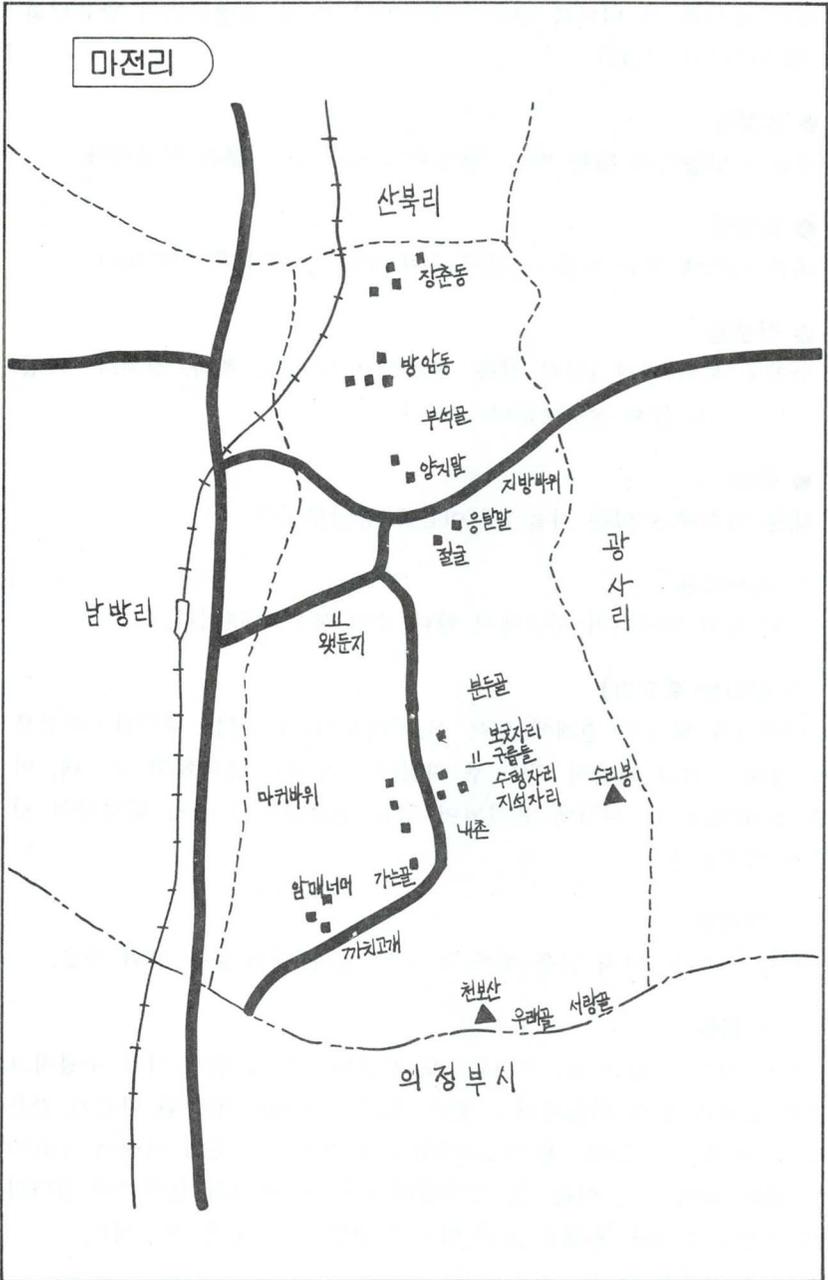
마전리와 의정부 경계에 있는 산. 「대동여지도」에는 마전리·의정부시 경계 지점과 회암사 위쪽 두 지점에 천보산을 표기하고 있는데, 이중 전자(前者)의 지점에 표기되어 있는 천보산이 지금의 갈립산일 것으로 여겨진다.

○ 감바위

뜰에 있는데, 마치 감을 쌓아 놓은 것 같다 하여 붙은 바위 이름.

○ 구름들

안말 북쪽에 있는 논. 구릿들로도 불린다. 마전리에서 가장 구렁지고 깊은 논이라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또한 구린내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래가 있다. ① 마을 사람들이 인분을 이곳에 버려서 구린내가 난다 하여 붙은 이름. ② 아귀할머니가 아기바위와 불곡산에 양다리를 걸치고 이곳에 용변을 보아 악취가 난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깃대봉

마전리 앞의 가장 높은 산. 일제 때 산의 정기를 끊어 인제가 나지 못하도록 쇠 말뚝을 박고 일장기를 달았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깃대봉은 대체로 측량표준기가 세워졌던 곳에 붙이는 산 이름이다. 마을 사람들이 천보산이라 부르는 산의 제일 상봉이다. 이곳 동쪽으로부터 소리랑골·심바위골·우래골·서랑골 등의 골짜기가 있고 심바위골과 우래골 사이에 치마바위가 있다.

○ 까치고개

내촌에서 암매너머로 가는 고개. 이 고개를 통하여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많다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 두껍바위

각가능에 있는 바위. 두꺼비처럼 생겨 붙은 이름이다.

○ 마귀바위

암매너머 서쪽에 있는 바위. 마귀할미가 치마에 담아다 놓았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아귀바위로도 불린다.

○ 매봉재

매가 자주 앉았다 하여 붙은 지명이다.

○ 보굿자리

안말 북쪽 구릅들 가운데에 있는 논. 보구자리라고도 한다.

○ 부석골

방암동 동쪽에 있는 골짜기.

○ 부엉바위

웅달말에 있는 바위. 부엉이처럼 생긴 바위 또는 바위 가운데 구멍이 나 있어 부엉이가 많이 살았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분두골

굴바위가 있는 골짜기.

○ 삼바골

천보산 중턱에 있는 골짜기. 옛날 한 나무꾼이 이곳에서 나무를 해서 서울로 가 팔았는데, 어느 한약방 주인이 나무를 사면서 “이 나무 절반은 인삼잎”이라고 하였다. 이때부터 나무꾼은 부자가 되었고 이곳에서 인삼이 많이 난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수령자리들

내촌 북쪽에 있는 들. 수령이 있어 붙은 이름이다.

○ 수리봉

내촌 북쪽에 있는 산. 수리바위가 있어 붙은 산이름이다.

○ 여우바위

방암동 부석골 근처에 있는 바위. 옛날 이곳에 여우들이 많이 살았다고 한다.

○ 연무봉

공주가 이곳에서 춤을 추며 살았다 하여 붙은 봉우리 이름.

○ 웅둔지

웅달말 서쪽 주내방향에 있는 논.

○ 절굴

웅달말 남쪽에서 원학동 방향에 있는 골짜기. 절이 있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절굴고개

절굴에서 광사리 원학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서호랑·서울고개라고도 한다. 옛날 고지내 장골 근처를 도읍지로 정하려 했으나 물이 북쪽으로 흐르고 적당한 강이 없어 취소되었다고 한다.

○ 정주당[慶州堂]

내촌 남쪽 천보산맥 자락의 천보암 동쪽에 있는 당. 경주에서 왜장에게 납치되어 온 공주 천보의 영을 위로하기 위해 지었다는 전설이 있다. 지금도 주춧돌이 남아 있다.

○ **중고개**

부석골에서 양짓말로 넘어가는 데 있는 고개. 산중턱이어서 붙은 이름이다.

○ **지방바위**

응달말 북동쪽에 있는 바위. 이곳은 한말 행정 구역상 읍내면과 고주내면의 경계에 해당된다.

○ **지석자리들**

안말 북쪽에 있는 논. 고인들이 있었다 한다. 가장 기름진 논이라 이곳에서 나는 곡식으로 조상에게 제를 지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5. 산북리(山北里)

한말에는 읍내면에 속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천천면 도덕리 일부를 병합하면서 주내면에 편입되었다. 불곡산의 북쪽이어서 산북리라 하였다. 고려시대부터 꽃벼루 우물이 있어 샘내로 불리었다. 그리고 배양동(培養洞)이라고도 하며, 발음변화로 뱀굴이라고도 통칭된다. 또 산뒤·산디·산대 등으로 불린다.

● **간뎃말·가운데말**

큰산대와 작은산대 사이에 있는 마을.

● **산대동(山垆洞)**

불곡산 뒤에 위치하여 산뒤말로 불리다가 일제 때 산대동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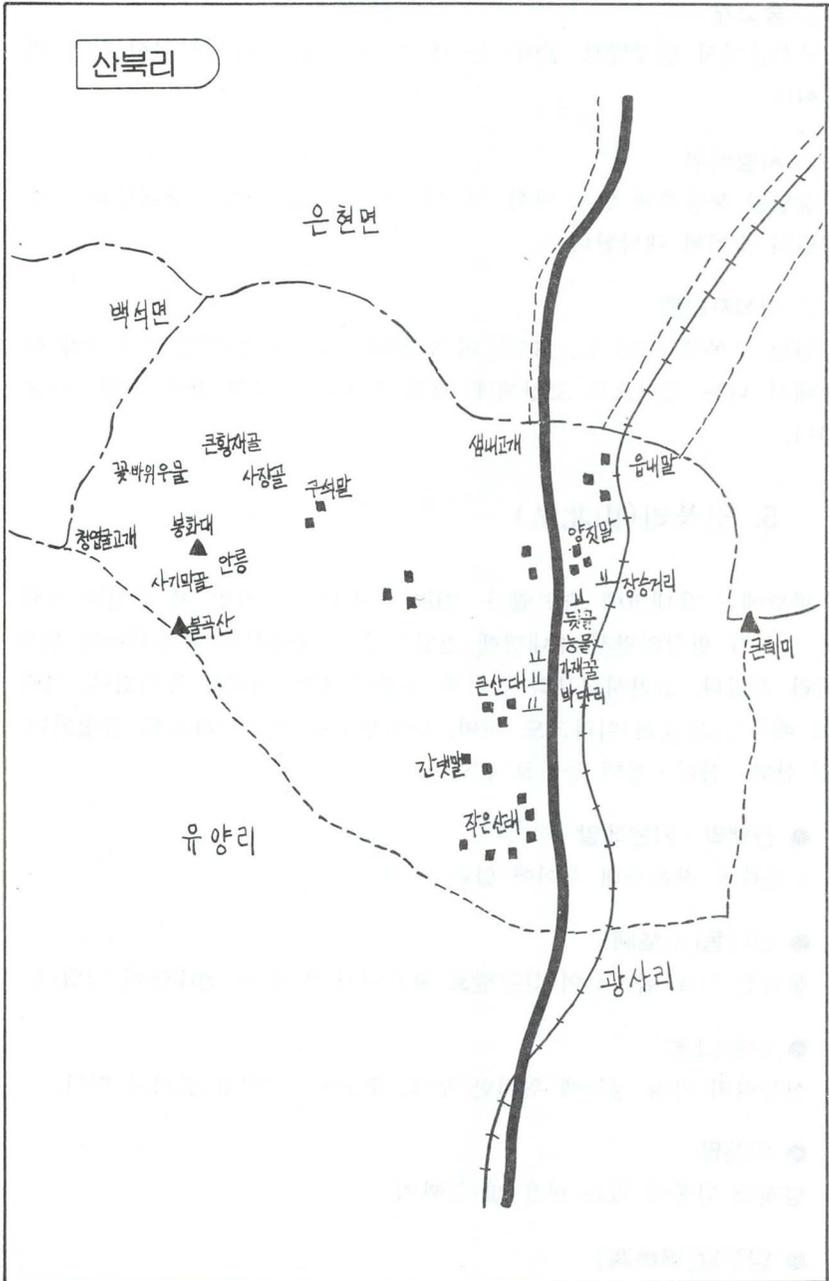
● **상촌(上村)**

산북리의 가장 상부에 위치한 부락. 웃말·구석말로 불리고 있다.

● **아랫말**

양짓말 남쪽에 있는 마을 및 골짜기.

● **양짓말[陽地洞]**



상촌 동쪽에 있는 마을. 산북리에서 가장 양지바른 곳이므로 붙여진 지명이다.

● 읍내말

양짓말 북동쪽에 있는 마을.

● 작은산대

가운데말 남쪽에 있는 마을. 마을이 작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큰산대

산북리의 큰 마을.

○ 가재골

양짓말 북동쪽에 있는 논.

○ 꽃바위 우물

상촌에 있는 우물.

○ 능물

양짓말 동쪽에 있다.

○ 뒷골

능물 북쪽에 있는 논.

○ 박다리

양짓말에 있는 논. 장승거리 바로 남쪽에 있다.

○ 봉화대

안릉 북쪽 태매산에 있던 봉화터.

○ 사기막골

청엽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고려시대 당시 환갑을 넘긴 노인들을 이곳에 구덩이를 파고 움막을 치어 한 달 양식과 물만 주고 버렸는데, 노인들이 깻 사기들이 많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옹기 굽던 가마가 있었다고도 한다.

○ 시장골

정민시묘가 있는 골짜기. 사냥골로도 불린다.

○ 산제당

불곡산 중턱에 있던 제당. 마을의 무사안녕과 무병장수 그리고 풍년을 기원하여 쌀이나 돈 등을 건어 봄에는 돼지를 잡고 가을에는 떡과 소를 잡아 제를 올렸던 곳이다.

○ 상제바위

사기막골 남동쪽 불곡산에 있는 바위. 그 모습이 상제가 건을 쓴 모양과 같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샘내고개

산북리에서 회천읍 덕계리로 넘어가는 고개. 다른고개라고도 한다. 이 고개를 경계로 하여 북쪽으로 흐르는 물은 임진강과, 남쪽으로 흐르는 물은 한강과 합류한다. 샘내는 지질(地質)이 흰 석비레로 되어 있어 여기서 솟아나는 맑은 물은 유명한 약수이며 샘이름은 화암정(花岩井)이다.

○ 셋골

회천읍 벌말 못 미처 있는 골짜기.

○ 안릉

옛날 왕이 능자리를 찾기 위해 잠시 앉았다가 지나간 곳이라 전해진다. 능으로서 마땅한 곳이 아니라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 이당골

산북리에서 남쪽에 있는 골짜기. 임진왜란 때 전사한 사람들의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 장승거리

양짓말 남쪽에 있는 논. 예전에 장승이 있었다고 하여 생긴 이름이다.

○ 중랑천(中浪川)

산북리에서 발원한 내. 중랑천(中梁川)이라고도 쓰는데 들 가운데를

지나는 내라는 뜻이다. 큰개울이라고도 한다.

○ 찬우물

구석말 서쪽 불곡산에 있는 우물. 물이 차고 수원이 풍부하여 붙은 이름이다.

○ 청엽골[千餘谷]

불곡산 자락 산북리와 백석면 방성리 사이에 있는 골짜기. 원래 구백구십구 골인데 하나를 더하여 천여 개의 골짜기가 있다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 청엽골고개

산북리 청엽골에서 백석면 방향으로 가는 고개. 숲이 우거져 푸르다 한다.

○ 큰황새골

사장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황새가 많이 살았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해당골머리

안릉 남쪽에 있는 골목.

6. 광사리(廣沙里)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고주내면 광암리·삼사리 전부, 고읍리·송랑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고, 광암리와 삼사리에서 한 자씩을 따서 광사리라 하였다. 마을 곳곳마다 모래가 많아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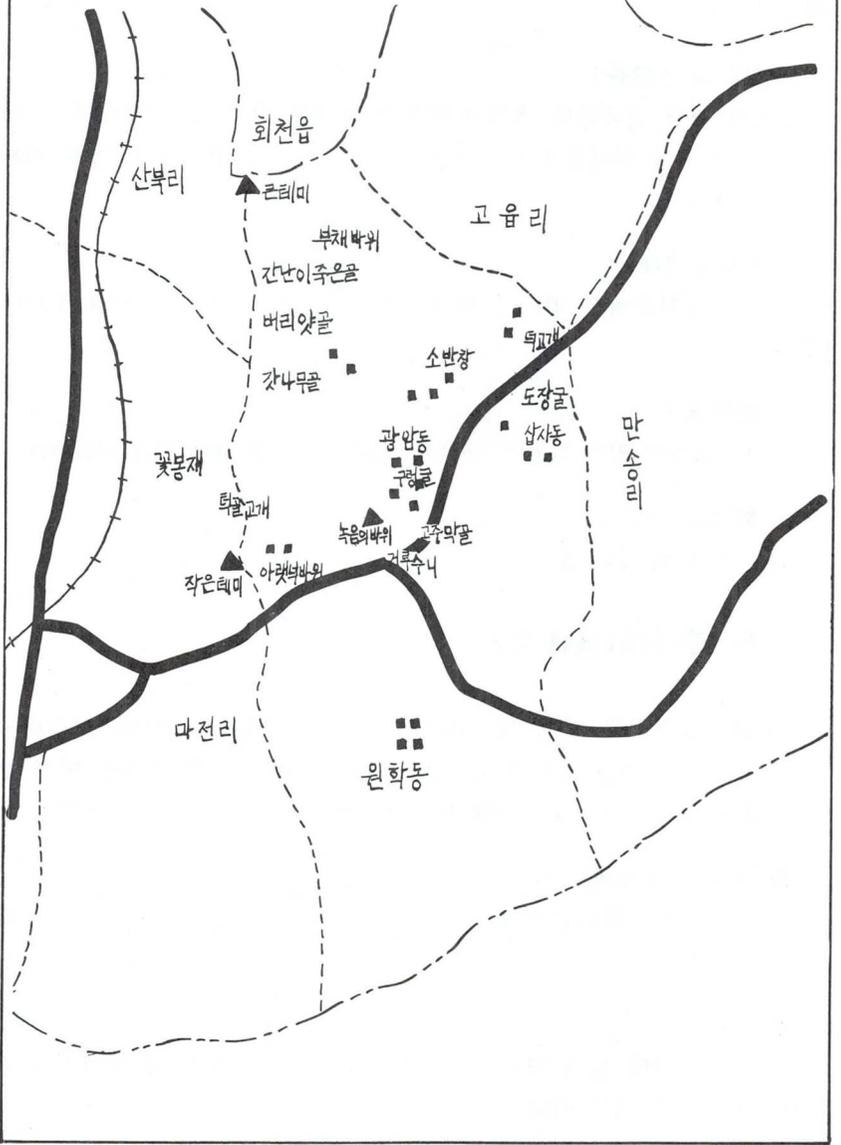
● 광암동(廣岩洞)

광사리에서 으뜸되는 마을. 넓은 바위가 있어 붙은 이름이다. 너바위라고도 한다.

● 구렁골

광암동 북쪽에 있는 마을. 마을이 들어선 곳이 마치 쭈 들어간 굴과 같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광사리



● 덕고개[德峴]

덕현국민학교 밑에 있는 마을 및 고개. 고개가 하도 높아서 붙은 이름이다. 덕이란 ‘크다’는 뜻이다. 높고개라고도 한다.

● 삽사동(插沙洞)

광암동 북동쪽에 있는 마을. 덕고개 부락과 원학동 양 부락 사이에 삽입되어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삽작굴이라고도 한다.

● 상수물

막은고개 서쪽에 있는 마을. 옛부터 물이 많이 나와 상수우물로 불리다가 상수물로 변했다고 한다.

● 소반창

아랫넉바위 북쪽에 있는 마을. 도로변의 반바위가 마치 소반같이 생겨 붙은 이름이다.

● 아랫넉바위

광암동의 아래쪽 마을. 큰 하천이 마을 중심을 지나는데 윗쪽 산에서부터 하천까지 하나로 된 크고 넓적한 바위가 깔려 있어 붙은 이름이다.

● 웃넉바위

광암동의 위쪽 마을. 넓적한 바위 윗쪽에 있어 붙은 이름이다. 지금은 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 원학동(遠鶴洞)

광암동 남쪽에 있는 마을. 마을이 깨끗하고 약수터가 있어 멀리서 학이 날아와 앉았다가 간다고 하여 생긴 이름이다. 무학동(舞鶴洞)·먹굴이라고도 한다.

○ 간난이죽은골

큰테미에 있는 골짜기. 옛날 의학이 발달하지 못한 시절, 어린애가 많이 죽어 어린애만 이곳에 매장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거루수니

광암동 동쪽에 있는 골짜기. 물이 별로 없고 가물기만 해서 붙은 이

름이다.

○ 거북이바위

명랑산 꼭대기에 있는 바위. 옛날 큰 부자가 술을 많이 마셔 손이 쭈그러 들자 스님을 만나 도움을 청하였다. 스님이 거북이바위를 명랑산 꼭대기로 옮기면 낫는다고 하여 바위를 옮기자 그 부자가 망했다고 전해진다.

○ 고주막골

아랫녘바위 북쪽에 있는 골짜기.

○ 구렁굴

광암동 동쪽에 있다.

○ 꽃봉재

아랫녘바위 북쪽에 있는 골짜기. 이곳에 있는 바위가 꽃처럼 생겼고 주위에 진달래꽃이 많이 핀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원래의 이름은 고지봉재라고한다.

○ 평나랑골

원학동 남쪽에 있는 골짜기. 평이 많았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녹음의바위

아랫녘바위 북쪽에 있는 바위. 예로부터 마을 사람들이 이 바위를 찾아 쌀·돈 등을 바치고 소원을 빌었다고 한다. 쌀·돈 등을 바치는 것을 녹음이라 한다.

○ 도장굴(盜葬窟)

덕고개 밑에 있는 굴. 남의 산에 주인 승락 없이 묘를 써서 붙은 이름이다.

○ 막은고개

광암동 북서쪽 고읍리 앞에 있는 고개. 길로 잘려서 고읍리 사람들이 마을에 해가 된다고 흙으로 막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미락골

원학동 남쪽에 있는 골짜기. 산세가 다른 곳보다 아름답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바랑골

큰테미에 있는 골짜기. 바랑처럼 생겨 붙은 이름이다.

○ 반바위

덕고개 남서쪽에 있는 바위. 힘이 센 노파가 바위를 옮기다가 힘이 들어 쉬는 길에 소반창 입구에 놓고 갔다고 한다. 밤바위로 잘못알려져 있다고 한다.

○ 버리얏골

큰테미에 있는 골짜기. 보리수나무가 많았다 한다.

○ 부채바위

큰테미에 있는 바위. 부채같이 생겨 붙은 이름이다.

○ 부채박골

큰테미에 있는 골짜기. 부채바위가 있어 붙은 이름이다.

○ 불당골

원학동 남쪽에 있는 골짜기. 불당이 있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사슴벌들

원학동 남쪽에 있는 들. 옛날에 사슴이 많았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서울고개

원학동 남쪽에 있는 고개. 서울을 가려면 반드시 이 고개를 지나야 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 쇠스랑골

원학동 남쪽에 있는 골짜기. 쇠스랑처럼 생겨 붙은 이름이다.

○ 약물터

원학동 북서쪽 산에 있는 약수터. 산의 큰 바위 틈에서 약수가 나오며 주변경관이 좋은 곳으로 일명 가락굴로 불린다.

○ 어랑골

원학동 남쪽에 있는 골짜기. 고을이 깊어 옛날 호랑이가 많이 살아 호랑골이라고도 하였다.

○ 영굴고개

광암동에서 산북리로 가는 고개. 지금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 작은데미

광암동 남서쪽에 있는 산. 데미란 다른 무리들과 치열하게 싸운 곳 또는 성 주변에 마을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쪽다리

원학동의 윗마을과 아랫마을 사이에 흐르는 하천에 있는 다리.

○ 큰데미

광사리 북쪽 회천읍과 산북리 경계에 있는 산.

○ 탁고개

광사리에서 의정부시 금오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옛날 이 길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고개에 돌을 쌓아 두었던 곳이어서 탁고개라고도 한다.

○ 해뜨기골

원학동에 있는 골짜기. 가장 먼저 해가 떠오른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지금은 해맹이골이라 한다.

○ 현수령

원학동 남쪽에 있다. 수령이 많아 붙은 이름이다.

7. 만송리(晩松里)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고주내면 회만리(回晩里) 전 지역에 송랑리(松娘里) 일부를 병합하고, 회만리와 송랑리에서 각 한 자씩 따와 만

송리라 하였다.

● 곶정동

만송리에 있는 마을 및 곶짜기. 곶에서 샘이 나온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옛날에는 만송리 별관의 논밭에 물을 대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물이 많이 나왔다고 한다. 축석령 북쪽에 있는 곶짜기도 곶정동이라 한다.

● 메루지[棉右池]

만송리에 있는 마을. 조선조 때 안면우라는 사람이 농사에 필요한 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못을 팠는데, 판 사람의 이름을 따서 먼우지라 부르던 것이 메루지로 발음이 변화한 것이다. 옛날부터 목화를 많이 심었던 마을로 추측할 수도 있다.

● 송낭리

메루지, 중말, 오리골 세 부락을 합하여 송낭리라 한다.

● 오리골[梧里洞]

중촌 남서쪽에 있는 마을. 먼 옛날 이 부락에 오동나무 축동(築洞)이 있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혹은 큰 연못 주위에 오리나무가 많이 있어 생긴 이름이라고도 한다.

● 중말·중촌(中村)

만송리에서 가장 큰 마을. 회만동과 오리골 중간에 있어 붙은 이름이다. 마을 사람들이 가난하여 죽만 먹었다고 하여 죽말로 불리다가 중말로 바뀌었다고도 한다.

● 회만동(回晩洞)

오리골 북동쪽에 있는 마을. ‘회만이’를 한자화한 것이다.

○ 갯매골

천보산맥의 너린골 밑에 있는 곶짜기.

○ 금정굴

축석령고개에 있는 봉우리. 이곳과 관련된 전설로 무학대사가 금정굴



에서 광릉쪽을 바라보며 “박이 두 통 열렸구나” 하였고, 삼송리 현재의 공동묘지 자리와 만송리 알덕고개 쪽을 보며 “박이 한 통 열렸구나” 하였다는 이야기가 있다.

○ 금중골

금광이 있었다 하여 이름 붙은 골짜기.

○ 너린골

삼형제봉 밑의 골짜기. 골짜기가 넓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능머루고개

광사리와 만송리 경계에 있는 고개.

○ 덩배골

축석령고개 남쪽에 있는 골짜기.

○ 말무덤

이성계가 말을 타고 가던 중 평소 온순하던 말이 말을 안 듣자, 이곳에서 죽었다고 한다. 또는 675년 신라군과 당나라군이 격전을 벌일 때 죽은 말을 한데 모아 묻은 곳이라고도 하며, 만인(萬人)이 묻혔다고도 전해진다.

○ 매봉재

만송리 동쪽 천보산맥에 있는 봉우리. 산 위에 있는 절의 비구니와 산 아래 마을 총각이 이 봉우리에서 매일 만났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 모상골

회만동 네거리 지역의 논. 옛날 비에 의존하여 농사지을 때 이 지역이 가장 늦게 모내기를 끝냈다. 그래서 이곳이 모내기를 끝내면 ‘모내기 이상 끝’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라 한다.

○ 미력산골

백석이오개에서 천보산맥을 따라 남쪽에 있는 골짜기.

○ 미륵바위

백석이고개 서쪽에 있는 바위. 미륵바위 2개가 중말 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곳에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중말쪽 마을 청년들이 바위의 방향을 바꾸어 회만동으로 돌려놓았다. 이 후 중말과 회만동 두 지역 모두 아무 탈이 없었다고 한다.

○ 박우물

회만동 동쪽에 있는 우물 및 논. 옛날 할머니들이 물둥이로 물을 길어 먹을 때 이 우물은 수량이 적어서 한 바가지 푸면 한참 있다 또 한 바가지가 나왔다. 새벽 일찍 일어난 아낙네가 먼저 물을 길어가면 뒤에 온 아낙네가 조금밖에 나오지 않는 샘물을 아쉬워하여 붙인 이름이라고 한다. 이 근처의 논 이름도 박우물이다.

○ 방죽다리

방죽에 놓여 있어 붙은 다리 이름.

○ 백석이고개[白石伊峴]

회만동 남동쪽에 있는 고개. 차들이 많아 생긴 이름이다. 옛날 이 고개는 호랑이가 극성을 부려서 낮에도 함부로 넘을 수 없었다. 이 고개를 넘으려면 백 명이 모인 다음에 넘었다 하여 백씩이고개라 불리게 되었던 것이 발음이 변하여 백석이고개로 되었다고도 한다.

○ 복중골

천보산맥 자락에서 오양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지금은 골프장이 들어섰다.

○ 사곡동(寺谷洞)

조선조 때 절이 있던 자리. 지금도 절터와 축대가 남아 있다.

○ 삼형제봉

천보산맥의 절골 남쪽에 있는 봉우리.

○ 새두들기

옛날에 새가 무척이나 많아 무엇이든 두들겨서 소리를 내어 새를 쫓

았다 하여 붙은 논 이름.

○ 성바위[城岩]

회만동 남쪽 천보산맥에 있는 골짜기. 성같이 생겨 붙은 이름이다.

○ 시우논

회만동 앞에 있는 논. 이곳은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아 수렁이 많고 샘이 항상 넘쳐 흘러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 오양골

천보산맥 자락에서 미력산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지금은 골프장이 들어섰다.

○ 작은덕고개

덕고개쪽의 사람들은 가난하고 이 고개쪽에는 알부자가 많아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옛날에는 알덕고개라고 불렀다.

○ 장거리

옛날 장터라 하여 붙은 밭 이름. 옛날 이곳에서 광대놀이와 씨름이 벌어졌었다고 한다.

○ 장사바위

갯매골에 있는 바위. 옛날 힘이 센 장사의 주먹자국과 발자국이 남아 있다 하여 생긴 이름이다.

○ 절골

매봉재 남쪽에 있는 골짜기.

○ 축석령고개[祝石嶺峴]

만송리에서 포천군 소홀면으로 넘어가는 고개. 병자호란 당시 말들의 변이 쌓여 고개를 이루었다고 전한다.

○ 한우물

오리골에 있는 우물. 이 웅덩이는 겨울에도 언 적이 없어서 이 물로 간장과 고추장을 담웠다고 한다. 하늘물이라고도 한다.

8. 삼승리(三崇里)

한말에는 고주내면 광승동(光崇洞)과 야촌(野村)을 광승리(光崇里), 상삼동(上三洞)과 하삼동(下三洞)을 삼가대리(三佳垔里)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고주내면 삼가대리와 고읍리에서 일부 지역을 분리시켜 광승리에 병합하고 삼승리라 하였다. 삼승리는 삼가대리와 광승리에서 각각 한 자씩 떼 내어 붙인 지명이다.

● 광승동(光崇洞)

삼가대 남쪽에 있는 마을. 광우지로도 불린다. 광우지는 넓은 땅을 벗하여 산다는 뜻이다.

● 궁말

삼승리 산 4번지에 있는 마을. 숙선옹주(淑善翁主)의 묘가 있어 붙은 이름이다. 현재에도 옛 관리의 집터가 남아 있고, 그 관리가 농사짓던 한 필지의 논이 있다. 그 집터를 궁터라 하며, 그 논을 궁논이라 한다.

● 벌말[野村]

광승동 남서쪽 들에 있는 마을. 예전에는 광우지(廣于地)라 불렀는데, 일제시대에 넓은 벌판이 있는 지역이라 하여 벌말·들말·야촌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풍수지리상으로 보면 마을 둘레가 물논이고 한가운데 마을이 자리잡고 있어 마치 망망대해에 떠다니는 배 형국과 비슷하다고 한다.

● 삼가대(三佳垔·三家垔)

삼승리에서 으뜸되는 마을. 권(權)·김(金)·림(林) 3대 성씨(崔·林·朴씨라고도 한다)가 살았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지금도 당답보(唐答漚)가 있다고 한다

● 상삼동(上三洞)

삼가대 위쪽에 있는 마을. 상삼가대리(上三佳垔里)의 약칭이다.

● 양짓말

벌말의 북쪽에 있는 마을.

● 용각굴(龍角窟)

광송동 남서쪽에 있는 마을. 옛날 이 곳 큰 연못에 용이 살고 있었다 한다. 장마가 한창일 때 용이 승천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어디론가 가버렸다 한다. 용이 떠난 후 그 연못은 사라지고 기다란 골만 남아 용이 손님으로 머물다 간 곳이라 하여 생긴 이름이라 한다. 용곶굴·뒤지골이라고도 한다.

● 하삼동(下三洞)

삼가대 북쪽에 있는 마을. 하삼가대리(下三佳垞里)의 약칭이다.

○ 누룩바위

삼송 2리 천보산맥의 최고봉에 있는 바위.

○ 도당나무

액을 쫓고 복을 빌기 위해 제를 지내던 소나무. 이 때 지내던 제를 도당제라 하였는데 발음이 변화하여 도독제가 되었다. 도당나무 앞으로는 상여가 지나가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 도독재

도독이 있었다고 하여 붙은 재 이름. 매봉에서 넘어오는 산의 혈을 꿇자 여기서 피가 나왔다는 전설이 있다.

○ 들언천바위

들어 얽은 것처럼 생긴 바위.

○ 맷돌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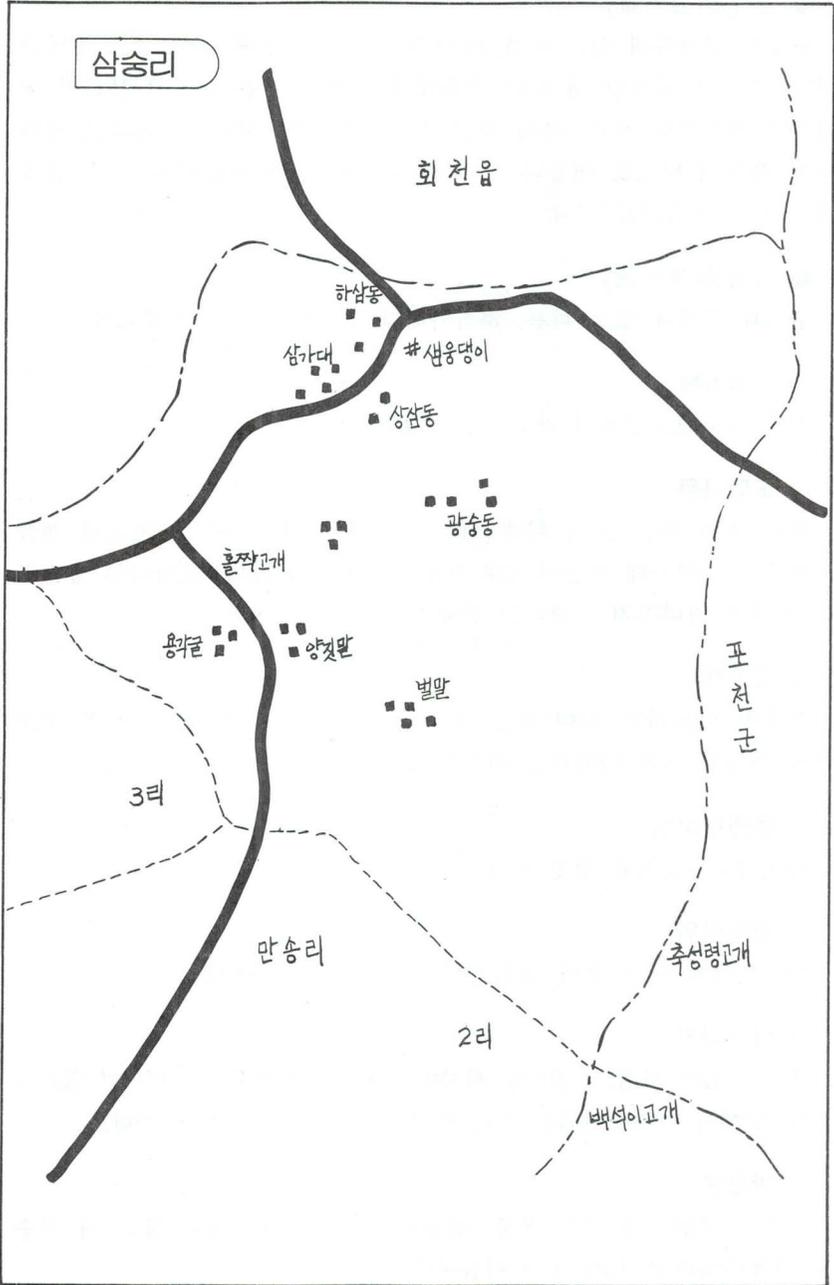
삼송 2리에 있는 바위. 맷돌같이 생겨 붙은 이름이다.

○ 바우배기

별말에 있는 바위. 양짓말을 사이에 두고 장사바위와 바우배기가 있는데 장사바위에서 장사가 오죽을 누니 이 바위에 구멍이 뚫렸다고 한다.

○ 박은물

삼송리 51번지에 있는 우물. 샘물이 잘 나와 바가지로 물을 퍼 식수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비석바위

삼승 2리에 있는 바위.

○ 삼승교

삼승리 북서쪽에 있는 다리.

○ 샘웅덩이

삼승 2리 산 107번지에 있는 샘. 옛날에 빨래터로 사용하였고 약 4만여 평의 논에 물을 대었다고 한다. 지금은 웅덩이 흔적만 남아 있다.

○ 서울놈의 묘등

서울 사람의 묘가 있는 등성이. 서울에 사는 상주가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후 아무도 오지 않는다고 하여 생긴 이름이다.

○ 안장바위

옛날 혼인하러 조랑말을 타고 신부집에 가던 신랑이 호랑이를 만나게 되자, 말이 놀라서 등에 있던 안장을 떨어뜨린 채 도망쳤는데 그 안장이 바위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 으악고개

포천으로 넘어가는 고개. 두 가지의 지명 유래가 전해지고 있다. ① 옛날 가마타고 시집가던 처녀가, 호랑이가 덮치는 바람에 ‘으악’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② 어떤 행인이 갑자기 나타난 산짐승을 보고 놀라 ‘으악’하고 죽어 붙여진 이름이다.

○ 장사바위

별말에 있는 바위. 힘이 센 장사가 옮겨 놓은 것이라 한다.

○ 장자나무절터

정자나무가 있었던 절터.

○ 천보사절터

127번지 둔전골 후면에 있는 절터. 내력은 알 수 없으나 기왓장, 주춧돌 등이 나오며 지금은 공동묘지이다.

○ 큰바위등

천보산맥의 큰바위가 있는 능선.

○ 큰바위등물

큰바위등에 있는 약수터.

○ 호랑이굴

벌말에 있는 굴.

○ 흘썩고개

양짓말 북쪽에 있는 고개. 흘썩하게 생겼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9. 고읍리(古邑里)

고구려 때부터 조선조 초까지 현주(見州)의 고읍이었다. 1397년(태조 6) 양주의 부치(府治)가 이곳에 설치되었는데, 1506년(中宗 1)에 유양리로 옮겨 가자, 고읍내·구읍내·고읍·구읍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개편시, 고주내면 고읍리 일부 지역에 천천면 고장리 일부 지역을 병합하고, 지명은 계속 고읍리를 사용하였다.

● 상동(上洞)

고읍리 위쪽에 있는 마을. 웃말로도 불린다.

● 아랫말

중동 아래쪽에 있는 마을. 중동과 상동 사이의 중간마을이고 정씨촌이다.

● 중동(中洞)

고읍리 중앙에 있는 마을. 옛날 관아의 치소(治所)가 유양리로 옮긴 뒤부터 낡은골이라고도 한다.

● 지계동(芝戒洞)

중동 북쪽에 있는 마을. 지계울 또는 지계울이라고도 불린다.

○ 골나드리

고읍리 서쪽에 있는 밭. 고을 원님이 왔다 갔다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지금의 탄약고 근처이다.

○ 관아유지(官衙遺址)

조선시대 관아가 있던 곳. 1397년(태조 6) 동촌 대동리에서 이곳으로 옮겨왔다.¹²⁾ 지금은 전답으로 변하였으나, 50cm만 파면 주춧돌·지대석·기와 등이 나온다.

○ 근심이고개

중동 남쪽에 있는 고개. 이 고개를 지나던 사람이 목을 매어 죽어서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 대구다리

중동 서쪽에 있는 저수지 둑.

○ 막은고개

상동에서 광사 2리로 넘어가는 고개. 전면 지형이 막혀 있어 붙은 이름이다.

○ 방야다리

중동에서 남쪽에 있는 길. 옛날 방앗간이 있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사당집터

옛날 사당이 있던 자리. 지금도 땅을 파면 기와 조각이 나온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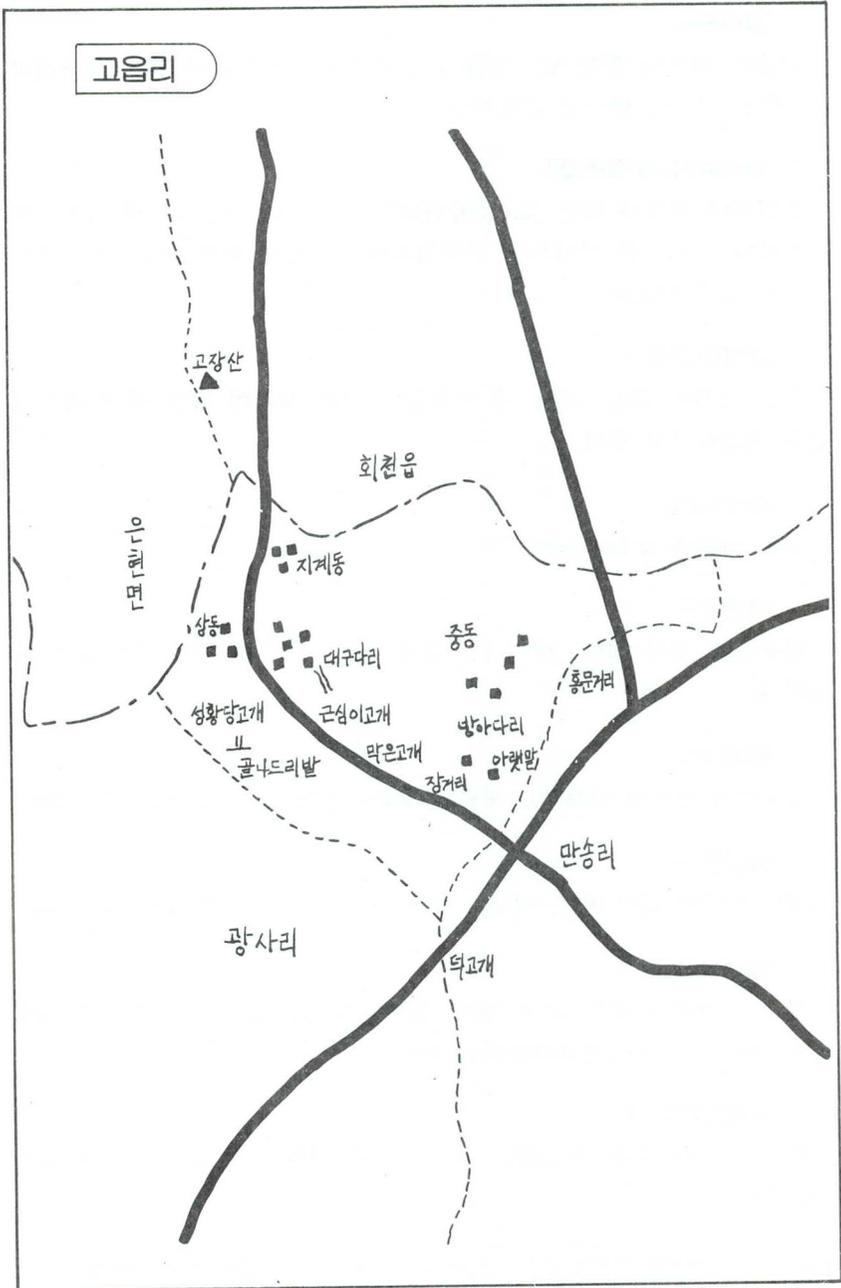
○ 성황당고개

장거리 서쪽에 있는 고개. 옛날 성황당이 있었던 고개이다. 도둔어로 넘어간다고 하여 도둔이고개라고도 한다.

○ 옥배미(獄-)

상동 남쪽에 있는 논. 옛날 죄인을 가두었던 감옥자리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12)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II 경기·충청도, 1967, 243쪽.



○ 장거리

중동 남쪽에 있는 들. 장이 섰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함경도고개

상동에서 성황당고개 밑에 있는 고개. 마을이 생길 때 함경도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 홍문거리[紅門街]

중동 남쪽에 있었던 거리. 홍살문이 있었다고 하며, 관아로 들어가는 출입문이었다.

○ 황정자

황희 정승이 들러 쉬어갔다는 곳.

여

백

제 4 장 은현면(隱縣面)



남을진 선생 묘

여

백

현내면은 신라 때 사천현의 지역이었다. 그리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현내면(縣內面)의 상패리(上牌里)·중패리(中牌里)·하패리(下牌里) 전부, 묵은면(默隱面)의 일패리(一牌里)·일패하리(一牌下里)·이패리(二牌里)·삼패리(三牌里)·삼패하리(三牌下里) 전부와 사패리(四牌里) 일부, 이담면(伊淡面) 축산리(楮山里)·황매동(黃梅洞)·송라리(松蘿里)·안흥리(安興里) 일부, 적성군(積城郡) 남면(南面) 입암리(笠巖里)·발운리(發雲里)·한산리(閑山里) 일부, 석적면(石積面) 항동리(項洞里)·행동리(杏洞里)·대야지리(大也池里) 일부 지역을 통합하고, 묵은면과 현내면의 이름에서 한 자씩 따서 은현면이라 하였다.¹⁾ 이때 상패리·하패리·용암리·선암리·운암리·봉암리·도하리 등 7개 법정리를 두고, 면사무소는 용암리에 두었다.

1957년 1월 17일 상패리를 1리와 2리로 분리하여 모두 8개 행정리를 두었다. 1964년 12월 5일 상패 3리가 신설되고, 용암리가 1·2리로, 하패리가 1·2리로, 도하리가 1·2리로 각각 분리되어 모두 12개 행정리를 두었다. 1980년 1월 4일 상패 4·5리, 용암리 3리가 신설되고, 선암리가 1·2리로 분리되어 모두 16개 리를 관할하였다. 1983년 2월 15일 상패 1-5리가 동두천시로 편입되어 관할지역이 11개 리로 축소되었다. 1984년 12월 24일 현청사를 신축하였고, 1987년 1월 1일 운암리를 1·2리로 분리하여 모두 12개 리가 되었다.

1. 용암리(龍岩里)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묵은면 일패리와 일패하리를 병합하여 용암리라 하였다. 묵은 논이 많아 묵은논이·진담·묵은동이라 불리우며, 묵은(진담)면사무소가 있었던 관계로 일패라고도 한다. 약대산에 용이 승천하는 모습의 용바위가 있으므로 용바위, 용암이라고도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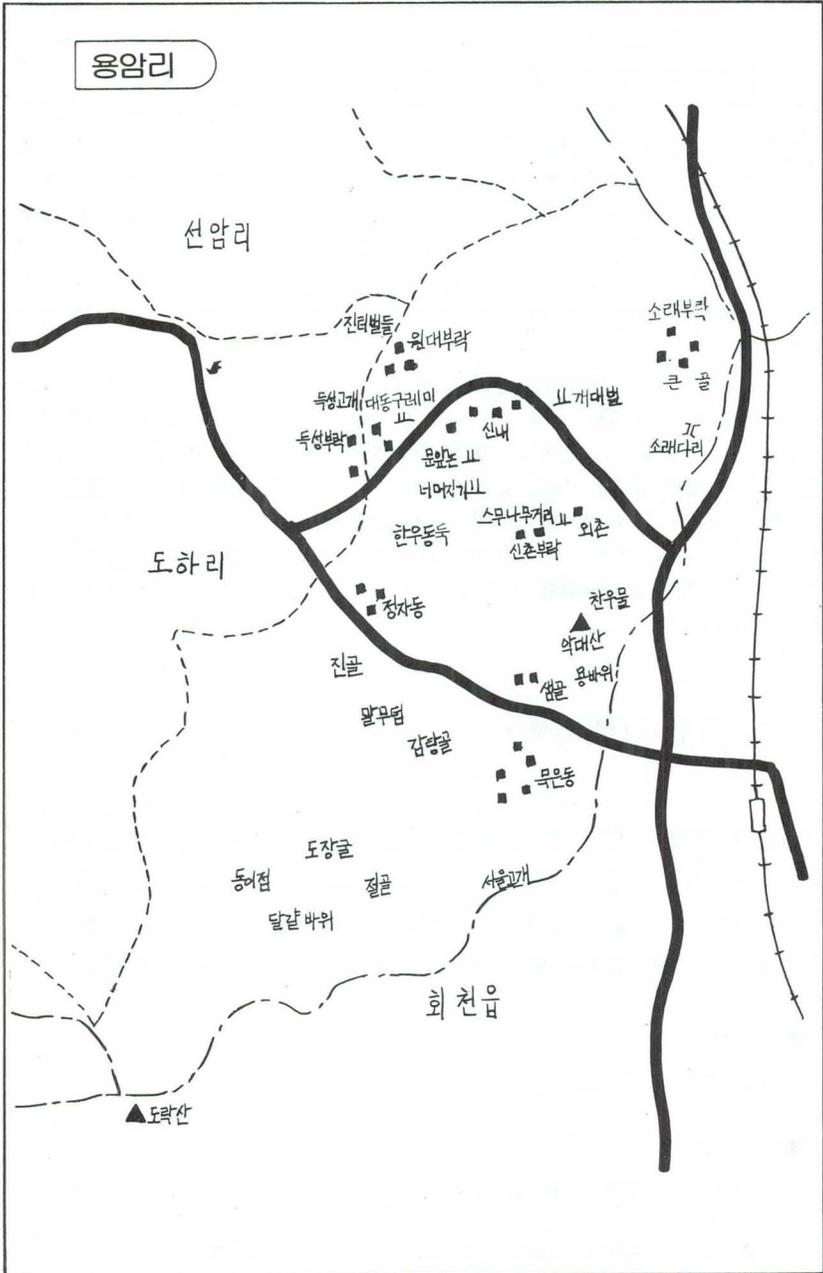
● 감탕골

정자동 남쪽에 있는 마을.

● 구석말

외촌 남쪽 구석진 곳에 있는 마을.

1) 朝鮮總督府, 『新舊對照 朝鮮全道 府郡面里洞名稱一覽』, 1917, 124쪽.



● **동이점**

묵은동 남쪽에 있는 마을. 동이를 만들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득성부락(得聖部落)**

옛날 여산(礪山)·송씨촌(宋氏村)이었던 부락. 송씨 가문에서 문장성인(文章聖人)이 연이어 나게 되어 득성이라 하였고 ‘득세이’라고도 불린다.

● **묵은동(默隱洞)**

용암 1리에는 내묵은(內默隱)·외묵은(外默隱)이 있고, 내묵은은 지금의 정자동·감탕골·묵은동을, 외묵은은 신내·득성부락·신촌부락을 말한다. 일제시대부터 은현면사무소가 묵은동에 있었다. 세종대왕 외숙부의 묘를 이곳에 만들고 부근의 논을 사패지로 하였다. 그로 인하여 논에 농사를 짓지 못하여 묵은논이라 하였는데 이것이 한자화하여 묵은동(默隱洞)으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 **바깥묵은논이**

묵은동 바깥에 있는 마을. 외묵은이라고도 한다.

● **바깥신내**

신내 바깥에 있는 마을. 한자로 외(外)신천이라고도 한다.

● **상하터**

득성부락 북쪽에 있는 마을 및 골짜기.

● **샘골**

묵은동에서 정자동과 웃말 사이에 있는 마을.

● **세집매**

소래동 남쪽 세 채의 집이 있었던 마을.

● **소래부락(蘇萊部落)**

신내 북동쪽 소래산 밑에 있는 마을. 조선시대 어느 해 큰 흉년이 들어 쌀이 없게 되자 썩으로 연명하였다 하여 소래라 하였다. 옛날에는

중이 쓰는 송낙으로 불리다가 송나로, 송나가 다시 소래로 변하였다고도 한다.

● 신내

목은동 북쪽 큰 냇가에 있는 마을. 승내장터·장거리·승래(僧來)라고도 한다. 회암사 중 1천여 명이 승내장터에 와서 장을 보았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신촌부락

원대부락 남동쪽에 있는 마을.

● 아랫소래

소래부락 북쪽에 있는 마을. 송촌이라고도 한다.

● 아홉배미

신내 서쪽에 있는 마을. 논 아홉배미가 있다. 굿배미의 여자가 시집 와서 살던 집을 굿배미네라고 부르다가 굿이 구(아홉)로 바뀐 것이라 한다.

● 안묵은논이

목은동 안쪽에 있는 마을. 내묵은이라고도 한다.

● 외촌(外村)

해방 이후 신촌부락 외부에 형성된 부락. 원래 신촌부락에 속하였으며 해방촌이라고도 한다.

● 웃말

목은동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마을.

● 웃소래

소래부락 남쪽에 있는 마을.

● 원대부락(院垔部落)

소래부락 서쪽에 있는 마을. 원(院)이 있었다 하여 원대라 하였고 ‘원터골’로 불린다. 이곳에는 조선조 중종이 셋째 딸의 장례식에 참석

하기 위해 잠시 거쳐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역원(驛院)터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 정자동

묵은동 북쪽에 있는 마을. 은행나무와 소나무 정자가 있었다.

○ 개뎃벌

신촌부락 북동쪽에 있는 논과 밭.

○ 개머리고개

외촌 동쪽에 있는 고개. 개머리같이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국담고개

득성부락에서 국담으로 넘어가는 고개.

○ 긴골산

소래산 남쪽 큰골에 있는 산. 골이 길어 붙은 이름이다.

○ 너마지기논

신촌부락 북서쪽에 있는 논.

○ 달갈바위

무당너미 서쪽 도락산 자락에 있는 바위. 달갈 모양의 큰 바위이다.

○ 대동구레논

원대부락 남쪽에 있는 마을.

○ 도장굴

동이점 동쪽에 있는 골짜기.

○ 돛대산

소래부락 남쪽에 있는 산. 뒸산이라고도 한다.

○ 동개울

원대부락 남쪽에 있는 개울.

○ 동이점

용암 1리 사무소에서 은현면사무소 방향으로 첫번째 다리 왼쪽에 있다. 이곳에 옹기 파는 가게가 있었다고 하며 도자기, 질그릇 등을 만들었다고 한다.

○ 뒷골

구석말 동쪽에 있는 골짜기.

○ 득성고개 · 원터고개

원대부락과 득성부락 사이의 고개. 원대부락쪽 사람들은 이 고개를 득성부락으로 넘어간다고 하여 득성고개라 하고, 득성부락 사람들은 원터고개라 한다.

○ 마룻돌

소래부락 남쪽에 있는 들.

○ 먹캥이

묵은동 서쪽에 있는 골짜기.

○ 묘골

용암 1리에 있다. 옛날 이곳에 묘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 무당너미

용암 1리 도락산 줄기에 있다.

○ 묵은재고개

묵은동 동쪽에서 회천읍 회정리로 넘어가는 고개.

○ 문앞논

신촌부락 북쪽에 있다.

○ 미말

득성부락 동쪽에 있는 골짜기의 끝이다.

○ 방수터

소래부락 남동쪽에 있는 논. 박수터라고도 하며 옛날 남자무당이 살

았다고 한다. 지금은 공장터로 변하였다.

○ 범답논

소래부락에 있는 논. 범이 빠졌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이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논이다.

○ 비냥

용암 2리 득성고개에 있는 기암절벽. 비냥은 비탈의 사투리이다.

○ 사마발골

북은동 남쪽 도락산 자락에 있는 골짜기.

○ 산지터골

소래산 남쪽에 있는 골짜기.

○ 서울고개

용암리에서 회천읍 독바위 앞을 지나 울정리를 거쳐 고지네를 통해 서울로 가는 고개.

○ 소래개울

소래부락 안을 흐르는 개울. 신내개울이라고도 한다.

○ 소래다리

소래부락 동쪽에 있는 다리. 소래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붙여진 이름이다. 소귀다리라고도 한다.

○ 소래산·송라산

은현면 용암리 동쪽 평화로 국도변에 있는 높이 228.8m의 산. 옛날에는 소라산(所羅山)이라 하였다.²⁾

○ 소막골논

득성부락 북동쪽에 있는 논.

○ 스펠나무거리

2)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Ⅱ 경기·충청도, 1967, 243쪽.

신촌부락 서쪽에 있는 논.

○ 시루떡밭골

묵은동 남쪽 도락산 정상 밑에 있는 골짜기.

○ 신내다리

신내개울에 있는 다리.

○ 신내저수지

구석말 남쪽에 있는 저수지.

○ 악대산

득성부락 남동쪽에 있는 산.

○ 용바위

악대산에 있는 바위. 용이 하늘로 올라가려다, 떨어지는 큰 바위에 깔려 죽어, 바위가 되었다고 한다.

○ 재래미

소래부락 남동쪽에 있는 논.

○ 절골

묵은동 서쪽에 있는 골짜기.

○ 진골

진골산에 있는 골짜기.

○ 진골산

원대부락 서쪽에 있는 산.

○ 진터벌

소래부락 남서쪽에 있는 벌판. 옛날 이곳에서 개울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진을 치고 싸웠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찬우물

악대산에 있는 우물.

○ 참나무모퉁이

외촌 동쪽에 있다.

○ 코끼리무덤

용암 1리에 있다. 중국에서 온 코끼리가 이곳에서 죽자 여기에 묻었다고 한다.

○ 큰골

소래산 남쪽에 있는 골짜기. 골이 커서 붙은 이름이다.

○ 큰골산

악대산 북서쪽에 있는 산. 용암 2리에서 가장 큰 산이다.

○ 한우동독

신내와 소래부락의 경계지점. 한우를 많이 매어 놓았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홍실릉

홍씨 성을 가진 사람의 묘가 있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2. 선암리(仙岩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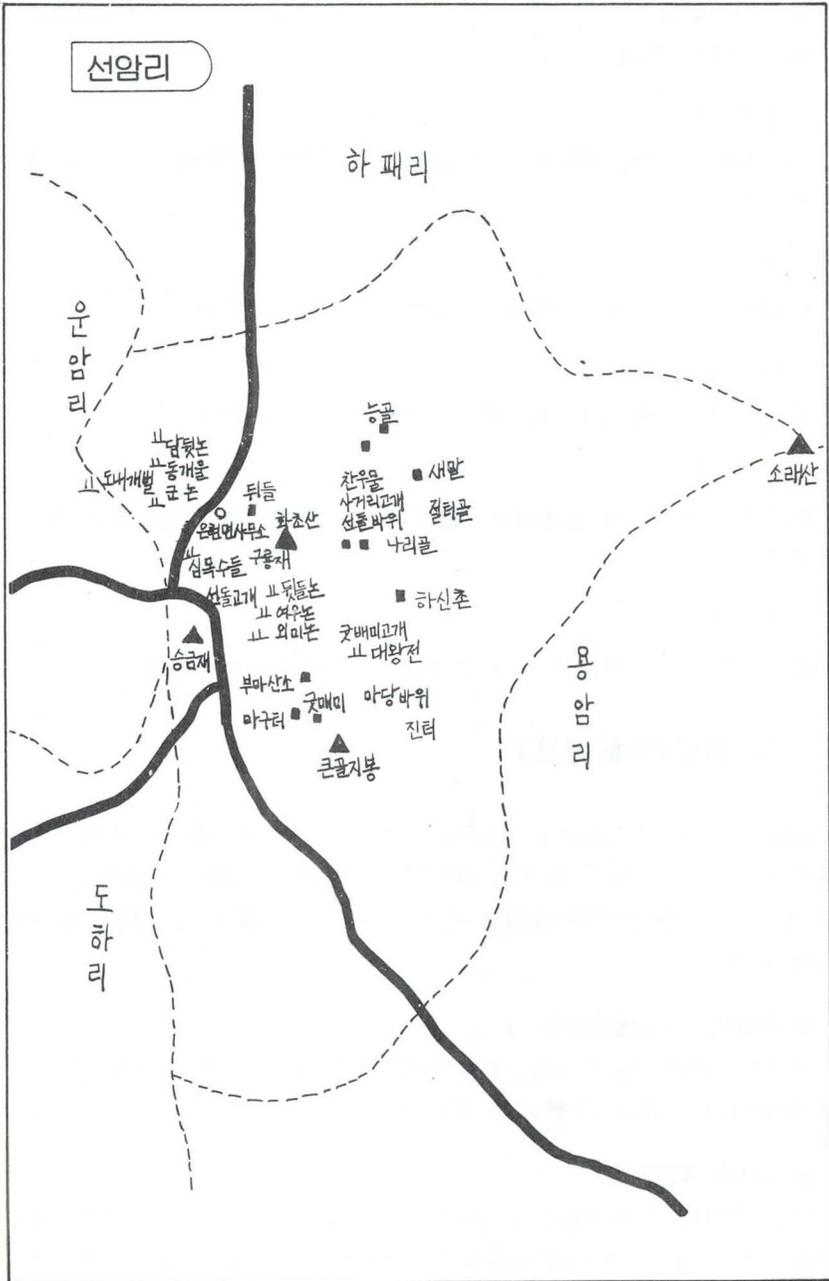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목은면 이패리 일부 지역을 떼 내어 선암리라 하였다. 선돌이 있으므로 선암이라 하였으며, 선돌·선돌바위라고도 부른다. 또는 신선이 내려온 형상의 바위가 있다 하여 선암리라 하였다 한다.

● 굿배미·국담말(菊潭-)

선암리 남쪽에 있는 마을. 옛날 연못이 있었는데 국화가 만발했다 하여 국담이라 하였고 ‘구뵈미’라 불린다.

● 나리골[飛洞]

뒤뜰 동쪽에 있는 마을. 산 기슭에 날아갈 듯이 자리 잡은 부락이라 비동이라 하였고 ‘내리골’이라고도 불린다. 이 외에 능골에서 내려다



보이는 곳이라 하여 붙여졌다는 설과 옛날 벼슬한 나리들이 많이 살았다고 하여 붙여졌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 능골[陵洞]

은현면사무소 북동쪽에 있는 마을. 조선조 때 영의정 송질의 묘가 있어 붙은 이름이다. 현재 능은 없다고 한다.

● 뒤들[後坪]

나리골 동쪽에 있는 마을. 나리골 뒤를 넘어가면 넓은 들이 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뒤뜰로도 불린다.

● 사거리

네 갈래길이 있어 이름 붙은 마을.

● 산골부락[山谷部落]

굿배미 남서쪽에 있는 마을. 산골짜기에 형성된 마을이어서 산곡이라 한다.

● 상신촌(上新村)

새말 위쪽에 있는 마을. 윗새마을이라 한다. 송씨들이 새로 마을을 만들었다고 한다.

● 새말[新村]

나리골 북쪽에 새로 된 마을.

● 하신촌(下新村)

아래새말로 불리며, 왜가리가 많았기 때문에 일명 왜골·왜꼴로도 불린다.

● 학교앞

은현국민학교 앞 마을.

○ 군논

뒤들의 담뿔논 남쪽에 있다.

○ 굿배미고개

굿배미에서 나리골로 가는 고개.

○ 굿배미앞벌

굿배미 앞에 있는 들.

○ 귀능지고개

뒤들에서 새말로 가는 고개.

○ 규릉재

나리골 서쪽에 있다. 옛날 이곳에 홍수가 나서 팽(소 밥그릇)이 떠내려 갔기 때문에 팽재라고 하다가 규릉재로 바뀌었다고 한다. 또는 이곳 깊은 못에 용이 아홉이 있어 구룡지(九龍池)라 하였는데, 이 '구룡지'라는 단어의 발음이 변하여 '규릉재'가 되었다고도 한다.

○ 꽃산

은현면사무소 남쪽 약 400m 거리에 있는 산. 화초산이라고도 한다. 꽃이 많다 한다.

○ 나리골고개

나리골에서 뒤들로 가는 고개.

○ 담뿔논

뒤들 서쪽에 있는 논.

○ 대왕전(大王田)

굿배미 북동쪽에 있는 터. 조선조, 증종의 딸이자 선조의 고모인 정순옹주(貞順翁主)의 장례 때 장지인 은현면 선암리 산지까지 선조가 몸소 와서 머물렀다 하여 생긴 이름이다. 지금은 농지가 되었다.

○ 도내개벌

뒤들 남서쪽에 있는 들.

○ 동개울

뒤들의 담뿔논과 균논 사이를 흐르는 개울.

○ 뒷들고개

나리골에서 서쪽으로 난 고개.

○ 뒷들논

뒤들 남쪽에 있는 논. 여우는 바로 북쪽이다.

○ 마구터

굿배미에 있었던 말을 매던 터. 조선조 중종의 사위인 송인이 죽자 상여를 싣고 민씨네 산을 넘을 때, 산 주인이 못 넘게 하여 시비가 붙었는데 기마병들이 말렸다고 한다. 그 기마병들의 말을 매었던 곳이다.

○ 마당바위

굿배미 동쪽에 있는 바위. 마당처럼 넓어 붙은 이름이다.

○ 마전재고개

은현면소재지에서 동촌으로 가는 고개.

○ 병풍바위

병풍처럼 생겨 붙은 이름이다.

○ 부마산소

굿배미에 있는 묘. 조선조 중종의 사위인 송인의 묘를 말한다.

○ 사거리고개

뒤들 동쪽에 있는 고개.

○ 산골고개

산골에서 용암리 묵은논으로 가는 고개.

○ 새말고개

새말에서 동두천 시로 가는 고개.

○ 서낭고개

용암리로 넘어가는 고개. 고갯마루에 성황당이 있었다고 한다.

○ 선돌고개

은현면사무소 남쪽에 있는 고개. 이곳에 있는 선돌바위에서 유래되었다.

○ 선돌바위

뒤들 동쪽에 있는 바위. 이 바위는 선녀가 내려와 놀던 곳이라고도 하고, 선돌할머니가 돌을 쌓아 만들어 졌다고도 한다.

○ 송논

뒤들의 식목수들 남쪽에 있는 논.

○ 승금재

은현면사무소 남동쪽에 있는 산.

○ 식목수들

뒤들 남서쪽에 있는 160여 평의 들. 옛날 어떤 사람이 지관과 함께 묘지를 잡을 때에 감악산부터 산지를 잡아오다가 이곳에 도착하였다. 그러자 지관은 “이제서야 명당을 찾았다.”고 무릎을 치며 “이곳이 명당이라면 주위에 승금재·구룡지·화초산이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 이에 옆 사람이 “그렇다”고 하자 지관은 “명당이 분명하다. 그리고 3척(尺)만 파면 너레바위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그 너레바위를 캐지 말고 그 위에 묘를 써야 좋다.”고 하였다. 그러나 맏아들 상주가 너레바위를 캐내고 묘를 써야 한다고 우겨 그렇게 한 결과 파명당이 되었다고 한다. 지금도 이와 관련된 산소가 있다.

○ 신선바위

신선이 서 있는 모양의 바위. 옛부터 이곳에서 자식을 낳게 해 달라고 백일기도를 드려 왔다. 선녀가 이 바위에 내려 오는 꿈을 꾸었다는 옛 노인의 말이 전해져 와 선녀바위라고도 한다.

○ 여우논

뒤들의 외미논 바로 북쪽에 있는 논. 비가 오면 물이 고였다가 비가 그치면 금세 물이 빠져 여우같은 논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외미논

뒤들 남쪽에 있는 논.

○ 절터골

나리골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 이곳에 절이 있었다 하며, 지금도 주춧돌이나 기와장이 나온다고 한다.

○ 진터

대왕전 동쪽에 있는 벌. 옛날 왕의 호위 군사들이 진(陣)을 치고 있었다 한다.

○ 찬우물

함방비산에 있는 우물.

○ 큰골지붕

굿배미 남쪽에 있는 봉우리.

○ 함방뒤고개

능암에서 하패리 서내비로 가는 고개.

○ 함방비산

뒤들 동쪽에 있는 산.

○ 활터고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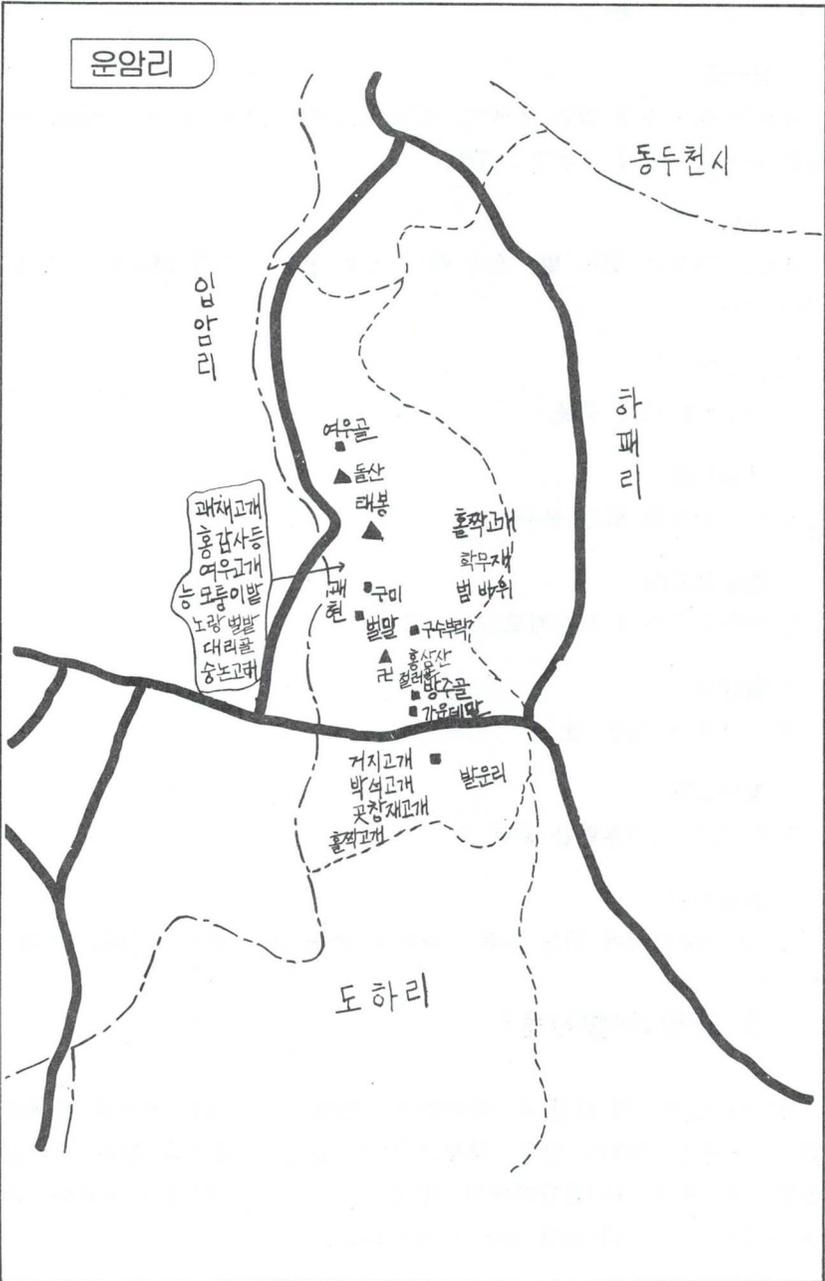
활을 쏘며 군사훈련을 하던 곳.

○ 흔들바위

선암리 350번지에 있는 바위. 바위에 손을 대면 흔들거린다고 한다.

3. 운암리(雲岩里)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묵은면의·삼패리 삼패하리 전부와 이패리 일부, 현내면 하패리 일부, 적성군 남면 입암리·발운리 일부 지역을 통합하고, 발운리와 입암리에서 각 한 자씩 따서 운암리라 하였다. 혹은 구름바위가 있다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도 한다.



운암리

동두천시

이묘암리

양평리

여우골

돌산

라봉

홀작고개

학무재

범 바취

구미

범

발말

구수부락

홀산

굴

함수

계원

거지고개

박석고개

갯참재고개

홀작고개

발운리

과재고개
 홀사등
 여우고개
 모동
 이발
 노량
 범
 대리풀
 승농

도하리

● 가운데말 · 간뎃말

방주골과 옷말 가운데 있는 마을.

● 곳창재

구수고개 남쪽에 있는 마을.

● 괘현[卦峴 · 掛峴] · 괘재

괘재고개 밑에 있는 마을.

● 구미(龜尾)

구수고개 북서쪽에 있는 마을. 마을 형상이 거북 꼬리처럼 생겼다고도 하며, 또는 거북 형상의 바위 꼬리가 이 마을을 향하고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구수부락(龜首部落) · 구수고개 · 벌말

괘현 남쪽에 있는 마을. 옛날 거북 형상의 피암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 마을을 향하고 있어 구수부락이 되었다 한다. 마을 앞과 뒤에 벌이 펼쳐져 있어 벌말이라고도 한다.

● 기와골

괘현에서 가장 북서쪽에 있는 마을.

● 발운부락(發雲部落) · 배루니 · 안말

방주골 남동쪽 신천 가에 있는 마을. 배루니 · 물가배루니라고도 한다. 하천으로 인해 안개가 많이 끼는데 이것이 구름으로 피어오르는 듯이 보여 붙은 이름이다.

● 방주골 · 방축부락(防築部落)

구수고개 남쪽에 있는 마을. 약 200년 전 이 마을 근방에 큰 방축이 있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방축은 지금 논으로 바뀌었다.

● 서도리

곳창재와 방주골 사이에 있는 마을. 서쪽으로 길이 나 있어 붙은 이름이다.

● 여우골

괘현 북동쪽에 있는 마을. 여우가 많았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여의동(如意洞)이라고도 한다.

● 웃말·거지고개

발운리 서쪽에 있는 마을 및 고개. 한국전쟁 직후 거지들과 나환자들이 많이 살았다고 한다. 약 150년 전 양씨라는 부자가 살았는데, 인심이 좋다고 소문이 자자해 길 가는 나그네나 거지들이 이곳으로 몰려와 부근 연자방앗간에서 잠을 자고 밥을 얻어 먹었던 곳이라 전해진다. 성황당이 있었다고 하여 서낭당고개라고도 한다.

○ 곳창재고개

발운리 서쪽에 있는 고개.

○ 패재고개

구수고개에서 여우골로 가는 고개. 지나는 행인도 이 고개에서는 허리를 굽고 쉬어 간다 하여 허리 걸 ‘掛’자를 사용하여 괘현이라 했다.

○ 기와골

옛날 큰 기와집이 있었다는 골짜기. 기름채골이라고도 불린다.

○ 능모통이밭

괘현 서쪽에 있는 밭.

○ 대리골

괘현 남쪽의 노랑벌밭 동쪽에 있는 밭.

○ 돌산

구미와 여우골에 걸쳐 있는 산. 이곳에서 나는 돌은 비석으로 쓰인다. 지금도 계속 채석하고 있다.

○ 박석고개

발운리 서쪽에 있는 고개. 박석(얇은 돌)이 많아 붙은 이름이다.

○ 박수고개

배루니에서 선암리로 넘어가는 고개. 옛날에 성황당이 있었고 그곳에 박수무당이 살았다고 한다.

○ 백냥자리

구수고개 서쪽에 있는 논. 백 냥 주고 샀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범바위

괘현 남동쪽에 있는 바위. 범처럼 생겼다고 한다.

○ 벽장바위

벽처럼 생겨 붙은 이름이다.

○ 봉바위산

봉바위가 있는 산. 들산이라고도 한다.

○ 부엉바위

부엉이가 살았다는 바위.

○ 새산산

괘현 동쪽에 있는 산.

○ 송논고래

구례들 남쪽에 있는 논. 항상 물이 많이 난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 에너머

은현면사무소에서 남서쪽에 있는 논.

○ 여우고개

여우골에서 구미로 가는 고개. 옛날 여우들이 많이 살았다고 한다.

○ 장밭벌

긴밭이 있는 들.

○ 절터골

괘현 남쪽에 있는 산. 절이 있었다고 한다.

○ 학무재

괘현 동쪽에 있는 고개. 그곳에 있던 송판서 무덤을 후손들이 이장하려고 땅을 파자, 학이 날아갔다고 한다. 학미재라고도 한다.

○ 흘짜고개

괘현 남쪽과 발운리 서쪽에 있는 고개. 옛날 남녀가 정을 통하다가 노인들에게 들켜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한다. 밤이 되면 처녀의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 홍감사등

괘현 동쪽 여우고개의 남쪽에 있는 등성이. 옛날 홍감사의 묘가 있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홍삼산

방주골 북쪽에 있는 산.

4. 봉암리(鳳岩里)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목은면 사패리·현내면 하패리·이담면 안흥리·적성군 남면 한산리 등 4개 리에서 일부 지역을 떼 내어 봉암리라 하였다. 봉바위가 있으므로 봉암리라 하였으며, 봉바위라고도 부른다.

● 동이점

독을 만드는 흙이 난다는 마을.

● 마산부락

오금동 북쪽에 있는 마을.

● 비석굴

서원말에서 남쪽에 있는 마을.

● 삼조계

서원말에서 북쪽에 있는 마을. 조씨 성을 가진 집이 세 채 있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새터마을

터못계의 남쪽에 있는 마을.

● 서원말[書院洞]

오금동 남동쪽에 있는 마을. 옛날 이 마을 어느 대가집에 큰 서원이 있었다 하여 서원동이 되었다. 고려시대 충신 남을진을 위한 서원이라는 말도 전해진다.

● 승방 모퉁이

서원말 서쪽에 있는 마을. 옛날 절이 있었던 곳이라 한다.

● 신방마을

터못계의 북쪽에 있었던 마을.

● 양지편

마산부락 바로 북쪽에 있는 마을. 양지쪽에 자리 잡고 있어 붙은 이름이다.

● 오금동(梧琴洞)

서원말 북서쪽에 있는 마을. 오구미라고도 한다. 오금동에 관한 유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큰 오동나무가 있었다고도 하며 어느 선비가 이 마을 오동나무를 베어 거문고를 만들었다 하여 오금동이 되었다. ② 옛날 사천현이었을 때 이 마을 앞에 옥(獄)이 있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도 한다. ③ 옛날 지금의 389번지에 오금장자(부자)가 살았는데 부영이가 하도 울어 잡았더니 망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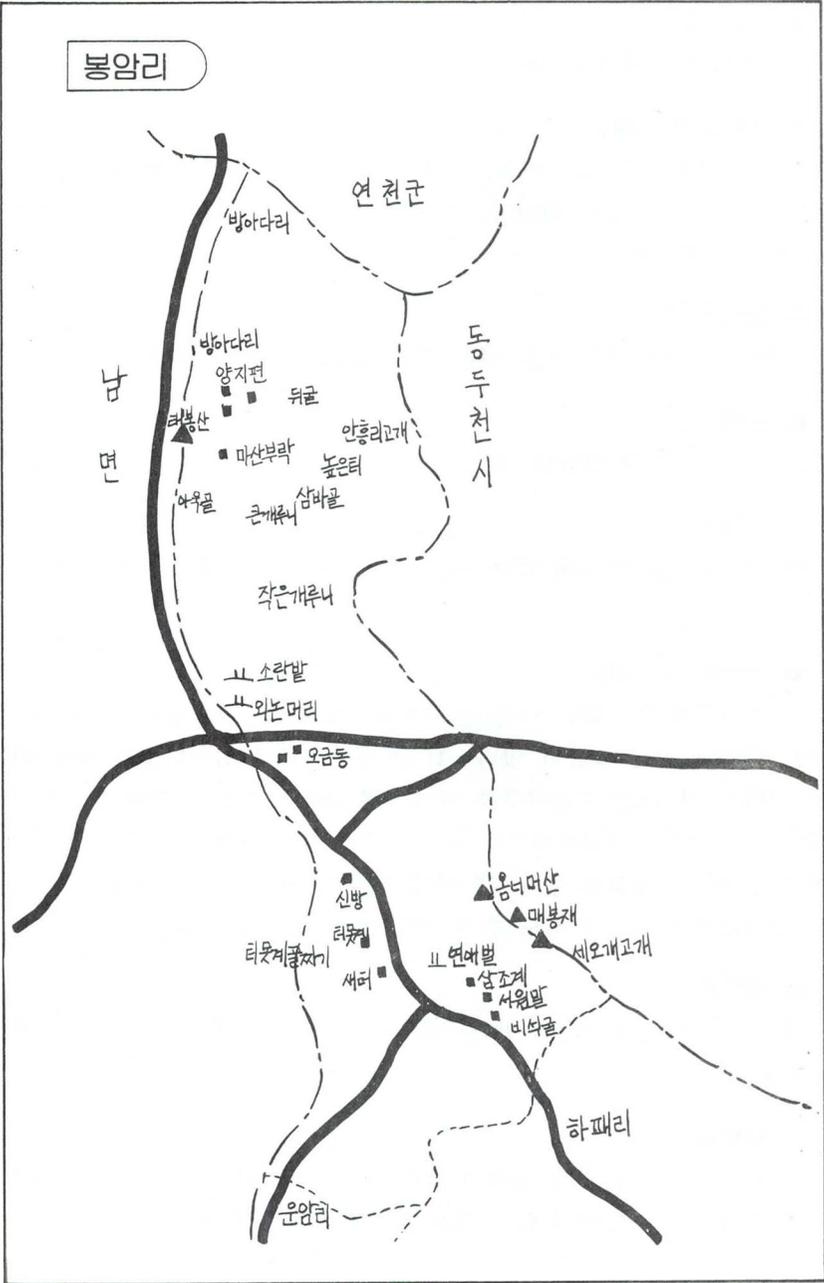
● 터못계

서원말 서쪽 신방마을과 새터마을 사이에 있는 마을 및 골짜기. 통목계라고도 한다.

○ 개루니

신방마을 북쪽에 있는 골짜기. 삼바골 서쪽에 있는 것을 큰개루니라 하고 봉암저수지 동쪽에 있는 것을 작은개루니라 한다.

통암리



○ 군논다리

오금동 남쪽에 있는 논.

○ 높은터

삼바골 동쪽에 있는 터. 삼바골의 정상으로 안흥리고개가 있다.

○ 동낭재

서원말 남동쪽에 있는 고개. 옛날 이곳에 부자가 살아 동낭하러 오는 사람들이 들끓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 뒤굴

양지편 남동쪽에 있다.

○ 매봉재

서원말 동쪽에 있는 봉우리. 매들이 많이 서식하는 곳, 또는 산봉우리의 형상이 매가 날개를 편 듯하여 붙은 이름이다.

○ 무당너미

봉암리에서 남면으로 넘어가는 고개.

○ 방아다리

양지편 동쪽에도 있고, 양지편 북쪽 간패고개에도 있는 다리.

○ 벼락바위

옴너머산 북쪽 끝에 있었던 바위. 벼락에 맞아 부서졌다고 한다.

○ 봉내미고개

비석굴 동쪽에 있는 고개. 봉바위가 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봉데미고개

매봉재의 세오개고개 남쪽에 있는 고개.

○ 봉암약수터

서원말 봉암리 시장에서 남쪽에 있는 약수터. 봉암샘터라고도 한다. 옷이 울랐을 때 이 물을 마시면 낫는다고 한다.

○ 삼바골

큰개루니 동쪽에 있는 골짜기.

○ 새축논

양지편 앞의 논.

○ 세오개고개

매봉재 남쪽에 있는 고개.

○ 소란밭

오금동 북쪽에 있는 밭. 소나무가 많이 있었다고 한다.

○ 아욱골

오금동 북쪽에 있는 골짜기. 아홉 개의 골짜기가 있어 붙인 이름이다.

○ 안흥리고개

높은터 동쪽에 있는 고개. 안흥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 여우내벌

서원말 서쪽에 있는 들. 여우벌의 시내는 비가 올 때마다 물길에 바뀌어 마을 사람들은 여우가 장난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붙인 이름이다.

○ 연애벌

삼조계 북쪽에 있는 들.

○ 옴너머산

매봉재 북쪽의 봉우리.

○ 옷우물

매봉재 봉우리에 있는 약수터. 옷이 울랐을 때 그 약수를 마시면 낫는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외논머리

오금동 서쪽에 있는 논. 따로 떨어져 있는 논이어서 붙은 이름이다.

○ 원터

서원말에 있는 터. 남을진의 서원터라고 하며 대원군 때 철폐되었다고 한다.

○ 원터고개

서원말에 있는 고개.

○ 이무기굴

서원말 북쪽 벼락바위 옆에 있는 굴. 옛날 이무기가 살았던 굴이라고 한다. 지금은 논으로 바뀌었다.

○ 태봉산

새측논 서쪽 황방리 방향에 있는 산. 옛날 태를 묻었던 곳이라 하며 봉우리에 태를 저장한 큰 돌이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비석만이 남아있다.

○ 하마비

비석굴 남쪽 남을진 선생의 묘 앞에 있는 비석. 비석에 ‘大小人下馬’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옛날 말을 탄 한 사람이 이 곳 앞에서 말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타고 가자 말발굽이 땅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 사람이 말에서 내리자 말이 움직였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5. 하패리(下牌里)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현내면 하패리와 이담면 송라리 등 2개 리에서 일부지역을 떼 내어 하패리라 하였다. 하패리는 옛날 사천현(沙川縣) 아래쪽에 위치한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구레들[歸坪]

낙락골 북동쪽에 있는 마을. 마차산의 봉우리가 끝나면서 돌아앉은 곳에 생긴 마을이라 귀평이라 하였으며 그네뜰이라고도 불린다.

동네 뒷산을 돌바위 또는 굴바위라고 부른다. 이 산 증턱쯤 올라가서 발로 쿵쿵 구르면 산이 울리는 소리가 나서 땅속에 큰 굴이 있을 것으



로 생각되나 입구를 찾을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나이 많은 분들은 ‘굴래뜰’이라고도 한다.

● 기곡(基谷)

서내비의 남서쪽에 있는 마을. 고성(固城) 남씨(南氏)가 기초를 닦은 마을이라 하여 기곡이라 하였고 일명 고성 남씨촌이라고도 한다. 고개가 있어 보통 ‘턱골’로도 불린다. 산골 셋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 긴재[長峴]

서내비 서쪽에 있는 마을. 패재고개로부터 길게 이어진 고개라서 장현이라 한다.

● 낙락굴[樂樂洞]

긴재 북서쪽에 있는 마을. 옛날에 이 곳 양반들이 천하지대본(天下之大本)의 농가를 부르며 희희낙락 놀던 곳이라 하여 낙락동이라 불여졌다.

● 낙락굴 동쪽말

낙락굴 동쪽에 있는 마을.

● 동촌

서내비의 동쪽에 있는 마을.

● 등두터

하패 2리에 있는 마을. 옛날 등두령이라는 산적 두목이 살았다고 한다.

● 반월

서내비 북동쪽에 있는 마을. 외딴말이라고도 한다. 동쪽산을 등지고 있는 마을이어서 달이 뜬 후 다른 마을보다 수시간 후에나 달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달을 반밖에 못 봐 반월이라 하였다 한다. 운중명월(雲中明月)의 명당이 있는 곳에도 이 같은 지명이 많다.

● 부개미[富儉洞]

낙락골 남쪽에 있는 마을. 한때 이 곳 안동 권씨가 부유했을 때부터 ‘부괴미’라고 불리게 되어 부검동이 되었다. 불개미가 많았다고도 한다.

● 부엉데미

낙락골 북쪽에 있는 마을. 봉황동이라고도 한다.

● 살목·아래소래[下松川]

서내비 남동쪽 소래산 밑에 있는 마을. 냇가에 있어 붙은 이름이다.

● 서내비[仙業里]

하패리에서 으뜸 되는 마을. 하패 1리 산 99번지와 산 98번지의 능선에 신선바위라는 넓직한 바위가 세 군데나 있으며, 옛날 선비가 업삼아 활을 쏘며 한량들을 모아 이 바위에서 세월을 보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근처에는 ‘한량논’이라는 지명도 있다. 일반적으로 ‘세내비’라 불린다.

● 송촌

서내비 남동쪽에 있는 마을. 아랫소래라고도 한다.

● 아랫말

긴재의 북쪽에 있는 마을.

● 양짓말

부개미 남쪽의 양지바른 마을.

● 월계부락(月溪部落)

서내비 남동쪽에 있는 마을. 해나 달이 뜰 때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마을이라 생긴 이름이다. 월계(月桂)라고도 한다.

● 응달말

긴재 남쪽에 있는 마을. 응달이 진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흑구모루

부개미 남서쪽에 있는 마을. 옛날에 허깨비가 많아서 ‘헛구모루’라 했는데 지금은 호구모루라고도 한다.

○ 갯바위

서내비 북동쪽에 있는 바위. 서덕바위라고도 한다.

○ 갯바위산

서내비 북동쪽에 있는 산. 갯바위가 있어 붙은 이름이다. 일명 쪽박산이라고도 한다.

○ 개구리바위

응달말 서쪽에 있는 바위. 암수바위 가운데 암컷바위가 개구리처럼 생겨 붙인 이름이다.

○ 개미들기들

서내비 남동쪽에 있는 들. 가뭄이 들면 개미들이 들끓었다고 한다.

○ 골논

월계부락 서쪽에 있는 논.

○ 광제들

구례들 앞에 있는 벌판.

○ 굴바위

낙락골 북쪽에 있는 바위. 바위에 너구리 굴이 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거지고개

하패 2리에 있는 고개. 먹을 것이 없었던 시기에 이곳에 가면 훈련 나온 군인이나 미군들에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다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 냉밀

구례들의 광제들 건너편에 낮고 길게 뻗은 산 아래.

○ 들논

하패 2리에 있는 논. 약 350여 년 전에 마을 사람들이 마을을 보호해 주는 두꺼비바위 암놈과 수놈 2개를 논에 만들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돌논고개

돌논에서 봉암리 가는 길가에 있는 고개.

○ 돌논고래

양짓말 남쪽에 있는 논. 논에 바위가 있어 붙은 이름이다.

○ 동쪽반고개

반월 북동쪽에 있는 고개.

○ 말탁논

월계논 남쪽에 있는 논.

○ 매봉재

응달말 동쪽에 있는 산. 매 모양의 큰 돌이 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박괴재

부검저수지 남쪽에 있다.

○ 박석고개

상패국민학교 뒤쪽에 있는 고개.

○ 범대미

낙락골에 있다. 범이 새끼를 낳았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병풍바위

낙락골 북서쪽에 있는 바위. 바위 모습이 병풍처럼 생겼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봉바위

부개미 서쪽과 흑구모루 동쪽에도 있는 바위.

○ 부개미고개

부개미로 넘어가는 고개.

○ 부엉데미고개

부엉데미에서 봉암리 서원말로 가는 고개.

○ 산수완

집터골 남쪽의 골짜기.

○ 살구대이

월계부락 동쪽에 있는 논.

○ 살구쟁이들

반월 동쪽에 있는 들. 살구나무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 색시바위

하괘 1리 기곡과 서내비 사이 경계에 있는 바위. 바위 모양이 치마폭처럼 평퍼짐하고 넓게 생겨 붙은 이름이다.

○ 샘들

부검저수지 남쪽에 있는 들.

○ 서덕바위

구례들 개울가에 있는 넓은 바위. 예전에는 이 바위에서 세탁을 했다고 한다. 세탁바위가 서덕바위로 바뀐 것이라고 한다.

○ 석죽거리

구례들 동쪽에 있는 들판. 병자호란 때 이 들에서 말들에게 저녁 죽을 먹였다고 전해진다.

○ 선현(仙峴)

구례들의 광계들 건너편 산에 있는 고개. 한국전쟁 때 중공군 주력부대가 지도에 적힌 이 고개를 찾아 넘어갔다고 한다. 분투골고개라고도 한다.

○ 암수바위

응달말 서쪽에 있는 바위. 두 개의 바위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평평하고 하나는 뾰족하여 붙은 이름이다.

○ 왕대골

산수완의 남쪽 골짜기.

○ 월계논

월계부락 동쪽에 있는 들.

○ 장석바위

월계부락 남쪽 소래산 자락에 있는 바위.

○ 진재고래

양짓말 남쪽에 있는 들. 응달말에서 흑구모루까지의 들을 말한다.

○ 집터골

월계부락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

○ 쪽박산

서내비와 동촌 앞산 너머 시냇가에 있는 산. 쪽박같이 조그마하여 붙은 이름이다. 이 산에 바위가 있는데, 장사가 뿔박질한 발자국과 무릎을 꿇은 자국도 있다 한다.

○ 텃굴고개

기곡(턱골)에서 선암리 능골로 가는 고개. 돌이 많이 깔려 있어 박석고개라고도 한다. 농로확장으로 현재는 평평하게 되었다.

6. 도하리(道下里)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석적면 향동리·행동리·대야지리 등 3개리의 일부 지역을 떼 내어 도하리라 하였다. 도락산(道樂山) 아래의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가운데말

살구골의 양짓말과 응달말 사이에 있는 마을. 안말이라고도 한다.

● 검준이

노가터에서 북쪽으로 있었던 마을.

● 너머말

살구골 너머에 있는 마을. 건너말·풍류동이라고도 한다.

● 노가터

살구골의 북서쪽에 있는 마을. 노씨 성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 살았던 곳이라 한다. 지금은 터만 남아 있다.

● 뒷말

살구골의 서쪽에 있는 마을. 노가터 남쪽에 있다.

● 든지뚱

황골 북쪽에 있는 마을.

● 살구골[杏洞]

도하리에서 으뜸 되는 마을. 살구골로도 불린다. 고려 때 행음사(杏音寺) 또는 행암사(杏岩寺)라는 절이 있었다고 하며, 살구나무가 많아 붙여진 이름이다. 처음 마을이 생길 때 양주 홍씨·황씨·용인 이씨 등이 자리 잡았다고 한다.

● 삼밭들[麻田坪]

살구골 동쪽에 있는 마을. 삼밭이 있었다고 하며, 이곳의 아낙네들이 길쌈을 많이 해서 ‘삼밭뜰’이라 전해진다.

● 양짓말

황골 양지쪽과 살구골 서쪽에 있는 마을. 해가 제일 오래 가서 붙은 이름이다.

● 오리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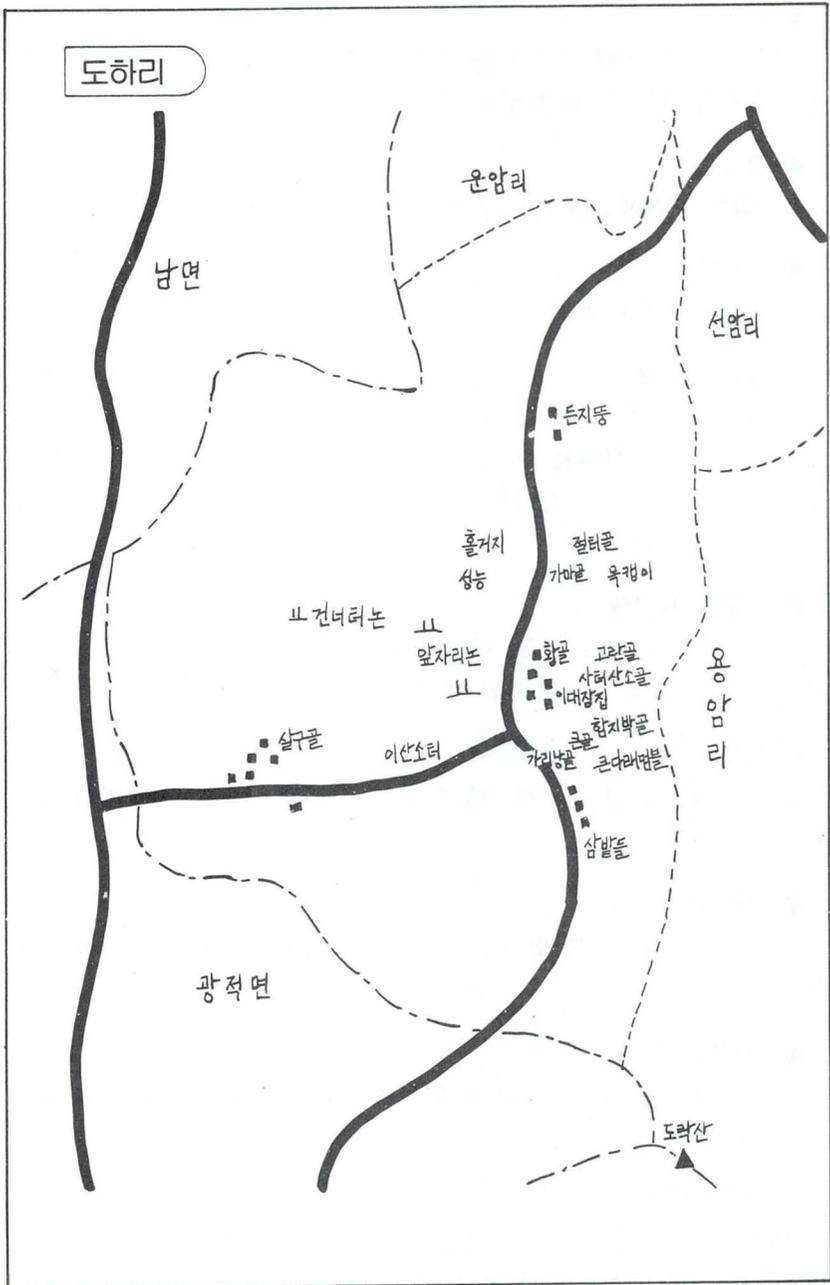
살구골의 남쪽에 있었던 마을. 지금은 없어졌고 오리골 저수지가 있을 뿐이다.

● 응달말

황골 응달쪽과 살구골 북쪽에 있는 마을. 해가 제일 늦게 뜬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황골[項洞]

삼밭들 북동쪽에 있는 병목처럼 생긴 마을. 이 마을 입구가 목과 같이 좁아서 항동이라 하였다 한다. 옛 전쟁터이며 보통 황골로 불린다.



○ 가리낭골

황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가리나무골 또는 가래낭골이라고도 한다. 옛날 가래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 가마골

황골 북쪽에 있다. 절터골 바로 밑에 있으며 가마모양을 하고 있다.

○ 개자리터

살구골 남쪽 돌앞산 가운데에 있는 골짜기.

○ 건너터

황골 서쪽에 있는 논.

○ 고란골

황골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

○ 구렁고개

살구골의 양짓말 동쪽에 있는 고개.

○ 긴골

살구골에도 있고 황골에도 있는 골짜기. 골짜기가 길어서 붙은 이름이다.

○ 긴밭

살구골 남서쪽에 있는 밭.

○ 깊이는

삼밭들 남쪽에 있는 논. 논이 깊어 붙은 이름이다.

○ 담비골

살구골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 옛날 담비가 살았던 곳이라 한다.

○ 돌앞산

살구골 남쪽에 있는 산. ‘돌아앉은 산’에서 음이 변한 것이라고 한다.

○ 두배미

응달말 북쪽 큰배미와 한배미 사이에 있는 논. 마을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어 영좌배미라고도 한다.

○ 목갱이

황골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

○ 박사터

살구골 남쪽에 있는 터. 옛날 박씨들이 살았다고 하며 지금은 터만 남아있다.

○ 번전들

살구골 서쪽에 있는 들.

○ 벼락맞은골

삼밭들 남쪽 도락산 자락에 있는 골짜기. 벼락바위가 있어 붙은 이름이다.

○ 벼락바위

삼밭들 남쪽 도락산 자락에 있는 골짜기. 옛날 한 여인네가 아이를 바위 밑에 뉘어 놓고 김을 매는데, 큰 구렁이(또는 지네)가 나타나 아이를 해치려 하였다. 이 때 벼락이 쳐서 바위를 갈라지게 하고 구렁이(또는 지네)를 죽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 부흥골

운암리 물가배루니 앞에 있는 산. 산에 부엉이가 살고 있어 붙은 이름이다.

○ 사냥골

살구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새나골이라고도 한다.

○ 사터산소골

황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큰다래덤불 바로 북쪽에 있으며 사시산소골이라고도 한다.

○ 산제사터

삼밭들 남쪽 안골에 있는 터. 음력 9월 초하루에 마을의 안녕을 위해 제사 지내는 곳이다.

○ 살구골못

살구골 남쪽에 있는 연못.

○ 새낭골

황골에 있는 골짜기. 산 사이에 틈이 많아서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 성능

황골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 홀거지 바로 남쪽이다.

○ 세배미

살구골의 북쪽에 있는 논. 두배미보다 더 북쪽이다.

○ 안골

삼밭들 남쪽에 있는 골짜기.

○ 앞자리

황골 바로 서쪽에 있는 논. 마을 앞에 있어 붙은 이름이다.

○ 애경바위

살구골의 남쪽 들앞산에 있는 바위. 애를 못 낳는 사람들이 이 돌에 실을 묶어 놓고 치성을 드리면 애를 낳는다고 한다.

○ 애금바위 · 애군바위

삼밭들에서 동쪽 도락산 방향에 있는 바위. 장수가 앉아 쉬어간 자리라 한다.

○ 애기암

삼밭들 남쪽 도락산 자락에 있는 바위. 두 개의 바위가 서로 마주 보고 있다. 큰 것은 숯바위이고 작은 것은 암바위라고 한다. 애기를 못 낳는 여자가 이곳에서 빌면 아이를 가졌다고 전해진다. 애기어머니바위라고도 한다.

○ 약수터

살구골 남쪽 돌앞산에 있는 약수터.

○ 이대장집

황골에 있었던 집. 어떤 무관이 이곳에 집을 더 크게 지으려 하자, 이를 못 마땅하게 여긴 문관의 저지로 도하 1리로 옮겨 지었다고 한다.

○ 이산소골

용인 이씨 종중 산소가 있는 골짜기이다.

○ 이산소터

황골 서쪽에 있는 들. 건너터 바로 남쪽이다.

○ 잔디계논

살구골의 양짓말 남쪽에 있는 논.

○ 절터골

황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절터가 있었다고 한다.

○ 진골

삼밭들 남쪽 도락산 자락에 있는 골짜기.

○ 큰골

황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골이 커서 붙은 이름이다.

○ 큰다래덤불

황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함지박골 바로 북쪽이다.

○ 큰배미

응달말 북서쪽에 있다.

○ 탑골

살구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옛날 행음사라는 절이 있었다고 하며 이곳에 탑이 있어 붙은 이름이다.

○ 태봉산

살구골 북쪽에 있는 산. 마을 사람들이 아이를 낳은 후 태를 이곳에 묻었다고 한다.

○ 피난골

살구골의 돌앞산 동쪽과 삼밭들 남쪽 도락산 자락에 있는 골짜기. 살구골에 있는 것을 피나는 골짜기라고도 하며, 삼밭들에 있는 것은 골짜기가 깊고 으스스해서 피난하기에 좋은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한배미

응달말 북쪽에 있다.

○ 함지박골

황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 흘거지

황골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

여

백

제5장
남면(南面)



남면 느티나무

여

백

남면은 한말에 적성군에 속하였으며, 신암리(神巖里)·매곡리(梅谷里)·구암리(龜巖里)·사촌리(沙村里)·두곡리(杜谷里)·경신리(庚申里)·상수리(湘水里)·발운리(發雲里)·마산리(馬山里)·입암리(笠巖里)·신산리(莘山里)·황방리(篁芳里)·임간리(林澗里)·한산리(閑山里) 등 14개 동리를 관할하였다.¹⁾ 그러다가 1914년 3월 13일에 도령(道令) 제3호로 연천군에 편입되었다. 이때 매곡리·한산리·입암리·상수리·발운리 등 5개 리에서 각각 일부 지역을 분리시켜 양주군에 편입시켰다. 아울러 양주군 석적면 회춘리·이패하리·항동리·목은면 사패리 등 4개 리에서 일부 지역을 떼내어 남면에 편입시켰다. 그리고 신암리·매곡리·구암리·두곡리·경신리·상수리·입암리·신산리·황방리·한산리 등 10개 리로 개편하였다.²⁾ 당시 면사무소는 매곡리에 있었다.³⁾

1945년 11월 3일 미군정 포고령 제22호에 의하여 남면은 파주군에 편입되었다. 그런데 지리·교통 및 제반사항에 큰 불편을 느낀 면민의 요구로, 1946년 2월 5일 양주군에 편입되었다. 1980년 1월 10일 19개 행정리로 분리되었으며, 1981년 6월 13일 면 청사를 신산리 346번지에서 현 위치로 이전하였다. 1987년 9월 10일 20개 행정리로 분리되었다.

남면이란 명칭은 감악산 남쪽에 위치한 데서 유래하였다.

1. 신산리(莘山里)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남면 신암리 일부 지역을 병합하였다. 그후 신산리는 신산 1리(안말·지청말), 신산 2리(안하동·광수원), 신산 3리(토교장) 등 3개 리로 구성되었다가, 1972년 8월 25일 신산 3리가 1리에 병합되었다. 1980년 4월 1일 신산리가 1·2·3·4·5리로 개편되었다.

신산리 지명유래는 두가지 설이 전하고 있다. ① 중국 은(殷)의 상신(相臣) 이윤(伊尹)이 낙향하면서 ‘耕於莘野’라는 말을 하였는데, 여기서 ‘莘’자를 따 와서 신산리라는 지명을 지었다. ② 앞산이 신처럼 생겼다고 하여 신미·신피·신산이라 하였으며, 또 지청말의 귀신바위와

1) 朝鮮總督府,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1912, 94-95쪽.

2) 朝鮮總督府, 『新舊對照 朝鮮全道 府郡面里洞名稱一覽』, 1917, 111쪽.

3)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 「지도」, 1915 참조.



안산의 이름을 따서 ‘神山’이라 하였는데, 이것이 지금의 ‘華山’으로 바뀌었다.

● 광수원(廣水院)

남면 면사무소 북서쪽에 있는 마을. 이 고장은 하천이 넓었고, 고려 시대 당시 이곳에 원(院)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은 감악산의 남쪽이고 고려 이래 북쪽으로 가는 큰 길이 있던 지역이었다. 의주로 가는 유일한 통로이다.

● 아랫마을

언덕말 동쪽에 있는 마을. 아래쪽에 위치했다고 하여 생긴 이름이다.

● 언덕말[岸下洞]

광수원 남동쪽에 있는 마을. 언덕 아래에 있다 하여 언덕아랫마을로 불리다가 언덕말로 되었다.

● 지청말

언덕말 북동쪽에 있는 마을. 정여립난(鄭汝立亂) 때, 평란 2등공신 이준(李準)의 제사를 그의 사당이 있는 이곳에서 매년 지내 ‘제청말(祭廳-)’이라 한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촌말·지터곳으로도 불리며 옛날에는 웃말로 불리었다.

● 흙다리[土橋]

신산 3리에 있는 마을 및 다리. 옛날 이곳에 흙으로 만든 다리가 놓여 있었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다. 흙다리 시장도 있었던 관계로 한자말로 토교장이라고도 한다.

○ 기와터

옛날 기와를 만들던 곳으로 추정되는 터.

○ 깻묵논

먹을 것이 없어 깻묵 한 덩어리와 7마지기의 논을 맞바꾸었다고 하여 생긴 논 이름. 지금은 없어졌다.

○ 능안평전

사리산 남쪽에 있는 들. 전성군, 왕계군 등의 묘가 있고 평평한 곳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도락고개

흙다리에서 상수리쪽으로 가는 고개. 옛날 진터마을(한산리 무당재)에 부잣집이 있었다. 손님이 많이 드는 것을 귀찮게 여긴 부자가, 마침 방문한 중에게 손님이 안 오게 하는 방법을 물었다. 당시 입암리에는 갓모양의 돌을 마치 모자처럼 쓰고 있는 갓바위가 있었는데, 그 중은 이 모자를 벗겨 버리라고 하였다. 이에 주인은 하인을 시켜 갓모양의 돌을 이 고개에 갖다 버렸다 한다. 혹은 중이 도술을 부려 이 갓모양의 돌을 날려 버렸다 한다. 그래서 이 고개를 돌갓고개라 부르다가, 도락고개가 되었다 한다. 현재 구암리에 연자방아들이 있는데, 이것이 갓바위에 석워져 있던 바위라 한다.

○ 뒤뜰

신산리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들. 뒤에 있는 들판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뿔바위

옛날 어느 장수가 뛰어 다녔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막은쟁이

사리산 동쪽에 있는 골짜기. 막힌 우물이 있다 하여 막은쟁이라 하였는데 발음변화로 현재의 지명이 되었다.

○ 말무덤

사리산 동쪽 막은쟁이에 있는 무덤. 공신 이준의 말을 묻었다고 전해진 데서 붙은 이름이다. 원형으로 규모가 크다.

○ 버드골

옛날 버드나무가 많아서 이름 붙은 골짜기. 임진왜란 이후 경작을 하지 못하여 버드나무가 무성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 온다.

○ 비랭이

남면국민학교 남쪽에 있는 개울. 용이 하늘로 올라간 곳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일명 비룡천(飛龍川)이라고도 하며, 비랭이로 발음이 변하였다고 한다. 이곳에는 비가 오지 않아 냇물이 마르면 개울 건너에서 활을 쏘아 맞은편 바위를 맞추면 비가 왔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지금은 목장으로 변하였다.

○ 사리산(舍利山)

광수원 동쪽에 있는 산. 절이 많았고 도 통한 중이 있었다고 하며 절의 부도에서 사리가 나와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조선조 태조가 천도하려 할 때 광수원 동쪽 10리 이내에 있는 계족산(鷄足山)을 왕도로 건의하였는데, 그 산이 사리산일 것으로 추정된다.

○ 사리암

신산리 산1-1번지 절터골에 있었다는 암자. 절터에서 사리가 나온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기와조각과 백자조각들이 발견되어 옛부터 절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서늬굴고개

사리산에서 선유동으로 가는 고개.

○ 신천

남면국민학교 남쪽을 서에서 동으로 가로지르는 개울. 신암리에서 발원하여 붙은 이름이다. 일명 강화천·입암천이라고도 한다.

○ 연지

이준 사당 옆의 연못.

○ 절터골

사리암 근처에 있는 골짜기. 절이 있었다 하여 생긴 지명이다.

○ 지터곳

안말 동쪽에 있는 골짜기.

○ 천년묵은 나무

신산 5리 광수원에 있는 나무. 천 년 가까이된 느티나무라 붙은 이름이다.

○ 칠송장

버드골에 있는 지명. 옛날 신산리 마을은 지금의 칠송장에 있었는데 이곳에서 돌림병이 나서 한꺼번에 7명이 죽어 마을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입으로 전해온다. 또는 소나무 일곱 그루가 나란히 있었다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도 한다.

○ 토성

흙다리 뒤 능선으로부터 입암리 뒤 능선까지이다. 성처럼 생겼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팔죽할머니 묘

남면 신산리 산1번지에 있는 묘. 약 100여 년 전에 사교무친의 고씨(高氏) 여인이 주막거리에서 팔죽장사를 했고, 모은 돈으로 토지를 장만하고 살다가 이 땅을 부락에다 기증한 후 죽었다. 여기서 유래되어 붙은 이름이다. 지금은 그 여인의 묘를 버드골로 이장했으며 부락에서 합동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다.

○ 하마청

남문중학교 남쪽에 있는 도랑. 근처에 전성부원군 이준의 묘가 있어 이 도랑에서는 말에서 내려야 했기에 붙은 이름이다. 지금의 남면의원 뒷집 구옥을 하마청택(宅)이라 부른다.

2. 신암리(神巖里)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신암리 일부 지역이 신산리로 떨어져 나갔다. 지명유래는 두 가지이다. ① 조선시대에 신(神)을 모신 바위가 있어 생긴 이름이다. ② 이곳에 있는 남선굴을 신선바위라 하였는데, 여기서 연유하여 이 마을을 신선바윗골·신암골·신앙골·신암동이라 불렀다.

● 부도골

신암저수지 북쪽에 있는 마을. 이 곳 신암사라는 절에 고승의 사리를 담은 부도가 있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지금은 절터만 남아 있다.

● 선유동(仙遊洞)·서늬골

웃신앙골 동쪽 서늬재 밑에 있는 마을. 옛날 선녀가 놀던 곳이라 붙은 이름이다. 서늬골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유래가 전해진다. ① 찬물이 많이 나서 벼가 잘 익을지 않아 쇠논골이라 하였는데 발음이 변하여 서늬골이 되었다는 것. ② 서쪽으로 길게 누워있는 골짜기라서 서늬골이었는데, 발음이 변하여 서늬골이 되었다는 것이다.

● 양짓말

웃신앙골 남쪽에 있는 마을. 양지 바른 곳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웃신앙골

양짓말 북쪽 저수지 위에 있는 마을.

● 음짓말

구름재 남쪽 음지쪽에 있는 마을.

● 점말[店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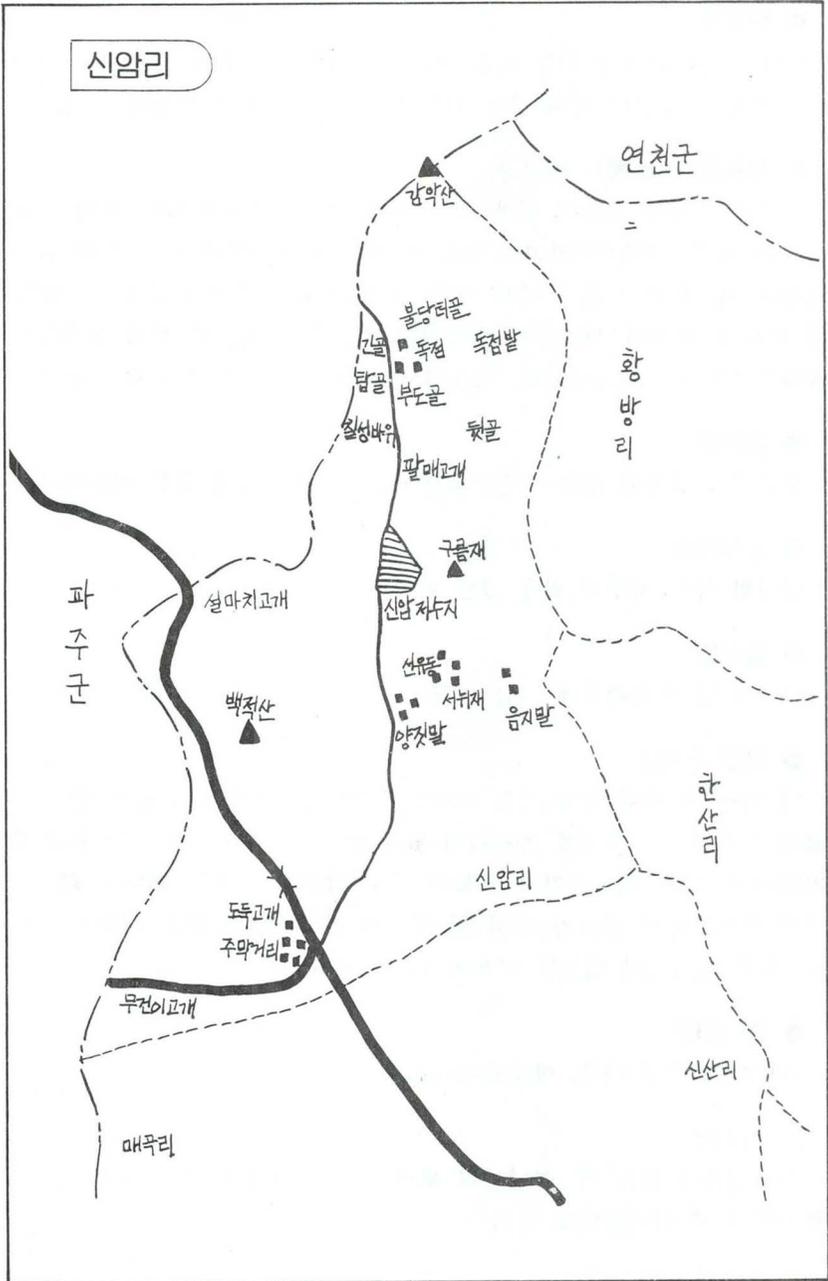
약 75년 전 수십 호의 마을 사람들이 가마를 설치하고, 옹기 굽는 작업과 옹기장사로 생계를 유지하여 왔던 마을. 그들 대부분은 천주교 신자였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규모가 작고 자본도 부족한 데다가 화학용기가 발달되면서 판로가 막혀 현재는 가마터만 남아 있고 폐허가 되었다. 혹은 토기점이 있었던 마을이라고도 한다.

● 주막거리

주막이 있었던 마을. 아랫말이라고도 한다.

○ 가마터

신암 2리에 있는 터. 옛날부터 오지항아리·질그릇 등을 구운 곳으로 한국전쟁 때 없어졌다고 한다.



○ 감악산

파주군과 연천군에 걸쳐 있는 산. 멀리서 보면 감색을 띤다하여 붙여진 지명이라 한다.

이 산은 연천·적성·양주 등지의 토속신앙의 근원지이며, 신산(神山)이고, 경기도 오악의 하나가 되는 명산이다. 신라 때부터 조선초까지 이곳에서 1년에 1-2회 나라의 제사를 지냈으며, 지금도 주민들은 일 년에 한번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이같이 신령스런 큰 산의 이름에는 ‘감’(罽·神) 또는 ‘감(神)악’ ‘감양’과 같은 것이 많이 들어 간다.⁴⁾ 그래서 감악산이라는 산 이름은 감색을 띠어서 붙여졌다기 보다는, 신령하고 큰 산이기에 붙여진 지명일 가능성이 크다.

○ 구름재

감악산 남쪽에 있는 높이 424m의 산.

○ 긴골

부도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긴 골짜기라서 붙은 이름이다.

○ 낭바위

서뉘골 서쪽 신암리와 적성면 설마리 경계지점에 있는 바위. 옛날 이곳 능선에 떨어졌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이 바위는 높이 10m, 길이 20m 정도이며 병풍을 둘러친 것과 같다 하여 병풍바위라고도 한다.

○ 도둑고개

점말 뒷산 작은 고개. 옛날 도둑들이 광수원이 내려다 보이는 이 고개에서 망을 보며 재물을 훔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독점

부도골 북쪽에 있는 터. 옛날 천주교 박해 때 천주교인들이 이곳으로 피해 와서 독을 구웠던 곳이라 유래된 명칭이다.

4) 유재영, 『전래지명의 연구』, 원광대학교출판국, 1982, 129쪽 ; 이병선, 『한국고대국명지명연구』, 아세아문화사, 1982, 144쪽.

○ 독점밭

부도골의 독점 근처에 있는 밭.

○ 뒷골

부도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부도골 뒤쪽에 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무건이고개

점말에서 파주군 무건리로 가는 고개.

○ 백적산

신암리 중간에 솟아있는 산. 잣데미라고도 한다. 이곳에 봉화대가 있었다고 한다.

○ 불당터골

부도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불당이 있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빗돌대왕 비

감악산 정상에 있는 비. 비스듬히 서 있어 ‘뺨뚨대왕비’라 불렀는데 발음이 변하여 빗돌대왕비가 되었다고 한다. 글자가 소멸되었다고 하여 몰자비라고도 하며 설인귀의 사적비라는 설도 있다.

○ 서늬재

서늬골 동쪽에 있는 동산.

○ 설마치고개(薛馬馳-)

신암리에서 적성군 마지리 중간에 있는 고개. 어룡고개라고도 한다. 신라의 삼국통일 당시 당(唐) 장수로 활약한 설인귀가 말을 타고 달리던 곳이라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설인귀 굴

감악산 남쪽 매봉재에 있는 굴. 고구려를 치러 온 당나라 장수 설인귀가 이곳에 진을 치고 있었다고 전해져 붙은 이름이다. 마을 노인들은 임겨정굴이라고도 한다.

웃신앙골 남쪽에 있는 절. 이곳에는 100여 개의 절이 있었으나 신령이 나타나 절이 있을 터가 아니라고 하여 하나 씩 없었는데, 신령에게 빌어 수월사 하나만 남겼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 신암저수지

17년전 신암리에 만들어진 저수지.

○ 아벌린산

감악산의 봉우리 가운데 아귀바위가 있는 산. 감악산에 사람 얼굴처럼 생긴 바위가 있는데 그 가운데 입을 벌린 것 같은 모양을 한 곳이 있어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 원터

백적산 아래에 있던 터. 신산리에 있는 광수원(廣水院)의 집터가 신암리에서 설마리로 가는 이 곳 길목에 있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잣골

구름재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 자메미라고도 한다.

○ 칠성바위

부도골 서쪽에 있는 바위. 아기바위라고도 한다. 옛날부터 아들을 낳게 해 달라고 치성을 드리던 곳이라 붙은 이름이다.

○ 탐골

부도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이곳에 탐이 있어 생긴 이름이다. 그러나 탐은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이 가져 가 지금은 없다고 한다.

○ 팔매고개

웃신앙골 북서쪽에 있는 고개.

○ 팔매바위

어느 장사가 팔매질하여 던졌다는 바위.

3. 매곡리(梅谷里)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양주군 석적면 회촌리의 일부 지역을 병합하였다. 매골·맹골·매곡이라고도 부른다. 지명유래는 여러가지가 전하고 있다. ① 높은 산 밑에 자리하여 붙여졌다. ② 동네가 “매화가 떨어지는 형세”[梅花落地形]이다. ③ 동네가 매의 형국을 하고 있다. ④ 큰 매화나무가 있었다. ⑤ 이 곳 출신인 수원 백씨 증시조인 백인걸을 맹자와 같은 성현으로 칭송하여 맹골이 되었다.

● 거름배

맹골 서쪽에 있는 마을.

● 맹골

매곡리에서 으뜸되는 마을. 큰말이라고도 한다.

● 북구리[北谷]

맹골 남쪽에 있는 마을. 사촌리 북쪽 골짜기에 있다 하여 생긴 것이라 한다. 북곡리가 북구리로 발음 변화하였다.

○ 관모봉

북구리 동쪽에 있는 봉우리. 관모와 비슷하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 당뒤

황새말 남서쪽에 있는 들.

○ 돌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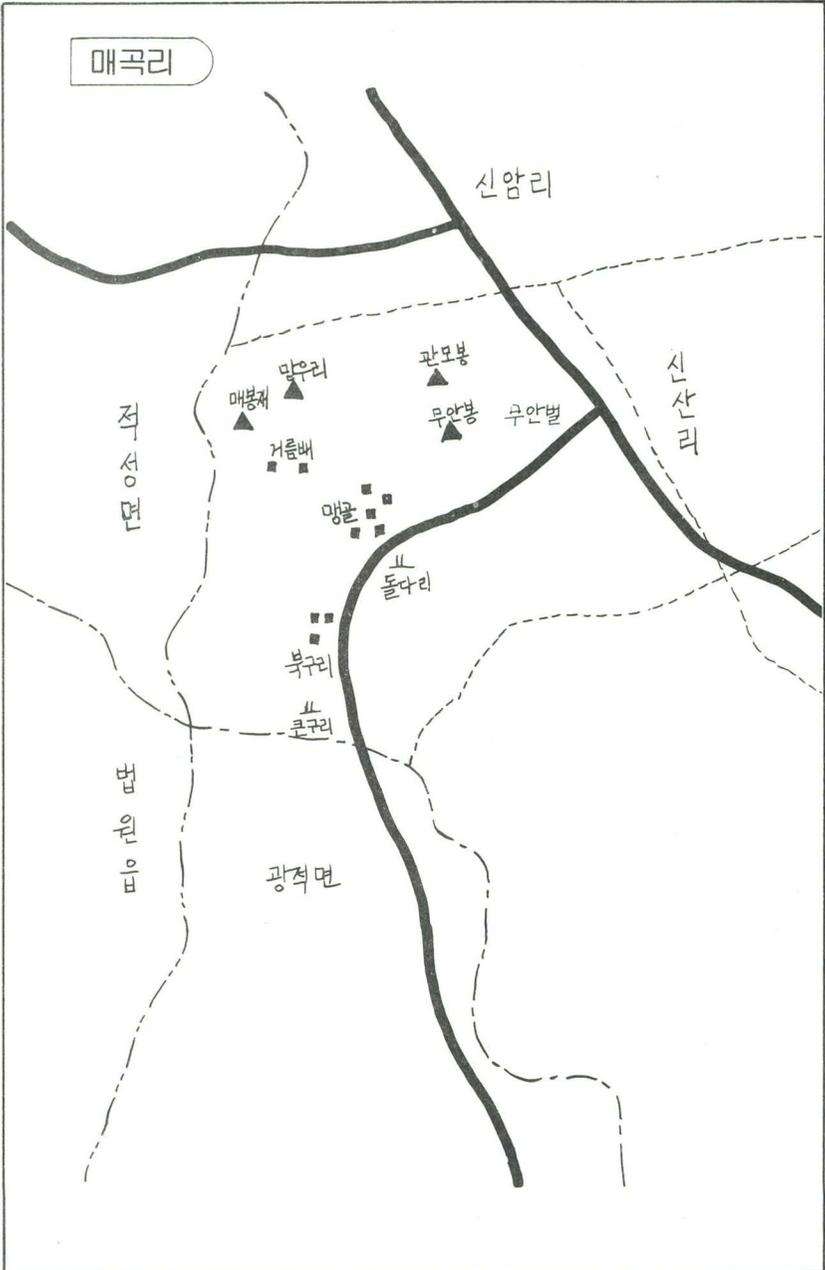
맹골 남쪽에 있는 들. 돌로 놓은 징검다리가 있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망우리

북구리 북쪽에 있는 산.

○ 매봉재

맹골 북서쪽에 있는 산.



○ 무안벌

무안봉 동쪽에 있는 들.

○ 무안봉(舞雁峰)

북구리 동쪽에 있는 봉우리. 산의 모양이 기러기가 춤추는 형상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백호동

매봉재 북쪽에 있는 골짜기. 호랑이가 있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앵골

신암리 왼쪽에 있는 골짜기. 왼쪽골이 앵골로 변하였다고 한다. 앵골이 송아지 울음소리 같고 송아지는 오양간에 있다 하여 오양골이라 하였으나, 발음이 변하여 앵골이 되었다고 한다. 작은 앵골과 큰 앵골이 있다.

○ 큰구리

북구리 남쪽에 있는 들.

○ 황새말

맹골 남서쪽에 있는 들. 옛날 황새가 많았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4. 구암리(龜岩里)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남면 사촌리를 병합하였다. 이 부락에 거북과 같은 바위가 있어 거북바위 또는 구암이라 부른다.

● 굿배미

모래말 북동쪽에 있는 마을. 거북과 같은 바위 또는 능선이 있어 구바위[龜岩]라 칭하던 것이 바뀌어 부르게 된 것이다. 혹은 귀달린 뱀이 나왔다가, 마을 능선이 뱀과 같다 하여 구뱀이라 하였는데, 발음이 변하여 굿배미가 되었다고도 한다. 큰말이라고도 불린다.

● 모래말[沙村]

효촌저수지 북쪽에 있는 마을. 이 부락의 토질이 순사질토(純砂質土)이고 모래가 많아서 생긴 이름이다.

● 미테골

모래말의 가운데에 있는 마을. 무태동이라고도 한다.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의 모양이 마치 삼태기같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마을 앞의 우물을 메워야 부자가 된다고 하여 우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 서내울[仙遊洞]

굿배미 북쪽에 있는 마을.

● 웃말

모래말에 있는 마을. 모래말에서 가장 위에 있어 붙은 이름이다. 풍곡동(豊谷洞)이라고도 한다. 마을 근처의 바위에 ‘豊谷洞’이란 글씨가 새겨져 있다. 양주 윤씨의 선조가 살던 곳으로 마을 사람들이 풍족하게 살아왔기에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 지오리(芝五里)

모래말 가운데 가장 아래의 마을. 옛날 이곳에 살던 다섯 가구가 지초와 같이 아름답게 살았다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 거북바위

굿배미 동쪽 구암리 88번지에 있는 바위.

○ 거적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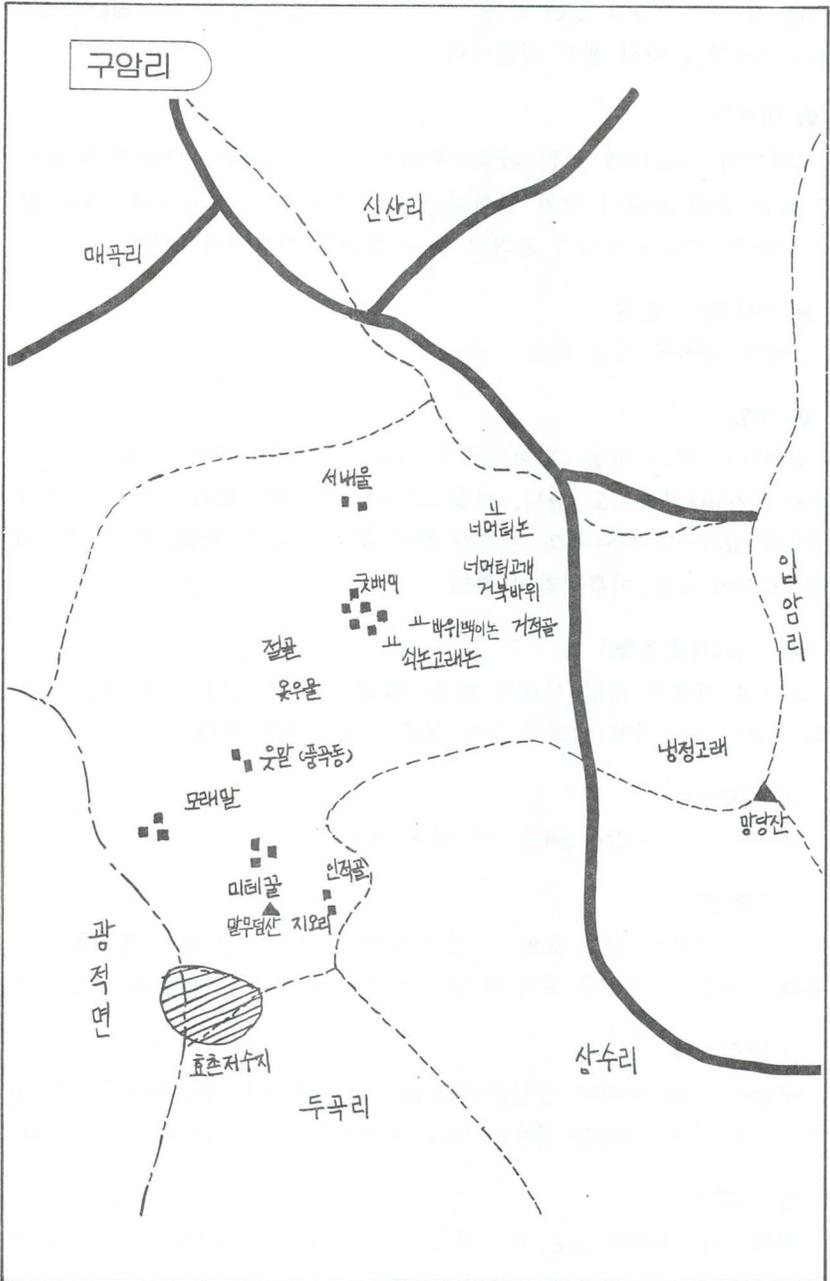
굿배미 동쪽에 있는 골짜기. 옛날 열병이 마을에 번지자 전염을 막기 위해 시체들을 거적에 싸서 이 골짜기에 버렸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 냉정고래

구암리 동쪽 끝이며 망당산(望唐山) 서쪽에 있는 논. 이곳은 망당산 약수터에서 흘러내리는 찬물로 항상 냉기가 있고 습하여 붙은 이름이다.

○ 너머터

거북바위 너머에 있는 논. 이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굿배미로 한 집 두 집 이사를 왔는데 굿배미로 넘어 왔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너머터고개

굿배미 동쪽에서 너머터로 가는 고개.

○ 능골

떡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옛날에 능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 말무덤산

미태골과 지오리 사이에 있는 산. 말무덤이 있어서 붙은 이름이다.

○ 멍골

장고개 동쪽에 있는 골짜기. 여우가 많이 나왔다고 하여 여우골이라고도 한다.

○ 바위백이는

굿배미 동쪽에 있는 논.

○ 뱀많은산

산의 모양이 뱀과 비슷하고 뱀이 많이 나와 붙은 이름.

○ 벽장골

구암리 산 26번지 1호에 있는 골짜기. 이곳에 있는 바위 밑에 굴이 있는데 모양이 마치 벽장처럼 생겼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쇠논고래

굿배미 동쪽에 있는 논.

○ 승저골

떡골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

○ 양태울고개

모래밭에서 굿배미로 가는 고개. 버드나무가 많이 있었다.

○ 옷우물

절골에 있는 우물. 마을 사람들이 옷이 울랐을 때 이 곳 물로 씻으면 깨끗이 나왔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용바위

이곳에서 용이 살다가 승천하여 바위가 갈라졌다고 한다.

○ 인적골

지오리 동쪽에 있는 골짜기. 이 골짜기에 한 번 들어가면 제대로 찾아 나오는 사람이 드물어 붙은 이름이다.

○ 장고개

지오리 남동쪽에 있는 고개. 상수리 갓바위에 장이 설 때 넘어가던 고개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질골

굿배미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 질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 제비바위

모래말에 있는 바위.

5. 두곡리(杜谷里)

1914년 행정 구역 개편시 대부분의 다른 리는 큰 변동이 있었으나, 두곡리만은 전혀 없었다. 부락의 사면이 산으로 막혀 있는 두메 골짜기라 하여 두일 또는 두곡리라 하였다.

● 느티정말

임계집너머말 북서쪽에 있는 마을. 느티나무 또는 느티나무정자가 있어서 생긴 이름이다.

● 두일

효촌저수지 남쪽에 있는 마을. 두곡리에서 가장 으뜸되는 마을. 윗말과 아랫말이라 불리는 두 개의 자연부락이 있다.

● 숨물

두일 북쪽에 있는 마을.

● 이터

두일 북서쪽에 있는 마을.

● 임계집너머말

두곡리에 있는 마을. 임씨가 많이 살았다고 한다.

○ 긴등

두일 북동쪽에서 남으로 뺀 야산. 지형이 청룡을 닮았다고 한다.

○ 냉정(冷井)

물이 매우 차서 붙은 우물 이름. 약샘이다.

○ 돌석이뿌리

두곡리 입구를 말한다. 이곳에 돌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지금은 공장이 들어서 있다.

○ 들바위

느티정말 북서쪽에 있는 바위. 바위가 드문드문 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지금은 저수지에 잠겨 있다 한다.

○ 들바위논

들바위에 있는 논. 지금은 저수지에 잠겨 있다.

○ 무시고개

숨물 북쪽 두곡리에서 구암리로 가는 고개. 숲이 우거져 ‘무섭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무수고개라고도 한다.

○ 물건너논

두일 북쪽 개울 건너에 있는 논.

○ 발산고개

이터 남서쪽 두곡리에서 광적면 덕도리로 가는 고개.

○ 상봉(上峯)

두일의 아랫말 서쪽에 있는 산. 산이 높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승지동 약수터[聖芝洞藥水-]



왕박골에 있는 약수터. 치풍·이질 등에 특효가 있다 한다.

○ 오구터

습물 북쪽에 있는 터. 오가터라고도 하는데 옛날 오씨가 터를 닦고 살았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운물

무시고개 끝에 위치한 조그마한 우물.

○ 왕박골

왕바위골·왕암동(旺岩洞)이라고도 한다. 커다란 바위가 있어 붙은 이름이다.

○ 장구재

두곡리에서 광적면으로 넘어가는 고개.

○ 지리내미고개

바래미고개 남서쪽 광적면으로 넘어가는 고개.

○ 청룡골

두일 북동쪽에 있는 긴등의 남쪽 끝. 지형이 청룡을 닮은 긴등의 끝이라 하여 붙은 지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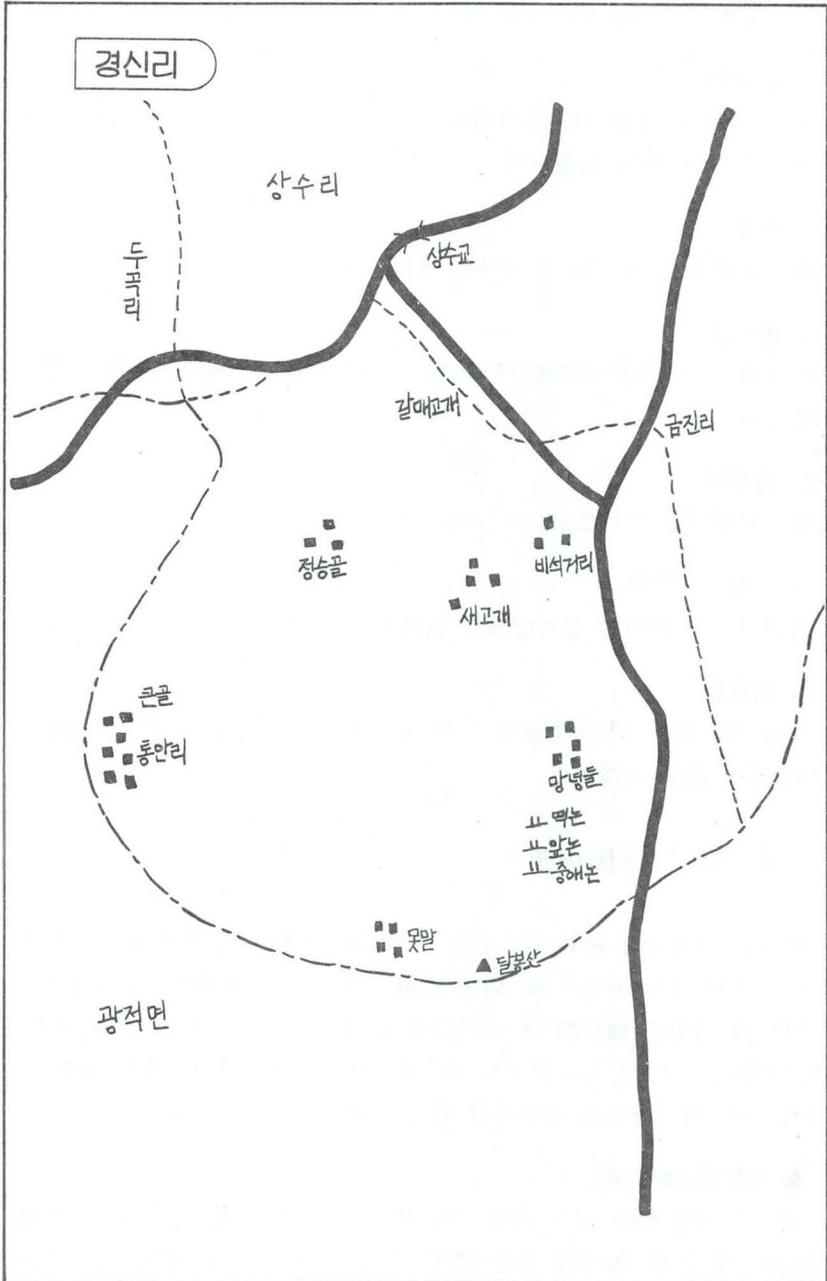
6. 경신리(庚申里)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남면 상수리와 양주군 석적면 이패하리 등 2개 리에서 일부 지역을 떼 내어 병합하였다. 경신골이라고도 부른다.

남면이 적성군(積城郡)에 속하였을 당시, 감악산은 적성군의 주산(主山)이었다. 그런데 감악산에서 볼 때, 이 마을이 정경신방(正庚申方: 남서방)에 위치하므로 경신리라 하였다 한다.

● 망녕들[豊野洞]

경신리 남동쪽에 있는 마을. 이 부락 앞에 비교적 큰 들이 있는데, 옛날에 이 들의 농사가 풍흉(豊凶)의 변화가 심하여 ‘망령된 들’이라



하여 생긴 명칭이다.

● 못말[池村]

망녕들 남서쪽에 있는 마을. 지금은 큰 저수지가 된 큰 연못이 있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비석거리

경신리 북동쪽에 있는 마을. 이 부락 앞에 관찰사와 적성현감(積城縣監)의 선정비가 있어서 칭하게 된 이름이다. “觀察使 金公箕晚永世不忘碑. 道光二十九年十月立” “行縣監 玄候濟昇永世不忘碑. 光緒丙子四月立” “行縣監 吳候慶延永世不忘碑. 道光三十年五月立”이라는 비문이 새겨진 세 개의 비석이 나란히 있다.

● 새고개[間峴]

비석거리 남서쪽에 있는 마을 및 고개. 고개가 마을 사이에 있어 사이고개라 불렀으나 새고개가 되었다. 이 고개에 있는 마을도 같은 이름이다.

● 아기낭굴

달봉산 남쪽에 있는 마을.

● 엄태물

통안리 서쪽에 있는 마을. 엄태물이라는 우물이 있었다 한다.

● 정승골

비석거리 서쪽에 있는 마을. 정승을 지낸 유만수의 묘가 있어 붙은 이름이다.

● 통안이

경신리 남서쪽에 있는 마을. 이 부락의 전후 좌우가 산으로 막혀 있어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으므로 여러 가지 재화(災禍)를 방지하고 편히 살 수 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행정상 지칭은 통안리(通安里)이다.

○ 갈매고개[渴馬-]

비석거리에서 상수리 상다리로 가는 고개. 이 곳 산줄기가 남동쪽을

로 약 1km 쯤 길게 뻗어 그 끝(말굴이모퉁이)이 하천에 닿아 있다. 이곳의 지형을 말의 형국이라 하고, 말이 목이 말라 물을 구하는 형상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 경신동언(庚申洞堰)

못말에 있던 저수지. 주위가 880척 이었다고 하나⁵⁾ 지금은 효촌저수지의 영향으로 독만 있고 양어장으로 변하였다.

○ 달봉산

못말 남쪽에 있는 산. 마치 독과 같이 오뚝한 봉우리의 모양을 하고 있다. 월봉산이라고도 하며 이곳에서 달이 떠오르곤 하여 붙은 이름이다. 그 상봉에는 약 300년 된 굴참나무가 있는데, 동네 사람들은 이 나무를 천신처럼 받들고 주민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는 산신제를 드린다. 산신제는 3년마다 음력 12월에 날을 잡아 올리는데 집행은 제관, 도가, 축관, 소임, 총무가 맡는다. 제사음식으로는 벼 3되 3흙을 절구에 찼어 조라술을 담고, 쌀을 찼어 빻은 떡과 마을에서 생산된 과일을 올리고, 자정이 지나서 주민일동의 가주 순서로 건강을 기원하며 소지를 올린다.

○ 떡논

망녕들 남동쪽에 있는 논.

○ 매미골

경신리를 둘러싼 북쪽의 골짜기. 물이 부족하여 조금만 가물어도 모를 내지 못하는 건답이다. 6,7월에 장마가 오고 매미가 울어야 모를 낼 수 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매봉찌

달봉산 북서쪽에 있는 산. 매봉산이라고도 한다. 매가 많이 있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5) 『楊州牧邑誌』(韓國學文獻研究所, 『邑誌』京畿道 ①, 1985, 6쪽).

○ 앞논

망녕들 남동쪽에 있는 논.

○ 중애논

망녕들 남동쪽에 있는 논.

○ 큰골

통안리 동쪽에 있는 골짜기. 골짜기가 크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7. 상수리(湘水里)

1914년 행정 구역 개편시, 상수리의 일부 지역을 분리, 남면 경신리와 양주군 광적면 덕도리에 병합시키는 한편, 남면 상수리·발운리와 양주군 석적면 향동리 등 2개 리에서 일부 지역을 떼 내어 흡수하였다.

쌍수·산수·산수라고도 부르는데, 동쪽과 서쪽에서 흘러오는 두 물이 마을 앞에서 합하여 동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혹은 고려말(高麗末) 이성계와 동관이었던 직장공(直長公) 홍지(洪智)가 태조(太祖) 때 죽으니 태조는 무학대사로 하여금 산지를 잡게 하였다. 그리하여 망당산(望唐山)에 명당을 잡았으나 묘지형국(墓地形局)이 왕자형(王字形)이라서 왕운(王運)을 피하고 부귀만을 누리도록 분금(分金)하였다. 그러나 화산(火山)이 미치게 되자 당시 동네 이름 청송리(靑松里)를 ‘水’자가 든 ‘상수’라 고쳐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리고 도토리 나무가 많아 붙은 이름이라고도 한다.

● 갯바위장

상수 2리에 있는 마을. 바루니라고도 한다. 상수리에 있던 장터가 이 곳으로 옮겨 붙은 이름이다.

● 구석말

양짓말 북쪽에 있는 마을. 구석진 곳에 있어 붙은 이름이다.

● 금진리(禁陣里)

상수리 남쪽에 있는 마을. 하천이 범람하면 퇴로가 없다 하여 군사



진을 치지 말라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일설에는 인가도 없고 산림만 우거져서 여러 가지 동물은 물론 곰도 살았다고 하여 웅존(熊存)이라 하였는데, 한글화하여 곰주니가 되었다고 하며 금진(禁陣)은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금진리·검준리·건전(乾田)이라 부르기도 한다.

● 기와집말

상수 3리에 있는 마을. 기와집이 있어 붙은 이름이다.

● 바깥통안이

통안리 바깥쪽 상수 1리에 있는 마을.

● 상다리[湘橋]

상수국민학교 남쪽 1리에 있는 마을. 상수천에 다리가 놓여 있는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셋말[閭村]

술막거리와 통안리 사이에 있는 마을.

● 술막거리

셋말 북쪽 상수 1리에 있는 마을. 술막이 있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안말

망당산 남쪽 상수 1리에 있는 마을.

● 안통안이

통안리 안쪽 상수 1리에 있는 마을.

● 양짓말

안말 남쪽 상수 1리에 있는 마을. 양지바른 곳에 있어 붙은 이름이다.

● 역말[驛村]

상수리 424번지이며 옛날 역참(驛站)이 있던 터. 지금은 주택지로 변하였다.

● 중간말

상수 1리에 있는 마을. 안말과 양짓말 사이에 있어 붙은 이름이다.

● 통안리(通安里)·통안이

상다리 북동쪽 상수 1리에 있는 마을. 고래로 외부의 재화(災禍)를 받지 않고 편히 살고 있어 지어진 이름이다.

○ 갯바위장터

상수 2리 갯바위에 있던 터. 원래 입암리 구갯바위에서 장이 열렸는데 한국전쟁 이후 상수리 갯바위로 장터가 옮겨졌다. 신갯바위장터라고도 하며 5일장이 섰었다.

○ 강당고개

역말 서쪽에 있는 고개. 박석고개라고도 한다.

○ 거지고개

상수 3리에 있는 고개. 옛날에 거지가 많이 살았다고 한다.

○ 구매배

굴바위 앞의 논. 굴바위가 있어 굴바위들이라 하였는데 발음변화로 구매배라고 한다.

○ 굴바위[孔岩] ; 혈암(穴岩)

망당산 서쪽에 있는 바위. 이곳에는 큰 바위들이 많고 그 밑에 굴이 뚫려 있어 붙은 이름이다.

○ 냉정

홍덕사 절 뒤의 돌 틈에서 나는 약수. 무학대사가 상수리에 도착하여 산소자리를 본 후 물이 나오므로 산 주봉을 넘어 이곳을 지팡이로 찌르니 그 틈에서 물이 쿵쿵 쏟아졌다고 하며 약수로 알려져 있다.

○ 노랑벌

상수 3리 북쪽 고양산 주위의 들.

○ 녹음터

망당산 정상에 있는 터. 옛날 할머니들이 정성을 드릴 때 밥을 짓던 곳이었다. 녹음을 짓는 곳이라 하여 녹음터골로 불리웠다. 마을 사람들은 치성드리는 밥을 ‘녹음밥’으로 부른다. 옛날에는 이곳이 발운리였다.

○ 동전벌

상수리 남서쪽 두곡리와 경신리 경계에 있는 들. 예전에는 동전 몇 톨을 주고도 살 수 있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망당산(望唐山)

상수리·입암리·구암리에 걸쳐 있는 높이 203.1m의 산. 망당산과 관련된 유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원래 명당산(名堂山)이었는데 종종 때 임금의 묘지를 찾으러 이곳에 왔으나 남양 홍씨들이 명당산이 아니라 망할 ‘亡’자 망당산이라 하여 돌아갔다고 한다. ② 망당산은 중국 강소성에 있는 명산으로 한고조가 평민으로 있을 때에 은거하던 산이며, 진시황이 동남방에 천자기상이 있다고 그곳을 열려하던 고사와 연결되는 산이기도 하다. ③ 옛날에는 망탕산(芒湯山)이라 하였는데, 남양 홍씨 선(先)시조가 당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당나라를 잊지 못한다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이곳의 약수가 유명하며 흥덕사라는 절도 있다.

○ 망데이약수터

망당산 북쪽에 있는 약수터.

○ 방골

상수리 서쪽에서 구암리 모래말로 가는 골짜기. 방통같이 아늑하여 붙은 이름으로 추측되며 지금은 방동(方洞)으로 부른다.

○ 빈장벌

갯바위장 남쪽에 있는 들.

○ 오미들

노랑벌 동쪽에 있는 들. 지대가 조금 낮고 물이 늘 피어 있으며 물풀이 있는 곳을 오미라 한다.

○ 용의 머리

상수리에서 구암리 모래밭로 가는 길목.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약 2km가량의 긴 능선 끝에 목이 갈록하면서 끝머리가 2m가량의 바위가 있다. 이곳에 작은 길이 나 있는데 길목을 낮추려고 바위를 파 내니, 피가 흘렀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 조산모퉁이(造山-)

중간말 서쪽에 있는 골짜기. 고려말 무학대사가 홍지의 묘를 잡을 때 좌청룡 우백호 가운데 청룡이 약해 보이자, 인력으로 산을 모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 태봉

1869년(高宗 6) 조선 숙종의 태를 공주에서 이곳으로 옮겨 묻었다.

○ 한림암(翰林岩)

갯바위 남쪽 발운동 냇가에 있는 절벽. 경관이 아름다우며, 조선조 중종 때 한림 벼슬을 지낸 홍계정(洪係貞)이란 사람이 자주 소요(逍遙)함으로써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해진다.

8. 입암리(笠岩里)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입암리 일부 지역을 분리시켜 양주군 은현면 운암리에 포함시키고, 남면 마산리 전 지역을 병합하였다.

수백 년 전에는 뒷산의 큰 바위에 갯 모양의 돌이 썩어져 있었다. 그래서 갯바위 또는 입암이라 하였다.

● 계터

구갯바위 북쪽의 마을.

● 구(舊) 갯바위

망당산 동쪽에 있는 마을. 원래의 갯바위 마을이다. 약 300년 전 이 부락에 갯바위라는 장(場)이 섰었는데, 그 후 장이 상수리로 이전하였다. 그래서 옛날 갯바위장이 섰던 곳이라 하여 구 갯바위가 되었다.

● 너머말

구갓바위 남쪽 너머에 있는 마을.

● 말미·마산동(馬山洞)

구갓바위 서쪽에 있는 마을. 이 부락 뒷산의 형태가 말꼬리 같이 생겼다고 하여 지은 이름이다. 마을 논 한가운데 말묘라는 묘가 크게 자리잡고 있는데 그 ‘말묘’가 말미로 변하였다고도 한다.

● 옥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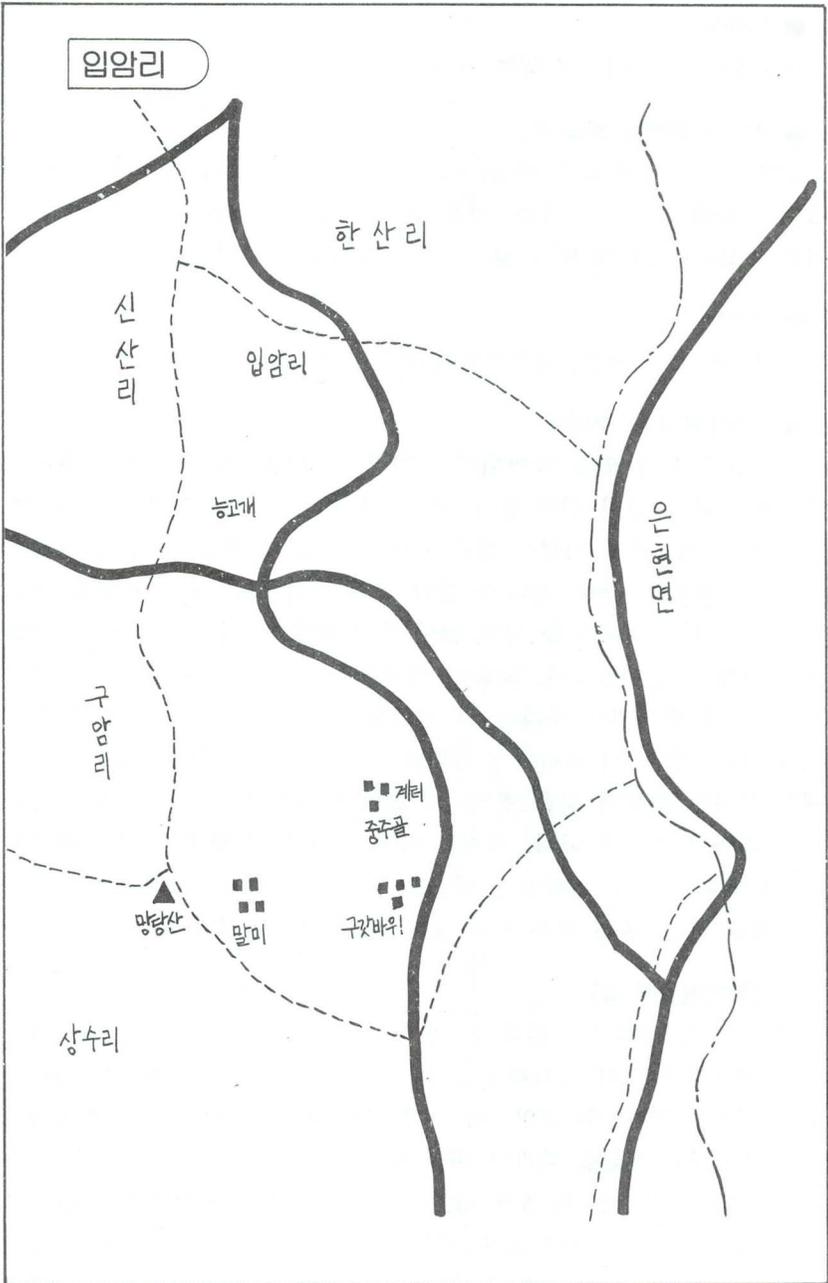
입암리에 있는 마을. 옥수동이라고도 한다.

● 입암(笠岩)·갓바위

망당산 기슭에 있는 갓바위에서 가장 큰 마을. 이 마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 온다. 이 산 북쪽 기슭에 인형과 같은 큰 바위가 있는데, 마치 사람이 의관을 바로 하고 서 있는 것 같은 형상이었다. 그 북쪽에 후에 ‘흔터’라 불린 곳에 욕심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어느 날 시주를 하러 찾아 온 노승에게, 거지 등쌀에 못 살겠다고 꾸념을 늘어놓았다. 노승이 거지를 못 오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자, 귀가 솔깃해진 부자는 그 방법을 물었다. 노승은 저 산에 있는 갓바위의 갓을 벗겨 버리면 소원대로 될 것이라고 말하고 사라졌다. 그래서 부자는 힘들여 갓을 벗겨다가 고개에 버렸다. 그 후 부자는 망하고 동네까지 폐허가 되니, 거지는 다시 찾아 들지 않게 되었고 헛터가 된 ‘흔터’에는 지금 기왓장만 텅굴고 있다. 그 때부터 고개이름을 갓바위고개라 하고, 동네 이름 또한 갓바위(笠岩)라 불리었다.

○ 고양산(高陽山)

말미 앞 논 한가운데 넓이 650여 평, 높이 10m 가량의 작은 산. 거울처럼 생겼다고 하며 동미라고도 불린다. 지명에 관한 유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고양군에서 이 산을 잃고 찾아다니다가 이곳에서 산을 발견하고 세금을 내라고 하여 수년동안 세금을 냈다고 한다. 이후 이 산 때문에 농사를 못 짓게 되었음을 깨닫고 산을 고양으로 되들려 가라 하니 세금 걷는 일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래서 고양군에서 온 산이라 하여 고양산이라 한다. ② 중국에서 만리장성을 쌓을



때, 흙과 돌이 모자랐다. 그래서 멀리 이곳 고양 땅의 산에서까지 흙과 돌을 나르게 되었는데, 도중에 만리장성이 완성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 흙과 돌을 노랑벌에 쌓아 놓았는데 그것을 고양산이라 한다.

○ 기둥지

땅이 질다 하여 질둥지라 불렀으나 발음이 변하여 기둥지가 되었다.

○ 능고개

입암리 구갓바위 남쪽에서 신산리로 넘어가는 고개. 갓바위고개라고도 한다. 옛 능이 있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달바위

계터 남쪽에 있는 바위. 명절 때면 달맞이 하러 오르는 바위라 하여 붙여졌다.

○ 마들

너머말 서쪽에 있는 들.

○ 마우들

입암 1리에 있는 들. 소시장이 섰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새능

능고개 남쪽에 있다. 작은 능과 같이 생겨 붙은 이름이다.

○ 왼골

입암리 왼쪽에 있는 골짜기.

○ 장밭

너머말 서쪽에 있는 밭. 장승 또는 장터가 있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 절골

구갓바위 남쪽에 있는 골짜기. 절에 오르던 골짜기라서 붙은 이름이다.

○ 중주골

계터 남쪽에 있는 골짜기.

○ 채터

절골 북쪽에 있는 집터. 옛날에 채서방이 살았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지금은 밭으로 변화였다.

○ 큰다리

너머말 동쪽에 있었던 다리. 큰 돌로 된 징검다리가 있어 붙은 이름이다. 지금은 없어졌다.

○ 터골

너머말 남쪽에 있는 골짜기. 옛 집터이며 현재도 기왓장이 나온다고 한다. 지금은 채석장으로 변화였다.

9. 한산리(閑山里)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한산리 일부 지역을 양주군 은현면 봉암리에 흡수시키고, 남면 임간리 전 지역과 양주군 묵은면 사패리 일부 지역을 병합하였다.

앞산이 한새(황새)처럼 생겨 한새미·한사미·한산이라 불렀으며, 이 고장에 한산거사(閑山居士)가 살았으므로 지어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옛날에는 한산리 대부분의 지역을 은홍정(銀杏亭)로 불렀으며, 500년 이상 묵은 은행나무가 지금도 서 너 그루 있다.

● 가마소[釜沼]

한산리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마을. 가마솥 자국이 있거나 가마 같은 못이 있었다고도 한다.

● 기와터

큰안터 서쪽에 있는 마을. 기와를 만들었던 곳이라 한다.

● 막은골

기와터 남쪽에 있는 마을. 마근골로도 불린다. 옛부터 전의(全義) 이씨(李氏)가 살았는데 조상 중 두곡(杜谷)이라는 별호(別號)를 가진 이가 있어 두곡이라고도 한다.

● 안터[內垜]

한산리 중심부에 있는 마을. 주위 부락들에 둘러싸여 안쪽에 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용바위[龍岩]

가마소 동쪽에 있는 마을 및 바위. 용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 붙은 이름이다. 수백 년 묵은 은행나무도 있다. 근처에는 전의이씨(全義李氏) · 성주이씨(星州李氏) · 진천송씨(鎭川宋氏) 등 명신들의 묘가 많이 있다. 일본사람들이 뚫은 용굴도 있다.

● 임간리(林間里)

한산리 남동쪽에 있는 마을. 약 500년 전 이곳은 삼림이 무성하였는데, 그 사이에 인가가 두어 채만이 있어서 생긴 이름이다. 사방이 숲으로 싸여 있어 피난고지라 불렀다고도 한다. 1912년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는 ‘林澗’으로 되어 있다.

● 작은안터

안터의 작은 마을.

● 큰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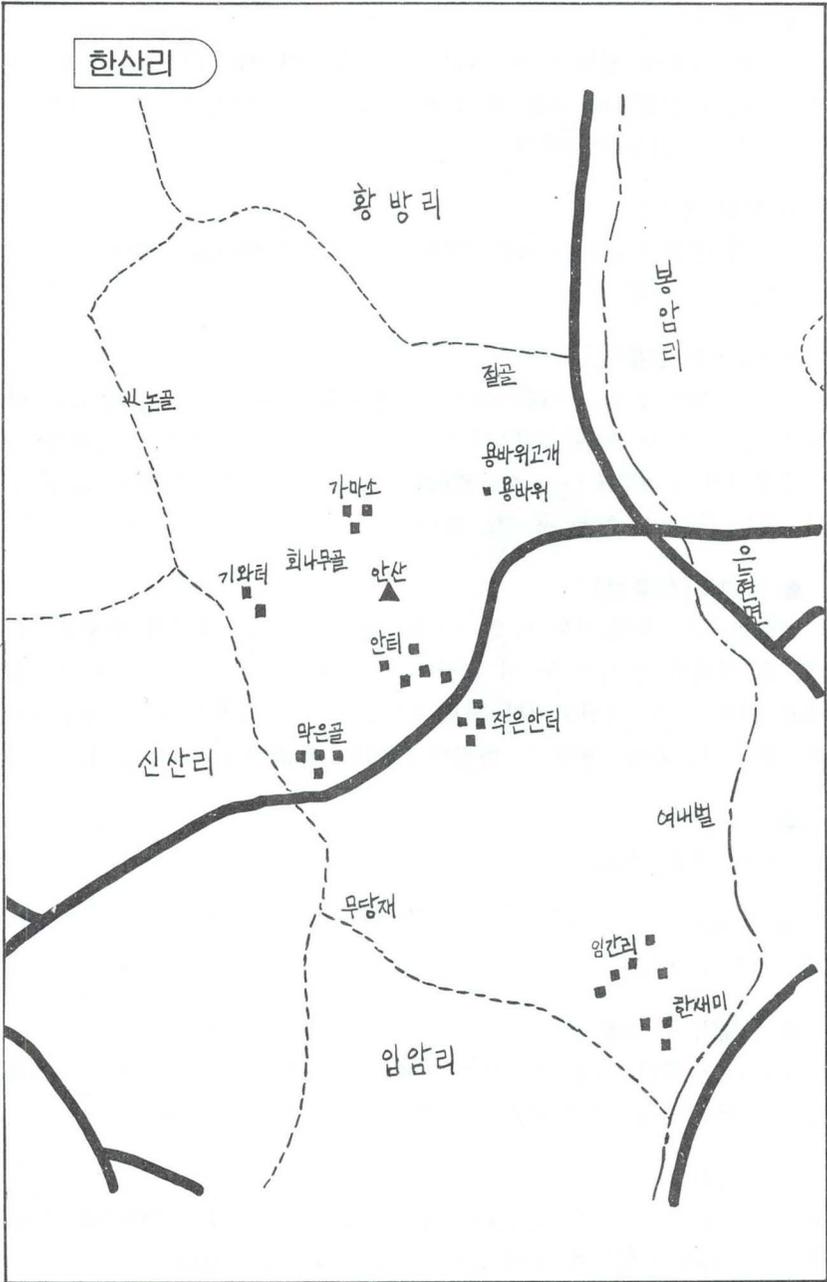
안터의 큰 마을.

● 한새미[閑蛇尾]

임간리 남쪽의 마을. 이 부락의 형태가 도사리고 있는 뱀의 꼬리와 같다 하여 한가한 뱀의 꼬리라는 뜻으로 지어진 이름이다.

○ 고심리고개

막은골에 있는 고개. 한산리에서 신산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고개가 높고 길어서 넘는데 힘이 들어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 논골[畚谷]

가마소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 한산리에는 논이 없었는데 이곳에만 논이 있었다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 뽕바위

한산 1리에 있는 바위. 옛날 어느 장수가 뛰어다녔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무당재

한산1리와 2리 경계에 있는 낮은 능선. 옛날 이곳에 유명한 무당이 살았고 성황당도 있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교통이 발달하기 전에 서울에서 양주를 거쳐 마전·삭령지방으로 다니던 길목이다.

○ 북동산

임간리 사람들이 치성드리는 나무가 있는 산. 이 나무를 부국나무라 하는데 이 나무가 있는 산을 부국동산이라 하며 지금은 북동산으로 부르고 있다.

○ 안산

가마소 남쪽에 있는 자그마한 산.

○ 여내별(汝内-)

작은안터 동쪽에 있는 들. 연애별이라고도 한다. 남편과 아내가 같이 밭일을 할 때 다른 남자가 와서 아내와 연애를 해도 모를 정도로 밭이 길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용바위고개

가마소에서 용바위로 넘어가는 고개. 용바위가 있어 붙은 이름이다.

○ 장성이별

무당재고개 앞 들. 이 길가에 장승이 있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 절골[寺谷]

용바위고개 근처에 있는 골짜기. 절이 있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태악산

작은안터에 있는 산. 태를 묻은 곳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 화초고개[花草-]

큰안터에서 기와터로 가는 고개. 꽃과 풀이 많아 붙은 이름이다.

○ 회나무골

가마소에서 기와터로 가는 고개. 회나무가 있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10. 황방리(篋芳里)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대부분의 리들은 큰 변화가 있었으나, 황방리만은 변동이 없었다. 감악산 밑이 되며 옛날에는 대나무가 무성하였고, 그 모습이 꽃과 같다 하여 황방·황팽이·황방둥이라 하였다.

● 구렁말

황방리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마을. 큰말이라고도 하며 구석진 곳에 있다. 큰 도랑(溝)이 있어 구릉(溝陵)말이라 하였는데 발음변화로 구렁말이 되었다.

● 능골

남면 느티나무가 있는 마을. 감악산 능선 골짜기에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왕의 묘터로 잡혔으나 취소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 원댕이·원당리(元堂里)

황방리 남서쪽에 있는 마을. 황방리 중간 능선에 온천이 있었으며 그 위에 산제사를 지내는 제당이 있어 온당(溫堂)이라 불렀는데, 발음이 변하여 원당리가 되었다 한다.

● 은개포

한국전쟁 전에 있었던 마을. 지금은 없어졌다.

● 중간말

능골과 구렁말 사이에 있는 마을.

● 폭포동

구령말 북쪽에 있는 마을. 폭포가 있어 붙은 이름이다.

○ 간파고개(干坡一)

구령말에서 전곡면 간파리로 가는 고개. 간파령(干坡嶺)이라고도 하는데 감악산 동록(東麓)이고 북쪽에는 간파동(干坡洞)이 있다.

○ 구룡소

용 9마리가 있었던 연못. 저수지를 만들기 위해 이곳을 묻어버려 지금은 없다.

○ 구름재

원당리에서 감악산으로 가는 첫번째 고개.

○ 남선굴(南仙窟)

부도골 북쪽 감악산에 있는 굴. 고려말의 충신 남을진(南乙珍)이 은거한 곳이었다. 바위 절벽에 움푹 패인 동굴이 있는데, 지금은 복을 비는 사람들의 기도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그 위에 ‘南仙窟’이라는 글자가 뚜렷하게 남아 있다. 원래는 설인귀굴로 불렸다고 한다.

○ 노루발바위

중간말 서쪽에 있는 바위. 바위에 노루발자국이 2개 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능골고개

능골에서 능안말로 가는 고개.

○ 매골

매봉산 북쪽 밑에 있는 골짜기. 감악산에서 가장 긴 골짜기이며 기암 절벽과 각종 수목이 우거져 있다. 골짜기에 있는 바위가 매와 같이 생겼다 하여 생긴 이름이다.

○ 매봉산

남선굴 남쪽에 있는 산. 매처럼 생겨 붙여진 이름이다.



○ 방굴(方窟)

구렁말 앞에 있는 큰 굴. 굴을 건드리면 방씨문중(方氏門中)에 불상사가 생긴다는 전설이 있고 지금은 없어졌다고 한다.

○ 비룡천(飛龍川)

원당리 남서쪽에 있는 천. 용이 올랐다는 전설이 있다.

○ 선일재

원당리에서 감악산 방향으로 구름재 다음의 고개.

○ 쇠굴

봉암저수지 북쪽에 있는 산. 옛날 이곳에서 쇠가 나왔다고 하며 현재는 구덩이만 있다고 한다.

○ 선패랭이굴

봉암저수지 남동쪽에 있는 굴. 그 곳에 패랭이가 50(원)개 있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동치굴 또는 동치굴이라고도 하는데, 옛날 동을 파내던 곳이라고 하며 옛날 광부들이 그 굴에 들어갔다가 굳기 무너져 모두 죽었다고 전해진다.

○ 어형재

원당리에서 감악산 방향으로 선일재 다음의 고개.

○ 온천(溫泉)

원당이 북쪽에 있다. 옛날에 온천이 있었다고 하여 생긴 이름이다.

○ 요당굴

중간말 남쪽에 있는 산. 옛날 이곳에 돌로 쌓은 돌각산이 있었는데 홍수가 나서 떠내려 갔다고 한다. 이 돌각산에 여우가 많이 있었다고 하여 여우당굴이라 불리다가 여유당굴 또는 요당굴로 발음변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 평풍바위

감악산 남선굴 위쪽에 있는 바위. 깎아지른 산등성이에 바위가 병풍처럼 펼쳐져 있어 붙은 이름이다.

○ 하늘재

원당리에서 볼 때 구름재 반대 방향에 있는 고개.

○ 호랑바위

황방 1리에 있는 바위. 옛날 호랑이가 바위에 와서 자주 앉았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제 6 장 광적면(廣積面)



가래비 3·1운동 기념비

여

백

1914년 행정구역이 개편될 때, 석적면(石積面) 이패중리(二牌中里)·삼패하리(三牌下里)·삼패상리(三牌上里)·대조동(大棗洞)·신촌리(新村里)·거마동(車馬洞)·효가동(孝佳洞)·행동리(杏洞里)·대야지리(大也池里) 등 9개 리 전부, 이패하리(二牌下里)·회촌리(檜村里)·항동리(項洞里) 일부, 백석면의 능내리(陵內里)·고릉리(古陵里)·단촌리(短村里)·연평리(蓮坪里) 등 4개 리의 일부, 광석면(廣石面) 일패리(一牌里)·이패리(二牌里) 일부와 삼패리(三牌里)·사패리(四牌里) 전부, 파주군 광탄면(廣灘面)의 발랑리(發郎里) 일부, 적성군(積城郡) 남면의 상수리(湘水里)·매곡리(梅谷里) 일부, 파주군 천현외패면(泉峴外牌面)의 삼현리(三峴里) 일부를 통합하여, 광석면의 ‘廣’자와 석적면의 ‘積’자를 따서 광적면이라 하였다. 그리고 석우리(石隅里)·덕도리(德道里)·효촌리(孝村里)·가납리(佳納里)·광석리(廣石里)·우고리(遇古里)·비암리(比岩里) 등 7개 리를 두었다.¹⁾ 이 때 면사무소를 가납리에 두었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

1973년 7월 덕도리를 1·2리로, 비암리를 1·2리로 분할하여 모두 9개 리가 되었고, 1975년 1월 가납리를 1·2리로, 효촌리를 1·2리로 분할하여 모두 11개 리가 되었다. 1980년 1월 가납 1리를 1·3리로, 비암 2리를 2·3리로, 덕도 1리를 1·3리로 재분할함에 따라 14개 리가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 가납리(佳納里)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석적면 행동리·이패리·대야지리, 광석면 일패리, 백석면 능내리·고릉리 등 6개 리에서 일부 지역을 떼 내어 가납리라 하였다. 가래나무가 많아 가래비·가납·추교(楸橋)라고도 한다.

● 가래비

광적면에서 가장 큰 마을. 조선조 때 마을 입구 하천 변에 소시장이 있었는데, 그 하천에 큰 가래나무로 다리를 놓았다고 하여 지은 이름이다. 또는 가래나무가 흔하여 붙은 이름이라고도 하며, 한자말로는 추교동(楸橋洞)이다. 조선조와 일제시대에는 한자음을 빌려 가라비(加羅非)로 표기하였다.

1) 朝鮮總督府, 『新舊對照 朝鮮全道 府郡面里洞名稱一覽』, 1917, 111·124쪽.

● 가마소골

가납 2리 대모시 북쪽에 있는 마을. 큰 뿔바위가 있는 마을.

● 건너말

대모시 남서쪽에 있는 마을. 가래비장터 건너쪽에 있다 하여 생긴 이름이다.

● 능내동

가납교 남동쪽에 있는 마을. 능안말이라고도 한다. 구한말 최씨촌(崔氏村)에 능(陵)을 만들려고 계곡 일부에 석축까지 하였다가 그만 두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라 한다.

● 대모시

가납리 북동쪽에 있는 마을. 가납리를 지나던 개울이 이 마을을 끼고 흐르는데, 그 모양이 못과 같다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부락 가운데 큰 못이 있었으므로 대지동(大池洞)이라 부른다는 이야기도 있다.

옛날에 한 중이 이 마을 부자에게 시주를 받으러 갔다가 푸대접을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그 부자에게 마을 개울을 뒤쪽으로 흐르게 하면 더 잘 살게 된다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들은 부자가 개울의 방향을 저수지 쪽으로 돌리자 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 동구마을

가납 2리 대모시 북쪽에 있는 마을.

● 바깥능안

능내동 서쪽에 있는 마을.

● 새남굴

대모시 남쪽에 있는 마을.

● 셋말

안능안과 가래비 사이에 있는 마을.

● 안능안

능내동 서쪽 안쪽에 있는 마을.

● 안말

가래비 안쪽에 있는 마을.

● 장터마을

광적면사무소 남쪽에 있었던 마을. 옛날부터 5일장이 섰던 곳이라 붙은 이름이다.

● 축동밖

가남국민학교 남서쪽에 있는 마을. 추교 바깥쪽에 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축동안

가남국민학교 북동쪽에 있는 마을. 추교 안쪽에 있어 붙은 이름이다.

● 흔덕골

옛날에 허씨들이 모여 살던 마을이라고 해서 허터굴이라고 불리어 오다가, 1910년 이후 흔덕골로 불려지고 있다 한다.

○ 가능골

현재 비행장 근처의 가느다란 골짜기.

○ 굴바위

대모시 동쪽 도락산에 있는 바위. 굴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굴이 커서 한번에 100여 명이 들어갈 정도라 난리 때 피난하는 장소로 쓰였다. 이 굴은 주내면 산북리쪽으로 뚫려 있다고 한다. 지금은 사격장의 유탄이 날아와 사람들의 인적이 뜸하다.

○ 그루고개

대모시에서 도하리로 넘어가는 고개.

○ 능안 개울

능내동에서 가남 1리로 흐르는 개울.

○ 대모시골

축동안 연못이 있던 동쪽의 골짜기.

○ 대장간 자리

가래비 삼거리에서 좌측 윗쪽에 있는 터.

○ 도당굿

대모시에서 도락산의 석산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는 터. 대모시 주민들이 풍년과 마을의 평안을 빌면서 2-3년에 한 번씩 이곳에서 산신제를 지냈다. 지금은 길이 확장되어 지내지 않는다고 한다.

○ 뒷등고개

가래비 뒤편에 있는 고개.

○ 들어엮은 바위

대모시 동쪽 도락산 자락에 있는 바위. 산신할머니가 냇물에서 세수를 하는데 계가 할머니의 손을 물자, 화가 나서 계는 해유령쪽으로 던지고 냇가의 바위는 치마에 싸서 도락산에다 들어서 올려 놓았다는 전설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바위 위에 또 하나의 바위가 얹혀져 있다.

○ 뿔바위

대모시에 있는 바위.

○ 만세배미

광적면사무소 앞의 논. 3·1운동 당시 이곳에서 만세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 먼뭇밑덩어리

가남 2리에 있는 산.

○ 모새논

축동안 연못 둑이 터지면서 앞들에 모래가 쌓여 만들어진 논.

○ 목정들

대모시에 있는 들.

○ 방아다리

가남 2리 대모시 가는 곳에 있었던 다리. 방앗간이 있었다고 하여 불

은 이름이다.

○ 방아다리는

축동안에 있는 논. 마을 사람들은 축동안에 연못이 있었고, 이 연못 제방이 어느 날 긴 장마로 터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방이 터지기 전에는 연못으로 물이 흘러들었다고 한다.

○ 봉바위

가남 1리 새낭골에서 1.5km 정도 떨어진 도락산 남쪽 자락에 있는 바위. 이곳에 봉이 살았다 하여 봉은 이름이다.

○ 부엉바위

대모시 북동쪽 도락산 자락에 있는 바위. 옛날에 엄청나게 큰 부엉이가 이 바위 아래에 새끼를 쳤다고 한다. 그런데 누군가가 부엉이를 잡아 버렸기 때문에 이후 볼 수 없다고 전해진다. 또는 부엉이처럼 생겨 붙은 이름이라고도 한다.

○ 북동우리

능내동 북동쪽 도락산 자락에 있는 등성이. 도락산 맥이 북에서 남서쪽으로 흘러내린 것이 마치 벼들과 같이 생겼고, 지금의 3리 마을회관 앞의 산등성이는 벼들의 북과 같이 생겼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지금은 도로가 나면서 없어졌다.

○ 샷갓바위

대모시 동쪽 도락산 자락에 있는 바위. 샷갓처럼 생겨 붙은 이름이다.

○ 상여바위

2리 도락산 옆에 있는 바위. 상여처럼 생겨 붙은 이름이다. 대보름날 달이 상여바위 북쪽으로 뜨면 풍년이 들고, 남쪽으로 뜨면 사람이 죽는 등 흉년이 들었다고 한다.

○ 새낭골

대모시 북동쪽 도락산 자락에 있는 골짜기.

○ 샘논

대모시에 있는 논. 논에 물이 잘 나온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섬밭

모새논 앞 약 500여 평의 밭. 축동안 연못이 터져 모새논이 생길 때 흘러 들어온 흙을 모아서 만들었다고 한다.

○ 안리자

가래비 안쪽에 있는 들.

○ 약물터 골짜기

대모시 동쪽 도락산 자락에 있는 골짜기. 물맛이 좋고 시원한 곳이어서 붙은 이름이다. 예전에는 마을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으나 지금은 사격장 맞은편이어서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

○ 여우골

능내동 도락산 자락에 있는 골짜기.

○ 여우방굴

대모시 북동쪽 도락산 자락 새낭골 바로 옆에 있는 굴. 돌로 된 굴에 여우가 살았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굴이 밑으로 나 있어 굴 입구에서 불을 지펴도 여우를 잡을 수 없었다고 한다.

○ 오리혈

건너말 서쪽에 있다. 오리를 기르면 오리가 붕어를 다 잡아먹기 때문에 요즘도 가남리에서는 오리를 기르지 않는다고 한다. 붕어혈이라고도 한다.

○ 옷우물

가래비 삼거리 북쪽 장부고개 남쪽에 있는 우물. 옷 읊은 사람들이 이 물로 씻으면 나왔다는 데서 유래된 명칭이다. 옛날에는 수량이 많았으나 지하수 개발로 물이 말라 메꾸어졌다고 한다. 터는 그대로 남아있다.

○ 장구배미

광적면사무소 앞 만세배미 바로 밑에 있는 논. 양쪽은 불룩하고 가운데는 오목한 장구모양의 논이라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장부고개

가래비 삼거리 북쪽에 있는 고개. 1리에서 2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 절터

안능안에 있는 터. 절터가 있어 생긴 이름이다.

○ 정기터

대모시에 있는 터. 지금은 밭으로 변화하였으며 정가터라고도 한다.

○ 줌먹은 바위

봉바위와 해매기 중간에 있는 바위. 줌이 먹은 것처럼 생겼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추교(楸橋)

가남 1리와 3리 사이 개울에 있는 다리.

○ 큰골

가남리에 있는 큰 골짜기.

○ 큰 뿔바위

2리에 있는 바위. 옛날 이 바위에 이무기가 살았는데, 이 곳에 소를 매어두면 이무기가 나와 잡아먹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천둥과 함께 벼락이 치자 이 바위가 갈라지면서 이무기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 해매기

새낭골 동쪽에 있는 산.

○ 황새고개

새낭골에서 능내동로 넘어 가는 고개.

2. 광석리(廣石里)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광석면 이패리·삼패리, 백석면의 단촌리·연평리 등 4개 리에서 일부 지역을 떼 내어 광석리라 하였다. 광석리

라는 지명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① 이곳의 밭 1,000여 평에 돌이 한 자(尺) 깊이로 깔려 있다 하여 붙여졌다. ② 마을에 넓은 돌이 있어 넓은들·나쁜들이라 부르며, 한자말로 광석리라 한다.

● 광릉말[光陵洞]

나쁜들 북동쪽에 있는 마을. 옛날 누군가가 능터를 정하러 왔다가 물이 없어 그만두게 되었지만, 그대로 능말이라 불렀다고 한다. 또는 실제로 장수들쪽에 능이 있었다고도 한다. 현 남양주군 진접면에 있는 광릉을 당초 이 부락에 예정했었다는 설도 있다. 광석의 광자와 능말을 합쳐 광릉말이 되었다.

● 나쁜들

아랫광릉말 남서쪽에 있는 마을 및 들. ‘넓은들’이 발음변화한 것이다.

● 뒷골말

민재의 북서쪽에 있는 마을. 뒤에 있는 마을이라 붙은 이름이다.

● 뒷들[後坪里]

광석리 뒤에 있는 마을. 평야의 돌이 넓어 붙인 이름이다. 뒤뜰이라고도 한다.

● 민재

광적면사무소 북서쪽에 있는 마을. 이 부락 뒷산에 나무가 없어 ‘민대머리’라고 불렀다. 후에 어느 현인(賢人)이 문한(文翰)을 많이 배출하라는 뜻에서 문성부락(文城部落)으로 명명한 데서 유래되었다. 문재라고도 한다.

● 샅푸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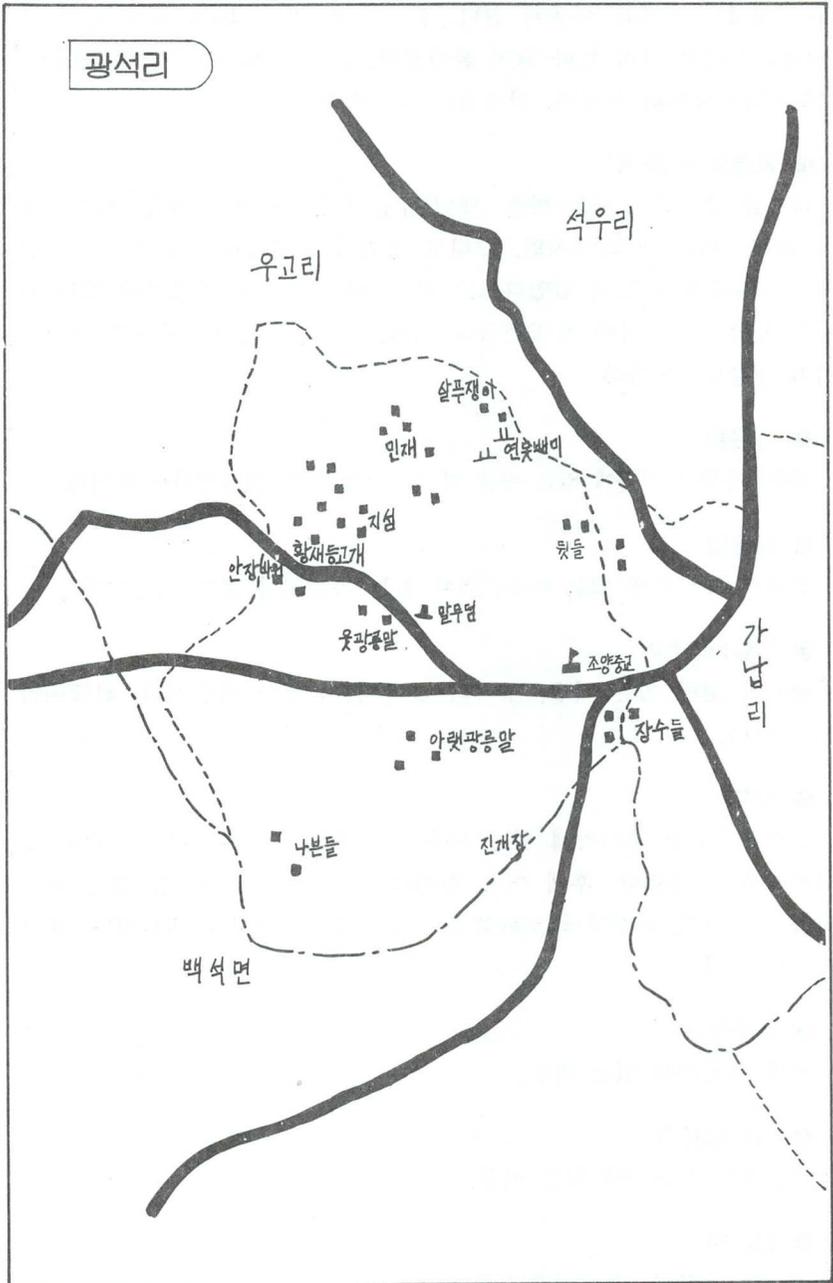
민재 북동쪽에 있는 마을.

● 아랫광릉말

광릉말의 아래쪽에 있는 마을.

● 양지말

민재의 서쪽에 있는 마을.



● **웃광릉말**

광릉말의 위쪽에 있는 마을.

● **음지말**

민재 남쪽에 있는 마을. 응달말이라고도 한다.

● **장수들[長水坪]**

광석리 남동쪽에 있는 마을 및 들. 마을 앞에 긴 개울이 흘러 붙은 이름이다.

● **지섬**

민재와 양지말·음지말로 둘러싸인 곳에 있는 마을 및 산. 음지말과 양지말을 합쳐 지섬이라고 한다. 섬 또는 배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일설에는 옛날 개울 가운데의 섬이었다고 한다. 지도(芝島)·지산동(芝山洞)·지초산 등으로도 불린다. 산은 지금 공장터로 변하였다.

○ **가업교(加業橋)**

유양리에서 서쪽으로 약 10리 떨어진 광석면에 있었던 다리.²⁾

○ **가업장(加業場)**

유양리에서 서쪽으로 약 10리 떨어진 광석면에 섰던 장.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장은 매월 3일과 8일에 열렸다.³⁾

○ **광바위산**

지섬 동쪽에 있는 산.

○ **등정외**

광바위산 옆에 있는 정자터. 지금은 배나무밭으로 변했다고 한다.

○ **말무덤**

조양중학교 서쪽에 있는 무덤. 마을 사람들은 임진왜란 당시 많은 말들이 묻혔을 것으로 추정한다. 2개가 있었으나 지금은 1개만 남아 있다

2) 『楊州牧邑誌』(韓國學文獻研究所 編, 『邑誌』京畿道 ①, 1985, 9쪽)

3) 위와 같음.

고 한다.

○ 살푸쟁

살푸쟁이 남쪽에 있는 논.

○ 선반배미

산을 등지고 있고 마치 선반처럼 높은 곳에 있어 붙은 논 이름.

○ 속옷논배미

광적면사무소 근처 장릉 공장 자리. 여자의 속옷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솜물

물이 맑고 솟아오르는 모양이 솜처럼 피어 오른다 하여 붙은 우물 이름.

○ 안장바위

황새등고개에 있는 바위.

○ 연못배미

살푸쟁이 동쪽에 있는 논. 옛날 저수지가 있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지금은 없다.

○ 왕대우물

광릉말과 나븐들 사이에 있는 우물. 수량이 많아서 여러 마지기의 논에 물을 댈 수 있었다고 한다. 일설에는 조선조 선조가 의주로 몽진하였다가 한양으로 돌아올 때 이 물을 먹었다고도 한다.

○ 우굴 개울

우고리쪽에서 흘러오는 개울.

○ 은서말논

광릉말에 있는 논. 옛날에 어느 과부가 은 서 말을 주고 이 논을 샀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작은개

장수들 동쪽에 있는 내.

○ 진개장(塵芥場)

장수들 남서쪽에 있는 터. 옛날 쓰레기를 버렸던 곳이라고 한다. 지금은 축산단지가 들어섰다.

○ 큰골

한거름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

○ 토갱이

230번지에 있는 논. 토끼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황새등고개

웃광릉말에서 음지말쪽으로 넘어가는 고개. 옛날 아름드리 나무가 있었는데 그곳에 황새가 많았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성황당도 있었다고 한다.

3. 우고리(遇古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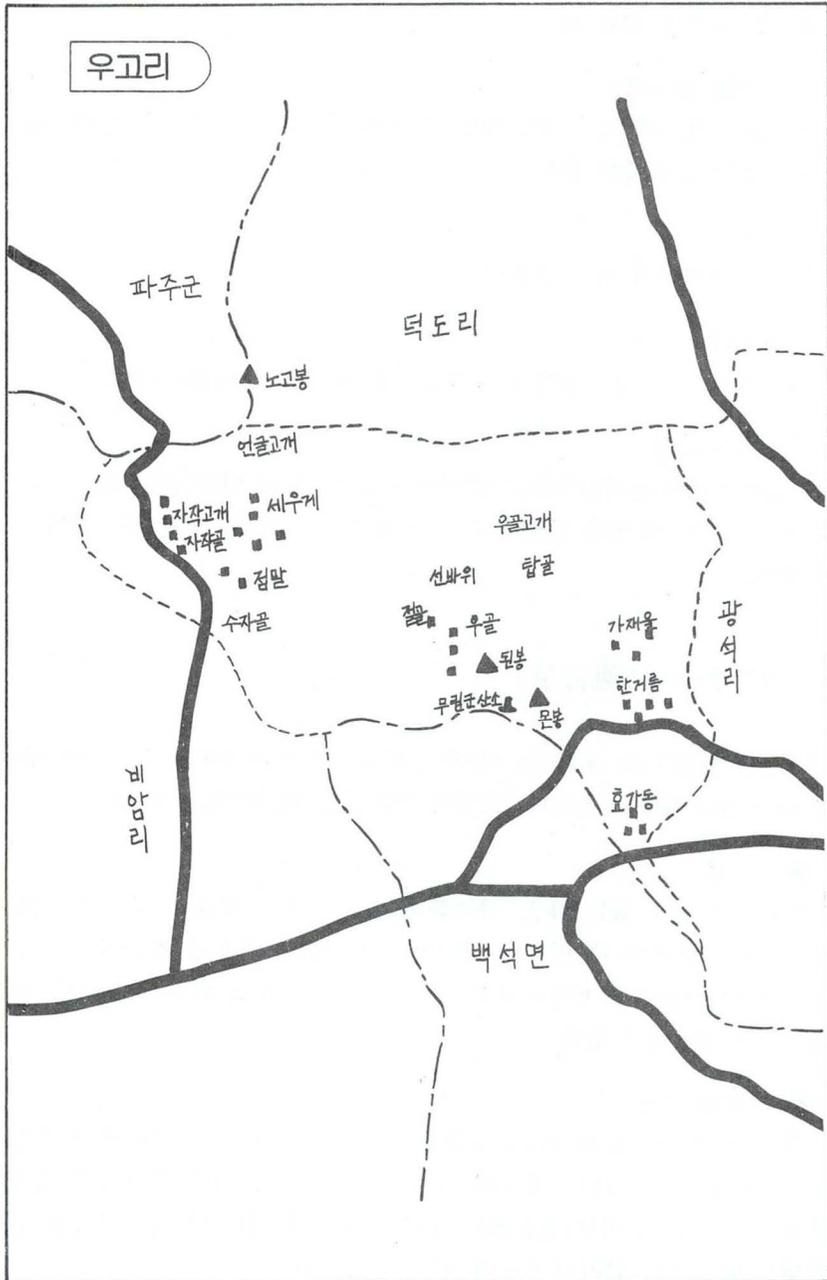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광석면 삼패리와 사패리에서 일부 지역을 떼 내어 우고리라고 불렀다. 소가리 또는 효가리라고도 부른다.

● 가재울

한거름 북쪽에 있는 마을. 가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조선조 연산군 때 임금의 사냥터로 지정되어 금표를 쳤는데, 이 금표 왼쪽의 아름다운 마을이라고 하여 가좌동(佳左洞)이라 하였으나 가재울로 바뀌었다고 한다.

● 세우계〔三峴〕

우골 북서쪽에 있는 마을. 노고산 낙맥이 동서북으로 에워싸 병풍을 두른 것 같고 남으로만 계곡이 트여 물이 흐른다. 다른 부락들과 연결되려면 북쪽은 갈곡령(葛谷嶺), 동쪽은 점령(店嶺), 서쪽은 화암령(化岩嶺) 세 고개를 넘어야 함으로 붙은 이름이다.



● 신촌·점말[店村]

우골 서쪽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광석리에서 나는 점토로 질그릇을 구웠다고 전해진 데서 유래되었다. 항아리, 독, 뚜배기, 등이, 화로, 시루 등을 만들어 여름철에 외상으로 나누어 주고 가을에 추심(推尋)했다. 광적면, 백석면, 남면, 파주 등지에 공급하였다 한다.

● 안세오개

우골고개, 언골고개, 자작고개에 둘러싸여 있는 마을. 세 개의 고개에 싸여 있다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안세고개라고도 한다.

● 우골[遇谷]

가재울 서쪽에 있는 마을. 여러 개의 골짜기가 이곳에 하나로 모인다.

● 통수골

효가동 서쪽에 있는 마을.

● 한거름[閑居-]

효가동 북쪽에 있는 마을. 가진 사람들이나 없는 사람들이나 모두 한가하게 산다고 하여 생긴 이름이다. 벼슬을 그만둔 선비들이 이곳에 내려와 한가하게 풍류를 벗하며 살았다고도 한다. 양지말과 음지말로 되어 있으며 우고리에서 가장 으뜸되는 마을이다.

● 효가동(孝佳洞)

구한 말에 효자가 났다고 하여 생긴 마을 이름. 소가리라고도 한다. 옛날 이곳에는 통수골, 매체입골 등의 마을 이름이 있었다고 한다.

○ 국사봉

세우계 정북쪽의 산.

○ 노고봉

세우계 북쪽에 있는 높이 400.9m의 산. 노고성 할머니가 치마로 돌을 옮겨 성을 쌓다가 불국산과 노고봉에 두 다리를 걸치고 오줌을 누고 있었다. 그 때 노고성 할머니 밑에 있던 게가 뜨거운 소변에 놀라 그만 소문을 물었다. 화가 난 노고성할머니는 게를 고개 넘어 파주로

던졌다. 이와같이 ‘노고’가 붙은 지명은 산봉우리가 늙은이처럼 굽어 있다거나, 늙은 할미 귀신이나 선녀에 관한 전설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봉화대로 추정되는 흔적이 있으며 지금은 군대가 주둔하고 있다. 「대동여지도」에는 비슷한 위치에 석적산(石積山)으로 표기되어 있어 이 석적산이 노고산일 것으로 추정된다.

○ 돌아다발

국사봉 앞에 있는 발. 옛날 조정에서 무덤을 만들기 위해 이곳에 왔다가, 국사봉 산세가 북쪽으로 돌아선 형태라고 하여 다시 돌아갔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된봉

우골 동쪽에 있는 봉우리. 경사가 급해 오르기가 되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두루봉

둥그렇게 생겼다는 봉우리. 또는 두릅나무가 많아 붙은 이름이라고도 한다.

○ 문봉

한겨름 서쪽에 있는 봉우리. 약 80년 전 무림군의 묘소를 충청도에서 이곳으로 이장할 때 묘자리는 좋으나, 묘소 뒤(용미)가 너무 협소하다고 하여 인력으로 흙을 모아서 봉우리를 만들었다. 모아서 만든 봉우리라 하여 모은 봉우리라 하였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문봉으로 불리게 되었다.

○ 삼현고개

세우계에서 우골로 가는 고개. 고개 세 개가 마을을 에워싸고 있다.

○ 선바위

우골 북쪽에 있는 바위. 바위가 서 있는 형태라 붙은 이름이다.

○ 선위봉

세우계에 있는 봉우리.

○ 수자골

점말 남서쪽에 있는 고개.

○ 안산

점말 동쪽에 있는 산.

○ 언골고개

노고봉 남쪽에 있는 고개.

○ 요강바위

황새등고개에 있었던 바위. 노고할머니가 눈 오줌자국이 있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바윗가루를 손에 묻히면 빨강게 물이 들었다고 하여 봉숭아 바위라고도 한다.

○ 용의 우물

용이 물을 대준다고 믿고 있는 데서 유래된 우물. 수량이 풍부하다고 한다.

○ 우골고개

우골 북동쪽에 있는 고개.

○ 자작고개

자작골 북쪽에서 비암리로 넘어가는 고개. 산이 험하여 길이 지그재그로 되어 있다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 자작골

세우개 남서쪽에 있는 고개.

○ 절골

우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절이 있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청룡고개

가재울에서 한거름으로 가는 고개.

○ 탑골

우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탐골고개

탐골에서 우골로 가는 고개.

○ 황새등

노고산과 도락산 사이에 있는 고개. 옛날 노고할머니(또는 선녀)가 이곳을 지나다 두 산의 봉우리에 다리를 걸치고 앉아 오줌을 누 곳이다. 지금은 도로가 나 있다.

4. 비암리(比岩里)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광석면 사패리, 파주군 천현외패면 삼현리, 광탄면의 발랑리 등 3개 리에서 일부 지역을 떼 내어 비암리라고 불렀다. 견준바위가 있어 견준바위, 한자말로 비암이라 하였다.

● 검은돌·현석(玄石)

괴음 북동쪽에 있는 마을. 커다란 검은 바위가 있어 생긴 이름이다. 들맹이도 많고 가뭄도 심한 곳이었다 한다.

● 견준바위

마을 및 바위 이름. 발랑저수지 삼거리에서 동쪽 왼편에 구멍이 뚫린 바위가 있었다. 사람들이 뚫린 구멍에 나무막대기를 견주어 점을 쳤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구멍이 뚫려 있어 구멍바위라고도 한다. 바위는 도로확장으로 없어졌다. 그리고 내비에서 외비로 가는 길 왼쪽에 있는 마을도 견준바위라 한다.

● 괴음(槐陰)

견준바위 동쪽에 있는 마을. 큰 느티나무의 그늘이 온 마을을 덮었다 하여 생긴 이름이다.

● 기우리·지곡(芝谷)

견준바위 남동쪽에 있는 마을. 골짜기가 많아 지곡동이라 했는데 1910년 이후 기우리로 불리고 있다. 난초가 많다 하여 지곡이라고도 한다.

● 내비(內比)

견준바위 주위 지역의 마을.

● 삼바골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물 세 개가 있는 마을.

● 송구래미 · 송현

괴음 북서쪽에 있는 마을. 조선 초 이 부락 골짜기에 아홉 개의 절이 있었고 소나무가 무성하여 송구암이라 불리워진 데서 유래하였다. 송고암이란 절이 있었다고도 한다.

● 쇠우계 · 외비(外比)

비암리 바깥쪽에 있는 마을. 고개를 세 개 넘어간다 하여 세고개가 쇠우계로 변한 것이다.

● 아래괴음

괴음 아래쪽에 있는 마을.

● 웃괴음

괴음 윗쪽에 있는 마을.

● 천태동(天台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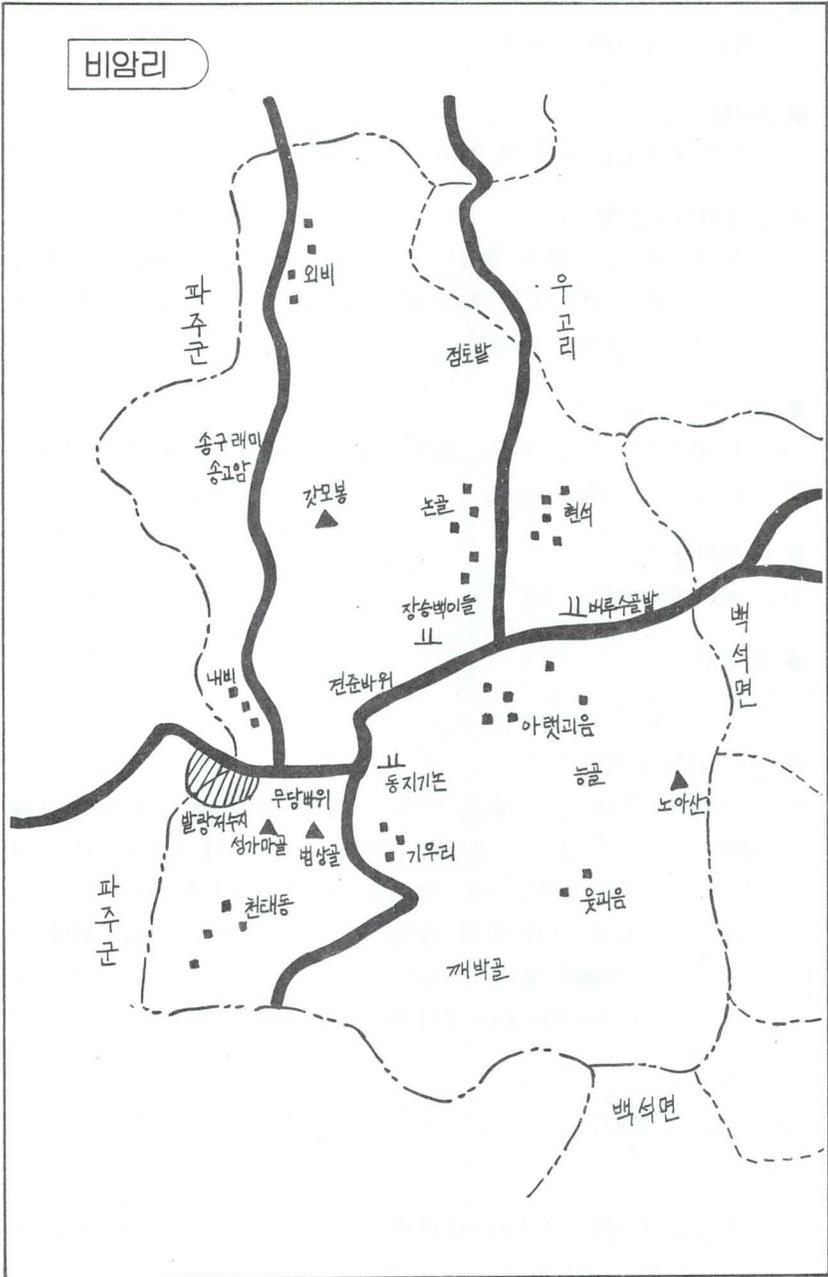
견준바위 남서쪽에 있는 마을. ‘하늘 아래 첫 동네’라는 뜻이다. 본래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하늘의 삼태성(三台星)이 비친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천태동은 『정감록』(鄭鑑錄) 비결(秘訣)에 피난 십승지지(十勝之地)로 이름이 나서 일제 때에는 평안도 사람들이 피난하여 머리도 깎지 않고 살았다 한다. 이곳에 석굴이 있는데 사람이 살만하고 구들을 놓고 살던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한다.

○ 가래골

3리에 있는 골짜기.

○ 갓모봉

내비 북동쪽에 있는 봉우리. 내비에서 가장 높은 산이며, 비올 때 쓰는 갓을 닮아 붙은 이름이다.



○ 거력골

웃피옴에 있는 골짜기.

○ 굴바위

3리에 있는 바위. 굴이 뚫려 있어 붙은 이름이다.

○ 기우리골

피옴에서 기우리로 넘어가는 골짜기.

○ 긴등고개

외비에서 현석으로 가는 고개. 고개가 길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깨박골

기우리에 있는 골짜기.

○ 노아산(老兒山)

웃피옴 북동쪽에 있는 높이 336.6m의 산.

○ 노적봉

기우리에 있는 산. 노적가리처럼 생겼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논골

논이 많다 하여 붙은 골짜기 이름.

○ 능골

기우리로 들어가는 방위선 좌측의 골짜기. 새능골이라고도 한다.

○ 능골고개

피옴에서 기우리로 가는 고개.

○ 동지기논

장승백이들에서 개울 건너 맞은편에 있는 논.

○ 두루봉

둥그렇게 생겼다 하여 붙은 봉우리 이름.

○ 무녀골

삼형제봉 가운데에 있는 골짜기. 무당이 살았다고 전해진다.

○ 무당바위

발랑저수지 동쪽 산에 있는 바위. 소리를 지르면 산이 울려 소리가 되돌아와서 대답바위라고도 한다.

○ 밤고개

견준바위가 있었던 곳에서 아래편음쪽으로 조금 올라가는 곳에 있었던 고개. 도로 확장으로 지금은 없어졌다.

○ 버루수골

견준바위가 있었던 곳에서 조금 동쪽에 있는 밭.

○ 범상골

발랑저수지 동쪽에 있는 산. 성가마골보다 더 동쪽에 있다.

○ 부초당

이곳에 세 개의 부처가 있었다 하여 붙은 골짜기. 어떤 여자 장사가 이것을 봉불사로 옮겼다고 한다.

○ 북바위

부엉골 밑 나비허리에 있었던 바위. 지금은 없어졌다고 한다.

○ 비암장터

비암 1리 편음부락에 있는 장터.

○ 비암천(比岩川)

냇가에 견준바위가 있어 이를 한자말로 부른 데서 유래되었다. 이 천은 임진강으로 흘러간다.

○ 삼밭골·밭골

삼밭이 있어 붙은 이름.

○ 삼형제봉

세 개의 봉우리가 삼형제처럼 나란히 있어 붙은 산 이름.

○ 성가마골

발랑저수지 동쪽에 있는 산.

○ 성구암

비암 3리에 있는 터. 불교가 융성하였던 고려시대에 암자 아홉 개가 모여 있었다고 전해진다. 현재 암자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할 수 있는 터와 기와 등이 남아있다고 한다.

○ 쇠쟁이고개

비암리에서 백석으로 넘어가는 고개.

○ 어두니고개

외비에서 파주군 어두니로 가는 고개.

○ 에게수 골짜기

발랑저수지 동쪽 골짜기.

○ 애기수바위

빨래하다가 여자가 빠져 죽었다고 하여 빨래구바위라고도 한다.

○ 여자바위

바위의 생김새가 여자의 음부와 같다 하여 붙은 이름이며 보지바위라고도 한다.

○ 자작고개

우고 3리에서 갈곡리로 넘어가는 고개.

○ 장승백이들

발랑저수지 동쪽 삼거리에서 해유령 방향으로 가는 길 왼쪽에 있는 논.

○ 절골

기우리에 있는 골짜기. 절이 있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점토밭

외비 동쪽에 있는 밭. 토기점이 있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치울고개

외비에서 파주군 법원읍 칠우리로 가는 고개.

○ 큰자리들

기우리에 있는 논.

○ 헐떡고개

현석에 있는 고개. 사람이 헐떡거리며 올라간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활터가 있었다고도 한다.

○ 흥골고개

현석에서 백석면 흥죽리 흥골로 가는 고개.

5. 효촌리(孝村里)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석적면 거마동·효가동 전부, 신촌리와 회촌리 및 적성군 남면 매곡리 등 3개 리 일부를 병합하여 효촌리라 하였다. 지명은 효가리에서 ‘효’자를, 회촌리 신촌리에서 ‘촌’자를 따서 지었다.

● 가능

효계울의 북쪽에 있는 마을. 휴암공 산소가 있어 붙은 이름이다.

● 갈울

우러리 남동쪽에 있는 마을.

● 거미울[蛛谷]

가래비 삼거리 남쪽에 있는 마을. 부근에 수레네미고개가 있으므로 수레 ‘車’자를 붙여 거마동(車馬洞)이라 부르던 것을 지금은 ‘거미울’이라 부른다.

● 목배미

피고개 남서쪽에 있는 마을. 일명 목배미라고도 한다.

● 미누골

회내미 남서쪽에 있는 마을. 옛날 민씨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 바깥안말

안말 동쪽 바깥에 있는 마을.

● 방아머리

미누골 남쪽에 있는 마을.

● 비선말

효계울의 서쪽에 있는 마을. 비석이 있어 붙은 이름이다.

● 삼박골

우러리의 북쪽에 있는 마을.

● 솥거물

안태울의 북쪽에 있는 마을 및 들.

● 안말

회내미 북쪽에 있는 마을.

● 안태울

효계울 서쪽에 있는 마을.

● 양주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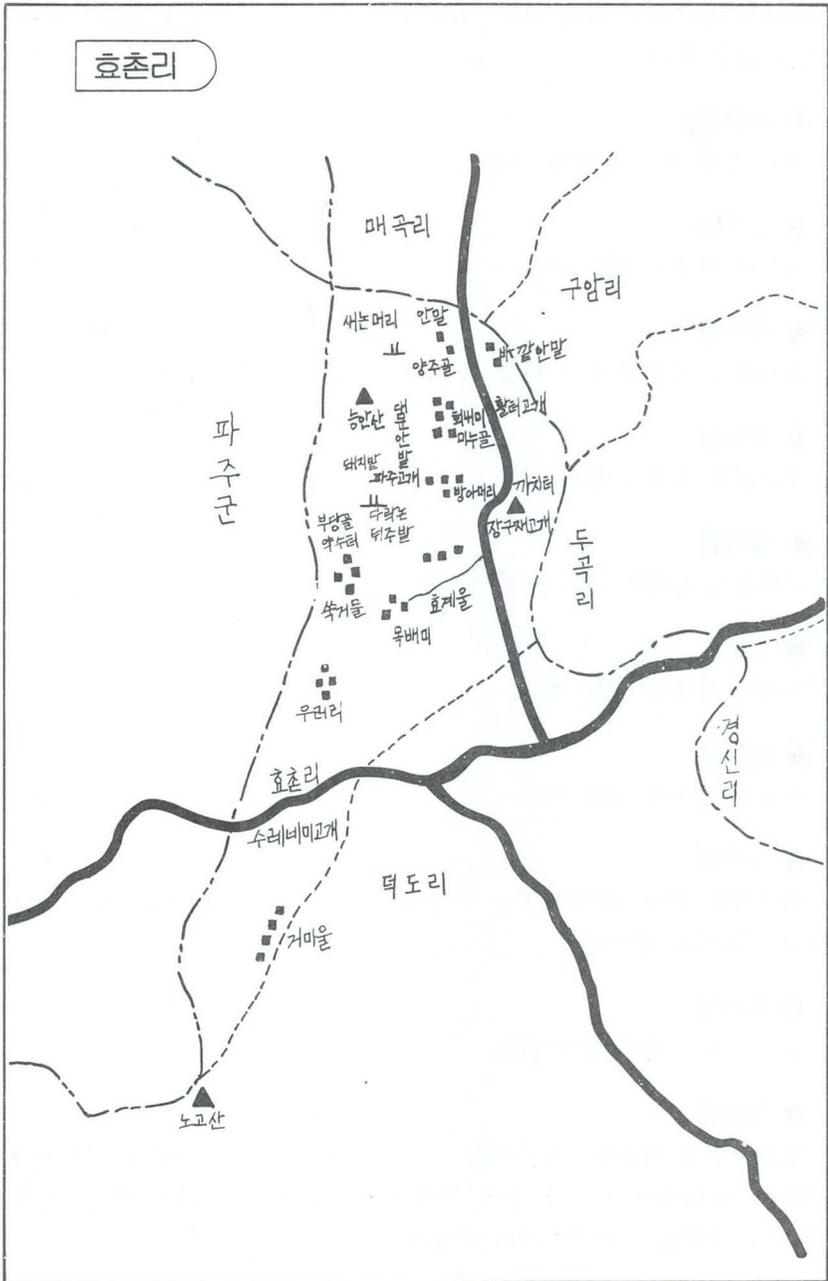
회내미와 안말 사이에 있는 마을. 질 좋은 쌀을 생산하는 논이 많아 생긴 이름이라 전한다.

● 우러리

효계울 남서쪽에 있는 마을.

● 정바위

효촌저수지 서쪽에 있던 마을 및 바위. 이곳에 있던 바위도 정바위라 부른다. 바위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 다닥바위라고도 한다. 마을 및 바위 모두 지금은 효촌저수지에 수몰되었다.



● 주막거리

수레네미고개 밑 지금의 부대 앞 마을. 고개를 넘으려는 사람들이 모이던 주막이 있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회내미[檜村洞]·큰말

거미울 북동쪽에 있는 마을. 인근에 전나무 숲이 무성하였다고 해서 생긴 이름이다. 또는 옛날 회광(檜鑛)이 있었다고 해서 생긴 것이라고도 한다.

● 효계울[孝溪洞]·소개울

거미울 북동쪽에 있는 마을. 옛날 한 효자가 이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위중한 병에 걸려 생사 기로에서 헤매고 있었다. 하루는 어머니가 잉어가 먹고 싶다고 하자, 효자는 얼음을 깨고 물에 들어 갔다. 그 때 잉어 한 마리가 튀어나와 어머니를 봉양하게 되었다. 그 결과 어머니의 병환도 나았고 10여 년을 더 사셨다고 한다. 그 후 이 개울을 효계라 하였으며, 동네 이름도 효계동이라고 하였다 한다.

○ 가의능

조선조 때 조정에서 능터를 잡으러 왔던 산. 그러나 산이 북향이라 적합치 않다고 되돌아갔다 하여 붙은 산이름이다.

○ 가재미골

미누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 개울가 바위

우러리 남동쪽에 있는 바위. 개울가에 있어 붙은 이름이다. 장사가 앉았던 자국이 지금도 있다 한다.

○ 국사봉

안말에 있는 봉우리. 봉 위에 범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가 삼각산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

○ 까치터

효촌저수지 서쪽에 있는 들. 옛날 어느 노인이 지관과 함께 묘자리를

보러 갔다. 지관이 묘자리를 일러주면서 돌을 들추자 까치가 날아 올랐다. 그 까치가 이곳으로 날아와 앉았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 뉘시바위

효촌저수지 서쪽에 있던 바위. 뉘시를 하던 곳이라 하여 붙은 지명이다. 지금은 효촌저수지에 수몰되었다.

○ 능안산

안말 남서쪽에 있는 산. 옛날 임금의 능으로 하려다가 안 했다고 한 데서 유래되었다.

○ 다락논

방아머리 서쪽에 있는 논. 조그마한 논들이 옹기종기 많이 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다랑논이라고도 한다.

○ 대롱굴이

삼박골 북쪽 바우배기논 바로 위의 논. 자강굴이라고도 한다.

○ 대문안밭

안말 남쪽에 있는 밭. 입구에 큰 대문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 댕돌배기

장구재고개 북쪽에 있는 바위.

○ 도토말

효계울 북쪽에 있는 들.

○ 돼지밭

미누골 남서쪽에 있는 밭.

○ 뒤주밭

미누골 남쪽에 있는 밭. 옛날 뒤주 하나와 밭을 바꾸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메물논골

미누골 남동쪽에 있는 논. 물이 부족하여 벼를 심지 못하고 메밀을 심은 데서 유래된 명칭이다.

○ 모랫말고개

효촌리에서 구암리로 넘어가는 고개. 모래가 많이 난다 하여 이 지역을 사촌리라 하였다 한다.

○ 민산

효계울 동쪽에 있는 산.

○ 바우배기논

삼박골에 있는 논.

○ 박산

우러리 동쪽에 있는 산. 이 산에 있던 송씨네 산소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산소 주위를 사패지로 징발하여 이를 비에 기록하여 남기자, 화가 난 마을 사람들이 그 비를 뽑아 수령논에 파묻었다고 한다.

○ 백윤산

백윤능(白尹陵)이 있는 산. 양주 윤씨의 시조를 모신 능이 있다.

○ 범바위[虎岩]

국사봉 위에 있는 바위. 호랑이의 형태를 띠고 있는 바위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빼논

우러리 북동쪽에 있는 논. 거머리가 많다고 한다.

○ 범바위골

쑥거물 북쪽 범바위산에 있는 골짜기.

○ 범바위산

미누골 남서쪽에 있는 산. 파주쪽에서 보면 범처럼 생긴 바위가 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옛날 범이 많이 살았다고도 한다.

○ 벼락바위

안태울 북서쪽에 있는 바위.

○ 본논고래

우리리 동쪽에 있는 논고래. 마을 사람들이 이곳에 박산의 송씨네 비를 파놓았다고 한다.

○ 부당골약수터

미누골 남서쪽에 있는 약수터. 부처를 모실 샘가라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새논머리

회내미에 있는 논. 옛날 버드나무가 무성하였던 곳으로 사람들이 개간하여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새너머리라고도 한다.

○ 수레네미고개[車躑峴]·회고개

거미울에서 파주군 법원을 직천리로 가는 고개. 이 고개는 노고성(老姑城) 북쪽에 있는 고개로서 파주 원과 양주 원을 잇는 중간 지점이며, 옛날 중국으로 가는 길목이었다. 따라서 수레가 끊임없이通行하였다. 그래서 붙여진 지명이다. 그리고 지세가 험하여 선 명이 모여야 넘을 수 있었다 하여 선고개 또는 선님이고개라고도 불린다.

○ 쉬은배미

회내미 남동쪽에 있는 논.

○ 시은뱀이

장구재고개 앞의 논. 50배미의 논이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배미는 논의 한 구역을 말한다. 지금은 아홉배미 정도만 남아 있다.

○ 오병사집터(吳兵使-)

효촌리 249번지 약 5,000평의 밭. 오병사 가문의 고총이라고도 한다. 옛날 이곳에 오병사가 살았다. 부근의 울창한 전나무 숲에 황새가 새끼를 쳤는데, 어느 날 큰 뱀이 황새 새끼를 모조리 잡아 먹는다는 소식을 들은 오병사는 무관의 기질을 살려 화살에 독을 바른 후 활을 쏘아 큰

뱀을 관통하니 뱀은 떨어져 중바위 밑 큰 못으로 사라졌다. 그 후 어느 날 오병사 집에서는 그 못에서 큰 메기를 잡아 국을 끓여 온 집안 식구가 맛있게 먹는데, 오병사가 수저로 헤쳐보니 독약 바른 활촉이 박혀 있었다. 그리하여 온 집안이 참변을 당하고 출타했던 처녀만이 살아 남아 출가하니 오병사의 계통은 끊어지고 폐허와 고층만 남아있다.

○ 자지봉

안말에 있는 봉우리. 일명 자주봉이라고도 한다.

○ 장구재고개

효촌저수지 남쪽에 있는 고개.

○ 접사리골

우러리 남쪽에 있는 골짜기.

○ 정바위개울

정바위 옆으로 흐르는 개울.

○ 청룡뿌리

전주 이씨 산소가 있는 곳. 풍수지리상 좌청룡에 해당된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피오개논

피고개 북쪽에 있는 논.

○ 한터고개 · 파주고개

방아머리 서쪽에 있는 고개. 고갯길에 한터라는 마을이 있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파주로 넘어가는 고개라 하여 파주고개라고도 한다.

○ 활터고개

효촌리 회내미에서 남면 구암리로 가는 고개. 활을 쏘던 곳이라 하여 생긴 이름이다. 모랫말고개라고도 한다.

6. 덕도리(德道里)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석적면 이패중리·대조동 전부와 이패하리·삼패상리·신촌리·적성군 남면 상수리 등 4개 리 일부를 병합하여 덕도리라 하였다. 덕도리라는 지명은 옛부터 도덕을 잘 지키며 이웃간에도 우애가 좋은 곳이라 하여 붙여졌다. 그리고 점미산 뒤쪽이므로 덕뒤·덕디라 하다가 덕도가 되었다는 설도 있다.

● 갓굴

밤바위에서 길건너 서쪽에 있는 마을.

● 곤줄

보막동 남서쪽에 있는 마을. 곤지리라고도 한다.

● 대춘말[大棗洞]

덕도 북동쪽에 있는 마을. 옛날에 커다란 대추나무가 있었다고 한다. 마을 앞 농경지가 넓어 대춘말이라 하였으나 대춘말로 바뀌었다는 설도 있다.

● 바깥말

신촌 바깥쪽에 있는 마을.

● 밤바위

보막동 북쪽에 있는 마을. 밤바위(빗집바위)가 있어 붙은 이름이다.

● 보막동(湫幕洞)

덕도 남서쪽에 있고 노고산에서 발원한 울암천이 동쪽으로 흐르는 곳에 자리한 마을. 나라에서 큰 보를 세워 하천의 범람을 막아 주었다 한다. 일설에 의하면 1884년 당시 영의정 김병시가 주선하여 시공 설계하였다고 한다. 보매기라고도 한다.

● 샷갓마을

신사래 북쪽에 있는 마을. 옛날에 샷갓처럼 생긴 집이 있었다고 하여 생긴 이름이다. 샷갓치계라고도 한다.

● 상원덕

덕도리 위쪽에 있는 마을. 도덕과 우애를 잘 지키는 부락이고 도덕(道德)의 원산지라는 뜻에서 원덕(元德)이라 하였다.

● 신촌·삼거리

오림가리 서쪽에 새로 형성된 마을. 새말이라고도 한다.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이 주위에 주둔하여 촌락이 새로 형성되었다고 전해진다. 또는 약 1800년부터 마을이 새로 생겼다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도 한다. 서울, 파주, 남면으로 가는 세 갈래길에 있어 삼거리라고도 한다.

● 안말

삼거리 안쪽에 있는 마을.

● 오림가리(吳林加里)

덕도리 북서쪽에 있는 마을. 오씨와 임씨가 살았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또는 다른 성을 가진 다섯 가구가 사는 마을이라 오인가리라고도 한다.

● 원덕

상원덕과 하원덕을 합쳐 원덕이라 부른다.

● 주촌말[朱村洞]

덕도리 남동쪽에 있는 마을. 주씨가 많이 살았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 쪽박골

보막동 북동쪽에 있는 마을. 우물을 파고부터 망했다고 한다. 풍수지리상, 쪽박에 구멍이 뚫린 이치와 같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하원덕

덕도리 아래쪽에 있는 마을.

○ 각시무덤

주촌말 남쪽에 있는 무덤.

○ 곳집탄

이곳에 옛 곡식창고가 있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 마을 사람들은 곡식 단이라 부른다.

○ 과목밭

보막동 북쪽에 있는 밭.

○ 구레논

밤바위 남서쪽에 있는 논.

○ 구석 밤바위밭

밤바위고개 옆에 있는 밭.

○ 굴우물

덕도리 남쪽에 있는 우물. 우물을 만들 때 땅 밑 굴같은 곳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긴등고개

덕도 1리에 있는 고개. 등성이가 길어서 붙은 이름이다.

○ 나라보

보막동에 있는 보. 보가 굉장히 길고 지면이 험하여, 당시 안목으로는 상상치도 못할 곳에 보 도랑을 내어 석우평야 농지를 관수하였다. 1884년 당시 영의정 김병시의 사유농지가 이곳에 많아 국력으로 설계 시공했다는 일화가 있어 나라보라 불린다.

○ 도당고개

보막동 북동쪽에 있는 고개. 도당봉에 있어 붙은 이름이다.

○ 도당봉

보막동 북동쪽에 있는 봉우리.

○ 독두걸

갯굴 북서쪽에 있는 들.

○ 돌밭

보막동 남서쪽과 곤줄 북쪽에 있는 밭. 돌이 많기 때문에 붙은 이름

이다. 돛다리밭이라고도 한다.

○ **딴동미산**

보막동 남쪽에 있는 산. 일제 때 길을 내기 위해 이어져 있던 산을 끊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 **무네미산**

덕도 2리 밤바위고개 옆에 있는 산.

○ **무쇠바위**

덕도 3리 점미산에 있는 바위. 무쇠처럼 단단하게 생겼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예전에 절이 있던 자리이다. 이 근처에서 일엽초(一葉草)가 난다고 한다.

○ **문둥이고개**

덕도 2리에 있는 고개. 옛날 문둥이들이 많이 살았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박수고개**

주촌말 동쪽에 있는 고개.

○ **반보고개**

보막동 북동쪽에 있는 고개. 반박고개라고도 한다.

○ **밤바위고개**

밤바위에서 덕도 1리로 넘어가는 고개.

○ **뱀밭**

밭의 모양이 뱀처럼 길쭉하다고 하여 붙은 밭 이름.

○ **벌판개울**

덕도 1리에 있는 개울.

○ **범박골**

범이 많이 살았다 하여 유래된 골짜기 이름.

○ 보개논

덕도 1리에 있는 논.

○ 부군터

새말 근처에 있는 터. 3년에 한 번 산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도당터라고도 한다.

○ 불당골

흩어진 기와 조각과 주춧돌 등으로 보아 절터로 여겨져 생긴 이름. 지금은 연못자리가 남아 있어 잡목과 잡초가 어지러이 덮여 있다.

○ 빗집바위

보막동 북서쪽에 있는 바위. 큰 바위가 쪼개져서 빗집을 세운 것과 같아 지어진 이름이다. 밤뜰이 붙었다가 떨어진 것 같다고 하여 밤바위[栗巖]라고도 한다. 이 바위는 설인귀가 밤에 감악산에서 던진 돌이라고도 하고, 밤에 땅에서 솟았다고도 한다.

○ 사복자리는

곤줄 남서쪽에 있는 논.

○ 샷갯봉

주촌말 남쪽에 있는 봉우리. 샷갯처럼 생겨 붙은 이름이다.

○ 샷갯지고개

샷갯마을에 있는 고개. 샷갯고개라고도 한다.

○ 안정밭

덕도 1리에 있는 밭.

○ 약물터

점미산에 있는 약수터.

○ 여호암

여우가 이곳에서 새끼를 낳고 갔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절 이름이라고 하나 지금은 흔적이 남아 있지 않다.

○ 웅덩자리는

주촌말 서쪽에 있는 논. 논이 가운데가 깊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 월출봉

덕도 3리에 있는 봉우리. 정월 대보름에 이곳에서 달구경을 한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장박고개

석우리에 섰던 장의 밖에 있다고 하여 붙은 고개 이름.

○ 장구논

보막동 남동쪽에 있는 논. 장구같이 생겼다고 하여 붙인 명칭이다.

○ 질터

갓굴 서쪽에 있는 터.

○ 점미산·점산(点山)

밤바위 서쪽에 있는 높이 146.2m의 산.

○ 쪽박고개

보막동 북쪽에 있는 고개. 옛날에는 둥근 산이었는데 산 가운데에 길을 내어 둥근 박이 쪼개진 형상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쪽박골 밭

쪽박고개 옆에 있는 밭.

○ 쪽박골 우물

쪽박처럼 생긴 골짜기에 있는 우물.

○ 턱굴고개

쪽박골에서 덕도 1리로 넘어가는 밤바위 아래에 있는 고개.

○ 통안이고개

덕도리에서 통안리로 넘어가는 고개.

○ 피고개

덕도 2리에서 효촌리로 넘어가는 고개. 시주 받으러 간 중이 어느 인색한 부자를 골탕 먹이려고 고개(풍수지리상 용혈)를 끊으면 더욱 부자가 된다고 속여 고개를 끊게 하자 피가 나왔다고 전해진다.

○ 햇모뿌랭이

밤가시 마을 끝을 이렇게 부른다.

○ 흘썩고개

보막동 동쪽 샷갯봉 가는 길에 있는 고개. 한 사람만이 다닐 정도로 흘썩하고 좁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7. 석우리(石隅里)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석적면 삼패하리 전부와 이패하리·삼패상리 일부를 병합하여 석우리라 하였다. 모퉁이에 돌이 있어 돌모루 또는 석우라 불리웠다.

● 귀신골

신사래 동쪽에 있는 마을. 집이 두 채밖에 없어 을씨년스럽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 끝돌모루

돌모루 동쪽 끝에 있는 마을. 마을 끝 입구에 돌모루라는 돌문이 있었다 하여 생긴 이름이다. 또한 옛날 이곳에 있던 전나무에 황새가 많이 와서 앉았기 때문에 황새마을이라고도 한다. 이 전나무는 너무 많은 황새 똥으로 죽었다고 한다.

● 돌모루

예전에 돌문이 있었다고 하여 붙은 마을 이름. 또는 물이 돌아간다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도 한다.

● 박다리

돌모루 남쪽에 있는 마을 및 골짜기. 산이 마을을 박처럼 동그랗게



둘러싸고 있어서 붙은 이름이다. 박씨 성을 가진 자가 자기 자손이 널리 퍼질 것을 바라며 지었다고도 하며 박달나무가 있었다고도 한다.

● 밤가시

섬말 서쪽에 있는 마을. 밤나무 숲이 울창하여 붙은 이름이다.

● 벌말

비행장 근처의 마을. 예전에는 벌판이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한국전쟁 이후 마을이 새로 형성되었다.

● 섬말[島村]

밤가시 북쪽에 있는 마을. 섬과 같이 들 가운데 있다 하여 붙은 명칭이다. 몇 십 년 전만 해도 동네에 우물 파는 것을 반대하였는데, 그 이유는 배 밑에 말뚝을 박았다가 빠면 배가 가라앉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또는 마을 앞으로는 울랑천이 흐르고, 뒤로는 봇물이 흘러 마을 전체가 물로 둘러싸여 있어 붙은 이름이라고도 한다.

● 송촌말[松村洞]

석우리 남동쪽에 있는 마을. 여산 송씨들이 많이 살았다 하여 생긴 이름이다. 이 송씨들이 무척 부자였는데 도적떼들이 상여나가는 것으로 위장하고 이 마을을 습격하는 바람에 송씨들도 떠나고 마을도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 신사래(紳士來)

박다리 남쪽에 있는 마을.

● 윗말

섬말 동쪽에 있는 마을. 섬말 위쪽에 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풀무골·야동(冶洞)

밤가시 남서쪽에 있는 마을. 풀무의 옛말은 불무이다. 불모지와 같은 말이라고도 할 수 있다. 풀무는 대장간과 관계가 깊고, 시우쇠를 달구는 일과 관계가 있다. 이러한 명칭을 땅이름으로 쓰는 곳은 대장간이 있었거나 시우쇠가 나는 곳임을 보여준다. 동네의 형태가 풀무의 형태

라고도 한다. 지씨(池氏) 성이 많아서 지촌이라고도 불린다.

○ 굴우물

두루미덕에 있던 샘. 바위 가운데 구멍이 굴처럼 뚫려 있는 곳으로부터 물이 나온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노랑새고개

풀무골에서 우고리로 넘어가는 고개.

○ 돌문

마산과 돌모루 중간 섬마을 옆에 있었던 돌문. 그 가운데로 울량천이 흘렀다고 한다.

○ 돌팡모랭이

끝돌모루에 있는 들.

○ 두루미덕

끝돌모루 남서쪽에 있는 야산. 두루미가 많아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 뒷벌

송촌말 북쪽에 있는 들.

○ 마산(馬山)

박다리 남쪽에 있는 산. 석우리에는 대감과 부자들이 많이 살았다고 한다. 어느 날 중이 시주 받으러 이곳으로 왔는데, 한 못된 부자가 “쇠똥도 받느냐”고 물었다. 중이 “시주는 정성입니다”라고 말하니 중을 불러 “쇠똥을 퍼 주라”고 하였다. 쇠똥을 시주하고 중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이곳이 더 부자가 되겠습니까?” 중이 말하길 “울량천의 돌문을 부수어 여기 저기 뿌리고 앞의 산을 터 물길을 내면 더욱 흥하리라”하였다. 이에 마을 사람들이 돌문을 부수고 하나인 산을 둘로 갈라 물 길을 냈다. 그러자 이 마을은 망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런 까닭으로 하나인 산이 마산과 두루미덕으로 나뉘어 졌으며 마산은 망했다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또는 산의 형태가 말모양이라 붙은 이름이라고도 한다.

○ 먹골

밤가시 남동쪽에 있는 골짜기.

○ 밤나무골

윗말 북쪽에 있는 골짜기. 밤나무가 많아 생긴 명칭이다.

○ 뱀밭

밤가시 남쪽에 있는 밭.

○ 성황당

신사래 남서쪽에 있다.

○ 송가골

신사래 뒷산 너머에 있는 골짜기. 옛날 이곳에 송씨들이 살았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울랑천

섬말과 박다리 사이를 흐르는 내.

○ 장박고개

신사래 서쪽에 있는 고개. 고개 위의 산이 장바(큰줄) 모양이라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옛날 가래비를 넘나드는 곳이었으며 가래비시장 밖이라 하여 장박고개라고도 한다.

여

백

제 7 장 백석면(白石面)



해유령 전첩비

여

백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전에는 방축리(防築里)·산성리(山城里)·대오산리(大梧山里)·상가업리(上加業里)·내동리(內洞里)·난곡리(蘭谷里)·내고령리(內高靈里)·마장리(馬場里)·고릉리(古陵里)·홍복리(弘福里)·소오산리(小梧山里)·기곡리(基谷里)·홍동리(弘洞里)·연평리(蓮坪里)·중산리(中山里)·대고령리(大高靈里)·능내리(陵內里)·신지리(莘池里)·하가업리(下加業里)·단촌리(短村里)·천죽리(川竹里)·해유리(蟹踰里)·옹장리(甕場里) 등 23개 리를 두었다.¹⁾

1914년 4월 행정 구역이 전면 개편될 때, 광석면 일패리·이패리·파주군 광탄면 마장리·고양군 신철면 벽제리등 4개 리에서 일부 지역을 떼 내어 백석면에 편입시켰다. 아울러 리 체제를 전면 개편, 방성리·오산리·홍죽리·연곡리·영장리·기산리·가업리·복지리등 8개 리를 두었으며, 면사무소는 오산리에 설치하였다.²⁾

1983년 2월 15일 기산리·영장리 등 4개 리가 파주군으로 이속되었고, 1987년 1월 1일 기산 1리가 다시 환원되었다. 1990년 1월 1일 현재 8개 법정리, 18개 자연리가 있다.

백석이라는 지명은 이곳 산성에 흰돌이 있다 한데서 비롯되었다.

1. 방성리(防城里)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백석면 방축리³⁾·산성리 전부와 고릉리·광석면 일패리 일부 지역을 병합하고, 방축리(防築里)와 산성리(山城里)에서 한 자씩을 따서 방성리라 하였다.

● 고능말[古陵-]

방성리에서 으뜸되는 마을. 능이 있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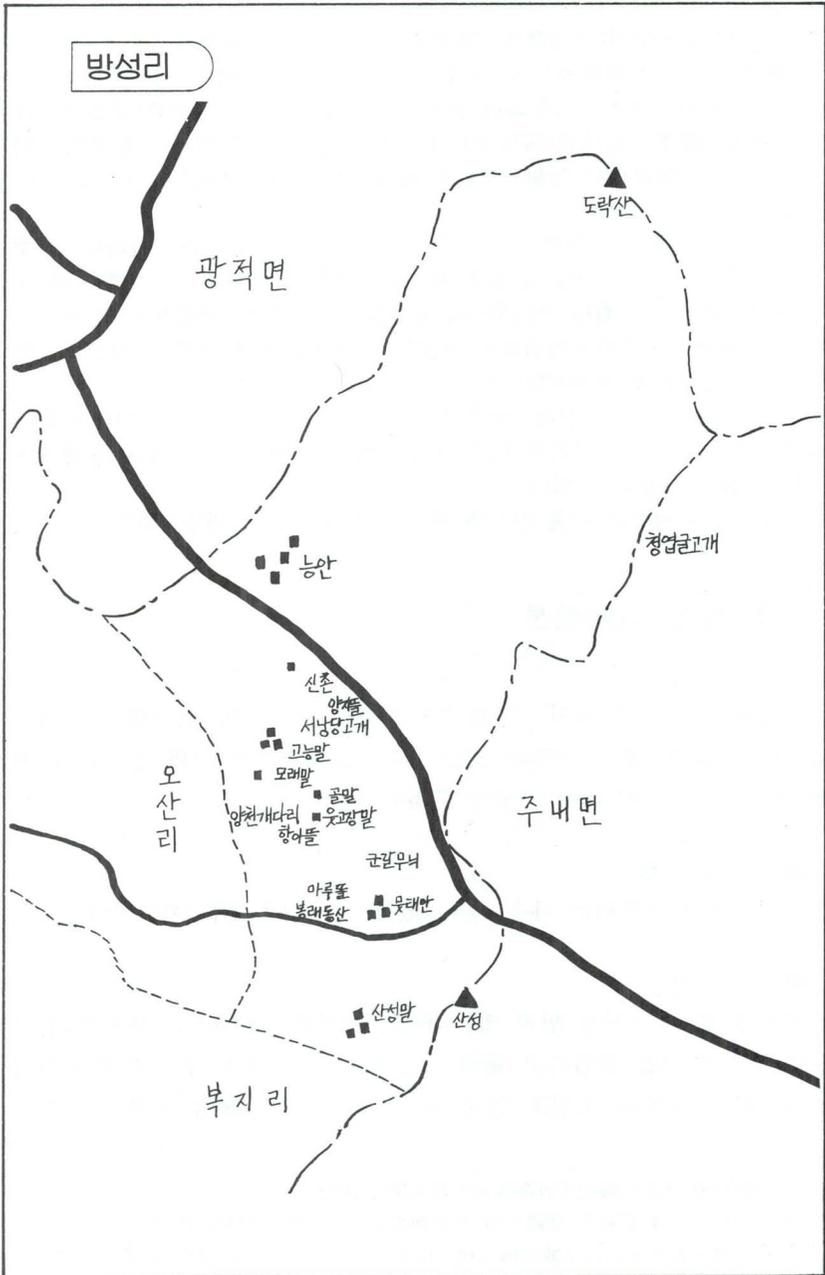
● 고만이안

산성말 앞 대모산성 밑에 있는 마을. 이곳에 ‘고’씨라는 부자가 살았는데 벼 ‘만’석을 하였다고 하여 고자와 만자를 따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이 마을에는 조선조 당시 수백여 호가 번성하며 살고 있었다고

1) 朝鮮總督府,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1912, 15쪽.

2) 朝鮮總督府, 『新舊對照 朝鮮全道 府郡面里洞名稱一覽』, 1917, 124쪽.

3) 앞의 『舊韓國地方行政地域名稱一覽』 15쪽에는 ‘防等里’라고 되어 있다.



한다.

● 골말

고능말 남동쪽 안쪽에 있는 마을.

● 골안바닥

고능말의 안쪽에 있는 마을. 골말의 서쪽이다.

● 능안[陵内]

고능말 안쪽에 있는 마을. 옛날에 밤나무가 많아서 밤나무골로도 불린다.

● 다랫말

고능말 북쪽에 있는 마을.

● 모래말

고능말의 북쪽에 있는 마을. 모래가 많았다고 하며 지금도 땅을 파면 모래가 많이 나온다고 한다.

● 못태안·방축(防築)

고능말 남동쪽에 있는 마을. 부락 앞에 큰 연못이 있었고 연못 뒤에 있는 부락을 못뒷골안이라 하던 것이 발음변화로 못태안이 되었다 한다. 방축둥이라고도 한다. 마을 사람들은 마을 모양이 삼태기 같다고 생각하거나, 김해 김씨·광릉 임씨 외의 타성은 살지 않는다고 하여 무타인이라고도 한다.

● 신촌(新村)

능안 남쪽에 새로 조성된 마을.

● 웃고장말

고능말에서 남동쪽에 있는 마을.

● 중간말

고능말의 가장 중간에 있는 마을.

○ 가운데우물

마을 가운데에 있는 우물.

○ 개논

고능말 남쪽에 있는 논. 옛부터 모가 잘 되고 수확이 좋은 논을 개논이라 불렀다고 한다.

○ 거북바위

방성 5리에 있는 바위. 거북이 등과 같이 생겼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고깔바위

고깔처럼 생겨 이름이 붙은 바위.

○ 고래논

물이 많이 나는 논.

○ 곰잡은골

청려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이곳에서 곰을 잡았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국골

1950년까지만 해도 주로 의정부에서 장을 보아 왔는데 장에 간 남편이나 아낙네가 날이 저물어 돌아 오게 되면 도둑, 강도, 산짐승 등의 공포 때문에 이곳에 와서 군호로 ‘국국’하고 신호를 보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군갈무늬·군장곡(軍藏谷)

못태안 북동쪽에 있는 들.

○ 궁갈문고개

오산삼거리에서 지방도로를 따라 1km 가량 지난 지점. 예로부터 궁갈무늬고개라고 불리어 왔다. 일제시대 총독부에서 금광을 발굴하려고 산허리를 뚫을 때 금가루 무늬가 나왔다 하여 금가루무늬고개·금갈문고개라 하였으나 발음변화로 궁갈문고개로 바뀌었다 한다. 윗나무가 있었다 하여 윗나무베기고개라고도 한다. 지금은 백석주유소가 있을 뿐이다.

○ 김새이골 · 김승골

4리에 있는 골짜기. 김승이 많았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 꽃봉골

방성 4리 호명산 중턱에 있는 골짜기. 옛부터 이곳에 벚꽃나무가 있었으며, 봄이면 꽃이 활짝 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도 여러 그루의 꽃나무가 자라고 있다.

○ 농바위

못태안 동쪽에 있는 바위. 옷장이 진열되어 있는 것 같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능모퉁이

방성 4리 호명산 밑 어둔리·가업리간 도로 바로 위에 자리하고 있는 야산. 옛부터 지관이 능 터를 잡으려다 못 잡은 곳이라 하여 ‘능못 잡은곳’ 또는 ‘능못한곳’이라 하였는데 발음이 변하여 능못탱이, 능모퉁이로 되었다 한다.

○ 대모산

주내면과 백석면 경계에 있는 해발 212.9m의 산. 원래 이름은 퇴미산이었다고 한다.

○ 덕재고개

호명산 서늘 위에 있는 고개. 옛날 마을 사람들은 지계를 지고 호명산을 오르내리며 땀나무를 구하다가 이곳에서 쉬곤 하였다. 이곳의 고개가 크다 하여 큰 ‘德’자를 써 덕재고개라 한다.

○ 도락산(道樂山)

백석면 방성리·회천읍 덕계리·은현면 도하리·광적면 가남리에 걸쳐 있는 높이 441m의 산. 지명유래는 여러가지가 전한다.

① 고려 건국 후, 조정에서 지사(地師)를 시켜 송도 부근 500리 이내의 산천을 답사하였더니 유독 도락산만은 송도를 향해 머리를 조아리고 조례(朝禮)를 하는 것 같다 하여 충신산(忠臣山)으로 불렀다. 그 후 조선왕조가 개창되고 한양으로 도읍이 정해진 뒤, 조정에서 역시 유명

한 지사를 시켜 한양 부근 500리 이내의 산세를 답사한 결과, 모든 산 봉들이 한양 쪽을 향해 조례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산만은 한양을 배반하고 있다 하여 조정에서 산 머리를 치게 했다. 이에 머리가 떨어졌다 하여 두락산(頭落山)이 되었다. 그러다가 약 200년 전에 산 이름이 좋지 못하다고 하여 음이 비슷한 도락산으로 고쳐 불렀다.⁴⁾

② 옛날 모든 산들이 서울 남산을 향하여 줄줄이 이동할 때, 불곡산이 길을 막고 터 주지 않자 화가나서 북쪽(은현면 방향)으로 돌아 앉았다 하여 ‘돌아 앉은산’으로 부르다가 ‘도랍산’ ‘도락산’으로 변하였다.

이곳에는 대장암(大藏岩), 선경암(仙敬岩), 사모암(紗帽岩) 등의 바위와 깃대봉[旗臺峰]이 있다.

○ 도둑굴

방성 4리와 주내면 어둔리 사이에 있는 골짜기. 호명산에서 흐르는 물줄기가 모판산 옷모단(옷방죽)을 향하여 흐르고 있으며, 그 산 골짜기에 옛날부터 도둑이 많았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라 전해진다.

○ 두레우물

산성말에 있는 우물. 두레박을 이용한다고 붙은 이름이다.

○ 마루뜰

못태안 서쪽에 있는 뜰. 뜰이 넓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만수터

방성 4리 호명산 밑의 어둔리·가업리 간 도로 옆에 있는 터. 옛날 황중복가의 선대 묘소 3기가 있던 곳인데, 그 앞에 옷방죽을 만들자 묘소 앞까지 많은 물이 가득 찼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황씨 가문은 물명당자리에 산소를 잡아 후일 정승이 나왔다고 전하여진다. 지금은 개간되어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 망향탑

청엽골 가는 곳 불곡산 입구에 있는 비석. 이북이 고향인 사람들이

4) 양주문화원, 『양주군지』 상, 1992, 42쪽.

세운 비석이라 하며, 평북 박천동산이라고도 한다.

○ 면화개울·메나개울

호명산에서 북쪽 방향으로 내가 흘러 형성된 자그마한 개울. 조선조 말 개울 주변 약 4천여 평에 면화밭이 있어 가을이면 하얀 면화가 눈송이처럼 날려 붙여진 이름이다. 앞에는 산성말이 자리하고 있다.

○ 모우물

산성말에 있었던 우물. 물을 모아서 먹는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지금은 대지로 변하였다.

○ 바가지우물

산성말에 있었던 우물. 바가지를 이용한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지금은 논으로 변하였다.

○ 박석다리

산성말 앞골에 있는 다리. 호명산에서 기원한 물과 동쪽 모판산으로부터 흐르는 물이 산성말 앞골을 지나는데, 옛날에는 다리가 없었으나 이 마을에서 오래 살아 온 밀양 ‘박’씨가 ‘돌’다리를 놓았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방아다리

방앗간이 있었던 다리.

○ 방죽골

도당터·못태안 뒤에 있는 골짜기. 방죽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범바위

청엽골 왼쪽 산등성이에 있는 바위. 옛날 호랑이가 이 바위에서 울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범을산

이곳에서 범이 새끼를 낳았다고 전해진다.

○ 봉내동산

못태안 논 가운데에 있다. 옛날 산소를 쓰려고 땅을 파자 봉 두 마리가 나왔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봉숨아골

못태안에 있는 골짜기. 봉내동산에서 날아온 봉이 숨은 곳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불당골

불당이 있었던 골짜기.

○ 산성·양주산성

백석면 방성리와 주내면 어둔리에 연결하여 있는 성. 대모산의 정상 부를 에워 싸고 있다. 원래 퇴미산이었는데 산성이 만들어진 후 산성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주치소(州治所) 서쪽 5리 지점에 있고 석축이며, 둘레는 9백 6척, 높이는 5척이라 되어 있다.⁵⁾ 대모산성이란 명칭은 ‘대모성’ ‘노고성’ ‘할미성’ ‘마고성’ 등과 상통하는 ‘큰성’이라는 의미의 일반명사일 가능성이 크다.⁶⁾ 산의 형세가 모판 같다 하여 모판산이라고도 부른다.

○ 삼동바위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 바위.

○ 상투봉

고능말 북동쪽 도락산 봉우리 가운데 상투처럼 생긴 봉우리.

○ 서낭당고개

고능말로 넘어오는 고개. 성황당이 있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서돌

호명산 중턱에는 커다란 검은 바윗돌이 수만 개 쌓여 있는데 이곳을 옛날부터 ‘서돌’이라 부르고 있다.

5)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II 경기·충청도, 1967, 266쪽.

6) 양주문화원, 『양주군지』 하, 1992, 136쪽.

○ 세귀배미

논의 귀퉁이가 세 개라서 이름이 붙은 논.

○ 소북뜰

고능말 북동쪽에 있는 들.

○ 쇠뿔바위

여우골에 있는 바위. 쇠뿔같이 생겨 붙은 이름이다.

○ 시루봉

시루처럼 생겨 이름이 붙은 봉우리.

○ 앞골논

산성마을 앞에 있는 논.

○ 양가뫼

산성말의 호명산 긴줄기가 북쪽을 향하여 맥을 이루고 있는데, 이 산을 가리켜 옛부터 양가뫼라 한다. 조선조부터 지금까지 양씨가 묘를 쓰고 있어 양가네 묘, 양가의 묘라 한다.

○ 양지뜰

고능말 북동쪽에 있는 들.

○ 양천개

고능말 서쪽에 있는 들.

○ 양천개다리

양천개에 있는 다리.

○ 양천개울

고능말 앞쪽에 흐르는 작은 내. 신천으로 흘러든다.

○ 여우골

도락산에서 발원한 샘 줄기가 흘러 1km 지점에 있는 골짜기. 옛부터 여우가 많이 살고 밤이면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아 잠을 못 잘 정도였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며 산의 형세가 여우 꼬리를 닮았다고 하여 붙

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 오산삼거리

불곡산과 모판산을 사이에 두고 의정부에서 법원리를 향해 가는 방성 3리에 있는 도로. 감악산으로부터 빼아리(나무단)나 좁쌀을 마차에 싣고 한양으로 가는 길목으로 네 곳으로 길이 나 있어 옛부터 네거리라 하였다. 지금은 주내면 어둔리로 가던 길도 없어졌을 뿐더러, 오산삼거리란 지명으로 바뀌었다.

○ 옥살미

모판산 아래의 넓은 들. 옛부터 구슬 같은 쌀이 난다 하여 구슬 ‘玉’자를 붙인 이름이다.

○ 장안터

방성 4리에 있으며 옛날 성황당이 있던 자리. 이곳은 옛날 가업리와 북지리 주민들 대부분이 의정부를 왕래하던 유일한 통로였다. 조선조 중엽에 시장이 섰다 하여 장안터로 불린다.

○ 진골

긴 골짜기여서 붙은 이름이다.

○ 천냥바위

바위가 아름다워 천 냥을 주고도 못 산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청려골[靑黎谷]

고능말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 명아주가 많고 경치가 매우 아름답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할딱고개

고개를 오를 때 할딱할딱 숨이 가쁘고 힘이 들어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 항아들

고능말 남쪽에 있는 들.

2. 오산리(梧山里)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백석면 신지리 전부와 백석면 대오산리·소오산리·단촌리·고릉리·능내리, 광석면 일패리·이패리 등 7개 리의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오산리라 하였다.

오산의 옛 지명은 고산(孤山)인데, 산이 외따로 떨어져 있어 붙여진 것이다. 또 오미라고도 하는데 ‘미’는 ‘뫼[山]’의 변화로 볼 수 있다.

● 골말

큰오미 동쪽에 있는 마을. 북쪽을 등지고 있고 골이 깊어 붙은 이름이다.

● 넘어말

작은오미에 있는 마을.

● 단촌(短村)

작은오미 북서쪽에 있는 마을. 홍죽천과 신천이 합류되는 지점으로 물줄기가 광석면 경계에서 끊어졌다고 하여 끝 ‘端’자와 마을 ‘村’자를 따서 ‘端村’이라 하다가 ‘短村’이 되었다. 또 하천 물줄기의 소리가 끊어졌다고 하여 ‘절음막(切音莫)’이라고도 불렀는데, 마을 사람들이 단결하여 잘 살라는 뜻에서 ‘결음막’이라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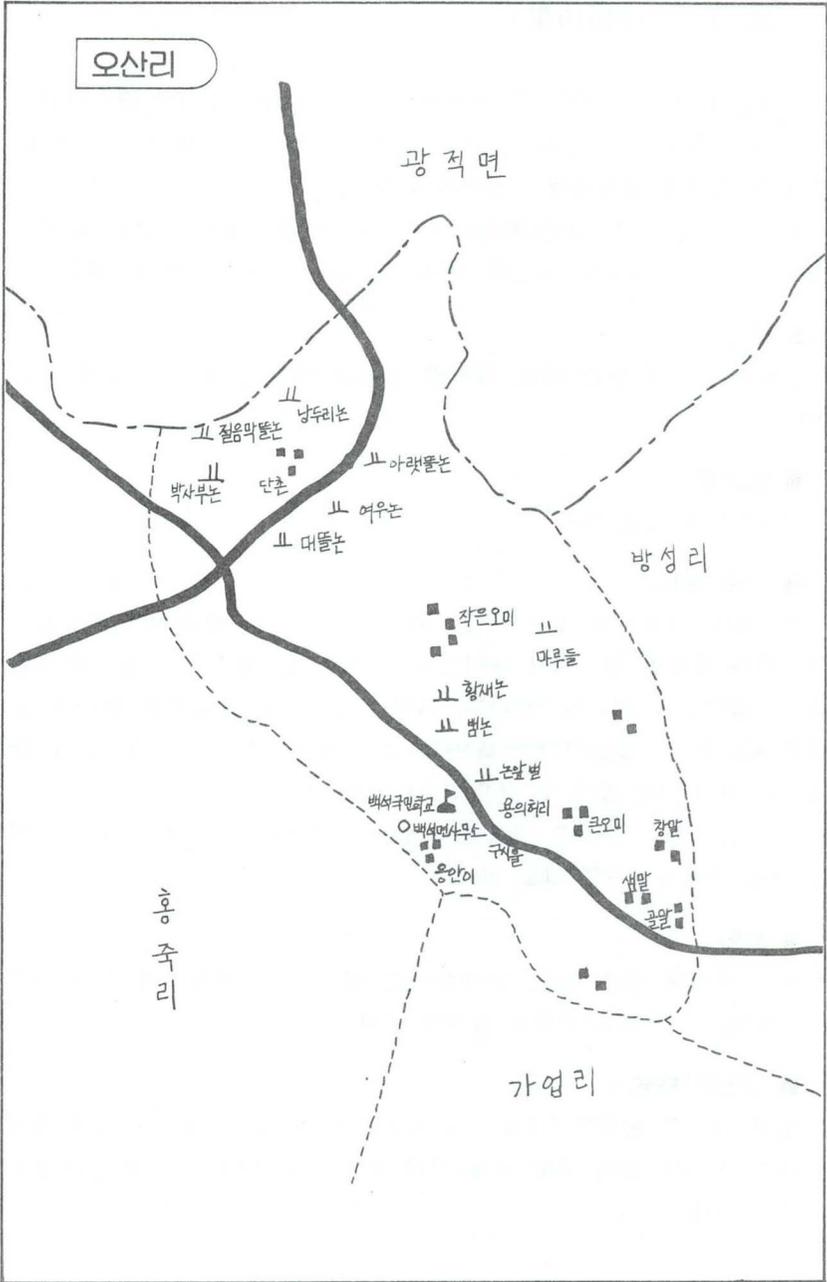
이 마을에서는 우물을 만들면 사람들이 죽는다고 하여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울물을 먹었다고 한다.

● 샘말

골말 서쪽에 있는 마을. 만병통치의 샘물이 논 가운데에 있어 붙은 이름이다. 무병(無病)마을로 알려져 있다.

● 웅안이[梧安-]

오산 남서쪽 백석면사무소가 주재하고 있는 마을. 뒷산에 흔히 기러기떼가 앉는다 하여 웅안(雍雁)이라 하였는데, 발음과 한자말이 모두 변한 것이다.



● 작은오미 · 소오산(小梧山)

대오산 북서쪽에 있는 마을. 박석고개라고도 한다. 위쪽에 있는 윗말, 중간에 있는 중간말, 아래쪽에 있는 아랫말, 넘어말(넘말) 등을 합쳐 소오산이라 한다.

● 창말

골말 건너편에 있는 마을. 옛날 병기와 군수품 창고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 큰오미 · 대오산(大梧山) · 고산(孤山)

오산리의 큰 마을. 약 90년 전에는 대고산(大孤山)이라 불려졌으나 부르기 좋게 대오산(大梧山)으로 변하였다 하며, 산 하나가 외롭게 떨어져 있고 꼬리 형상을 하고 있어 고미(孤尾)라고도 한다. 골말 · 창말 · 샘말을 합쳐 대오산이라 한다.

○ 구렁행길

큰오미 서쪽에 있는 길. 양쪽으로 산이 이어져 있고 구비구비 휘어진 모양이 마치 구렁이 모습 같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구시울

큰오미에서 백석면사무소 방향에 있는 골짜기.

○ 국논

백석면사무소 남동쪽에 있다.

○ 낭두리논

단촌에서 조양국민학교로 가는 도로변 왼쪽에 있는 논.

○ 논앞벌

백석국민학교 건너편에 있는 들.

○ 늑골

단촌 북쪽에 있는 논. 늑긱이라고도 한다. 땅이 거칠어서 제일 늦게 모를 낸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탁신자골

큰오미 서쪽에 있는 골짜기.

○ 당재고개

큰오미에서 남쪽 북지리로 가는 고개. 성황당이라고도 부른다.

○ 대들

작은오미 북서쪽에 있는 들. 들판이 매우 광활하고 크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대들논

단촌 남쪽에 있는 논.

○ 동네뿌리

백석국민학교 건너편 북동쪽에 있는 산. 동네 제일 끝에 우뚝 솟아 있어 붙은 이름이다.

○ 떡논

오산 2리에 있는 논. 떡 한 말과 이 논을 바꾸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 똥논

백석면사무소 남동쪽에 있는 논.

○ 마루들

작은오미 동쪽에 있는 들. 지대가 높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모래풀

큰오미 북쪽에 있는 밭.

○ 박사부논

단촌 서쪽에 있는 논.

○ 박석고개

지금의 세아아파트 지역에 있었던 고개. 풍산 홍씨 묘를 쓴 후 산맥이 끊어지지 않게 구들 같은 돌을 달아 놓았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지금은 형체를 찾아볼 수 없다.

○ 방아다리

연자방아가 있었던 다리. 일제시대에 백석교로 고쳤다고 한다.

○ 백중논

큰오미 남쪽에 있는 논. 이곳에서 난 쌀로 밥을 해 먹으면 백발백중 죽는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뱀논

백석국민학교 건너편 북동쪽에 있는 논. 하천을 따라 뱀같이 길고 좁은 논이라 붙은 이름이다.

○ 분턱골

큰오미 서쪽에 있는 골짜기.

○ 사태밀

큰오미에서 북지리로 가는 길. 비만 오면 산사태가 많이 난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송충들

오산 2리 동쪽에 있는 논. 소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지금도 소나무가 썩어서 된 토탄이 나온다고 한다.

○ 수렁논

큰오미의 남동쪽에 있는 논.

○ 식혜배미

큰오미의 북동쪽에 있는 논. 이곳에서 나는 쌀로 식혜를 만들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아랫뜰논

단촌에서 조양중학교로 가는 도로편 우측에 있는 논.

○ 양가메이뿌리

오산삼거리에서 150m 떨어진 천성농원 우측의 터진 담 모퉁이에 있다.

- 여우논 ,
단촌 남쪽에 있는 논. 옛날에는 야산으로 여우가 많이 살았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웅안리 앞골
큰오미 남쪽에 있는 논.
- 웅의 허리
백석국민학교 건너편 동쪽에 있는 등성이. 웅안리 뒷등이라고도 한다.
- 절음막뜰논
단촌 북서쪽에 있는 논.
- 정양터
큰오미에 있는 골짜기.
- 축등
큰오미 북서쪽에 있는 논.
- 황새논
작은오미 남쪽에 있는 논. 황새가 많았던 곳이라 붙은 이름이다.

3. 복지리(福池里)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백석면 홍복리 전부와 백석면 신지리·대오산리·상가업리 3개 리의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복지리라 하였다. 지명은 홍복리(弘福里)와 신지리(莘池里)에서 한 자씩 따서 복지리(福池里)라 하였다.

- 건너말
신지 건너쪽에 있는 마을.
- 대장간
셋말 북쪽에 있는 마을. 옛날에 대장간이 있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셋말**

신지와 섬말 사이에 있는 마을.

● **섬말**

신지의 가운데 있는 마을. 몇 채 안 되는 집들을 논이 둘러싸고 있으며 다른 마을과는 외따로 떨어져 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신지(莘池)**

북지리에서 으뜸되는 마을. 못이 있고 주위에 아름다운 개나리 나무가 있다 하여 생긴 이름이다. 마을 사람들은 아랫말 느티나무 아래에 연못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 **아랫말**

대장간 북쪽에 있는 마을.

● **양촌(陽村)·월촌(越村)**

호명산과 한강봉 사이에 홍북에서 발원한 내로 인해 동서로 갈리어 있는 마을. 동쪽에 있는 마을은 서쪽으로 넘어가는 햇빛이 하루 종일 비친다고 하여 양촌이라 하였으며, 서쪽 마을은 햇빛이 일찍 넘어가고 개울을 넘어 다닌다고 하여 월촌이라 불렀다고 한다. 지금은 두 명칭이 모두 사라졌다.

● **윗말**

신지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마을.

● **홍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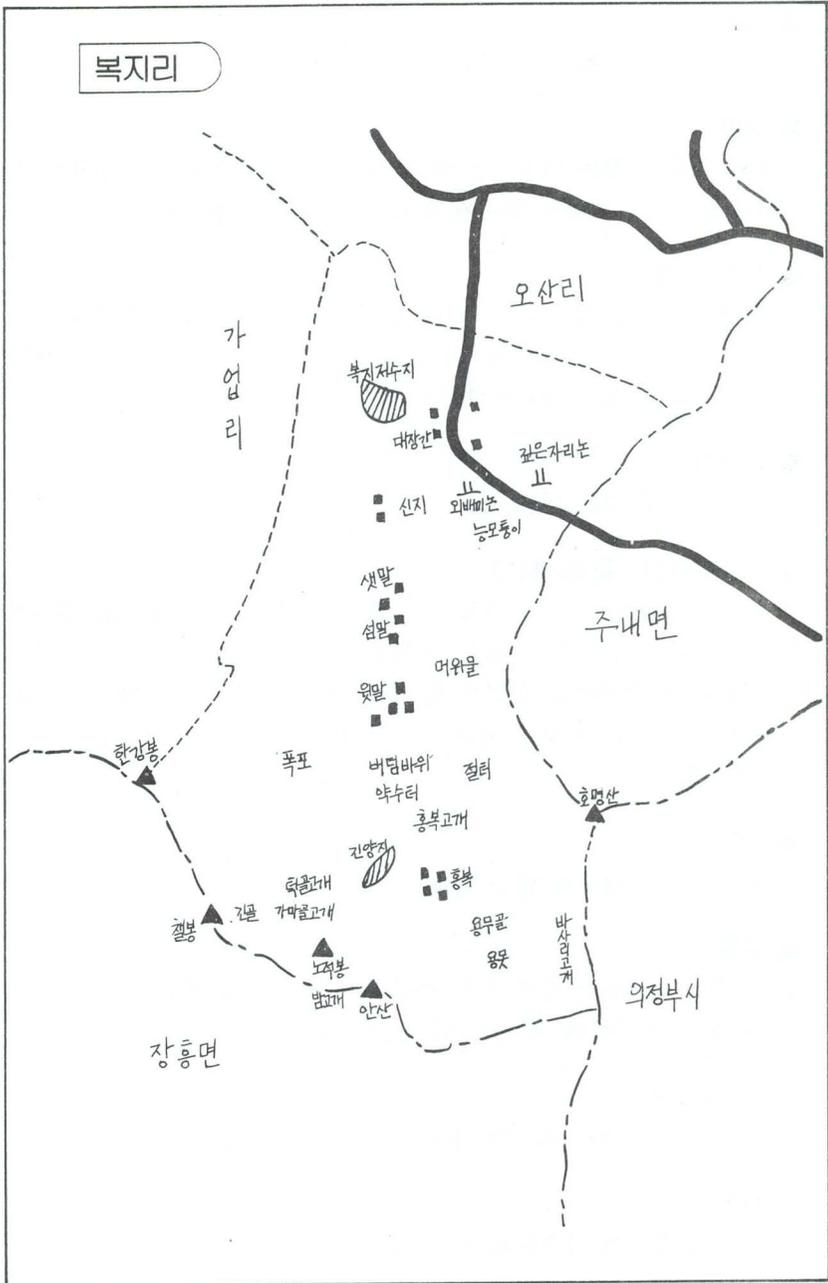
신지 남서쪽 홍북산 밑에 있는 마을. 이 마을은 큰 복을 받는 부락이라 하여 붙인 이름이다. 분지에 있고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 **가마골고개**

복지 2리에서 가마골로 넘어가는 고개.

○ **국논**

백석면사무소에서 북지리로 오는 도로 우측에 있는 논.



○ 긴골

첼봉 동쪽에 있는 골짜기.

○ 긴양지

홍북 서쪽에 있는 능선. 능선이 길고 하루 종일 햇볕이 들어 붙은 이름이다.

○ 깊은자리논

북지리에서 어둔리로 가는 도로 좌측에 있는 논. 논이 깊어 붙은 이름이다.

○ 노라바위

바위 위에 모여 늘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노적봉

첼봉 동쪽에 있는 봉우리. 노적을 쌓아 놓은 것 같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노지(蘆池)

북지리 또는 가업리에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못. 주치소(州治所) 서쪽 10리 지점에 있다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북지리 또는 가업리에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⁷⁾

○ 능모퉁이

북지리에서 어둔리로 가는 도로 우측에 있다. 조선조 때 이곳에 능을 만들려다 취소한 곳이라고 한다.

○ 당모랭이

오산리에서 북지리로 오는 도로 좌측에 있다.

○ 돼지물굴

홍북 서쪽에 있는 골짜기. 멧돼지가 많았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7) 민족문화추진회, 앞의 책, 244쪽.

- 똥논
백석면사무소에서 북지리로 오는 도로 우측에 있는 논.
- 머위물
머위나물이 많이 나서 붙은 이름이다.
- 밤중논
신지 북동쪽에 있는 논. 토질이 좋지 않아 일을 나가면 밤중까지 해 지는 것도 모르고 일을 한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바사리고개
북지리 용무골에서 의정부시 입석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성황당이 있었다고 한다.
- 밭고개
홍북에서 장흥면 부곡리로 넘어가는 고개. 밤나무가 많아 붙은 이름이다.
- 버팀바위
홍북고개 북쪽 왼쪽에 있는 바위. 막대기를 이 바위 틈새에 끼워서 맞으면 아들이고 안 맞으면 딸이라고 한다.
- 불당골
셋말에서 어둔리쪽에 있는 골짜기.
- 삼밭골
신천 개울을 따라 호명산으로 향해 있는 삼각형의 골짜기. 신천의 본 줄기이며 조선조 이 근방에 삼밭이 골짜기를 이루고 있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셋고래
섬말과 셋말 사이에 있는 논.
- 신지고개
신지에서 홍북으로 넘어가는 고개.
- 신지고개논

신지고개 남쪽에 있는 논.

○ 안산

홍북 남쪽 장흥면 경계에 있는 산. 앞산이 안산으로 변한 것이라고 한다.

○ 앞자리는

홍북 남쪽에 있는 논.

○ 약수터

신지에서 홍북으로 가는 고개에 있는 약수터. 뼈에 금 간 것을 치료하는 산골이라는 생물체가 물 속에 살고 있어 산골약물터라고도 한다.

○ 약수터절

홍북고개 약수터 위에 있었던 절.

○ 어룽

용무골에 있다.

○ 외배미논

북지리에서 어둔리로 가는 도로 중간 우측에 있는 논.

○ 용못

홍북저수지 남쪽에 있는 연못.

○ 용무골

홍북저수지 북쪽에 있는 골짜기.

○ 웃말논

홍북 서쪽에 있는 논.

○ 절골

홍북 동쪽에 있는 골짜기. 절이 있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절이 빈대로 인해 없어졌다고 한다.

○ 절터

신지고개 동쪽에 있는 터. 절터가 있었다고 한다.

○ 첼봉

홍북리와 장흥면 경계에 있는 높이 516m의 산. 일명 제일봉이라고도 한다. 옛 족보에는 차일봉(遮日峰)으로 기록되어 있다. 차일이 첼로 발음변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 큰골

신지 남쪽의 큰 골짜기.

○ 턱골고개

북지리에서 기산리 턱골로 넘어가는 고개.

○ 호명산(虎鳴山)

방성 4리와 북지리 남쪽에 걸쳐 있는 산. 산세가 좋고 ‘상살미’라는 12골의 골짜기가 있는데 산세가 매우 험하여 각종 산짐승이 서식하였다. 특히 호랑이가 많아 밤이면 잠을 못 이루도록 슬피 울었던 곳이라 하여 호랑이 ‘虎’자와 울 ‘鳴’자를 써서 붙인 이름이다. 상봉에 봉화등도 있다.

○ 흥복고개

신지에서 흥북으로 가는 고개. 흥북에서는 신지로 넘어간다고 하여 신지고개라고 한다.

○ 흥복산(弘福山)

백석면과 의정부시 경계에 있는 높이 347m의 산. 서울의 주산으로서 만 백성들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종루처럼 생겨서 온 겨레를 깨우쳐 준다 하여 종루봉(鐘樓峰), 이 산이 보이는 곳에 문장가, 명필이 많이 난다 하여 필봉(筆峰)이라고도 한다. 남면 상수리에 사는 홍씨 선조가 서울에서 낙향하여 살 곳을 정할 때 이 산마루에 올라가서 살펴보니 남면 상수리가 제일 적지라 생각되어 자리잡고 살았더니 자손도 번성하고 출세도 잘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홍씨 번영지(繁榮之地)를 발견한 산이며, 홍씨에게 복을 준 산이라 하여 흥복산(洪福山)이라고도 한다.

4. 가업리(加業里)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백석면 하가업리 전부와 백석면 상가업리·소오산리·단촌리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가업리라 하였다. 가래밭이 있어 가래비가 되었다가, 한자말인 가업리로 변하였다고 한다. 백석과 광적을 둘러싼 산 아래에 가래비와 유사한 이름을 가진 동네들이 많아, 12가래비가 있었다는 말이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진다.

● 건너말

윗가래비의 서쪽 건너에 있는 마을.

● 골말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

● 넘말

중간말 너머에 있는 마을.

● 뒷골

아랫가래비 서쪽에 있는 마을.

● 뒷말

윗가래비의 건너말 북쪽에 있는 마을.

● 아랫가래비[下加業]

윗가래비 북쪽 가업 2리 지역에 있는 마을.

● 양지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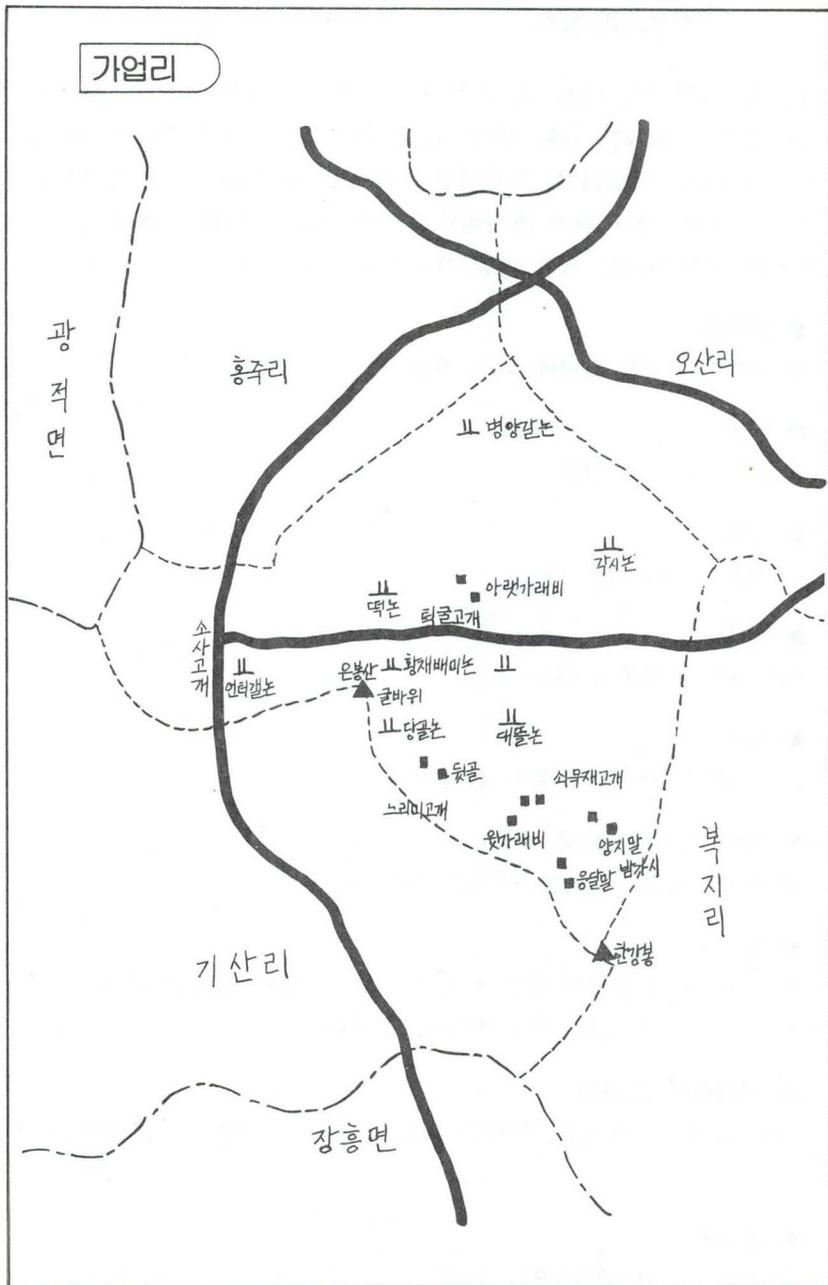
윗가래비의 북동쪽에 있는 마을. 양지쪽에 있어 붙은 이름이다. 응달말과 넘말 사이에 있어 중간말이라고도 한다.

● 윗가래비[上加業]

가업 1리에 있는 마을. 양지말·넘말·응달말을 합쳐 윗가래비라고 한다.

● 응달말

윗가래비의 남동쪽에 있는 마을. 응달쪽에 있어 붙은 이름이다.



○ 가나뭇재고개[加峴]

응달말에서 북지리 신지로 가는 고개. 응달말고개라고도 한다.

○ 각시논

윗가래비 동쪽에 있는 논.

○ 갓마바위

느르미고개 중턱에 있는 바위. 갓모처럼 생겨 붙은 이름이며 노고할 머니가 치마로 움겼다고 하여 일명 치마바위라고도 한다.

○ 갓마바위골

갓마바위가 있는 골짜기.

○ 거물논

거머리가 많아 이름 붙은 논.

○ 고상절

은봉산에 있었던 절. 옛날에 절이 있던 자리라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굴바위

은봉산에 있는 바위. 굴이 뚫려 있어 붙은 이름이다.

○ 췌골

소귀(소죽통)같이 생겨 붙은 골짜기 이름.

○ 긴등

삿갓바위골로부터 양지말까지 이어진 능선. 능선이 길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마을 사람들은 소혈(穴)이라고 하며, 매년 10월 1일 고사를 지낸다. 지형이 와우형이라 옛날 마을 사람들은 기와집을 못 지었다고 한다.

○ 콩지밭

양지말에 있는 밭. 소꼬리같이 길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느르매기

아랫가래비 북동쪽에 있다.

○ 느르미고개[獐峴]

가업리 남서쪽에서 기산리 턱골로 가는 고개.

○ 당골

아랫가래비 남쪽에 있는 논.

○ 대들

아랫가래비 남동쪽에 있는 들. 큰 들이라 생긴 이름이다.

○ 뒷박골

뒷박같이 생겼다 하여 붙은 골짜기 이름.

○ 떡논

윗가래비 서쪽에 있는 논. 예전에 9마지기 논을 떡과 바꾸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맷돌바위

은봉산에 있는 바위. 옛날 호랑이가 이곳에 있는 동굴에 빠져 죽었다고 하여 호랑이바위라고도 한다.

○ 물뱀저수지

물뱀이 많아 붙은 저수지 이름.

○ 바위배기

당골에 있는 논. 논 가운데에 바위가 있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지금은 없어졌다.

○ 밤가시

윗가래비 남쪽에 있는 골짜기. 밤나무가 많았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방굴

아랫가래비에서 황재배미논보다 더 남쪽에 있는 논.

○ 뱀밭

아랫가래비 동쪽에 있는 밭. 밭이 길어서 붙은 이름이다.

○ 벌판밭

가나뫼재고개 너머에 있는 들.

○ 병양갈논

아랫가래비 북동쪽에 있는 논.

○ 부엉이묘

은봉산 맨 꼭대기에 있는 묘. 옛날 어느 집에서 장사를 치르는데 지관이 말하기를 “이곳을 파고 바윗돌이 나오면 시신을 그 위에 올려 놓고 묻으라”고 하였다. 그러나 자손들은 시신을 돌 위에 올려 놓고 묻을 수 없어 바윗돌을 들어내었더니 마침 부엉이 3마리가 이곳에서 날아갔다고 한다. 그 후 이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지금은 군용 헬기장이 들어서 반쪽만 남았다.

○ 산앞 샷갯벌

윗가래비 남쪽에 있는 들.

○ 삼형제바위

은봉산에 있는 바위. 세 개의 바위가 형제처럼 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상구너미

넘말에서 기산리 턱골로 가는 고개.

○ 성황덩이

가나뫼재고개 너머에 있다.

○ 쇠목재고개

윗가래비쪽에 있는 고개. 쇠목(소의 목)같이 생겨 붙은 이름이다.

○ 쉼바위

느르미고개 중턱에 있는 바위.

○ 앵두논

아랫가래비 북동쪽에 있는 논.

○ 언터겔논

아랫가래비에 있는 논.

○ 언터겔밭

아랫가래비에 있는 밭.

○ 언턱가리

윗가래비와 아랫가래비 사이에 있는 논.

○ 역두리

아랫가래비 동쪽에 있는 밭.

○ 웅안리등

가업리에서 오산리로 넘어가는 고개.

○ 은봉산(隱鳳山)

가업리와 기산리에 걸쳐 있는 높이 397.8m의 산. 일제시대 일본인들이 이곳에서 은을 채굴하였다고 하며, 지금도 은봉산 중턱에는 당시 찢던 은굴이 있다고 한다. 1842년 경 간행된 『읍지』에는 은봉산(隱峯山)으로 되어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서 산제사를 지낸다.

○ 진틀

아랫가래비 북동쪽 병양같은 옆에 있다.

○ 진틀다리

가업리와 오산리 사이에 있는 다리.

○ 턱굴고개

아랫가래비에 있는 고개.

○ 한강봉

가업리·기산리·북지리에 걸쳐 있는 높이 436m의 산. 산꼭대기에 오르면 한강이 보인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옛날 이곳에서 봉화를 올렸다고 하여 봉화등이라고도 한다.

○ 혼두리

아랫가래비 동쪽에 있는 논.

○ 황재배미

아랫가래비 남동쪽에 있는 논.

○ 흙구덩이

가나못재고개 너머에 있는 구덩이. 마을 사람들이 마당을 들일 때 이곳에서 흙을 파 왔다고 하여 붙인 이름이다.

5. 홍죽리(弘竹里)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백석면 내동리·홍동리·천죽리 전 지역과 백석면 난곡리·단촌리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홍죽리라 하였다. 홍죽리라는 지명은 홍동리(弘洞里)와 천죽리(川竹里)에서 한 자씩을 따서 지은 것이다.

● 고말재

안골 동쪽에 있는 마을.

● 골말

홍골 북쪽에 있는 마을. 골짜기에 있어 붙은 이름이다.

● 냇대

홍골 북쪽에 있는 마을. 동쪽 내에 희귀한 대나무가 있었다 하여 생긴 이름이다. 냇은 내 ‘川’을, 대는 대 ‘竹’을 가리켜 천죽(川竹)이라고도 한다. 또는 임진왜란 당시 왜병들이 연곡리 피난말에서 싸우다 이곳으로 냇대 도망쳤다 하여 냇대라고 하였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 북촌

홍골 북쪽에 있는 마을.

● 안골[內洞]

홍골에 있는 마을. 홍골 안쪽에 있어 붙은 이름이다. 산 밑의 아담한 부락이라 하여 생긴 이름이라고도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윤자운 묘 위치 설명에 의하면 내죽(乃竹)리라고 되어 있다.⁸⁾

8) 민족문화추진회, 위의 책, 266쪽.

● 홍골 · 홍동

홍죽리에서 으뜸되는 마을. 인근 부락 중에서 가장 크다 하여 홍골이라 부른다.

○ 거지고개

홍죽 1리에 있는 고개. 쌀을 얻으러 왔던 거지가 얼어 죽어 이곳에 묻혔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계명산

월암산과 팔일봉 사이에 있는 산.

○ 농바위

월암산 중턱 북쪽에 있는 바위. 장롱처럼 넓적하게 생겨 붙은 이름이다. 옛날 장수들이 갑옷을 벗고 쉬어갔다 하여 장군바위라고도 한다. 위에서 발을 구르면 이상한 소리가 난다 한다.

○ 도장재

토성너머 남쪽에 있는 산. 도장을 엮어놓은 것 같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말무덤

활터고개 남쪽에 있었던 무덤. 임진왜란 당시 왜병들의 말을 묻었다 고 전해진다.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 매봉재

월암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매가 많이 살아 붙은 이름이다.

○ 바우배기

넙대 북쪽에 있는 논. 논 가운데에 바위가 9개 있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며 지금은 없다.

○ 박사부다리

강철이개울에 박씨 성을 가진 부자 과부가 놓은 다리.

○ 방울다리

연곡국민학교 앞에 있는 다리. 이 지명과 관련된 유래로 두가지가 있

다. ① 평사냥 하던 매의 방울이 다리에 떨어졌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② 하나의 돌로 가운데가 볼록하게 방울같이 놓여 있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뱀자고개

홍골에서 안골로 넘어가는 고개. 길이 뱀처럼 구불구불하고 험하여 붙은 이름이다.

○ 분투골

기산리와 오산리를 연결하는 도로에서 냇대로 들어오는 길목에 있다. 옛날 동네에 전염병이 돌아 죽은 사람들을 이곳에 묻었다고 한다.

○ 산잔등

홍골과 냇대 경계 지점에 동서로 길게 자리잡고 있는 동산. 산이 말잔등처럼 생겨 붙은 이름이다.

○ 삼형제바위

큰 바위 세개가 나란히 있는 바위.

○ 쇠망토산

홍골 남서쪽에 있는 야산. 쇠망터라고도 한다.

○ 안산

홍골 남쪽에 있는 산.

○ 애비당골

냇대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

○ 와우고개[臥牛峴]

안골에서 광적면 비암리로 가는 고개. 소가 누워 있는 듯한 모양을 하고 있어 붙은 이름이다. 와우개·하우고개라고도 한다.

○ 요강골

월암산 너머 비암리 쪽에 있는 골짜기. 요강처럼 우뚝하게 생겼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월암산

넙대 북서쪽에 있는 산. 산에 바위가 많아 밤에 뜨는 달빛이 바위에 반사되어 그 색채가 아름답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마을 사람들이 매년 10월 1일 이곳에서 산제사를 지낸다. 이 산에 등잔혈이라는 묘자리가 있는데, 이곳에 묘를 쓰면 그 후손들만 번창하고 다른 사람들은 질병과 가난에 시달린다고 하여 사람들이 그곳의 묘를 다 없애버렸다고 한다. 「양주군도」에는 노아산(老兒山)으로 표기되어 있다.

○ 육골고개

월암산 너머 비암리쪽에 있는 고개. 고개가 길어서 옛날 나무꾼이 여섯번 이상 쉬지 않으면 골병이 든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장자우물

분투골에 있는 우물. 헌집터의 부자가 망할 때 구리 암반(떡치는 판)을 묻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진배동산

산잔등 오른쪽에 있는 능선. 긴 배모양을 하고 있어 붙은 이름이다. 한자말로 장주산(長舟山), 우리 말로 긴배가 발음변화된 것이다. 진비동산이라고도 한다.

○ 질묵다리

넙대에 있는 다리. 이 지명과 관련된 유래로는 다음과 같다. ① 소질묵(길마의 사투리)에 짐을 싣고 이 다리를 통과한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② 이 근방의 흙이 너무 찰지고 질어서 신발에 묻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도 한다.

○ 집너머

홍골의 안산 남쪽에 있는 논고래. 집 너머에 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철망안

헌집터에 있었던 과수원. 철망으로 둘러쳐져 있어 붙은 이름이다.

○ 축동

철망안 옆에 있다. 아래쪽에 연못이 있어 붙은 이름이다.

○ 토성너머

넙대 남동쪽에 있다. 지금은 밭으로 변하였다.

○ 한우물

홍골에 있는 우물. 물이 매우 차서 찰 ‘寒’자를 붙인 이름이다.

○ 할딱고개

넙대 동쪽에 있는 고개. 고개의 경사가 너무 심하여 사람들이 할딱거리며 넘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함박다리

홍골에 있는 다리. 이 마을에 많이 살던 한씨와 박씨가 처음으로 놓은 다리라고 하여 한박다리라고도 한다.

○ 해몰이산

월암산 중턱 남쪽에 있는 봉우리. 해가 산을 돌아가면서 비취 항상 그늘이 진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헌집터

넙대에 있는 집터. 임진왜란 전에 높은 벼슬하던 사람이 낙향하여 3층 기와집을 짓고 살았는데, 의병들을 숨겨주어 왜병들이 불을 질렀다고 전해진다. 지금도 주춧돌을 볼 수 있고 사기그릇 조각들이 나온다.

○ 활터고개

넙대 입구에 있는 고개. 옛날 마을 사람들이 활을 쏘던 자리라고 한다.

6. 연곡리(蓮谷里)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백석면 해유리(蟹踰里) 전 지역과 연평리(蓮坪里)·난곡리(蘭谷里) 일부 지역을 병합하고, 연평리와 난곡리에서 각 한 자씩을 따서 연곡리라 하였다.

● 게너미[蟹踰]

난곡 북쪽에 있는 마을. 게가 양주에서 파주로 넘어갔다고 하여 게너미라고 하였다.

● **골말**

지령산 밑에 있는 마을. 게너미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 **난곡·피난말**

연곡 1리에 있는 마을. 난이 많이 자생하는 아름다운 부락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또는 임진왜란 당시 왜적이 피를 토하고 죽은 곳이라 하여 피가 난 마을, 혹은 피난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무사히 피했던 마을이라 하여 피난말이 되었다고도 한다.

● **능무랭이**

난곡 남쪽에 있는 마을. 마을에 있던 느티나무에서 뱀이 많이 나와 능구렁이라고 불렀는데, 발음변화로 인해 능무랭이가 되었다.

● **도축골**

게너미에서 잼말 동쪽에 있는 마을. 조선조 중엽 광적면 우고리와 백석면 연곡 2리의 경계인 함정모퉁이라는 곳에 도둑떼가 들끓었는데, 부락민들이 도둑을 쫓은 곳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 전해온다. 도치골이라고도 한다.

● **두레마을**

연곡 1리에 있는 마을. 최근 장애자들이 들어와 마을을 꾸몄다고 한다.

● **매장거리**

해유령전첩비 옆에 있는 마을. 매쟁이·매장간 등으로 불린다. 옛날 의정부·동두천 방면에서 문산쪽으로 소금, 새우젓 등을 사고 팔러 다니는 행객들이 이곳을 많이 드나들었는데, 이곳에서 쉬어 갔기 때문에 ‘매일 장날’이라고 한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 **상장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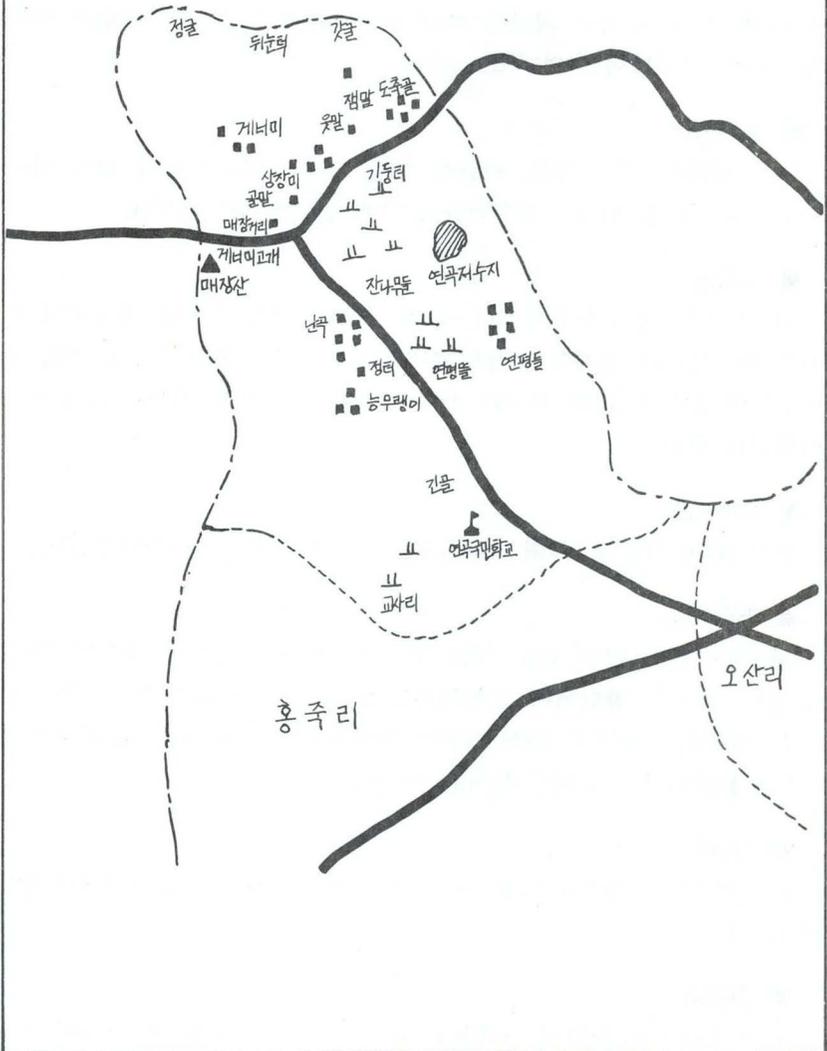
해유령전첩비 동쪽에 있는 마을. 뒤쪽에 상장산(上場山)이 있어 붙은 이름이다.

● **연평들**

난곡 동쪽 평야지대에 자리하고 있는 마을. 옛날부터 난과 연이 많이

연곡리

광 직면



있었고 연못도 있다. 연평이라고도 부른다.

● **웃말**

게너미에서 잼말 서쪽에 있는 마을.

● **잼말**

게너미에서 웃말과 도축골 사이에 있는 마을.

● **정터**

난곡 남동쪽에 있는 마을. 싸움터라 ‘전(戰)터’라 하였는데 발음이 변하여 정터로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임진왜란 때 신각장군이 진을 친 곳이라고 하여 진터라고도 부른다. 한·안·조씨가 맨 처음 들어와 살았다고 하여 한안조마을이라고도 한다.

○ **갯굴**

웃골안 우측에 있는 골짜기. 광적면 우골 방향이다. 가풀이라고도 한다.

○ **강철이개울**

난곡 우측에 있는 개울. 강철이가 떨어져 죽은 개울이라 붙은 이름이다.

○ **게너미고개**

게너미에서 광적면 비암리로 가는 고개. 옛날 노고할머니가 노고산과 도락산의 봉우리에 다리를 걸치고 앉아 오줌을 누는데, 게가 다리를 물어 그 게를 집어던졌다고 한다. 그 게가 파주로 넘어간 고개라고 하여 게 ‘蟹’자를 쓰게 된 것이라 한다.

○ **과녁배기**

활터의 과녁이 있었던 논.

○ **교사리**

연곡국민학교 앞의 논.

○ **기둥터**

웃말에서 도로 건너 남쪽에 있는 논.

○ 긴골

연곡국민학교 좌측에 있는 골짜기. 긴 골짜기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 까마귀들은

한섬지기는 남동쪽에 있는 논. 옛날 이 마을에 저수지가 없을 때 농사를 짓지 못하고 까마귀만 날아들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항상 물이 없어 다른 논은 모를 다 내도 이곳만은 모를 못 내 까맣게 보여 붙은 이름이라고도 한다.

○ 뒤눈턱

정굴 우측에 있는 골짜기. 광적면 우골 방향이다. 뒷산 밑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뒤눈턱밭

뒤눈턱 골짜기 쪽에 있는 밭.

○ 마을앞논

게너미 앞에 있는 논.

○ 말무덤

진터에 있는 무덤. 언제인가는 잘 모르지만 죽은 말들을 묻은 곳이라 하여 생긴 이름이다. 지금은 마을이 들어서 있다.

○ 매장산

해유령전첩비 맞은 편이 산.

○ 모래논

소물은 남쪽에 있는 논. 장마 때 홍수로 모래가 밀려들어서 만들어진 논이다.

○ 무명바위

능무랭이 뒤쪽에 있는 바위. 석수쟁이가 바위를 깨니 그곳에서 피가 흘러 깨기를 그만두었다고 한다.

○ 묵은논

자라등뿌리 남쪽에 있는 논.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짓지 못하고 묵힌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방아다리

연곡 2리에 있는 다리. 80~90년 전 연자방앗간이 있었던 곳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방죽논

방죽으로 막았다 하여 붙은 논 이름.

○ 사당골

계너미 뒤편 서쪽에 있는 골짜기.

○ 상정리

갓굴 우측에 있는 골짜기. 광적면 소가리 방향이다.

○ 섬샘논

기둥터 남쪽에 있는 논. 비만 오면 물이 많이 나와 피해를 준다고 한다.

○ 소물논

섬샘논 남쪽에 있는 논. 소가 잘 빠져 붙은 이름이다.

○ 쌍감덩이

계너미에서 비암리 방향으로 가장 서쪽에 있는 골짜기.

○ 안우물

들 틈에서 나오며 겨울에도 얼지 않는 우물. 이 물을 먹고 장사가 낫다는 이야기가 전해 온다.

○ 연평들

들이 넓어 이름 붙은 들. 이곳에 우물이 있어 연평뜰 우물이라 하며, 옛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이 물을 먹었다고 한다.

○ 웃골안

뒤편 우측에 있는 골짜기. 광적면 우골 방향이다.

○ 자리등밭

연곡 1리에서 2리로 가는 도로 옆에 있는 밭. 옆산의 형세가 자리 등
과 같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자리등뿌리

난곡 북동쪽에 있는 모퉁이.

○ 잔나무들

모래논 남쪽에 있는 논. 논 가운데 잣나무가 있어 잣나무뜰 논자리라
고도 한다.

○ 재장나무자리논

모래논 남동쪽에 있는 논. 자작나무 밑에 자리하고 있어 붙은 이름이다.

○ 잼말우물

잼말에서 도로 건너 남쪽에 있는 우물.

○ 정굴

쌍감태이 우측에 있는 골짜기. 광적면 안세오개 방향이다.

○ 지령산

골말 북쪽에 있는 산. 지영꼴이라고도 한다.

○ 청옹뿌리밭

계너미에 있는 밭.

○ 한섬지기

잼말우물 남쪽에 있는 논. 종자벼가 한 섬이나 든다 하여 붙은 이름
이다.

○ 향자등

계너미의 지령산 서쪽에 있는 산.

○ 형제우물

연곡 2리에 있는 우물. 샘 두 개가 마치 형제처럼 있어 붙은 이름이
다.

7. 기산리(基山里)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백석면 기곡리(基谷里)·내고령리(內古靈里) 전 지역과 중산동(中山洞) 일부 지역을 병합하고, 기곡리와 중산리에서 각 한 자씩 따와 기산리라 하였다.

● 석골[石谷]

안고령 북쪽에 있는 마을. 옛날 석씨(石氏)가 부락을 개척했다 하여 붙은 명칭이다. 돌이 많아 붙은 이름이라고도 한다.

● 안고령

석골 남쪽에 있는 마을. 옛부터 앵무봉은 고령산이라고도 하였는데 12개의 계곡이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안쪽에 있는 골짜기에 마을이 형성되어 붙여진 이름이다.

● 주리골

옛날에 안고령과 석골을 합쳐 부른 마을 이름. 이 마을에 주씨와 이씨가 처음 정착하였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턱골

기산저수지 남동쪽에 있는 마을. 큰 산 밑에 턱이 진 형세로 되어 있어 붙은 이름이다. 한자말로 기곡(基谷)이라고 한다.

○ 거성탱이

안고령에 있는 웅덩이.

○ 경수웅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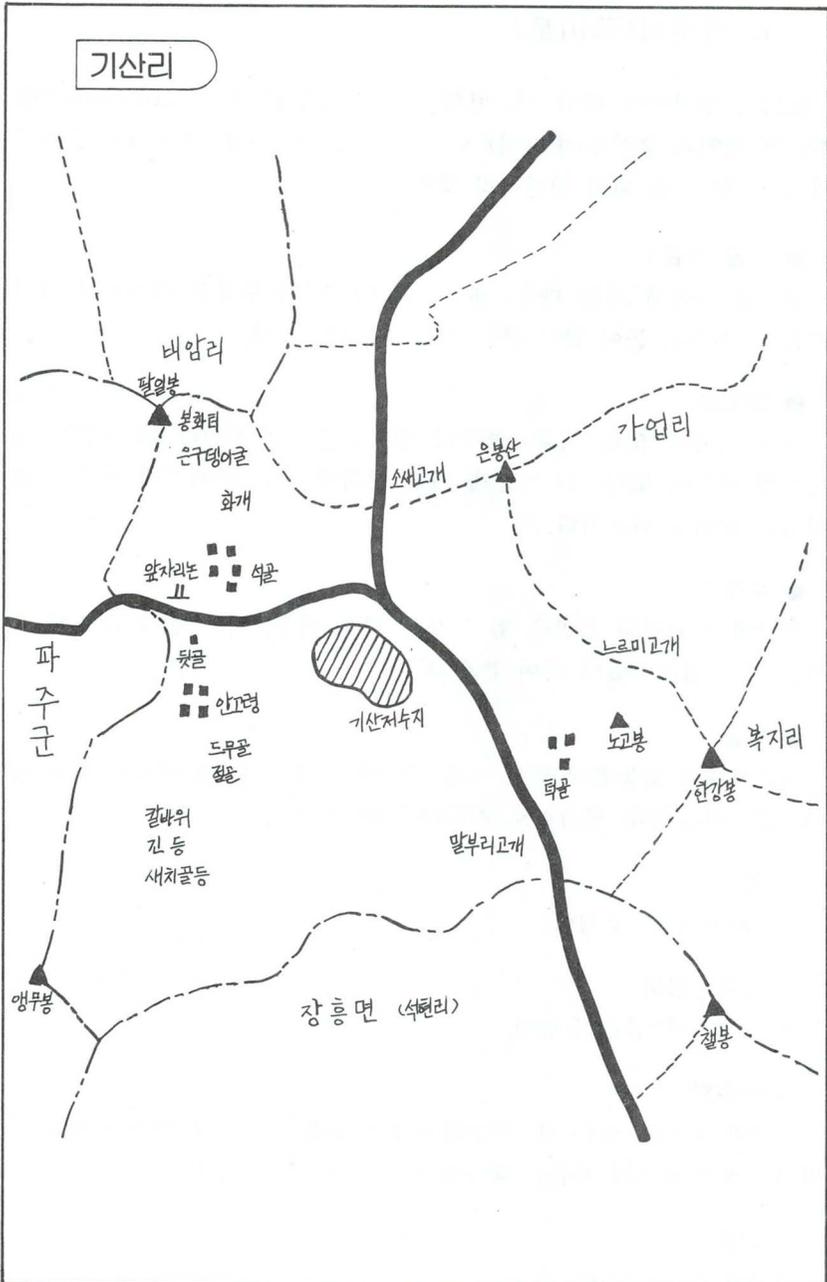
절골 위쪽에 있는 웅덩이.

○ 국수당

안고령 동쪽에 있는 산. 서산대사가 머물렀다고 하여 서산대 또는 사명당이라 하였는데 지금은 국수당으로 변하였다고 한다.

○ 긴등

절골에 있는 등성이.



○ 노고봉

턱골 동쪽에 있는 산. 기산저수지를 끼고 우뚝 솟은 산인데, 옛날 노고할머니가 치마폭으로 돌을 날라 산성을 쌓았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지금도 그 형태가 있다고 한다.

○ 뒷골

안고령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

○ 드무골

안고령 남쪽에 있는 골짜기.

○ 말구리고개

백석면 기산리에서 장흥면 석현리를 잇는 높은 고개. 고개가 급경사여서 말이 뛰어 오다 굴러 죽어 붙은 지명이다. 말부리고개라고도 한다.

○ 문앞논

석골 남쪽에 있는 논.

○ 봉화터

팔일봉에 있는 터. 봉화대가 있었다 하여 생긴 이름이다.

○ 새치골등

절골에 있는 등성이.

○ 석곡

안고령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 돌이 많아 붙은 이름이다.

○ 소새고개[素砂峴]

백석면 안골을 지나 기산저수지에 이르는 높은 고개. 이 고갯길은 그 모양이 뱀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옛부터 이 근방에 묘를 쓰면 소새라는 새가 뱀을 찍어 먹는다는 풍수지리설에 따라 집안이 망한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실제로 허씨 집안이 묘를 쓰고 망하였다고 한다. 소사고개라고도 한다. 1760년에 간행된 『여지도서』에는 소사현(所沙峴)으로 나타나 있다.⁹⁾

9) 『輿地圖書』上 (國史編纂委員會, 40쪽).

○ 앞자리는

석골 남쪽에 있는 논.

○ 올밀논

석골 북쪽에 있는 논.

○ 은구덩이굴

팔일봉 남쪽에 있는 굴. 일제시대에 은을 찾으려고 굴을 팠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은은 없었다고 전해진다.

○ 절골

안고령에 있는 골짜기. 절터가 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현재 파주군 광탄면에 있는 보광사가 원래 이곳에 있었는데 빈대가 하도 많아 이전하였다고 전해진다.

○ 중뜰

석골 남서쪽에 있는 뜰. 안고령과 석골 중간에 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칼바위

절골에 있는 바위. 칼처럼 생겨 붙은 이름이다. 지혈제로 쓰이는 일엽초가 난다.

○ 팔일봉(八日峰)

기산리와 비암리에 걸쳐 있는 높이 440m의 산.

○ 화개

은구덩이굴 남쪽에 있는 고개. 꽃이 많아 붙은 이름이다.

○ 화개골짜기뭇

팔일봉으로부터 화개골짜기를 타고 내려오는 개울.

제 8 장 장흥면(長興面)



은릉

여

백

한말 장흥에는 교현리(橋峴里)·울대리(鬱岱里)·부곡상리(釜谷上里)·부곡하리(釜谷下里)·석현리(石峴里)·이패상리(二牌上里)·이패하리(二牌下里)·삼패상리(三牌上里)·삼패하리(三牌下里) 등 9개 리가 있었다. 그런데 1914년 3월 1일 행정구역 개편 시, 삼패상리는 삼상리(三上里)로 개칭하였으며, 부곡상리 일부를 석현리에 흡수시켰다. 부곡상리 나머지와 부곡하리를 통합하여 부곡리라 하였고, 이패상리와 이패하리를 통합하여 일영리(日迎里)라 하였으며, 삼패상리에 고양군 신혈면 선유동 일부를 병합하고 삼하리(三下里)라 개칭하였다. 그리고 울대리와 교현리는 그대로 두었다. 이로써 장흥면은 7개 리가 되었다.¹⁾

면사무소 및 지서 청사는 교현리에 있었으나, 1937년 7월 30일 일영리로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80년 1월 5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법정리는 7개 리 그대로이나, 자연리가 11개로 늘어났다.

1. 교현리(橋峴里)

다리고개, 달고개, 달현(達峴)이라고도 부른다. 교현리와 고양군 효자리 사이에 큰 고개가 있고 그 계곡에 세천(細川)이 있었는데, 이 마을의 나무장수들이 나무로 징검다리를 놓고 서울로 왕래하였다 하여 다리고개[達峴]라 부르다가 교현리로 바뀌게 되었다 한다.

● 능모퉁이

셋골 끝에 위치한 마을 및 모퉁이 이름. 모퉁이 부근이 옛부터 산림이 우거지고 능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일대에 마을이 형성되었으며, 이 마을 이름도 능모퉁이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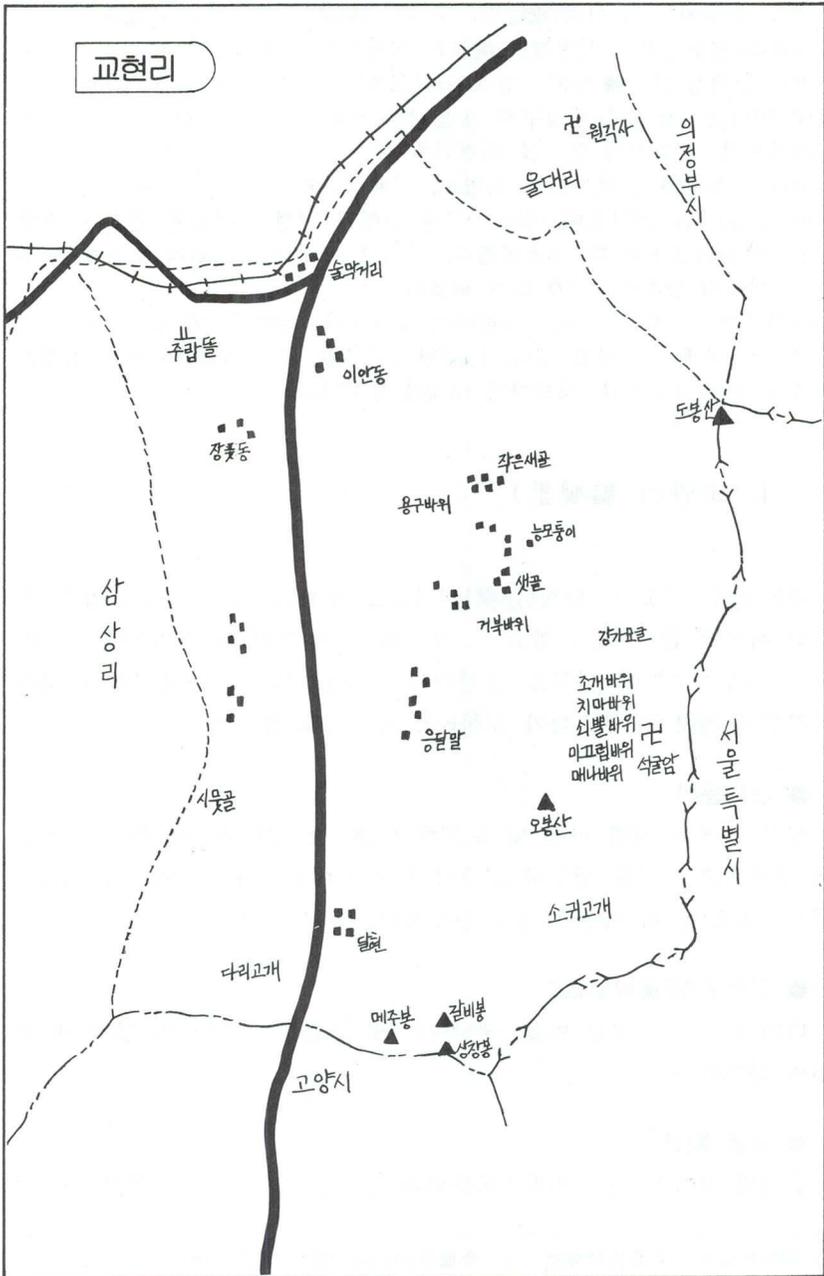
● 달현부락(達峴部落)

다리고개 옆에 있는 마을. 옛날에는 달이(達伊)라 하다가 일제 때 달현이 되었다 한다.

● 셋골[間谷]

응달말 북쪽에 있는 마을. 도봉산과 상장산 사이에 있어 붙은 이름이

1) 朝鮮總督府,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1917, 128쪽.



다. 새골·셋골·새꿀이라고도 부른다

● 술막거리·주막거리·막동

송추국민학교 옆에 있는 마을. 옛날 주막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며, 처음에는 주막거리라 부르다가 지금은 술막거리로 부른다.

● 시뫼골[侍墓洞]·심요동·양지말

다리고개 북서쪽에 있는 마을. 효자가 시뫼하며 살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심요동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옛날 심씨가 여기에 묘를 썼다는 데서 유래한다. 양지쪽에 있다 하여 양지말이라고도 부른다.

● 응달말·음지촌

상장산과 도봉, 오봉으로 둘러싸인 마을. 산 아래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해가 서쪽으로 기울 때나 햇볕이 조금 들 뿐 언제나 응달이 진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이안동(二安洞)

장곶동 북쪽에 있는 마을. 이안말(二安-)·애니젓이라고도 부른다.

● 작은새골

셋골 위에 있는 마을. 마을 이름 유래는 셋골과 같다.

● 장곶동·장안(長安)·장포동(長浦洞)

셋골 서쪽에 있는 마을. 옛날 교현리에서 가장 평안한 생활을 하는 자가 살았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또는 교현천, 울대천, 부곡천 등이 합류하여 이 동네를 굽이쳐 흐르고 있어 망망 해안을 연상케 한다 해서 장포동이라고도 불린다.

○ 강가묘 굴

강가마굴이라고도 부른다. 옛날 강씨가 세도를 부리며 살던 시절부터, 강씨들이 대대로 묘터로 써 왔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 후 묘가 도굴당하자 후손들이 묘를 복원하기 위해 여기를 자주 찾아 왔으나, 지금은 찾는 이가 없다고 한다.

○ 거북바위

응달말 뒤편에 있는 바위. 형태가 거북과 비슷하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현재 나무와 수풀 등으로 가려져 있어 형태의 식별이 어렵다.

○ 다리고개

교현리에서 고양시 효자동으로 가는 고개. 계곡에 세천(細川)이 있었는데, 이 마을의 나무장수들이 나무로 징검다리를 놓고 서울로 왕래하였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교현리라는 지명도 이 고개 이름에서 연유되었다.

○ 도봉산(道峰山)

교현리와 울대리 그리고 서울특별시·의정부시에 걸쳐 있는 산. 높이는 717m이다.

○ 마당바위

우이동 골짜기 도로변에 위치한 바위. 마당처럼 넓어서 붙은 이름이다.

○ 번개바위

번개를 맞아 납작한 돌이 되었다 하여 붙여진 바위 이름.

○ 봉수지

교현리 산 50번지에 있다. 축조 연대는 알 수 없으나, 넓이가 약 200평 정도이고 높이는 약 3m이다.

○ 상장산

산정산·산장산이라고도 부른다. 이 산에는 상장봉과 메주봉, 갈비봉 등이 있다. 메주봉은 며주봉이라고도 부르는데, 위쪽이 메주처럼 넓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갈비봉은 갈미봉이라고도 부른다.

○ 석굴암

오봉산 중턱에 자리 잡은 절. 석굴이 있어 붙은 이름이다. 옛부터 외침이 있거나 내란이 발생하면 피신처로 이용되었던 곳이다. 그래서 무학대사가 이 석굴을 소중히 여겨, 이곳에 절을 창건하고 석굴암이라는 사찰명을 붙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 소귀고개[牛耳嶺]

응달말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소의 귀처럼 길게 늘어져 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오봉산

다섯 개의 봉우리가 있어 붙여진 산 이름. 높이는 621.8m이다. 오봉산 밑으로 흐르는 물줄기를 따라 조개바위·치마바위·쇠뿔바위·미끄럼바위·매나바위 등이 있다. 다섯 개의 봉우리 형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이 전해진다.

① 옛날 이 산 아래 살았던 어떤 부자의 다섯 아들에 얽힌 이야기이다. 하루는 이 고을에 새로 원님이 부임해 왔는데, 그에게 고명딸이 있었다. 그런데 이 다섯 형제가 모두 원님 딸에게 장가를 들고 싶어하였다. 난처해진 원님은 산 위에 바위를 올려 놓는 힘 센 사람에게 딸을 시집 보내겠다고 하였다. 이에 다섯 형제는 일제히 산 위에 바위 올려 놓기 시험을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다섯 봉우리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 중 넷째 아들은 바위를 산 위에 올려 놓지 못하였으며, 그래서 지금도 넷째 봉우리에는 바위가 없다는 것이다.

② 부자의 다섯 아들이 등장하는 것과 그들이 산에 바위를 올려 놓기 시험을 하였다는 것은 앞의 이야기와 같다. 그러나 산 위에 돌을 올려 놓게 된 연유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 것이 둘째 이야기이다.

즉, 다섯 형제들이 부모의 재산 상속을 둘러싸고 다툼이 벌어졌고, 그 해결 방안으로 돌을 멀리 던지는 경쟁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둘째만은 봉우리 위까지 돌을 던지지 못해, 지금도 둘째 봉우리에는 바위가 없고, 봉우리 밑에 있다 한다.

③ 앞의 두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한양에 과거를 보러 간 선비를 기다리는 부인에 얽힌 이야기다. 남편의 과거 합격을 빌며 정성을 다하여 치성을 드린 부인은 남편이 돌아올 때가 되자, 밤마다 불을 밝히고 기다렸다. 선비가 돌아올 길을 밝혀 주기 위해서였다. 집에 있는 불쏘시개가 다 타버려, 더 이상 불을 붙일 것이 없게 되자, 그 부인은 다섯 손가락에 차례로 불을 붙여 선비가 돌아올 길을 비추었다 한다. 이 때 이번이 일어 났으니, 그 부인이 손가락에 불을 밝힐 때마다

산봉우리가 하나씩 만들어 졌다는 것이다.

○ 오소산

옛날 이 산에 오명우라는 소년이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산 이름. 혹은 5명의 소년이 살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 용구바위

용처럼 생겼다 하여 붙은 바위 이름. 용굿바위라고도 부른다.

○ 주랍딸

주납딸이라고도 부르는 논 이름.

○ 치마바위

오봉산 줄기에 있는 바위. 치마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 붙은 이름이다.

2. 울대리(鬱垞里)

울티 또는 울띠라고도 부른다. 용무굴, 오얏골, 송추골을 병합하여 울대리가 되었다.

울대라는 지명의 유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이야기가 전해진다. ① 울대고개 밑에 있으므로 붙여졌다. ② 뒤로는 오봉산, 남쪽으로는 삼각산, 서쪽은 일영산맥 등으로 사방이 꽉 막혀 어느 방향으로 트인 곳이 없어 답답하다 하여 ‘답답한 집터’라는 뜻에서 붙여졌다. ③ 옛부터 울창한 땅이라 하여 붙여졌다.

● 송추골[松湫洞]

오얏골 남서쪽에 있는 마을. 송춧골이라고도 부른다. 처음에는 소나무와 가래나무가 많아 소나무 ‘松’자와 가래나무 ‘楸’자를 썼으나, 지금은 ‘湫’자를 쓰고 있다. 사계절 내내 계곡에 맑은 물이 흐르기 때문에 삼수변이 붙은 ‘湫’자로 바뀐 것이다.

● 아랫말

윗말 아래쪽에 있는 마을.

● 안동네

윗말 안쪽에 있는 마을.

● 오봉(五峯)

오봉산 밑에 있는 마을.

● 오얏골[梧野洞]·왓골

요뭇골 남서쪽, 현 쌍용아파트 아래에 있는 마을. 기와를 굽던 터가 있었고 오동나무가 많았다고 한다.

● 용무골·요뭇골·용뭇골[龍淵洞]

울대 1리에 있는 마을. 용뭇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 울대

울대고개 밑에 있는 마을. 울티 또는 울띠라고도 부른다. 울대리라는 리 명칭은 이 마을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다.

● 윗말

아랫말 위쪽에 있는 마을.

● 응달말·건너말

울대 건너편에 있는 마을. 가장 늦게 해가 뜨고 가장 일찍 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그리고 울대 건너편에 있다 하여 건너말이라고도 부른다.

● 폭포동

송추폭포 옆에 있는 마을.

● 흘짜골

송추골과 폭포동 사이에 있는 마을. 옛날 이 마을에 살았던 가난한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 태를 흘짜 마셨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가막골고개

부곡리와 의 경계에 있는 고개.

○ 각시논·각시큰

울대 1리에 있는 전답.

○ 갯바위개울

갯 바위가 있다 하여 붙은 개울 이름이다.

○ 낭박골

울대 2리에 있는 지명. 낭떠러지가 많아서 붙은 이름이다.

○ 농바위

울대 2리에 있는 바위. 장롱처럼 생겨서 붙은 이름이다.

○ 담부골

용무골 부근에 있는 골짜기. 혹은 용무골 부근의 전답 이름이라고 한다. 담부골이라고도 부른다.

○ 당제

1년에 봄·가을 두 차례 도당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제사 지내는 곳. 제사 비용은 주민들이 추렴해서 마련한다. 당제라고도 부른다. 서너 아름도 더 되는 큰 소나무가 있다.

○ 당제너머

울대 1리에 있는 전답. 당제너머 또는 당제너머라고도 부른다.

○ 대봉굴

울대 2리에 있는 산. 봉우리가 크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돼지바위

안장바위 부근의 바위. 바위 모습이 돼지처럼 생겼다는 데서 유래하였다.

○ 뒷골

울대 2리에 있는 터. 뒤에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뒷논

울대 1리에 있는 논. 뒤에 있는 논이라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 막은고개

용무골에서 울대로 가는 고개. 옛날 사람이 이 고개를 넘어갈 때, 사나운 짐승이 통행을 막았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바깥전담

울대 1리에 있는 전담.

○ 밤나무골

현 로얄폴장 옆 주차장이 들어서 있는 터. 밤나무가 많아서 붙은 이름이다.

○ 방아다리

울대 1리에 있는 전담.

○ 배맨바위 · 배바위

울대 2리에 있는 바위. 옛날 비가 많이 와 산봉우리까지 물이 차자, 배를 봉우리 부근의 이 바위에 매어 두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지금도 배를 맨 고리가 남아 있다고 한다.

○ 북적골

울대 2리에 있는 마을. 북쪽에 있다고 붙은 이름이다. 또는 버섯이 많고, 물이 많아서 붙은 이름이라고도 한다.

○ 붉은고개

오얏골과 송추골 사이를 잇는 고개. 붉은 진흙이 많아 붙은 지명이다.

○ 비둘기장골

울대 2리의 골짜기. 이 곳에 있는 산이 비둘기처럼 생겼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사기점골

갯바위와 당제 사이의 하천 옆에 위치한 골짜기. 사기를 구웠던 곳에서 붙은 지명이다. 사기정골이라고도 부른다

○ 사시나무골

울대 2리에 있는 골짜기. 사시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 사패산(賜牌山)²⁾ · 갓바위산

도봉산 북쪽에 위치한 높이 760m의 산. 큰 봉우리에 있는 바위의 형태가 갓처럼 생겼다 하여, 큰 봉우리를 갓바위라 한다. 작은 봉우리는 쪽두리 바위라 부르며, 산 이름은 큰 바위 이름을 따 갓바위산이라고도 한다.

한편 갓바위 봉우리 밑에는 절터가 있는데, 이곳에는 큰 주춧돌과 축대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다 한다.

○ 삼폭포

송추유원지에 있는 세 개의 폭포 중, 가장 위쪽에 있는 폭포. 물줄기가 세 갈래로 떨어져서 붙은 이름이다. 그 아래에 이폭포 · 일폭포가 있다.

○ 선녀폭포

울대 2리 산봉우리 부근에 있는 폭포. 옛날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와 목욕을 하고 간 폭포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나무꾼과 선녀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 송암사(松岩寺)

울대리 산 508번지에 있는 절. ‘송’자는 송추라는 지명에서 따 왔으며, ‘암’자는 이곳에 바위가 많아서 붙여졌다.

○ 송천정사 터(松泉精舍-)

송추골에 있는 절터.

○ 송추폭포

송추골에 있는 높이 7m의 폭포. 송추골폭포라고도 부른다.

2) 마을 주민 중 일부는 이 산이 사패산(賜牌山)으로 불리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언제부터인가 갓바위의 형상이 조개껍질처럼 생겼다 하여 사패산으로 잘못 불리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군사지도에 그대로 기재되었고, 이 후 대부분의 지도에도 그렇게 기술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옛 이름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 수리치골

울대 2리에 있는 골짜기. 수리치골이라고도 부른다. 수리치라는 약재로 사용되는 산나물이 많이 난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안장바위

울대 2리에 있는 바위. 말 안장처럼 생겨서 붙은 이름이다.

○ 오방갈림

울대와 아랫말·윗말 사이에 있는 전담. 흑자는 길 이름이라고 한다.

○ 오봉절터

울대 2리에 있는 절터. 오봉암(사)이라는 절을 짓던 자리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절은 완공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 옛굴고개

울대 2리에 있는 고개. 옛굴로 넘어가는 고개이기에 붙은 이름이다. 외굴고개라고도 한다.

○ 용못

울대 1리에 있는 못. 용이 살았던 못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그 용은 승천하였다고 전해지며,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왔다고 한다. 흑자는 이 못의 용이 승천하지 못하여 이무기가 되어 폭포수에 살았으며, 못 주변에 소를 매어 놓으면 잡아 먹었다 한다.

○ 울대고개·울티재

울대에서 의정부로 가는 고개. 고개가 매우 높고 험하여 넘을 때 울지 않고는 넘을 수 없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울때고개·울디고개라고도 부른다. 1760년에 간행된 『여지도서』에는 울대현(鬱岱峴)으로³⁾, 1834년에 간행된 『靑丘圖』에는 울치(鬱峙)라고 표기되어 있다.

○ 은구댕이

울대 2리에 있는 골짜기. 은을 채굴하던 곳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3) 『輿地圖書』上(國史編纂委員會, 40쪽).

○ 자빠진골

울대 2리에 있는 산. 산이 벌렁 자빠져 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작은독박골

울대 2리에 있는 골짜기.

○ 잔오금

울대 1리에 있는 전담.

○ 절굴

울대 1리에 있는 전담.

○ 젓상바위

젓상처럼 생긴 바위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 큰독박골

울대 2리에 있는 골짜기.

○ 태봉

송추골 옆에 있는 봉우리. 왕자의 태를 땅에 묻고 돌로 덮어 둔 봉우리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 해룡뽀다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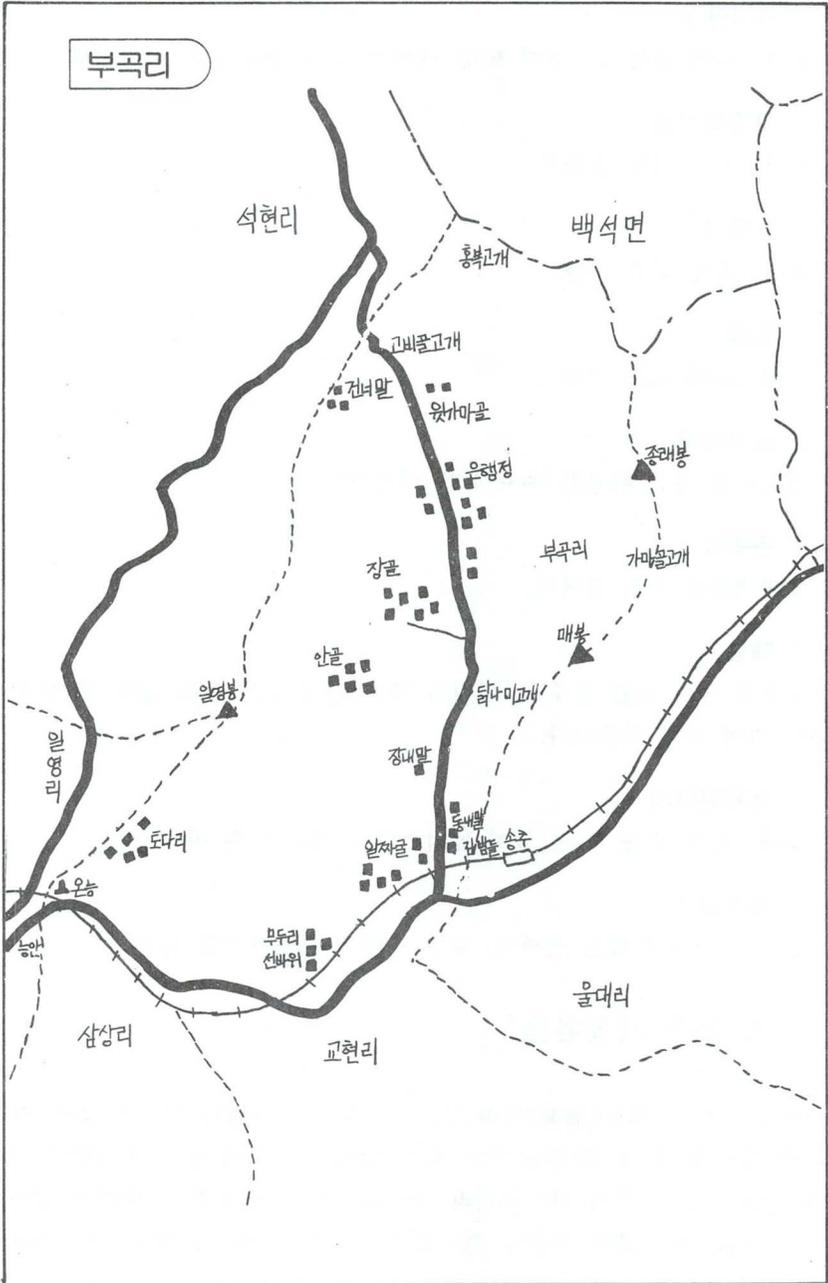
울대 2리에 있는 바위. 돌이 넓적하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화장골

용무골 근처에 있는 골짜기. 혹은 전담 이름이라고도 한다.

3. 부곡리(釜谷里)

가마골 또는 교동(轎洞)이라고도 부른다. 그 유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설이 있다. ① 이름난 이의 묘가 많아 성묘하러 오는 사람들이 가마를 타고 왔다 하여 가마골이라 불렀다. ② 그릇 굽는 가마터가 있어서 가마골, 부곡이라 불렀다. ③ 솟가마가 있어 가마골 또는 부곡이라 불렀다.



● 건너마을

동내말 건너쪽에 있는 마을.

● 건너말

상부곡 건너쪽에 있는 마을.

● 고비골

옛날 이곳에 고비가 많아서 붙여진 마을 이름이다.

● 도래말·도랫말

부곡 1리 2반에 있는 마을.

● 동내말[東山洞]

일짜굴 동쪽 산 밑에 있는 마을.

● 무두리·수회동(水廻洞)

일짜굴 남서쪽에 있는 마을 및 냇물. 마을 앞을 흐르는 냇물이 일곱, 여덟 차례 굽이쳐 흐른다 하여 붙은 이름으로 ‘물돌이’가 변해서 ‘무두리’가 되었다. 혹자는 마을이 나무로 둘러싸여 있어 붙은 이름이라고도 한다.

● 상부곡(上釜谷)·윗가마골

위쪽에 있다 하여 붙은 마을 이름이다.

● 아랫말

부곡 1리에 있는 마을.

● 안골

장내마을 안쪽에 있는 마을. 산신제를 지낸 곳으로 쭉 들어간 안쪽에 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옥수뜰

동내말 동쪽에 있는 마을 및 들. 옥수들이라고도 부른다. 맑은 물이 많이 났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은행정(銀杏亭) · 은행동 · 사기장골

장골 북쪽에 있는 마을. 은행쟁이 · 은홍제이라고도 부른다. 마을에 있는 수백 년 된 은행나무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 일짜골

장내말 남쪽에 있는 마을. 인짜골 · 일주골 · 일짜고을이라고도 부른다. ① 마을 이름 유래는 다음과 같다. 마을 남쪽에 ‘一’자 형태의 동산⁴⁾이 있어서 붙여진 지명이다. ② 마을 형태가 ‘一’자로 생겼다.

● 장골 · 장굴[長洞]

안골 북쪽에 있는 마을. 행정 구역상 부곡 1리 3반이다. 부곡리에서 가장 골이 깊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장내말[長川洞] · 뒷골

안골 남쪽에 있는 마을. 행정구역상 부곡 1리 4반이다. 장내마을이라고도 부른다. 마을 앞에 긴 냇물이 흐르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외지고 딱 떨어져 있어 뒷골이라고도 부른다.

● 정가마골

옛날 정씨 성을 가진 이가 처음 마을에 들어 왔으며, 항상 가마를 타고 다녔다 하여 붙은 마을 이름이다. 일설에는 부곡리 전부를 정가마골로 지칭하였다 한다.

● 토다리[土橋] · 능안

무두리 서쪽, 온릉의 안쪽에 있는 마을 및 다리. 현재 청솔갈비집 입구 큰 도로에 위치한 다리를 토다리라 부른다. 옛날에는 다리를 나무로 만든 다음 그 위에 흙을 덮고 잔디를 깔았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리고 이 곳 토다리에 있는 마을도 다리 이름을 그대로 따 와서 ‘토다리’라 부른다. 또한 마을의 위치가 온릉 안쪽이므로 능안이라고도 한다.

4) 이 동산을 송장산이라고도 부르는데, 일자로 된 산의 형상이 마치 송장이 길게 누워 있는 모습과 같다 하여 붙여진 것이다.

○ 가마골 고개

상부곡에서 울대리로 가는 고개.

○ 고비골 고개

상부곡에서 고비골로 가는 고개. 고비골고개라고도 부른다. 고비가 많아서 붙은 이름이다.

○ 김밤들

죽동으로 들어오는 길에 위치한 들. 옛날 이 ‘들’에는 ‘밤’나무가 많았으며, 그 옆으로 ‘긴’ 도로가 있다 하여 ‘긴밤들’이라 불리웠는데, 지금은 ‘김밤들’이라고 부르고 있다.

○ 닭나미고개 · 아래 닭나미고개

의정부로 가는 고개. 닭내미고개 · 당나미고개라고도 부른다. 옛날 호랑이가 자주 출몰하여, 행인들은 닭을 들고 가다가 호랑이가 나타나면 그것을 남겨 놓고 갔다고 한다. 즉, ‘닭 남겨’ 놓고 다니는 고개라 하여 붙은 지명이다.

○ 매봉

장골 동쪽에 있는 산.

○ 맏돌바위

돌 위에 또 다른 바위가 얹혀 있어 마치 맏돌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산신각

장내말 뒷산 산신제를 지내는 장소. 이전에는 안골에 있었으나, 군부대 주둔으로 인하여 지금의 장소로 옮겼다. 산이 울창하여 호랑이가 자주 출몰하여 사람들을 괴롭히자, 마을 사람들이 호환을 막아 마을의 안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신제를 지내기 시작하였다. 현재 1년에 두 번, 봄 가을에 제를 올린다.

○ 선바위[立岩] · 선바위등

무두리 냇가에 있는 바위. 바위가 넓적하고 우뚝 솟아 있다 하여 불

여졌다.

○ 소머리고개

도둑들이 이곳에서 농부의 소를 빼앗아 잡아 먹고 소머리만 남겨두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오서리바위

군 부대 내에 있는 바위. 오소리 굴이 있어서 붙은 이름이다.

○ 웅주산소

부곡 1리에 있다. 웅주의 묘가 있어서 붙여졌다.

○ 일짜굴고개

일짜굴에서 토다리로 가는 고개.

○ 절터골

군 부대 꼭대기 부근의 골짜기. 불당골이라고도 부른다. 절이 있었다 하여 붙여졌으며, 지금도 기와 등이 출토된다 한다.

○ 조개새골

첼봉 남쪽 골짜기.

○ 종래봉(鐘來峯)

정가마골에 위치한 산봉우리. 옛날 한양에서 치는 종소리가 들렸다 하여 붙은 지명이다.

○ 첼봉

산봉우리. 주변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기에 제일봉이라고 불렀는데, 미군이 이 봉우리를 첼봉이라고 발음하면서 첼봉이 되었다 한다. 그런데 옛 족보에 이 봉우리가 차일봉(遮日峰)이라고 표기된 것으로 보아, '차일봉'이 '첼봉'으로 변화했을 가능성이 크다.

4. 석현리(石峴里)

돌고개 밑이 되므로 돌고개, 또는 석현이라 하였다. 약 170년 전 이 마을 문인들이 돌로 되어 있는 고개마루의 큰 서낭당 나무 옆에 앉아서 마을 이름을 정할 때, 나무를 기준으로 정하자는 측과 돌을 기준으로 하자는 측으로 나뉘어 논란이 있었다. 결국 돌이 나무보다 수명이 길다 하여 이들이 앉은 돌고개를 기준으로 석현이라 했다 한다.

● 갈월(葛月)

돌고개 동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냇물이 반달형으로 흐르고 칩뿌리가 많이 난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고비골[高飛洞]·예메골

갈월 북동쪽에 있는 마을 및 고개. 고빏골·고비골·예미골이라고도 부른다. 지명 유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여러 이야기가 전해진다.

① 고비나물이 많이 나서 붙여졌다. ② 장흥에서 제일 높은 곳이라 하여 붙여졌다. ③ 길이 구불구불하다 하여 붙여졌다.

● 바깥돌고개

돌고개 바깥쪽에 있는 마을과 고개. 받돌고개·밭돌고개라고도 부른다. 돌고개의 바깥에 있어 붙은 이름이다.

● 안돌고개

돌고개 안쪽에 있는 마을과 골짜기 이름.

● 원당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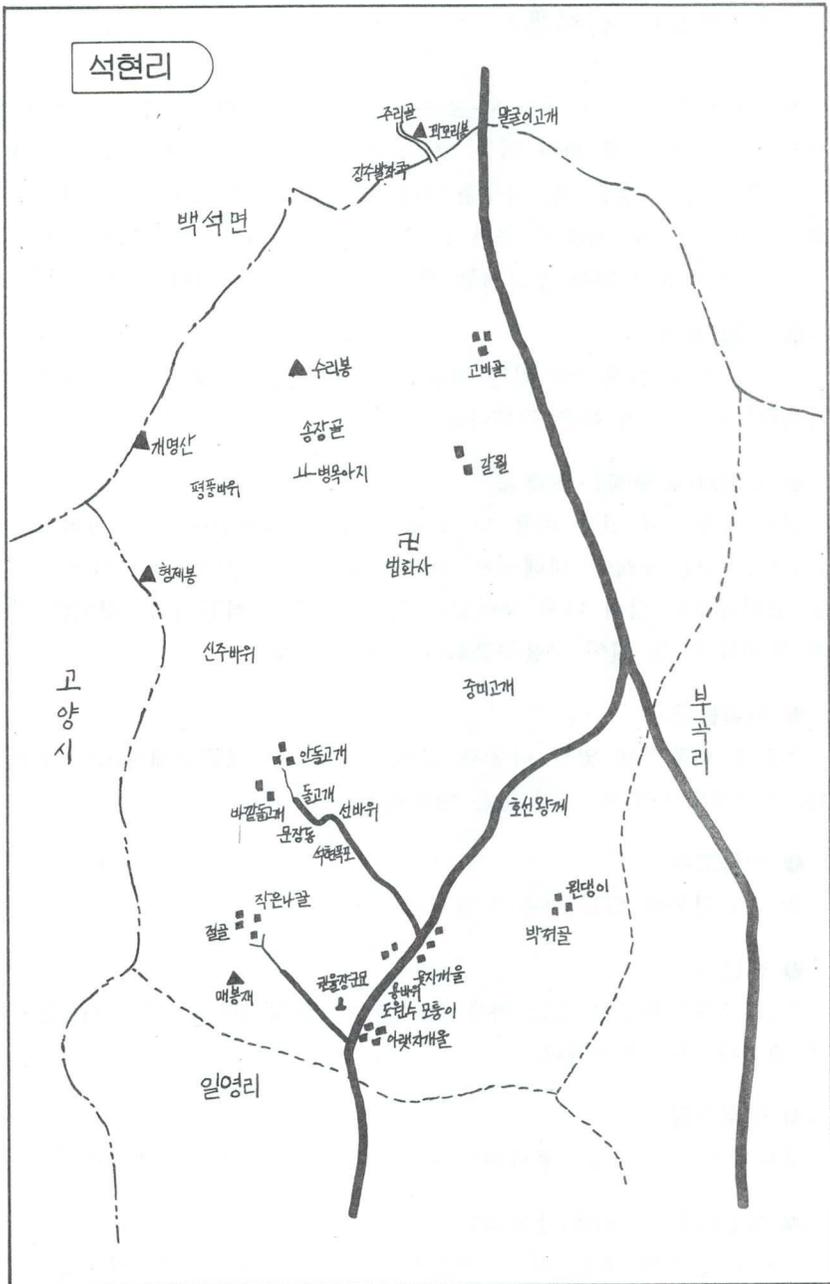
지금 오투기풀장이 있는 마을 및 골짜기. 원당이라고도 부른다. 둥글게 생겼다 하여 붙여졌다.

● 이무기골

용바위가 있는 마을. 용바위에 이무기가 살았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작은나골·소아동(小我洞)

지개울 서쪽에 있는 마을. 작은내골[小川洞]·자그나골·작은암골이



라고도 부른다.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다.

● 지개울

경계에 개울이 흐른다 하여 붙은 마을 이름이다. 지개동(芝介洞)·지계천(地界川)이라고도 부른다. 지개울은 웃지개울과 아랫지개울 등 두 개의 작은 단위 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 가는골

밭이 많아서 붙여진 골짜기 이름이다.

○ 개명산(開明山)

석현리와 파주군 광탄면 경계에 있는 산.

○ 피꼬리봉[鷲峰]

석현리와 백석면 기산리 경계에 있는 높이 498m의 산. 산의 모양이 피꼬리와 같이 아름답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도봉(刀峯)·칼봉

칼바위가 있다 하여 붙은 산 이름이다.

○ 도원수 모퉁이

권을 장군 묘 앞에 있는 길. 길이 심하게 휘어 있어 붙은 이름이다.

○ 돌고개

돌이 많다 하여 붙은 고개 이름이다.

○ 말굴이고개·고비굴고개

고비골에서 백석면 기산리로 가는 고개. 말구리고개라고도 부른다. 중국 사신이 타고 오던 말이 이곳에서 굴렀다 한다.

○ 매봉[鷹峰]

석현리와 일영리 경계에 있는 산. 매봉재라고도 부른다. 봉우리가 매처럼 생겼다 하여, 또는 매가 많았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문장동(文章洞)

‘玉筍岩’ ‘噴雪潭’ ‘觀書岩’ ‘彈琴臺’ ‘千仞壁’ ‘雙流瀑’ ‘雲影潭’ ‘水簾

瀑' 등 여덟 개의 암각문이 새겨져 있는 계곡. 암각문 중 '文章洞'이라는 글자에서 유래하였다.⁵⁾

○ 미나골

형제봉과 작은나팔 사이의 골짜기.

○ 박쥐골

박쥐가 많다 하여 붙은 골짜기 이름이다.

○ 범바위

모양이 범처럼 생긴 바위.

○ 병목아지

석현리 269번지에 위치한 밭.

○ 복구동·폭포동

장흥폭포 물줄기가 떨어지는 웅덩이. 폭포가 있어서 붙은 이름이다.

○ 석현폭포

돌고개 바로 밑에 있는 폭포.

○ 선바위

길 옆에 서 있다 하여 붙여진 바위 이름이다. 이 바위는 돌산 위에서 굴러 떨어진 것이라 한다.

○ 송장골

상여를 메고 가다 송장이 굴러 떨어졌다 하여 붙여진 골짜기 이름이다.

○ 수리봉

석현리 북쪽에 있는 높이 521m의 봉우리. 봉우리의 모습이 수리처럼 생겨 붙은 이름이다.

○ 신주바위

형제봉 줄기에 있는 바위. 마을 주민들이 이곳에서 복을 빌었다 한다.

5) 양주문화원, 『양주군지』 하, 1992, 234쪽

○ 앵무봉(鸚鵡峰)

석현리와 백석면 기산리, 파주군 광탄면 경계에 있는 높이 621.8m의 산. 조선시대에는 고령산이라 불리었다.⁶⁾

○ 용바위

권을 장군 묘역 부근에 있는 바위. 바위 밑 웅덩이에 용(또는 이무기)이 살았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원당골

당집이 있었던 골짜기.

○ 장군봉(將軍峰)

피꼬리봉 남쪽에 있는 높이 425m의 봉우리.

○ 장수발자국

주리골 넘어가는 데 있는 바위. 바위에 사람 발자국 형태가 패어 있는데, 이는 옛날 힘 센 장수가 지나가면서 밟아 남긴 발자국이라 한다.

○ 절골

절이 있었다 하여 붙은 골짜기 이름이다.

○ 중미고개

정수장(淨水場)이 있는 고개. 고개 중간을 가로질러 마을을 갈 수 있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큰골

골짜기가 크다고 하여 붙은 골짜기 이름이다.

○ 평풍바위

바위 이름이며, 그 밑에 있는 발도 바위 이름에서 그대로 따 와 평풍

6) 고령산의 한자 표기는 ‘高靈山’과 ‘高嶺山’ 두 가지이다. 『楊州牧邑誌』에는 前者로 표기되어 있다(韓國學文獻研究所編, 『邑誌』京畿道 ①, 1985, 4쪽). 한편 파주군 영장리 소재 보광사에는 1634년에 주조한 범종이 있는데, 그 銘文에는 後者로 표기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有大明朝鮮國楊州地高嶺山普光寺新鑄寶鐘銘序…崇禎七年甲戌七月 日鑄…”

바위라 한다. 병풍바위를 잘못 발음한 것이다.

○ 형제봉(兄弟峯)

석현리와 파주군 광탄면 경계에 있는 높이 545m인 봉우리. 유래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전해지고 있다. ① 두 봉우리가 형제처럼 나란히 있다. ② 옛날 산 양쪽 돌고개와 작은나팔에 의좋은 형제가 살았는데, 이 형제봉을 통하여 서로 왕래하며 더욱 우애를 돈독히 하였다 한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지나 다닌 봉우리이므로 붙은 이름이다.

○ 호선왕개

호랑이가 출몰하는 길이라 하여 붙은 길 이름이다. 호선왕개라고도 한다.

5. 일영리(日迎里)

1914년 이패상리와 이패하리를 합쳐 일영리가 되었다. 일영봉 밑에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에는 일영봉에서 해 뜨는 것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장가 들게 된다는 전설이 있다.

● 간촌(間村)·셋말

응달편 일영 2리에 있는 마을. 셋말이라고도 부른다. 구만리와 당창이 사이에 있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고동(高洞)·높은골

행정 구역상 일영 1리 1·2·3반에 해당하는 마을. 고동부락이라고도 부른다. 구만리 북쪽에 있고 지대가 높아서 붙여진 지명이다. 안말·중간말·바깥말 등 세 개의 부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 구만리(九萬里)

만사부락에 속한 작은 단위 부락. 행정구역상 일영 4리이다. 구만이(龜滿里)·고만리라고도 부른다. 장흥면의 중심지이며, 면사무소·경찰지서 등이 있다. 지명 유래는 다음 두 가지이다. ① 만석(萬石)하는 부자가 아홉 명이 있었다 하여 붙여졌다. ② 마을 입구의 동산이 거북이

머리 형세라 하여 붙여졌다.

● 꽃바위

일영 1리에 있는 마을. 꽃 모양의 바위가 많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능안

일영 1리에 있는 마을. 은릉 안쪽에 있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당챙이

셋말 남쪽에 있는 마을. 당청 또는 당청이(唐淸里)라고 부른다. 신라 시대에 당나라 사람을 초빙하여 궁술을 연마한 곳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만사부락

장흥면의 중심이 되는 마을. 우체국이 있다.

● 바깥말

높은골 바깥쪽에 있는 마을.

● 산서(山西)·산대(山垓)

일영 2리에 있는 마을. 산기슭에 있으며 서쪽을 향하고 있어 산서라는 지명이 붙었다. 산 뒤에 있어 ‘산뒤’라고도 한다.

● 아래셋말

셋말 아래쪽에 있는 마을.

● 안말

높은골 안쪽에 있는 마을.

● 웃셋말

셋말 위쪽에 있는 마을.

● 응달편·서양촌(西陽村)

‘산서’마을에 속해 있는 작은 단위 부락. 항상 응달이 진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절골[寺洞]

행정 구역상 일영 1리 5·6반에 해당하는 마을. 높은골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절골이라고도 부른다. 중종 비 단경왕후 신씨(愼氏)가 쌍계사(雙溪寺)라는 절을 지었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현재 절은 남아 있지 않다.

● 함정머리

마을 및 모퉁이 이름. 옛날 이 모퉁이에 호랑이를 잡기 위하여 함정을 팠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이곳에 마을이 형성되면서 마을 이름도 모퉁이 이름을 그대로 따 와 ‘함정머리’라 부른다. 함정모퉁이라고도 하며, 밤나무가 많아 밤나무골이라고도 부른다.

○ 가운데골

일영리 가운데에 있는 골짜기.

○ 간반바위

일영 2리에 있는 바위. 한 칸 반 정도의 크기라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고름쟁이

일영 1리에 있는 논. 고름쟁이들이라고도 부른다.

○ 굴바위

매봉에 위치한 바위. 굴이 있어서 붙여진 지명이다.

○ 꽃박골

꽃바위가 있어 붙은 골짜기 이름이다.

○ 능고개

일영 1리에 있는 고개. 온릉으로 넘어가는 고개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달갈부리

바람산에 있는 지명. 달갈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도토무골

일영 1리에 있는 꼴짜기. 도토리묵이라고도 부른다. 도토리가 많아서 붙여진 지명이다.

○ 독바위

일영 1리에 있는 바위 및 논. 독바위는 원래 바위 이름인데, 이 바위가 있는 논도 바위 이름을 따 와서 독바위라고 부른다.

○ 목암고개[木岩峴]

구만리 북서쪽에서 고양시 목암동으로 가는 고개. 목암고개라고도 부른다.

○ 바람산

일영 1리에 있는 산.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붙여진 지명이다.

○ 부처재[佛頂峴]

절이 있었다 하여 붙은 봉우리 이름이다. 또는 산 모퉁이가 부처님의 형상을 하고 있다 하여 붙여졌다고도 한다.

○ 성계굴

일영 1리에 있는 논.

○ 쇠발등

일영 2리에 있는 봉우리. 소 발등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여우바위

일영 1리에 있는 바위. 여우같이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온릉

중종의 원비 단경왕후(端敬王后) 신씨(愼氏)의 능. 신씨는 1499년(연산군 5) 진성대군(晋城大君)과 혼인하여 부부인(府夫人)에 봉해졌다가, 1506년 증종반정으로 진성대군이 증종으로 추대되자 왕후에 올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연산군 축출에 반대한 부친 신수근(愼守勤)이 반정군에 참살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후환을 두려워 한 공신들은 신씨를 역적의 딸이라 하여 폐출을 주장하여, 왕후에 오른지 7일 만에 폐출되었다. 그 후 1739년(영조 15)에 복위되어 묘호(廟號)를 단경, 능호(陵

號)를 은릉이라 하게 되었다.⁷⁾

○ 일영봉(日迎峰)

일영리와 석현리에 걸쳐 있는 산. 지명 유래는 다음과 같다. ① 해가 제일 먼저 솟아서 일찍 해를 맞이하는 봉우리. ② 동쪽을 향해 있어 해를 바라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③ 종종 비 신씨가 폐출된 후 친가인 일연리 절골에 거주하면서 절을 짓고, 임금의 옥체만강을 부처님에게 기원하면서, 종일(終日) 영산배례(迎山拜禮)하였다 한다. 여기서 ‘日’자와 ‘迎’자를 따 와 일영봉이라 봉우리 이름을 지었다.

6. 삼상리(三上里)

한말에는 삼패상리였으며, 삼패웃말이라고도 불렀다. 1914년 삼상리로 개칭되었다.

● 건너말

배울 건너쪽에 있다 하여 붙은 마을 이름이다.

● 배울[梨谷]

벌말 동쪽에 있는 마을. 배나무가 많아 붙은 이름이다.

● 벌말[坪村]

삼상리에서 가장 큰 마을. 범말이라고도 부른다. 앞뜰이 넓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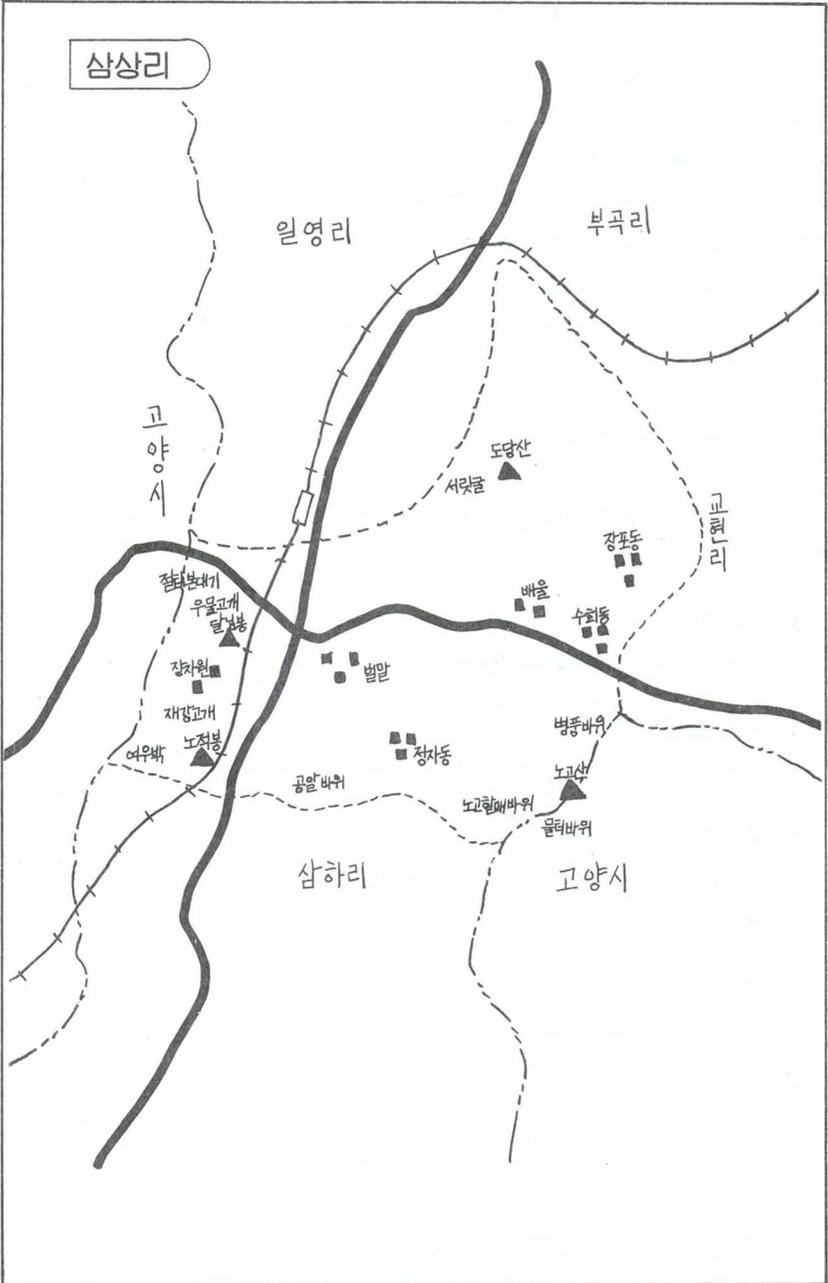
● 산밑

노고산 밑에 있는 마을.

● 수회동(水回洞)

배울 동쪽에 있는 마을. 개울이 아홉 번이나 굽어 든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7) 양주문화원, 앞의 책, 45-46쪽.



● 양짓말

양지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 역전(驛前)

일영 역 앞에 있는 마을.

● 우물너머

정자동에 속한 작은 단위 부락. 우물고개 너머에 있다.

● 장자원 · 장자모퉁이

마을. 옛날 장자(부자)가 살았던 마을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구석진 부락이므로 장자모퉁이라고도 불렀다.

● 장포동(長浦洞)

서산천에 둘러싸인 마을. 개펄이 많고 계곡의 굴곡이 심하고 길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재궁동(齋宮洞) · 쟁고개

삼상 2리에 있는 마을. 마을 이름은 뒤쪽에 있는 재강고개에서 유래하였다.

● 정자동(亭子洞) · 정주머리

별말 남쪽에 있는 마을. 큰 정자, 또는 정자나무가 있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가마소

가마처럼 생긴 연못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 고려장

옛날 이곳에서 고려장을 지냈다 하여 붙은 터 이름이다. 바위 뚜껑이 남아 있다.

○ 공알바위

여성 국부처럼 생긴 구멍이 두 개가 있다 하여 붙은 바위 이름이다. 주먹이 들어갈 정도의 크기이며, 그곳에 풀을 꽂아 넣으면 그 바위가

보이는 마을의 여자들은 모두 바람이 난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 노고산(老姑山)· 할미봉

옛날 이곳에서 노고할머니가 치성을 드렸다 하여 붙은 산 이름이다.

○ 노고할매바위

노고산에 있는 바위. 바위가 갈라져 있는데, 노고 할머니가 이 바위에 걸터 앉아 대소변을 보았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노적봉

벼를 쌓아 놓은 노적처럼 생긴 봉우리.

○ 달님봉

달을 보는 산이라 하여 붙은 산 이름이다. 대보름이 되면 주민들이 이곳에 올라 달을 향해 소원을 빈다.

○ 도당산

제당이 있는 산.

○ 물터바위

노고산 정상에 있는 바위. 바위 밑으로 물이 흐른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병풍바위

노고산에 있는 바위. 병풍 모양을 하고 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서릿굴

별말에서 고양시 선유동으로 가는 고개. 서리굴이라고도 부른다.

○ 여우밭

옛날 여우가 많았다 하여 붙은 논과 밭 이름이다. 여우밭게골·여우밭으로도 부른다.

○ 우물고개

재궁동에서 고양시로 넘어가는 고개. 우물이 있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유각굴

우물 너머 서쪽에 있는 골짜기.

○ 잠두

노고산의 한 자락. 누에 머리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재강고개

별말 남서쪽에 있는 고개. 쟁고개·재궁고개라고도 부른다. 지명 유래는 두 가지이다. ① 옛날 큰 부자가 살았는데, 그의 집이 한양 가는 길목이어서 과객이 매우 많았다. 이를 귀찮게 여긴 부자는 집 앞의 길을 막고, 다른 곳에 길을 만들어 그곳에 술과 음식을 차려 놓았다. 이후 과객들은 그 길을 이용하였다. 이제 부자 집에 손님은 들지 않았으나 점차 가세가 기울었다 한다. 그 때 술과 그 찌꺼기(재강)가 놓여 있었다 하여 붙여졌다. 이 고개를 만들 때 주민들이 가난하여 술찌꺼기(재강)를 먹으며 일했다 하여 붙여졌다.

○ 쟁굴

재강고개 너머에 있는 지명.

○ 전능내[典陵川]·곡능천

지도상에는 곡능천으로 되어 있으나, 마을 사람들은 전능내로 부르고 있는 천(川) 이름이다.

○ 절터본대기

절이 있었다 하여 붙은 터 이름이다.

○ 정자들

정자동 앞에 있는 들.

○ 코끼리바위

코끼리 형상을 하고 있다 하여 근래에 아이들이 붙인 바위 이름이다.

○ 팔학굴

굴의 모양이 풍수지리상 여덟 마리 학이 있는 형상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7. 삼하리(三下里)

삼패아랫말 또는 삼패하리라 하였는데, 1914년 고양군 선유동 일부를 병합하면서 삼하리라 개칭하였다.

● 건너말

마을.

● 능말·매내미[梅南]

삼하리에서 으뜸되는 마을. 성춘향의 무덤이 이곳에 있어서, 춘향의 어머니 월매(月梅)의 ‘梅’자와 남원(南原)의 ‘南’자를 따서 ‘梅南’이라 하였다 한다. 그 후 ‘매남’이 ‘매내미’라고 발음되었다.

● 능머루

마을.

● 독재동(篤才洞)

옛 마을 이름. 삼하리 산 65번지와 66번지 노고산 중턱 해발 120m 지점에는 ‘篤才洞’이라는 암각문이 있다. 이것으로 보아 이 근처 마을의 옛 이름이 독재동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⁸⁾

● 새말

새로 조성되었다 하여 붙여진 마을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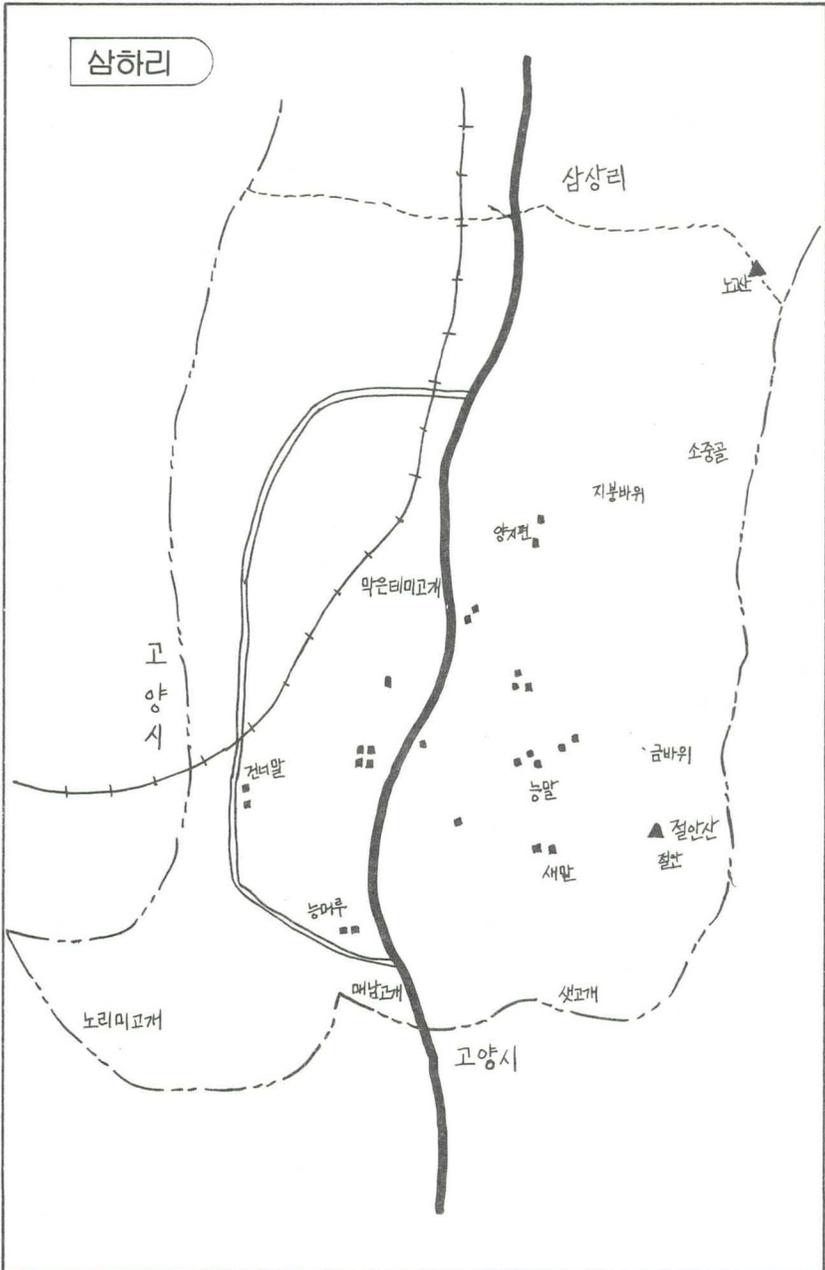
● 양지편

양지쪽에 있다 하여 붙은 마을 이름이다.

○ 금바위·금바위들

검은 바위가 박혀 있는 들판이다. 검바위뜰이라고 부르다가, 금바위뜰로 와전되었다. 지금은 금바위 또는 금바위뜰로 부른다.

8) 독재동이란 이름은 마을 사람들이 재주가 많을 경우 흔히 붙여졌다. 화성군에도 같은 이름의 지명이 있다.



○ 노리미고개

매내미에서 고양시 오금동 하촌으로 가는 고개.

○ 독재이고개

매내미에서 고양시 오금동 중촌으로 가는 고개.

○ 막은데미고개

막은데미에서 삼상리 재궁동으로 가는 고개.

○ 매남고개

매내미에서 고양시 당촌으로 가는 고개. 매내매고개라고도 부른다. 고개가 너무 가팔라서 고개를 넘으려면 나무에 매달려서 넘었다하여 붙은 이름이다.

○ 상보

전능천을 막아 만든 보. 옛날에는 전능보라 하였으나, 지금은 삼하리에서 가장 큰 보라고 하여 상보라 부른다.

○ 셋고개

매내미에서 고양시 삼마굴로 가는 고개. 매내미와 삼마굴을 잇는 지름길로, 길이 좁아 붙여진 지명이다.

○ 소중골

옛날 소가 죽었다 하여 붙은 골짜기 이름이다.

○ 절안[寺內]·절안터

옛날 이곳에 절이 있어서 붙은 터 이름이다. 이곳의 절은 빈대가 너무 많아 폐사(廢寺)되었고, 다른 곳으로 옮겨졌는데 그 절이 지금의 흥국사라 한다.

○ 절안산

절안이 있는 산. 지명은 절안에서 유래하였다.

○ 지붕바위

비를 가릴 정도로 크고, 지붕처럼 생겼다 하여 붙은 바위 이름이다.

참고문헌

- 『三國史記』
- 『三國遺事』
- 『高麗史』
- 『新增東國輿地勝覽』
- 『大東地志』
- 『輿地圖書』
- 『大東輿地圖』
- 『楊州牧邑誌』(1842年版)
- 『楊州牧邑誌』(1871年版)
- 「靑丘圖」

- 朝鮮總督府,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1912.
- 朝鮮總督府,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1917.
- 李秉延, 『朝鮮寰輿勝覽』, 普文社, 1937.
- 國會圖書館, 『韓末近代法令資料集』, 1971.
- 楊州郡, 『楊州郡誌』, 1978.
- 柳在永, 『傳來地名의 研究』, 圓光大學校 出版局, 1982.
- 李炳銑, 『韓國古代國名地名研究』, 亞細亞文化社, 1982.
-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7(경기편) 상, 1985.
- 京畿道, 『地名由來集』, 1987.
- 남영신, 『우리말 분류 사전』, 한강문화사, 1987.
- 孫成祐, 『韓國地名辭典』, 景仁文化社, 1989.
- 內務部, 『地方行政區域要覽』, 1990.
- 楊州文化院, 『楊州郡誌』, 1992.

자료 제보자 명단

※ 아래는 조사원의 면담에 응해준 분의 이름·성별·나이(1992년 기준)·주소이다.

※ 각 학교를 통하여 배포한 설문지 조사에 응해준 분의 명단도 수록하려 하였으나, 명단만 수십 페이지에 달하여 불가피하게 수록하지 못했다. 양해를 바란다.

1. 회천읍

권백규(남, 70세)	정성해(남, 57세)
최홍덕(남, 76세, 이상 덕정리)	김사복(남, 75세)
이창우(남, 76세)	최장우(남, 80세)
최종환(남, 70세, 이상 봉양리)	임진순(남, 73세)
임경순(남, 84세)	임광순(남, 68세, 이상 울정리)
윤관섭(남, 62세)	윤상섭(남, 65세)
윤춘섭(남, 62세, 이상 옥정리)	한규남(남, 78세, 고암리)
박관순(남, 43세)	신경식(남, 67세)
이극노(남, 76세)	함정희(여, 80세, 이상 덕계리)
박상호(남, 45세)	이부원(남, 49세, 이상 회정리)

2. 주내면

고병철(남, 61세)	박두호(남, 69세)
홍순일(남, 67세, 이상 유양리)	김만호(남, 41세)
김정준(남, 69세)	김중수(남, 43세)
민영상(남, 65세, 이상 어둔리)	김중경(남, 54세)
이용화(남, 65세)	장연태(남, 69세, 이상 남방리)
김재억(남, 75세)	김택현(남, 58세, 이상 마전리)
송경근(남, 71세)	송석돈(남, 75세, 이상 산북리)
신원식(남, 57세)	지만원(남, 60세)

최구산(남, 73세, 이상 광사리)
 이종부(남, 이상 만송리)
 이순진(남, 고읍리)

김복이(남, 82세)
 정재욱(남, 58세, 삼송리)

3. 은현면

노준환(남, 61세)
 송배근(남, 73세)
 이세환(남, 62세)
 한상진(남, 75세)
 송태균(남, 64세)
 송태진(남, 34세)
 오재순(남, 77세)
 최병희(남, 74세, 봉암리)
 남학주(남, 79세)
 이준호(남, 73세)
 홍경순(여, 58세, 이상 하패리)
 김광연(남, 82세)
 김상은(남, 62세)
 동순예(여, 80세)
 연주석(남, 61세)

민충식(남, 64세)
 이기현(남, 65세)
 이태환(남, 77세)
 홍은표(남, 63세, 이상 용암리)
 이홍구(남, 76세, 이상 선암리)
 오봉환(남, 66세)
 오종석(남, 70세, 이상 운암리)
 남운시(남, 66세)
 이순구(남, 80세)
 최종한(남, 57세)
 강금순(여, 67세)
 김대연(남, 61세)
 김진석(남, 67세)
 신사순(남, 79세)
 이용현(남, 74세, 이상 도하리)

4. 남 면

이용준(남, 64세)
 최종영(남, 60세, 이상 신산리)
 백응현(남, 81세, 매곡리)
 조양래(남, 57세, 이상 구암리)
 이상욱(남, 79세, 이상 두곡리)
 홍범기(남, 69세)
 홍성봉(남, 51세, 이상 상수리)

이용홍(남, 63세)
 강시영(남, 60세, 신암리)
 윤수근(남, 55세)
 백창현(남, 50세)
 최인환(남, 57세)
 홍성근(남, 65세)
 윤성보(남, 67세, 입암리)

송창규(남, 53세, 한산리)
박준원(남, 60세, 이상 황방리)

박용선(남, 92세)

5. 광적면

권영환(남, 61세)
박승진(남, 67세)
이종윤(남, 57세)
한영환(남, 35세, 이상 가남리)
정용철(남, 73세, 이상 광석리)
이기완(남, 48세, 이상 우고리)
이춘삼(남, 75세)
이인순(남, 65세)
고옥석(여, 77세)
백달현(남, 35세)
백호현(남, 59세)
이종문(남, 51세)
주홍석(남, 77세, 이상 덕도리)
이희립(남, 56세)

김봉학(남, 72세)
변창우(남, 55세)
한상철(남, 63세)
백영우
안인수(남, 71세)
류재화(남, 63세)
정진억(남, 68세, 이상 비암리)
허주범(남, 56세, 이상 효촌리)
김장수(남, 62세)
백승기(남, 77세)
심복순(여, 63세)
전봉환(남, 78세)
이병대(남, 73세)
한철수(남, 39세, 이상 석우리)

6. 백석면

김종욱(남, 62세)
최장환(남, 66세, 이상 방성리)
김영학(남, 57세)
우병규(남, 69세)
백남진(남, 73세, 복지리)
김영서(남, 73세)
윤범중(남, 58세)
이장원(남, 82세, 흥죽리)
안병철(남, 51세)
조태훈(남, 61세, 이상 연곡리)

정원훈(남, 54세)
김동일(남, 60세)
김윤석(남, 83세)
지수경(남, 65세, 이상 오산리)
강준식(남, 48세, 이상 가업리)
박봉순(여, 70세)
이영석(남, 48세, 이상 가업리)
안병옥(남, 63세)
조창복(남, 84세)
이종서(남, 52세, 기산리)

7. 장흥면

김명수(남, 63세)	김명천(남, 55세)
이수길(남, 73세)	허갑남(남, 73세, 이상 교현리)
김희원(남, 69세)	민응문(남, 69세)
민학진(남, 72세)	원봉희(남, 56세)
최달원(남, 67세, 이상 울대리)	김윤천(남, 76세)
박명길(남, 69세)	유효순(남, 77세)
이철수(남, 46세)	지경소(남, 70세)
채광석(남, 69세, 이상 부곡리)	오인구(남, 47세, 석현리)
김병길(남, 43세)	김택영(남, 68세)
박상원(남, 63세)	박성휘(남, 62세)
이문기(남, 67세)	황규만(남, 36세, 이상 일영리)
백종국(남, 65세)	이강호(남, 39세)
한범석(남, 77세, 이상 삼상리)	장규성(남, 67세)
정순호(남, 45세, 이상 삼하리)	

8. 그외 지역

서형두(남, 47세,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이용노(남, 56세, 의정부시 가능 1동)

편찬위원

위원장

양주군수 우종오(전임 하영수)

부위원장

양주부군수 임승춘

위원

송응태 (동두천 교육청)	조태훈 (양주문화원)
이근범 (남문중·상업고등학교)	김영철 (덕정중학교)
이홍일 (조양중학교)	강원희 (천보국민학교)
김문주 (상패국민학교)	김양성 (효촌국민학교)
김주섭 (은현국민학교)	민정식 (상수국민학교)
박해성 (삼상국민학교)	서형두 (가남국민학교)
손철수 (백석국민학교)	신성철 (덕도국민학교)
신승문 (양덕국민학교)	오세균 (송추국민학교)
윤도용 (덕현국민학교)	이근순 (유양국민학교)
장순이 (연곡국민학교)	장진영 (덕정국민학교)
정찬화 (봉암국민학교)	조연원 (남면국민학교)
한재원 (덕산국민학교)	

상임위원

강진갑 (한양대학교) 이달호 (한양대학교)

간사

문화공보실장 이해주(전임 김진길, 이종호)

서기

문화공보실 조용태

감수위원

회천읍 : 이상의	이창우	이황노
임옥빈	채수갑	한석순
주내면 : 라윤석	박성규	박영석
송경복	송인성	신연호
이종부	전대식	최구산
은현면 : 남학주	민충식	오정현
이홍구	최병옥	황정연
남 면 : 강낙훈	권동수	박상조
백승각	백철기	송요필
송창규	윤성보	최상현
홍범기	홍완표	
광적면 : 김태식	박인환	백의현
안인수	이덕상	정용철
정진억		
백석면 : 강병의	김동일	김병선
백남진	안문수	이건혁
조태준		
장흥면 : 김정식	김희원	박성휘
우종원	장대환	장수근
정순호	채광석	한범석

제 자

백남진

지도 제작

안종천 (문화공보실) 김경섭
이상무

집 필

강진갑(한양대학교 강사)
이달호(한양대학교 대학원 졸)

교열·교정

주 혁(한양대학교 대학원 졸)
최선옥(월간 「방죽말」 편집장)

자료 조사

조사책임자 강진갑
이달호
조용태 (문화공보실)

조사원	김선해(남면 사무소)	도경일(장흥면 사무소)
	박송희(백석면 사무소)	서정길(백석면 사무소)
	심명희(회천읍 사무소)	이봉수(장흥면 사무소)
	이순구(회천읍 사무소)	이승대(은현면 사무소)
	이재진(광적면 사무소)	이창연(은현면 사무소)
	전태연(광적면 사무소)	홍재덕(주내면 사무소)
	조진제(남면 사무소)	
	김경섭 (신흥전문대 2)	김호남 (김천전문대 1)
	박춘식 (국민대 1)	안동국 (청주대 3)
	안선민 (신흥전문대 2)	유신석 (충신대 1)
	이상무 (신흥전문대 1)	이영식 (전주우석대 1)
	이호진 (신흥전문대 1)	장정호 (신흥전문대 1)
	전경태 (관동대 3)	전용찬 (강원대 1)
	한상배 (수원대 2)	

찾아보기

가나뭇재고개	261	갈궁지	31
가는골	74 · 303	갈립산	75
가능	214	갈마지	51
가능골	194	갈매고개	169
가래골	27 · 209	갈미봉	58
가래비	191	갈을	214
가리나무동산	37	갈월	301
가리낭골	139	감바위	75
가마골	139	감악산	155
가마골고개	253 · 299	감탕골	105
가마소	180 · 313	갓굴	222 · 273
가마소골	193	갓마바위	261
가마터	153	갓마바위골	261
가막골고개	289	갓모봉	209
가시목골	75	갓바위	133
가업교	201	갓바위개울	291
가업장	201	갓바위산	133 · 293
가운데골	67 · 309	갓바위장	171
가운데달	26 · 40 · 121 · 136	갓바위장터	174
가운데우물	240	강가묘 굴	285
가의능	217	강당고개	174
가작바위	41	강철이개울	273
가재꿀	81	개구리바위	16 · 133
가재미골	217	개논	240
가재우물	41	개뎃벌	109
가재우물자리	41	개루니	125
가재울	203	개머리고개	109
작가능	74	개명산	303
작시는	261 · 291	개미들기들	133
작시무덤	223	개울가바위	217
간난이죽은골	85	개울개	70
간뎃말	79	개자리터	139
간반바위	309	객사터	55
간촌	65 · 306	갯매골	89
간파고개	185	저력골	211
갈골	37	저루수니	85

거름배	158	고양산	177
거무네미	19	고장산	41
거물논	261	고장아래	40
거미울	214	고주막골	86
거북바위	161 · 240 · 286	곤줄	222
거북이바위	27 · 86	골나드리	99
거성탱이	277	골논	37 · 133
거수는	27	골말	26 · 239 · 247 259 · 265 · 271
저적골	161	골안바닥	239
저지고개	133 · 174 · 267	곰잡은골	240
저칠메	37	곳집탄	223
전너마을	297	곳창재	121
전너말	193 · 252 · 259 297 · 311 · 316	곳창재고개	122
전너터	139	공수골	26
검은돌	208	공알바위	313
검은바위	22	과골	19 · 49
검준이	136	과골 남쪽고래	51
계너미	270	과골 북쪽고래	51
계너미고개	273	과녁배기	273
견준바위	208	과목밭	225
경수웅덩이	277	관둔천	73
경신동연	170	관모봉	158
계명산	267	관아유지	99
계터	176	광릉말	199
고깔바위	240	광바위산	201
고능말	237	광수원	149
고동	306	광송동	94
고란골	139	광암동	83
고래논	240	광계들	133
고려장	313	패재고개	122
고름쟁이	309	패현	121
고만이안	237	피음	208
고말재	265	핏말	19
고비골	297 · 301	평논	41
고비골고개	299	교사리	273
고상절	261	구 갓바위	176
고심리고개	181	구 능골고개	16

김밥들	299
김새이골	241
깃대봉	76
깊은자리논	255
깊이논	139
까마귀뜯논	274
까치고개	73 · 76
까치터	217
깨박골	211
갯묵논	149
꽁지밭	261
꽃바위	307
꽃바위 우물	81
꽃박골	309
꽃봉골	241
꽃봉재	86
꽃산	116
피꼬리봉	303
평나라골	86
끝돌모루	229
나라보	225
나리골	113
나리골고개	116
나븐들	199
낙락골	131
낙락골 동쪽말	131
낙시바위	218
난곡	271
낚은잡터	51
남방저수지	73
남행이	70
남산	31
남산고개	33
남선골	185
낭두리논	249
낭바위	155
낭박골	291
내비	209

내촌	74
내촌동	21
내회암동	26
넙대	265
냉매산	73
냉밀	133
냉정	165 · 174
냉정고래	161
너려숙바위	67
너린골	91
너마지기논	109
너머밭	136 · 177
너머터	161
너머터고개	163
널다리골	35
넙말	259
넙어말	247
네거리	38 · 59
노가터	137
노간짜길	47
노고봉	205 · 279
노고산	314
노고할매바위	314
노라골	27
노라바위	255
노랑벌	174
노랑새고개	232
노루메기	67
노루목골	27
노루발바위	185
노리미고개	318
노아산	211
노적봉	211 · 255 · 314
노지	255
노촌말	26
녹음의바위	86
녹음터	174
논고래	48

논골	183 · 211	달님봉	314
논앞벌	249	달바위	179
농바위	241 · 267 · 291	달봉산	170
농바위골	33	달현부락	283
높은터	127	닭나미고개	299
누룩바위	95	담뿔논	116
느르매기	261	담부골	291
느르미고개	262	담비골	139
느티정말	164	담안밭	59
늑골	13 · 249	당골	262
능고개	179 · 309	당골말	21
능골	115 · 163 · 184 · 211	당골안	22
능골고개	185 · 211	당뒤	158
능내동	193	당모랭이	255
능너머	51	당재	22
능말	316	당재고개	250
능머루	316	당재	291
능머루고개	91	당재너머	291
능모루 모퉁이	16	당쟁이	307
능모퉁이	241 · 255 · 233	대구다리	99
능모퉁이밭	122	대동구레논	109
능무랭이	271	대들	250 · 262
능물	81	대뜰논	250
능안	15 · 239 · 307	대롱굴이	218
능안 개울	194	대리골	122
능안고개	17	대모산	241
능안골	41	대모시	193
능안산	218	대모시골	194
능안평전	150	대문안밭	218
다락논	218	대봉굴	291
다람쥐절터	22	대왕전	116
다랫말	239	대장간	252
다리고개	286	대장간 모퉁이	38
닥신자골	250	대장간 자리	195
단촌	247	대춘말	222
달갈바위	109	땃돌배기	218
달갈부리	309	더테울	38
달구지터	59	덕고개	85

덕산주택마을	45	돈계	45
덕재고개	241	돌고개	303
덤배골	91	돌내개울	21
도깨비 웅덩이	33	돌논	133
도내개벌	116	돌논고개	134
도당고개	225	돌논고래	134
도당굿	195	돌다리	158
도당나무	95	돌모루	15 · 41 · 229
도당봉	225	돌모루고개	17
도당산	314	돌무덤	23
도독고개	155	돌문	232
도독골	242	돌밭	225
도독재	95	돌산	122
도독재끝	33	돌석이뿌리	165
도둔이	45	돌아다발	206
도락고개	150	돌앞산	139
도락산	241	돌팡모랭이	232
도래말	297	돛대산	109
도령글터	45	돛다리골	27
도봉	303	동개울	109 · 116
도봉산	286	동구마을	193
도원수 모퉁이	303	동내말	297
도장골	86 · 109	동냥재	127
도장재	267	동네뿌리	250
도축골	271	동부	55
도토말	218	동안독	43
도토무골	309	동이점	107 · 110 · 124
도퇴골	33	동이점골	33
독두걸	225	동전벌	175
독바위	41 · 310	동지기논	211
독박골	35	동지다리	33
독보는	17	동쪽반고개	134
독보는	27	동촌	131
독송정	23	꽤지물골	255
독재동	316	꽤지바위	291
독재이고개	318	꽤지밭	218
독점	15 · 155	뒀봉	206
독점밭	156	뒀박골	262

- 두껍바위17 · 76
 두레마을271
 두레우물242
 두루미덕232
 두루봉206 · 211
 두배미139
 두일164
 뒤굴127
 뒤눈턱274
 뒤눈턱밭274
 뒤들115
 뒤뜰150
 뒤주밭218
 뒗골31 · 40 · 43 · 67 · 81
 110 · 156 · 259 · 279 · 291
 뒗골논43
 뒗골밭199
 뒗논291
 뒗들199
 뒗들고개117
 뒗들은117
 뒗등고개195
 뒗말137 · 259
 뒗벌232
 드무골279
 득성고개110
 득성부락107
 든지똥137
 들어엿은바위195
 들언친바위95
 들바위165
 들바위논165
 등두터131
 등봉논48
 등정골17
 등정피201
 만동미산226
 먹논170 · 250 · 262
 뽕바위195
 풍개골73
 풍논250 · 256
 웹바위59 · 150 · 183
 마개미48
 마개미고개48
 마구터117
 마귀바위76
 마당바위23 · 117 · 286
 마뜰179
 마라니35
 마루들250
 마루뜰242
 마룻돌110
 마산232
 마산끝43
 마산부락124
 마우들179
 마우전43
 마을앞논274
 마전재고개117
 막대울17
 막은고개86 · 99 · 292
 막은골57 · 181
 막은골논59
 막은데미고개318
 막은쟁이150
 만사부락307
 만세배미195
 만수터242
 말구리고개279
 말굴이고개303
 말뜰논43
 말무덤59 · 91 · 150
 201 · 267 · 274
 말무덤산163
 말무덤채23
 말무시48

말미	177	모우물	243
말타논	134	모정동	31
망녕들	167	모퉁이말	57
망당산	175	목배미	214
망데이약수터	175	목압고개	310
망우리	158	목정들	195
망째고개	60	목쟁이	140
망향탑	242	몬봉	206
매골	185	못말	26 · 169
매납고개	318	묘골	110
매미골	170	무전이고개	156
매봉	299 · 303	무네미산	226
매봉산	185	무너골	212
매봉재	76 · 91 · 127 134 · 158 · 267	무당너머	48
매봉찌	170	무당너미	110 · 127
매장거리	271	무당바위	212
매장산	274	무당재	183
매학당지	60	무두리	297
맷돌바위	95 · 262 · 299	무래울논	43
맹골	158	무명바위	274
머위물	256	무쇠바위	226
덕골	233	무시고개	165
덕적골	70	무안벌	160
덕쟁이	110	무안봉	160
던뭇밀덩어리	195	목남동	71
던제미	15	목어자빠진논	43
메루지	89	목은노니고개	52
메물논골	218	목은논	274
메봉재	17	목은동	107
덕골	163	목은재고개	110
면화개울	243	문둥이고개	226
모래논	274	문앞논	110 · 279
모래말	160 · 239	문장동	303
모래풀	250	물건너논	165
모랫말고개	219	물뺨저수지	262
모상골	91	물살메기들	38
모새논	195	물터바위	314
		못태안	239

미나골	304	박은물	95
미누골	214	박취골	304
미락골	87	밖불당	67
미력골	60	반바위	87
미력산골	91	반보고개	226
미룩골	67	반월	131
미룩바위	92	발산고개	165
미말	110	발운부락	121
미테골	161	밤가시	231 · 262
민산	219	밤고개	212 · 256
민재	199	밤나무골	233 · 292
바가지우물	243	밤바위	222
바깥능안	193	밤바위고개	226
바깥돌고개	301	밤중논	256
바깥말	222 · 307	방골	175
바깥목은논이	107	방굴	187 · 262
바깥신내	107	방수터	110
바깥안말	215	방아다리	23 · 48 · 99 · 127 · 195 243 · 251 · 275 · 292
바깥전답	292	방아다리논	43 · 196
바깥통안이	173	방아머리	215
바람산	310	방암동	74
바랑골	87	방울다리	267
바른골	67	방주골	121
바사리고개	256	방죽골	243
바우배기	95 · 267	방죽논	43 · 275
바우배기논	219	방죽다리	92
바위배기	262	방죽말	47
바위백이논	163	방축골	38
박괴재	134	밭굴	212
박다리	81 · 229	배맨바위	292
박사부논	250	배울	311
박사부다리	267	백낭자리	123
박사터	140	백석이고개	92
박산	219	백운산	219
박석고개	122 · 134 · 250	백적산	156
박석다리	243	백중논	251
박수고개	122 · 226	백호동	160
박우물	92		

백화암	60	북중골	92
뱀논	251	본논고래	220
뱀많은산	163	뱃들은	52
뱀발	226 · 233 · 262	봉내동산	244
뱀자고개	268	봉내미고개	127
버드골	150	봉데미고개	127
버드나무자리	38	봉바위	134 · 196
버루수골	212	봉바위산	123
버리얏골	87	봉수지	286
버팀바위	256	봉숨아골	244
번개들	38	봉암약수터	127
번개바위	286	봉우재	15
번전들	140	봉우재산	17
별달	21 · 49 · 94 · 231 · 311	봉화대	81
별판개울	226	봉화독	68
별판밭	263	봉화재	17
범답논	111	봉화터	279
범대미	134	부개미	131
범바위	123 · 219 · 243 · 304	부개미고개	134
범바위골	219	부군터	227
범바위산	219	부당골약수터	220
범박골	226	부도골	153
범상골	212	부마산소	117
범울산	243	부석골	76
벼락맞은골	140	부엉데미	132
벼락바위	127 · 140 · 220	부엉데미고개	134
벽장골	163	부영바위	76 · 123 · 196
벽장바위	123	부영이묘	263
병막골	60	부채바위	87
병목아지	304	부채박골	87
병문밖	33	부처재	310
병양갈논	263	부초당	212
병풍바위	67 · 117 · 134 · 314	부흥골	140
보개논	227	복구리	158
보곳자리	76	복동산	183
보막동	222	복등우리	196
복구동	304	복바위	212
복구바위	60	복적골	292

북촌	265	사마발골	111
분두골	76	사발논	17
분박골	48	사복자리는	227
분턱골	251	사삼부대앞	71
분투골	268	사슴벌들	87
불곡산	61	사시나무골	292
불당골	15 · 17 · 23 · 43 · 61 87 · 227 · 244 · 256	사장골	82
불당터골	156	사직골	57 · 61
붉은고개	292	사창앞자리	38
비냥	111	사태밀	251
비둘기장골	292	사터산소골	140
비랭이	151	사패산	293
비룡천	187	사흘가리	52
비석거리	71 · 73 · 169	산골고개	117
비석굴	124	산골부락	115
비석바위	97	산골샘	18
비선말	215	산대동	79
비암장터	212	산밀	311
비암천	212	산서	307
빈골재산	61	산성	244
빈장벌	175	산성동	65
빗돌대왕 비	156	산성마을	57
빗집바위	227	산소골	52
빼논	219	산수완	135
뽕죽봉	52	산신각	299
사거리	115	산앞샷갓벌	263
사거리고개	117	산장등	268
사곡동	92	산제당	82
사귀	21	산제사터	140
사기막골	23 · 48 · 82	산제터	68
사기점골	292	산지터골	111
사냥골	140	살구골	137
사당골	275	살구골못	141
사당집터	99	살구대이	135
사릉고개	34	살구쟁이들	135
사리산	151	살목	132
사리암	151	살푸쟁이	199
		살푸정	202

삼가대	94	상촌	79
삼거리	73	상투바위	61
삼동바위	244	상투봉	244
삼바골	78 · 128 · 209	상하터	107
삼박골	215	새고개	169
삼밭골	256	새굴	51
삼밭들	137	새낭골	141 · 196
삼송교	97	새낭굴	193
삼조계	124	새논머리	220
삼폭포	293	새능	179
삼현고개	206	새두돌기	92
삼형제바위	34 · 263 · 268	새말	115 · 316
삼형제봉	92 · 212	새말고개	117
삼호원	68	새산산	123
삼사동	85	새장골	31
삿갓마을	222	새축논	128
삿갓바위	196	새치골등	279
삿갓봉	227	새터	15
삿갓지고개	227	새터마을	125
상가래	31	색시바위	135
상가래벌	34	샘골	107
상구너미	263	샘내고개	82
상나무자리	38	샘논	196
상다리	173	샘뜰	135
상동	98	샘말	247
상보	318	샘웅덩이	97
상봉	61 · 165	셋고개	318
상부곡	297	셋고래	256
상삼동	94	셋골	31 · 82 · 283
상수물	85	셋골말 등생이밭	52
상신촌	115	셋말	173 · 193 · 253
상여바위	196	서낭고개	117
상원덕	223	서낭당고개	244
상장미	271	서내비	132
상장산	286	서내울	161
상정리	275	서늬굴고개	151
상제바위	82	서늬재	156
상청다리	61	서담골	27

서덕바위	135	성구암	213
서도리	121	성너머	71
서돌	244	성능	141
서릿굴	314	성바위	92
서울고개	87 · 111	성재	65
서울놈의 묘등	97	성적굴	48
서원말	125	성황당	18 · 233
서재고래	29	성황당고개	99
서재말	27	성황덩이	263
석곡	279	성황제단지	62
석골	277	세귀배미	245
석굴암	286	세배미	141
석문이고개	34	세오개고개	128
석죽거리	135	새우개	203
석원폭포	304	세집매	107
선너바위	34	소귀고개	287
선너탕	29	소뜸물	48
선너폭포	293	소란발	128
선돌고개	117	소래개울	111
선돌바위	118	소래다리	111
선동	62	소래부락	107
선바위	206 · 299 · 304	소래산	111
선반배미	202	소막골논	111
선샘바지논	44	소머리고개	300
선위봉	206	소무덤	38
선유동	57 · 153	소물논	275
선유동천 바위	62	소반창	85
선일재	187	소북뜰	245
선현	135	소새고개	279
설마치고개	156	소증골	318
설인귀 굴	156	속웃논배미	202
섬말	231 · 253	솔따배기고개	62
섬밭	197	숨물	202
섬샘논	275	송가골	233
섬역골	47	송구래미	209
섯밭벌	29	송낭리	89
성가마골	213	송논	118
성계굴	310	송암사	293

송장골	62 · 304	선패랭이굴	187
송천정사 터	293	혈바위	263
송촌	132	슈우는	52
송촌말	231	스므나무거리	111
송추골	288	승금재	118
송추폭포	293	승래장터	29
송충들	251	승방모퉁이	125
쇠골	187	승저골	163
쇠논고래	163	승지동 약수터	165
쇠망토산	268	승학	62
쇠북재고개	263	승학교	62
쇠밭등	310	승학연류	63
쇠빨바위	245	시루개	68
쇠스랑골	87	시루떡밭골	112
쇠우계	209	시루봉	63 · 245
쇠쟁이고개	213	시뭇골	285
수낭골	39	시우는	93
수낭골고개	44	시은뱀이	220
수령논	251	식목소	63
수령자리들	78	식목수들	118
수령장	44	식혜배미	251
수레내미고개	220	신점발내	23
수리바위	68	신내	108
수리봉	78 · 304	신내다리	23 · 112
수리치골	294	신내벌	24
수월사	156	신내저수지	112
수자골	207	신방마을	125
수작골	68	신사래	231
수정바위	18	선선바위	118
수정산	18	신성말	71
수회동	311	신암웅뎡이	18
술막거리	173 · 285	신암저수지	157
숨물	164	신주바위	304
숫돌모루	39	신지	253
송논고래	123	신지고개	256
쉬골논	39	신지고개논	256
쉬은배미	220	신천	151
원마지기벌	23	신촌	205 · 223 · 239

- 신촌말37 · 47
 신촌부락108
 심목수다리73
 쌍감팽이275
 쑥거물215
 아기낭굴169
 아래피음209
 아래셋말307
 아랫가래비259
 아랫광릉말199
 아랫넉바위85
 아랫뜰논251
 아랫마을15 · 21 · 149
 아랫말79 · 98 · 132
 253 · 288 · 297
 아랫소래108
 아벌린산157
 아육골128
 아차산24
 아홉배미108
 악대산112
 안고령277
 안골47 · 141 · 265 · 297
 안능안193
 안돌고개301
 안동네289
 안릉82
 안리자197
 안말173 · 194 · 215 · 223 · 307
 안목은논이108
 안불당68
 안비석거리71
 안산183 · 207 · 257 · 268
 안세오개205
 안우물275
 안장바위63 · 97 · 202 · 294
 안정밭227
 안태울215
 안터181
 안터골44
 안통안이173
 안현리골29
 안흥리고개128
 암매너머74
 암수바위135
 앞고래논34
 앞골논245
 앞논171
 앞산49
 앞자리141
 앞자리논49 · 257 · 280
 애경바위141
 애금바위141
 애기수바위213
 애기암141
 애비당골268
 애업은바위34
 앵두논263
 앵무봉305
 약물터87 · 227
 약물터 골짜기197
 약수터18 · 49 · 142 · 257
 약수터절257
 양가메이뿌리251
 양가쇠245
 양주골215
 양지뜰245
 양지말199 · 259
 양지편125 · 316
 양짓말37 · 47 · 75 · 79 · 94 · 132
 137 · 153 · 173 · 313
 양천개245
 양천개다리245
 양천개울245
 양촌253
 양태울고개163

어두니고개	213	연평들	271
어둔산	21	연평뜰	275
어랑골	88	영굴고개	88
어룡	257	오구터	167
어사대비	63	오금동	125
어이싸고개	29	오리골	37 · 89 · 137
어차고개	34	오리혈	197
어형재	187	오림가리	223
언굴고개	207	오미들	175
언덕말	149	오방갈림	294
언두간별	24	오백낭뜰논	52
언터겅논	264	오병사집터	220
언터겅밭	264	오봉	289
언턱가리	264	오봉산	287
엄띠지기	68	오봉절터	294
엄상골	40	오산삼거리	246
엄태뜰	169	오서리바위	300
에게수 골짜기	213	오소산	288
에너머	123	오얏골	289
여내별	183	오양골	93
여사위	68	옥배미	99
여수바위	39	옥산	177
여우고개	73 · 123	옥살미	246
여우골	18 · 29 · 122 · 197 · 247	옥수뜰	297
여우내별	128	옥터밭	63
여우는	118 · 252	온릉	310
여우바위	78 · 310	온물	167
여우뱃	314	온천	187
여우방굴	197	움너머산	128
여자바위	213	웅안리등	264
여호암	227	웅안리 앞골	252
역두리	264	웅안이	247
역말	173	웅주산소	300
역전	313	웃물	39
연못배미	29 · 202	웃우물	128 · 163 · 197
연무봉	78	와우고개	268
연애별	128	와평동	65
연지	151	왕가뜰	39

왕대골	135	올대고개	294
왕대우물	202	올밀논	280
왕박골	167	웃고장	40
왕십리골	44	웃고장말	239
왜골절터	64	웃골	52
왜둔지	24	웃골안	275
왓골고개	294	웃광흥말	201
왓둔지	78	웃괴음	209
앵골	160	웃넉바위	85
외논머리	128	웃말	108 · 122 · 161 · 273
외미	71	웃말논	257
외미논	118	웃새말	307
외배미논	257	웃소래	108
외촌	108	웃신앙골	153
원골	179	웅덩자리논	228
요강골	268	원골	57
요강바위	207	원당골	305
요당골	187	원대부락	108
용각골	95	원랭이	184 · 301
용고개	29	원덕	223
용구바위	288	원모루	57
용못	257 · 294	원밀고개	35
용무골	257 · 289	원터	128 · 157
용바위	112 · 164 · 181 · 305	원터고개	129
용바위고개	183	원학동	85
용의 머리	176	월계논	136
용의 우물	207	월계부락	132
용의 허리	252	월덕보	24
우골	205	월암산	269
우골고개	207	월촌	253
우굴 개울	202	월출봉	228
우러리	215	윗가래비	259
우묵골	52	윗마을	16 · 47
우물고개	314	윗말	231 · 253 · 289
우물너머	313	유각골	315
우산	39	유양팔경	64
우산동	37	육골고개	269
울대	289	울량천	233

으악고개	97	자작고개	39 · 207 · 213
은개포	184	자작골	207
은골	16	자지봉	221
은구멍이	294	작고개	69
은구멍이굴	280	작은개	202
은독안	24	작은고개	29
은독안보	24	작은편골	69
은봉산	264	작은나굴	301
은서말논	202	작은덕고개	93
은행정	298	작은독박골	295
음지말	201	작은산대	81
음짓말	153	작은새굴	285
읍내말	81	작은안터	181
응개다리	24	작은오미	249
응달밭	37 · 75 · 132 · 137 259 · 285 · 289	작은 작고개	69
응달편	307	작은질맞이	69
이당골	82	작은테미	88
이대장집	142	작은항골	69
이무기골	301	잔나무들	276
이무기굴	129	잔디계논	142
이산소굴	142	잔오금	295
이산소터	142	잠두	315
이안동	285	잣골	157
이촌마을	57	잣나무골	64
이터	164	장거리	93 · 101
인적골	164	장고개	164
일영봉	311	장골	298
일짜굴	298	장구논	228
일짜굴고개	300	장구배미	29 · 197
임간리	181	장구재	167
임계집너머밭	165	장구재고개	221
임성골	68	장군봉	305
입암	177	장내말	298
자라등밭	276	장림고개	29
자라등뿌리	276	장마당	16
자라바위는	69	장바고개	233
자빠진골	295	장박고개	228
		장박골	18

- 장밭179
장밭벌123
장부고개198
장사바위93 · 97
장석바위136
장성이별183
장수들201
장수밭자국305
장승거리82
장승모루30
장승백이들213
장안터246
장자나무절터97
장자우물269
장자울모퉁이44
장자원313
장자터18
장재울44
장춘동75
장터거리49
장터마을194
장포동313
장꽃동285
재강고개315
재궁동313
재래미112
재장나무자리논276
잼밭273
잼밭우물276
쟁굴315
전능내315
절굴93 · 112 · 164
 179 · 183 · 207 · 213
 257 · 280 · 305 · 309
절굴78 · 295
절굴고개78
절안318
절안산318
절음막들은252
절터49 · 69 · 198 · 228 · 257
절터골73 · 119 · 123
 142 · 151 · 300
절터본대기315
점밭153
점미산228
점터30
점토밭213
점사리골221
정가마골298
정굴276
정기터198
정바위215
정바위개울221
정승골169
정양터252
정자동109 · 313
정자들315
정주당78
정터273
재비바위164
젯상바위295
조개새굴300
조골22
조산모퉁이176
좁먹은 바위198
종래봉300
죄병수들44
주라벌24
주랍뜰288
주리골277
주막거리153 · 217
주원터40
주촌말223
중간마을16
중간말174 · 184 · 239
중고개79
중동98
중뜰280

중량천	82	쪽박고개	228
중말	75 · 89	쪽박골	31 · 223
중미고개	305	쪽박골 밭	228
중상골	44	쪽박골 우물	228
중애논	171	쪽박산	136
중주골	180	찬우물	24 · 83 · 112 · 119
지개울	303	참나무모퉁이	113
지계동	98	참봉산소	69
지령산	276	참수물	30 · 37
지리내미고개	167	창말	249
지방바위	79	채터	180
지붕바위	318	챤봉	258 · 300
지석자리들	79	천낭바위	246
지섬	201	천년묵은 나무	152
지오리	161	천보사절터	97
지장개골	57 · 64	천태동	209
지장골	18	철망안	269
지청말	149	청담이	40
지치골	35	청려골	246
지터곳	151	청룡고개	207
진개장	203	청룡끝	167
진고개	69	청룡뿌리	221
진골	112 · 142 · 246	청방골	64
진골산	112	청베미뜰	52
진등	69	청엽골	83
진밭돌	19	청엽골고개	83
진배동산	269	청용뿌리밭	276
진재고래	136	청풍동	24
진터	119	추교	198
진터벌	112	축동	269
진뜰	264	축동밖	194
진뜰다리	264	축동안	194
진흙벌	73	축등	252
질목다리	269	축석령고개	93
집너머	269	치마바위	25 · 35 · 288
집터골	136	치울고개	214
징박골	19	척박골논	44
쪽다리	88	칠봉산	25
쪽도리웅덩이	74	칠성바위	157

- 철송장152
 칼바위280
 코끼리무덤113
 코끼리바위315
 큰검은바위26
 큰골69 · 113 · 142 · 171
 198 · 203 · 258 · 305
 큰골산113
 큰골지붕119
 큰편골69
 큰구리160
 큰다래덤불142
 큰다리39 · 180
 큰독박골295
 큰뽕바위198
 큰바위등98
 큰바위등물98
 큰배미142
 큰보26
 큰보는30
 큰산대81
 큰안터181
 큰오미249
 큰자리들214
 큰질맞이70
 큰데미88
 큰황새골83
 타래달22
 탁고개88
 탑골35 · 51 · 70
 142 · 157 · 207
 탑골고개208
 태봉19 · 45 · 176 · 295
 태봉산129 · 142
 태약산184
 터골180
 터못계125
 턱골277
 턱골고개258
 턱골고개228 · 264
 텃골고개136
 토갱이203
 토다리298
 토성74 · 152
 토성너머270
 통수골205
 통안리174
 통안이169
 통안이고개228
 파리봉26 · 39
 팔매고개157
 팔매바위157
 팔일봉280
 팔학골315
 팔죽할머니 묘152
 평풍바위187 · 305
 포창지64
 폭포동185 · 289
 풀무골231
 피고개228
 피난골143
 피난말271
 피오개논221
 평구말58
 평구재65
 하누재188
 하마비129
 하마청152
 하마청 거리58
 하삼동95
 하신촌115
 하원덕223
 학교개70
 학곡65
 학교앞115
 학무재124
 학보루47
 한강봉264
 한거름205
 한두골45

한림암	176	홀짝골	289
한배미	143	홍감사등	124
한새미	181	홍골	71 · 267
한섬지기	276	홍골고개	214
한섬지기는	70	홍문거리	58 · 101
한우동독	113	홍북	253
한우물	93 · 270	홍북고개	70 · 258
한터고개	221	홍북산	258
할딱고개	246 · 270	홍삼산	124
함경도고개	101	홍실릉	113
함박다리	270	화개	280
함방뒤고개	119	화개골짜기못	280
함방비산	119	화장골	295
함정머리	309	화초고개	184
함지박골	143	활터고개	119 · 221 · 270
함촌말	65	황골	137
항골	70	황막골	22
항아뜰	246	황새고개	198
해당골머리	83	황새논	252
해뜨기골	88	황새등	208
해룡뽀다지	295	황새등고개	203
해몰이산	270	황새말	160
햇모뽀랭이	229	황씨촌	71
향교말	58	황재배미	265
향자등	276	황정자	101
현수령	88	회나무골	184
현집터	270	회내미	217
혈떡고개	214	회만동	89
형제봉	306	회미기	52
형제우물	276	회암령	30
혜매기	198	회암사지	30
호랑바위	188	효가동	205
호랑이굴	98	효계울	217
호랑이바위	19	흑구모루	132
호명산	258	흑구자뿌리	30
호선왕계	306	흔덕골	194
흔두리	264	흔들바위	119
홀거리	143	홀구멍이	265
홀짝고개	98 · 124 · 229	홀다리	149

후 기

사람에게 인명이 있는 것 처럼 땅에는 地名이 있다. 우리 조상들은 이 땅에 정착하여 생활하면서 곳곳에 알맞는 지명을 정하고 이를 일상 생활 속에서 써 왔다. 그러므로 지명에는 우리 조상의 사고와 생활상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지명과 그 유래를 조사하는 작업은 우리 歷史·地理·風習·言語研究의 出發點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역사학을 전공하는 이달호 선생과 필자가 양주군청으로부터 地名 由來 조사 작업을 의뢰 받고 수락한 것도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었다.

양주군청에서 이 작업에 착수한 것은 1991년 초부터였으나, 조사 작업을 주관할 전문 요원이 없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1992년에 들어 필자가 이 작업을 맡게 되었다. 대학생 조사원들을 각 마을에 보내, 촌로 및 이장들을 대상으로 면담 조사를 하는 한편, 양주군 내 22개 초·중·고등학교의 협조를 얻어 전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양주군 전체 가구 수 2만 3천여 호의 반에 해당하는 1만 2,450장의 설문지가 배포되었고, 8,715부가 회수되었다. 이로써 기초 자료 조사는 충실히 이루어진 셈이다.

그런데 수집된 지명 자료의 상당 부분이 상충되어 있어, 정리에 큰 어려움을 주었다. 그래서 재 조사를 실시해 이를 확인하였으나, 그래도 의문으로 남는 부분은 각 리의 원로들로 구성된 감수위원들의 감수를 받아 수록 내용을 확정하였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철저히 감수해 주신 감수위원 여러분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 드린다.

돌이켜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적지않은 분들의 열의와 노고가 있었기에 이 한 권의 책자가 나올 수 있었다. 먼저 『楊州의 地名由來』 발간의 의미를 이해해 주시고, 자료 조사에 협조해준 양주 군민들에게 감사 드린다. 그리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몰심 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우종오 군수께 감사 드린다. 이 분의 추진력이 있었기에 지명유래집이 발간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명 유래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책자의 발간을 발의한 하영수 전임 군수께도 감사 드린다. 아울러 김혜한 군의회 의장과 임승춘 부군수, 조태훈 양주문화원장, 양주군

청 문화공보실 이해주 실장, 김진길·이종호 전임 실장, 문화관광계 권이봉 계장과 홍재룡·한태석 전임 계장, 지도를 제작한 문화공보실 안종천 선생, 자료 조사에 협조해 준 편찬위원과 동두천 교육청 송응태 장학사, 각 마을을 다니며 주민과의 면담 조사를 실시한 김정섭 군을 포함한 대학생 조사원들, 이 모든 분들의 뒷받침과 열의는 책 발간에 큰 힘이 되었다.

또한 사업 발의 단계에서부터 책이 간행될 때까지 자료 조사를 포함하여 제반 실무를 맡아 추진한 문화공보실 조용태 선생, 수집된 자료를 정리하고 원고의 많은 부분을 집필한 이달호 선생, 이 두 분의 노력이 있었기에 『楊州의 地名由來』 편찬이 가능하였다는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아울러 초고 상태에서 교열에 참여하여 문장을 다듬고, 내용을 보완해 준 주혁·최선욱선생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책의 출판을 앞두고 두려움이 앞선다.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된다. 많은 분들의 질책을 기다릴 뿐이다.

1993년 2월

양주군 지명유래집 편찬추진위원회 상임위원 강진갑

揚州の地名由来

1993年 2月 15 印刷

1993年 2月 20 發行

發行處：揚州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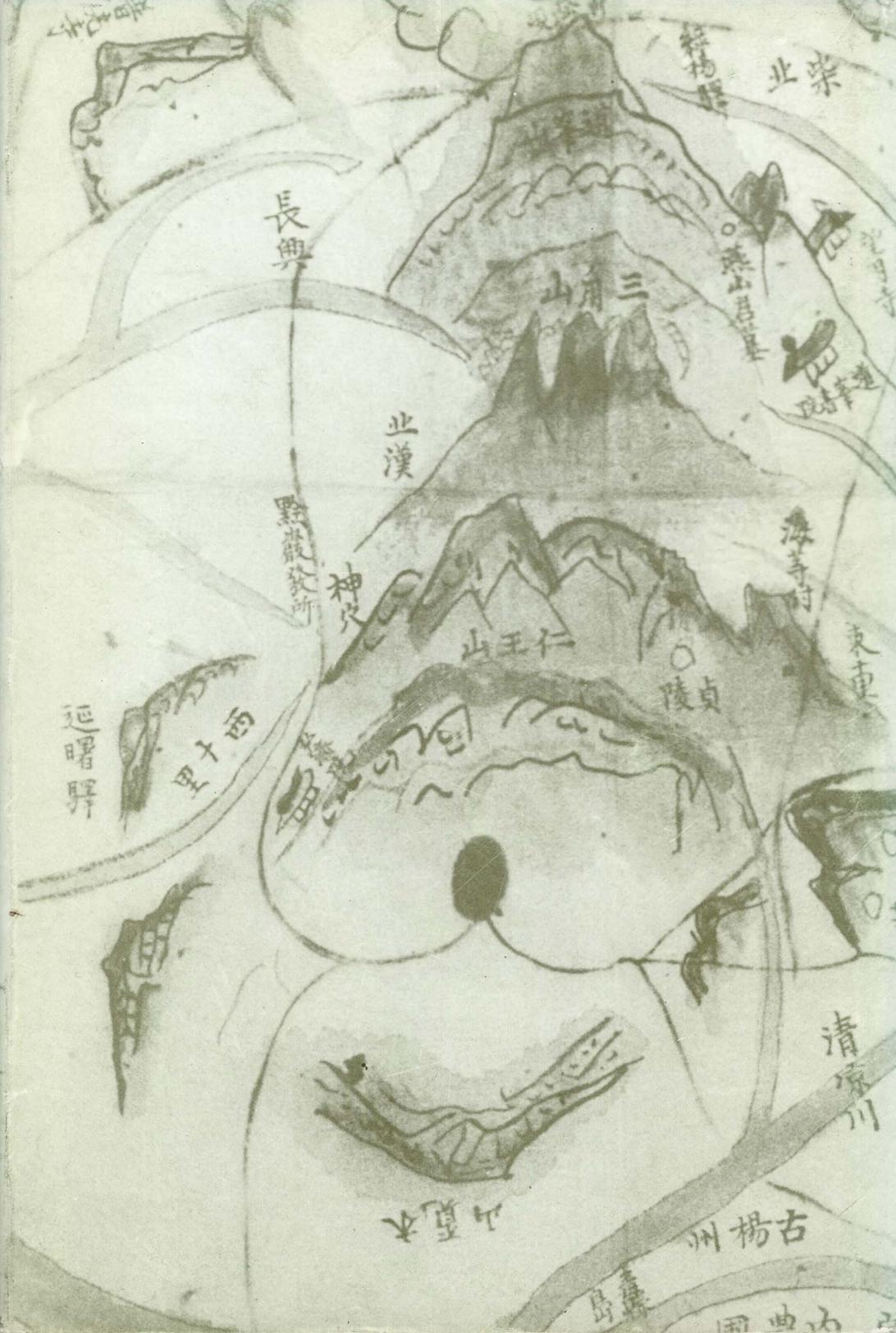
印 刷：新友印刷(株)

737-7151

〈非 賣 品〉







北崇

經木

長興

三峰山

燕山

北漢

海寺

神店

仁王山

貞陵

東東

延曙驛

十里

清涼川

山麓木

古楊州

島嶼

內曲國